

2010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추계 國際學術會議

# 1763年 癸未 通信使行과 東亞細亞 文化 接觸

日時\_ 2010年 9月 10日 09:00~18:30

場所\_ 漢陽大學校 人文館 205室



주최: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HYU 동아시아문화네트워크 연구단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문화연구소  
Institute for East Asian Cultures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추계 國際學術會議 日程

主題： 1763年 癸未 通信使行과 東亞細亞 文化 接觸

2010年 9月 10日

漢陽大學 人文館 205室

09:00-09:50 登錄

09:50-10:00 開會辭 (吳秀卿 동아시아문화연구소장)

□ 午前 發表 및 討論

司會：崔亨旭 (漢陽大)

10:00-10:40 鄭珉(漢陽大) 李彦瑱과 日本文士の 王世貞 관련 筆談

討論：陳在教(成均館大)

10:40-11:20 池內敏(名古屋大) 癸未通信使의 通譯들

討論：韓泰文(釜山大)

11:20-12:00 具智賢(延世大) 1763年 通信使行과 筆談唱和 記錄

討論：矢野尊義(世宗大)

□ 午餐 (12:00-13:30) HIT H-CLUB & 生活科學館 7層 教授食堂

□ 午後 一次 發表 및 討論

司會：李勝洙(漢陽大)

13:30-14:10 李弘湜(漢陽大) 癸未通信使行으로 바라본 韓日 關係의 變化 探索

討論：金亨泰(延世大)

14:10-14:50 高橋博已(金城學院大) 洪大容 · 李德懋 의 프리즘을 통해 본 日本의 文雅

討論：安大會(成均館大)

□ 中間休息 (14:50-15:00)

□ 午後 二次 發表 및 討論

司會：李勝洙(漢陽大)

15:00-15:40 仲尾宏(京都造形藝術大) 篆刻家 沢田東江와 《多胡碑》의 傳播

討論：吳正嵐(南京大)

15:40-16:20 金聲振(釜山大) 癸未使行團의 大坂滯留와 大典禪師 竺常

討論：申翼澈(韓中研)

16:20-17:00 鄭恩主(韓中研) 癸未(1763) 通信使行 關聯 繪畫 研究

討論：劉順英(弘益大)

□ 中間休息 (17:00-17:10)

□ 綜合討論 (17:10-18:30)

司會：吳秀卿(漢陽大)

□ 閉會 (18:30)

## 목 차

李彦瑱과 日本文士の 王世貞 관련 筆談 / 鄭珉(漢陽大)	1
討論: 陳在教(成均館大)	
癸未通信使의 通譯들 / 池內敏(名古屋大)	24
討論: 韓泰文(釜山大)	
1763年 通信使行과 筆談唱和 記錄 / 具智賢(延世大)	46
討論: 矢野尊義(世宗大)	
癸未通信使行으로 바라본 韓日 關係의 變化 探索 / 李弘湜(漢陽大)	61
討論: 金亨泰(延世大)	
洪大容·李德懋 의 프리즘을 통해 본 日本의 文雅 / 高橋博已(金城學院大)	80
討論: 安大會(成均館大)	
篆刻家 沢田東江와 《多胡碑》의 傳播 / 仲尾宏(京都造形藝術大)	94
討論: 吳正嵐(南京大)	
1763年 癸未使行團의 大坂滯留와 大典禪師 竺常 / 金聲振(釜山大)	120
討論: 申翼澈(韓中研)	
癸未(1763) 通信使行 關聯 繪畫 研究 / 鄭恩主(韓中研)	143
討論: 劉順英(弘益大)	

## 1763年 癸未 通信使行斗 東亞細亞 文化 接觸

(午前 發表 및 討論)

司會: 崔亨旭(漢陽大)

◇ 鄭 珉(漢陽大)

李彦瑱斗 日本文士の 王世貞 관련 筆談 / 討論: 陳在教(成均館大)

◇ 池內敏(名古屋大)

癸未信使の通訳たち・ノート

癸未通信使의 通譯들 / 討論: 韓泰文(釜山大)

◇ 具智賢(延世大)

1763年 通信使行斗 筆談唱和 記錄 / 討論: 矢野尊義(世宗大)

# 李彦瑱과 日本文士の 王世貞 關聯筆談

鄭 珉(漢陽大 國文科)

- I. 序 論
- II. 癸未使行과 李彦瑱
- III. 日本 文士와의 筆談 分析
- IV. 남는 문제

## I. 序 論

이 글은 1763년 癸未使行에서 독특한 행보를 보인 李彦瑱(1740-1766)과 일본 문사와의 필담을 王世貞 관련 문답에 집중하여 살펴보려한다. 당시까지 조선에서 평가 받지 못한 王世貞이 왜 갑자기 화제의 중심에 섰는가? 李彦瑱의 王世貞 관련 언급에 어째서 일본 문사들이 큰 관심을 보였을까? 이에 대한 조선 문인의 반응은 어땠나? 이런 물음들이 본고에서 검토하려는 내용이다.

李彦瑱의 필담에 대해 필자는 앞서 발표한 논고가 있다.<sup>1)</sup> 劉維翰의 『東槎餘談』에 수록된 필담 내용을 王世貞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후 高橋博已 교수가 계미 사행 당시 일본 측 필담자료에 나오는 李彦瑱 관련 자료를 여럿 소개하고, 이어 구지현이 『松庵筆語』에 나오는 관련 필담 자료를 분석하였다.<sup>2)</sup> 이제 이들 자료를 포함하여 논의를 조금 확대하고, 그 의미를 더 음미해볼 필요를 느낀다. 본고가 李彦瑱 문학의 정체성 파악을 심화하고, 한일 문사 필담 자료의 層節을 이해하는데 작은 보탬이 있기를 기대한다.

## II. 癸未使行과 李彦瑱

李彦瑱은 남인 문단의 主將 李用休에서 시를 배웠다. 어떤 사람이 李彦瑱의 재능을 묻자, 李用休는 손바닥으로 벽을 문지르며 말했다. “벽을 어찌 걸어서 건널 수 있겠는가? 그는 이 벽과 같네.”<sup>3)</sup> 李彦瑱의 자부 또한 남달랐다. “세상에 알려짐을 구하지 않았다. 알만할 사람

1) 정민, 「『東槎餘談』에 실린 이언진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제 32집(한국한문학회, 2003. 12), 87-123쪽.

2) 高橋博已, 「李彦瑱의 橫顔」(한국18세기학회 제 12차 학술발표회, 2005, 5.14) 발표문 및 자료와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연구』(보고사, 2006), 287-301쪽 참조.

3) 李德懋, 『淸脾錄』: “惠寔洞洗凡陋, 別具靈異, 橫豎今昔, 眼珠如月, 幾乎東方, 無一操觚摘翰者, 獨深許虞裳, 心

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을 이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신을 이길만한 사람이 없었던 까닭이다.”<sup>4)</sup> 李用休가 그를 두고 한 말이다.

문단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진 것은 24세 때인 1763년 일본통신사행에 참여하고 돌아온 이후다. 朴趾源은 「虞裳傳」에서 이렇게 적었다. “虞裳은 일개 역관이다. 국내에 있을 때는 聲譽가 마을을 벗어나지 못했고, 사대부가 그 얼굴을 알지 못했다. 하루 아침에 이름이 바다 밖 만리의 나라에 떨쳐 빛나고, 몸은 鯤魚과 고래, 용과 자라의 집안을 뒤흔들었다.”<sup>5)</sup>

그가 일본으로 떠날 때 스승 李用休는 그에게 다섯 수의 송별시를 써주었다.<sup>6)</sup> 이 중에 “한 자루의 닭털 붓으로 삼한을 무겁게 만들려 하네. 一枝鷄毛筆, 欲爲三韓重”란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앞선 두 차례의 연행 참여 때와는 달리, 통신사행에 임하는 그의 각오가 남달랐음을 짐작케 한다. 사행단은 불순한 日氣로 인해 壹岐島에 여러 날 머물렀다. 마침 큰 바람이 불자 正使 趙曦를 비롯한 三使가 「東征」聯句를 짓고, 元重舉 등도 一卜船에 모여 운자를 뽑아 「大風」시 80구를 지은 일이 있었다. 1763년 11월 22일과 24일의 일이다. 당시 이 자리에 끼지 못한 李彦瑱은 11월 25일 48운 96구에 달하는 장시 「海覽篇」을 지었다. 며칠 뒤인 12월 1일에는 「海覽編」과 「長短句 并序」 등 古詩 2편을 소매에서 꺼내 좌중에 보이며 평을 청했다.<sup>7)</sup> 좌중은 일개 역관에 불과한 그의 시재를 보고 비로소 모두 놀랐다. 南玉은 자신의 일기에서 ‘淹博藻燦, 眞當世奇才’라 하며 그를 진흙 속의 연꽃에 견주었고, 元重舉는 ‘體不雅正’의 단서를 달아 ‘弔詭炫煌’하다는 평을 남겼다.<sup>8)</sup>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사행단 내부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렸다. 「海覽編」과 같은 작품은 일본의 진기한 풍물을 해박한 전거에 담았는데, 출국 전에 이미 상당한 준비가 있었던 듯하다. 朴趾源은 「虞裳傳」에서 李彦瑱에 대한 일본내 평가를 이렇게 부연했다. “虞裳은 한어의 통역관으로 수행하여 홀로 문장으로 일본에 큰 명성을 날렸다. 이름난 중과 귀인이 모두 雲我先生은 겨를 짝이 없는 國士라 일컬었다. 오사카 동쪽으로는 중들이 기생 처럼 많고 절집은 여관 같았다. 내기하듯이 시문을 재촉하며 수놓은 종지와 그림 그린 시축을 책상 위에 잔뜩 쌓아놓고, 어려운 제목과 억센 운자를 내어 궁지에 몰려 하는 듯이 했다. 虞裳은 매번 그 자리에서 읊조렸는데 마치 진작부터 구상해 둔 것을 외우는 것처럼 했다. 압운은 평탄하고 타당하며 자연스러웠다. 자리가 파해도 피곤한 기색이나 여린 표현이

無間然. 人或問虞裳之藝, 惠賓輒以掌摩壁曰: “壁豈可步涉哉? 虞裳猶壁也”(『한국문집총간』 252책 490면.)

4) 李用休, 「松穆館集序」, 『松穆館燼餘稿』(총간 252책 487면): “不求知於世, 以世無能知者, 不求勝於人, 以人無足勝者.”

5) 朴趾源, 「虞裳傳」, 『松穆館燼餘稿』(총간 252책 489면): “虞裳一譯官, 居國中, 聲譽不出里閭, 衣冠不識面目. 一朝, 名震耀海外萬里之國, 身傾側鯤鯨龍鼉之家.”

6) 詩題는 「送李君虞裳隨通信使入日本」 5수로 『해환시집』에 수록되어 있다. 조남권 박동욱 옮김, 『해환 이유희 시전집』(소명출판, 2002), 82면 수록.

7) 元重舉, 「乘槎錄」 12월 1일 일기: “其海覽篇長短句并序古詩兩篇求評袖來, 傳玩於座中, 朱評以還, 儘奇才. 題以海覽, 不能不據險, 而大抵體不雅正. 然其弔詭炫煌, 若將方武明賢. 人有如此才, 而屈首靚象, 惜哉.”

8) 전후의 정황은 강순애 외, 『虞裳剩馥, 천재시인 李彦瑱의 글향기』(아세아문화사, 2008)에 수록된 허경진, 「虞裳剩馥에 실린 海覽編의 가치와 문집 편찬과정에 대하여」에 자세하다. 허경진은 「海覽編」과 「長短句 并序」를 한 작품으로 보았다. 현재 남은 「海覽編」은 5언고시여서 장단구가 아니고, 병서도 없으므로 별도의 다른 작품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문집에는 장단구에 병서를 갖춘 고시가 없다. 본인이 나중에 산삭했거나, 장단구를 제언체로 개작한 듯 하다. 병서가 있는 작품은 5언율시 첫머리에 실린 「痔臥壹岐島舟中.....」 12수다.

없었다.”<sup>9)</sup>

이후 그는 일본 문사와의 필담을 통해 더욱 높은 인정을 받았다. 특히 王世貞 관련 필담은 통신사행 내에서도 그의 위치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뒷절에서 따로 검토하겠다.

귀국 후 李彦瑱은 일본에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여러 대가들에게 자신의 시문을 보내 인정을 받으려 했던 듯하다. 몇 해 전 공개된 『虞裳剩馥』집에 실린 친필 「海覽編」에는 李用休의 靑批와 南玉의 朱批가 표시되었다. 그런데 사행시 동행한 南玉의 주비가 李用休의 청비 위에 찍혀 있다. 귀국 후 「海覽編」을 스승인 李用休에게 보여 청비를 받은 뒤 南玉의 주비를 다시 청한 것이다.<sup>10)</sup> 元重學의 『乘槎錄』 중 12월 1일 일기에 “其海覽篇長短句并序古詩兩篇求評袖來，傳玩於座中，朱評以還。”이라 한 것을 보면, 이미 일기도 배 안에서 朱評을 달아 돌려준 것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별본을 다시 만들어 귀국 후에 다시 두 사람의 비점을 받았다. 이밖에도 朴趾源의 「虞裳傳」에 李彦瑱이 자신의 시를 사람을 시켜 여러 번 보여주면서 이 사람만은 능히 나를 알아줄 거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일본에서 얻은 자신감에서 발로한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朴趾源은 그의 재주를 아끼면서도 날리는 기운을 짐짓 꺾으려고, 일부러 그를 격동시키는 언사를 써서 李彦瑱의 격분을 불렀다.<sup>11)</sup> 이 일이 李彦瑱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다.

『虞裳剩馥』에는 成大中에게 보낸 李彦瑱의 친필 간찰 5통이 실려 있다. 成大中은 병중의 李彦瑱에게 잇달아 일본에서 지은 시작품을 적어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李彦瑱은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면서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 첫 편지는 1766년 초에 쓴 것이다. 당시 李彦瑱은 큰 병을 앓아 낄이지 않는 통증을 호소했고, 成大中이 보내준 썩과 인삼약재를 복용했으며, 片脯 즉 육포가 먹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해 3월 29일에 세상을 떠났다.<sup>12)</sup> 편지의 사연을 통해 成大中이 李彦瑱의 詩軸 하나를 가져간 일이 확인된다. 『虞裳剩馥』은 成大中이 李彦瑱의 사후에 앞서 가져갔던 시축과 자신에게 보낸 편지를 한데 모아 묶은 것이다.<sup>13)</sup>

朴趾源의 무시하는 말에 격분했던 李彦瑱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작품 보이는 일을 극도로 꺼렸다. 역량으로 살피지 않고 신분으로 평가하는 기성 문단에

9) 朴趾源, 「虞裳전」, 『松穆館燼餘稿』(총간 252책 489면): “虞裳以漢語通官隨行，獨以文章，大鳴日本中。其名釋貴人，皆稱雲我先生，國士無雙也。大坂以東，僧如妓，寺刹如傳舍，責詩文如博進，繡牋花軸，堆床填案。而類爲難題強韻以窮之，虞裳每倉卒口占，如誦宿構，步押平妥從容，席散無罷色無軟詞。”

10) 『虞裳剩馥』집의 原本 印影은 강순애 외, 『虞裳剩馥, 천재시인 李彦瑱의 글향기』(아세아문화사, 2008) 뒤 편에 갈라로 수록되어 있다.

11) 朴趾源, 「虞裳전」: “余與虞裳，生不相識，然虞裳，數使示其詩曰：‘獨此子，庶能知吾。’余戲謂其人曰：‘此吳儂細唾，瑣瑣不足珍也。’虞裳怒曰：‘僂夫氣人。’久之歎曰：‘吾其久於世哉?’因泣數行下。余亦聞而悲之。既而虞裳死，年二十七。其家人，夢見仙子醉騎蒼鯨，黑雲下垂，虞裳披髮而隨之。良久虞裳死。或曰：‘虞裳仙去。’嗟乎! 余嘗內獨愛其才，然獨挫之，以爲虞裳年少，俛就道，可著書垂世也。乃今思之，虞裳必以余爲不足喜也。”

12) 李德懋의 『耳目口心書』에 成大中이 李德懋에게 李彦瑱의 부고를 전하면서 사망 일시를 알려준 내용이 나온다.

13) 李德懋의 『耳目口心書』(국역청장관전서 제 8책 183면)에 “成大中이 일찍이 하루에 세 번씩 사람을 보내서 문장을 구하니 언진이 감추고 허락하지 않았다. 끝에 가서 시 세 수를 종이 끝에 써 주었는데, 아직도 먹물 자욱이 새롭다”고 한 내용이 보인다. 李彦瑱이 적어준 세 수의 시는 『虞裳剩馥』에 실려 있는 「陸放翁」, 「弇園」, 「武后」를 가리킨다.

대한 환멸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成大中이 하루에 세 번씩이나 하인을 보내며 거듭 요청해도, 李彦瑱은 “小生之爲詩文, 不求知於人, 不求傳於世, 自娛而已”라하고 “雖一字, 豈更有出手理乎”라 하며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sup>14)</sup>

그가 죽자 여러 사람의 애도가 잇달았다. 李書九는 조선의 李長吉이 죽었는데, 살아 그를 만나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자책했고, 李德懋는 『칭비록』에 그의 작품 세계를 상세하게 정리하고 나서, “虞裳의 詩書氣는 상승하여 모든 것을 종합하였어도 넘치지 않으며, 은은하고 기묘하면서도 편벽되지 않았다. 현실을 초월하면서도 허황되지 않고, 제재를 가하였는데도 위축되지 않았으니, 요컨대 우리나라에는 이만한 이가 드물다.”고 적었다.<sup>15)</sup> 속으로 그를 아꼈으면서도 고의로 무시했던 朴趾源은 「虞裳전」을 지어 생전에 칭찬해주지 못한 미안함을 썼었다. 정황 상 그의 사망 즈음까지 그와 연결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은 成大中이다. 李彦瑱은 당대 대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내 인정을 갈급했지만, 객관적 평가를 얻지 못하고 끝내 좌절한 채 제 원고를 불 지르고 요절했다. 그는 천재였다. 이전까지의 문학 규율에 얽매이지 않았다. 과격적 시상과 대담한 시어, 기존의 시문법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실험까지 거침이 없었다.

### Ⅲ. 日本 文士와의 筆談 分析

이제 李彦瑱이 일본 체류 중 일본 문사들과 나눈 필담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高橋博巳 교수의 정리에 따르면 계미사행 당시 일본에 남은 필담 자료 중 李彦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자료는 龜井南冥의 『泱泱餘響』과 奧田尙齋의 『兩好餘話』, 宮瀨龍門의 『東槎餘談』와 今井松庵의 『松庵筆談』, 內山栗齋의 『栗齋探勝草』 附錄과 南川金溪의 『金溪雜話』 등 6종이다.<sup>16)</sup>

이들 중 李彦瑱과 처음 대화를 나눈 사람은 龜井南冥(1743-1814)이다. 통신사행은 1763년 12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 23일간 筑前州 藍島에 머물렀다. 龜井南冥은 字가 道哉로 당시 21세의 약관이였다. 젊은 나이에 詩名이 높아 賓館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우리 使行과 시문을 수창했다. 처음에 龜井南冥은 南玉, 成大中, 元重舉, 金인겸 등을 만났다. 이어 醫員인 慕菴 李佐國과 필담을 나누던 중, 시를 한 수 지어 보여주었다. 그러자 곁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李彦瑱이 붓을 들어 그 시에 화운하면서 둘 사이에 필담이 이루어졌다. 龜井南冥은 “與君一夜話, 勝讀十年書”의 구절로 반가움을 표시했다. 李彦瑱이 萬部書目錄에 대해 묻자, 南冥은 지난 해 長崎에서 한질이 17,000권에 달하는 『欽定古今圖書全書』를 본 일에 대해 말해 주었다. 『古今圖書集成』이 조선에는 1776년에야 처음 들어오는데, 일본에는 1762년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강남을 통해 직수입한 것이라 조선보다 빨랐다. 李彦瑱

14) 李彦瑱이 成大中에게 보낸 간찰의 원문과 풀이는 『虞裳剩馥』을 참조할 것.

15) 李德懋, 『淸脾錄』 권 3(국역청장관전서 제 7책 149면 참조.)

16) 이들 자료는 高橋博巳, 「李彦瑱의 橫顔」(한국18세기학회 제 12차 학술발표회, 2005, 5.14) 발표문에 제시되어 있다.

은 자신의 세 가지 소원이 天下奇書, 天下佳士와 天下名山水를 두루 보는 것이라며, 일본 佳士의 奇書 목록을 알려줄 것을 부탁한다. 南冥은 각 지역별로 출중한 문인 학자를 열거했다. 필담의 끝부분은 직접 인용하여 읽어본다.

虞裳：貴州에서 문장에 능한 이로는 누구를 으뜸으로 칩니까?

道哉：꽤 많지요. 하지만 蘿亭翁이 老鍊熟達로 일컬어집니다.

虞裳：蘿亭의 문장은 芳洲나 芝軒과는 어떻습니까?

道哉：芳洲의 글은 제가 일찍이 한 두 편 보았습니다만, 감춘 것이 있어 분명하게 工拙을 알지 못하겠더군요. 芝軒의 저서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虞裳：王弇州의 문장을 그대는 어찌 보십니까?

道哉：이는 明代의 우뚝한 인물로 後人の 모범입니다. 제가 십년간 뜻을 두어 노력해도 그 무늬 하나도 엿보지 못했으니 어찌 감히 논하겠습니까? 굳이 논하자면 문장이 崎嶇해서 敦厚한 맛은 드물더군요.<sup>17)</sup>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필담은 이 한 차례 뿐이었다. 虞裳이 芳洲와 芝軒 등 南冥도 미처 못 읽은 일본 문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대화의 말미에 그는 지나가는 말투로 王弇州, 즉 王世貞의 문장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고 슬쩍 물었다. 그러자 南冥은 자신이 감히 논할 바는 아니지만 崎嶇하되 敦厚한 맛이 적다고 대답했다. 둘 사이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龜井南冥은 당시에는 약관의 젊은이였지만 시문의 기세는 자못 도도했고, 후에 그는 별도의 학파를 이뤄 鎮西를 주름잡는 큰 학자가 되었다.<sup>18)</sup>

李彦瑱은 王世貞의 문장에 대해 무심한 척 물었다. 南冥과의 대화도 그가 곁에서 구경하다가 자청해서 끼어든 모양새다. 대화 중에 일본 문예의 동향과 뛰어난 문인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바람을 감추지 않았다. 王世貞의 문장에 대한 생각을 먼저 물은 데서, 일본 문예에서 王世貞의 영향력을 그가 잘 알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렇게 해서 은연 중 囊中之錐가 드러났다. 李彦瑱은 일본행에 앞서 일본에 대한 공부가 적지 않았다. 앞서 말한 「海覽編」 같은 작품에 동원된 고사의 수준도 그렇고, 일본 문인이나 문단의 전반적 동향에 대한 이해 면에서도 그는 만만치 않은 이해를 지녔다.

다음은 奧田尙齋의 『兩好餘話』 중의 기사다. 1월 22일 大坂에서 나는 필담이다. 南玉이 바깥 손님 접대로 나가면서 尙齋에게 司譯主簿 李雲我를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테니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라고 했다. 雲我는 李彦瑱이 일본에서 사용한 별호다. 이렇게 오간 둘 사이의 짧은 대화는 다음과 같다.

仙樓：그대가 經史에 능통하고 中朝의 고사도 밝다 들었습니다.

雲我：有名無實을시다.

17) 龜井南冥, 『泱泱餘響』: “虞裳曰: ‘貴州能文章者, 何人爲魁?’ 道哉曰: ‘不爲不多, 而蘿亭翁, 稱老鍊熟達矣.’ 虞裳曰: ‘蘿亭文章與芳洲芝軒如何?’ 道哉曰: ‘芳洲文余嘗見一二編, 有諱不明辨工拙. 芝軒之著, 余未見之.’ 虞裳曰: ‘王弇州之文, 君以爲如何?’ 道哉曰: ‘此是明代翹楚, 後人範圍, 余刻意十年, 未得窺一斑. 敢論之, 敢論之. 敢論之, 則崎嶇而敦厚之色鮮焉.’”

18) 이노구치 아즈시 저, 심경호·한예원 역, 『日本漢文學史』(소명출판, 2000), 394면 참조.

仙樓 : 貴邦과 北京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내가 玄川과 만나 그 대략을 물었더니  
자세한 里程을 모르더군요.

雲我 : 4천 여리쯤 됩니다. 하지만 山河가 우거져서 無人之境을 지나야 합니다.

仙樓 : 압록강 서편 몇 리부터 遼란 말은 들었지만, 인적 없는 광야라고는 못 들었습니다. 그대의  
말이 의아하군요.

雲我 : 제가 예전에 지은 시가 있습니다. “천리길 망망하다 마을도 하나 없고, 숲 다람쥐 마구  
울고 들 독수리 나누나.” 이것이 실제입니다.

仙樓 : 시 두 구절 뿐인데 능히 인적 끊긴 사막의 황량함을 묘사해내어 듣는 이로 하여금 홀연  
기운이 꺾이고 떨리게 합니다. 전체 시를 볼 수 있을까요?

雲我 : 좁은 소견으로 엿본 것을 조금 보였을 뿐입니다. 어찌 다 보여드리겠습니까?<sup>19)</sup>

육로로 북경 여행길을 두 차례나 오간 경험이 있는 李彦瑱에게 尙齋가 요동벌에 대해 묻자, 李彦瑱이 자신이 지은 시로 대답한 내용이다. 李彦瑱은 南玉 등이 일이 있어 자리를 비울 경우애나 일본 문사와 겨우 대화를 나누는 처지였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의 깊은 대화가 없었다. 이런 상황은 李彦瑱을 몹시 씩씩하게 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宮瀨龍門의 『東槎餘談』이다. 宮瀨龍門은 劉維翰이다. 그는 徂徠學派에 속한 중견학자였다. 이 문답은 필자가 이미 앞선 논문에서 전체 내용을 살핀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할애하고 주요 부분만 간추려 읽겠다.

劉維翰은 1763년 이전에도 조선 문사와 접촉이 있었다. 먼저 1682년 7차 사행 시에 그의 증조부가 東都에서 紀藩의 직분을 맡았을 때 통신사로 온 翠虛 成琬(1639-1710)과 필담을 나누는 일이 있었다. 그 자신도 1748년 10차 통신사행 당시 製述官 矩軒 朴敬行과 書記 濟菴 李鳳煥을 만나 필담을 주고 받으며 海外之交를 나누었다. 1748년 당시의 필담은 그 문인이 정리한 『鴻臚傾蓋集』에 자세하다. 이들은 당시 禮樂文物과 風樂 및 文翰에 대해 대화했다. 이 가운데 문학에 대해 토론한 부분이 흥미로워 일부만 보인다. 일본 한문학의 흐름에 대해 얘기하다 근세의 경향을 논한 대목이다.

徂徠先生 物茂卿이란 이가 일어나면서부터 復古의 학문이 시작되었다. 또 李于麟과 王元美의 사업을 편집해서 마침내 고문사를 닦아 左氏와 司馬子長을 준칙으로 삼았다. 고시는 漢魏와 六朝를 배우고, 近體는 開元 天寶 연간을 배우니 風雅와 古樂府 諸曲을 모두 모의하지 않음이 없었다.(중략) 그 문인은 1백을 헤아리는데, 그 으뜸이 되는 이는 南郭先生이다. 平安 사람으로 성은 服이고 이름은 元喬며, 자가 子遷이다. 나이가 65세로 東都의 南郭에 살므로 이렇게 부른다.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하여 명성이 대단하다. 海内の 제생이 책 보따리를 지고 오는 자가 이루어 헤일 수가 없다. 5척동자로 책을 끼고 있는 자라면 또한 남곽선생을 모르는 자가 없다. 왕후와 대부도 급히 예를 표하며 敬服하지 않음이 없다. 『一經品目』은 사람들이 추중하는 바다. 한마디만 책 머리에 얹어도 책 값이 다섯 배나 된다. 周程張朱의 책은 당세에 크게 폐해지고, 秦漢

19) 奥田尙齋, 『兩好餘話』: “聞君能通經史, 且諳中朝故事’仙樓. ‘有名無實’雲我. ‘貴邦與北京相距幾許嚮也? 吾見玄川, 聞其略, 未識里程之詳.’仙樓. ‘四千餘里. 而山河莽然, 徑無人之境.’雲我. ‘聞自鴨綠江西數里遼, 未聞涉無人廣野. 君言可訝.’仙樓. ‘余嘗有詩曰: 千里茫茫無聚落, 林鷗亂叫野鷗飛. 蓋實錄也.’雲我. ‘詩截二句然, 能使絕漠之廢蕪, 使聞者忽催寒戰, 幸示其全章?’仙樓. ‘管中窺狗, 時見一斑而已. 何足以示其全乎.’雲我.”

이상의 책이 해내에 행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힘이다.(중략) 다만 貴國의 성대한 인재 중에 鴻儒와 故老가 또한 많겠으나, 그 중에 宋儒의 고루함을 버리고 따로 復古의 문호를 얻 사람이 있는가?20)

일본에서 古文辭學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物茂卿과 그 제자인 服元喬에게서 찾고, 전반적 추세를 설명한 내용이다. 끝의 질문에 대한 書記 李命啓의 대답은 이러했다.

논한 바가 宏博하다 할만하다. 하지만 貴邦의 문장과 경술인 대략 이미 보았다. 학문은 程朱의 문로를 배워 따르는 자는 겨우 한 둘이고, 문장은 歐蘇의 체재를 얻은 자를 보기 드물다. 논한 것 안에서만 보더라도 절로 서로 모순이 된다. 어찌 漢魏를 배운다면서 元美와 于鱗을 준적으로 삼는단 말인가. 南郭의 시문 또한 이미 익히 보았다. 聲病과 音律은 日東에서 쉬 얻지 못할 바나, 끝내는 雪樓 李攀龍의 잔약한 후예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대의 말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21)

李命啓는 程朱門路와 歐蘇體裁만을 고집했다. 명나라 李攀龍과 王世貞의 성취를 깎고, 그를 배운 南郭 등을 ‘雪樓孱裔’로 폄훼했다. 雪樓는 李攀龍의 별호다. 문답 끝에 劉維翰이 달아둔 追記가 재미있다. “접해보니 韓인이 익히는 바는 본시 다르다. 저들은 程朱 떠받들기를 孔子보다 더 높이 한다. 반드시 내 말을 俗儒의 견해를 외우는 것으로 여겨 聖人の 도와는 아마득하다고 생각한다. 둥근 구멍에 네모난 축꽃이를 맞추려는 격이어서 감히 더붙어 따지지 않았다.”22)

그로부터 16년이 지나 그는 다시 조선통신사행과 필담을 나눈다. 조선통신사행은 1764년 3월 4일부터 7일까지 東都 즉 江戶에 머물렀다. 당시의 필담집인 『東槎餘談』 서문에는 조선통신사가 왔다는 말만 들으면 지나가는 곳의 학사대부들이 미리 시를 지어놓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준비해 두고서, 저들이 대답하지 못하면 韓인이 크게 부끄러워했다고 하고, 칭찬하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평생의 영예로 아는 경박한 습속을 나무란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는 슬쩍 속내를 비쳤다. “한번 질문을 하면 저들은 미적거리며 그 예봉을 피하다가 遁辭로 먹고 잘 시간도 없다고 얼버무린다. 또 일이 있어 使館에 가봐야 한다며 가버린다. 내가 이같은 버릇을 고쳐주려 했지만 어찌 强弩로 하찮은 짐승을 시험하겠는가.”23) 손

20) 劉維翰, 『鴻臚傾蓋集』 張 8: “自徂徠先生物茂卿者勃起, 始倡復古之學. 且纂輯李于鱗王元美之業, 遂修古文辭, 以左氏司馬子長爲準則, 古詩乃漢魏六朝, 近體乃開元天寶, 如風雅古樂府諸曲, 亦莫不盡擬焉. 海內靡然嚮慕, 其明經博文, 不遠千里, 履滿戶外. 有集行于世, 既卒且二十年矣. 其門人以百數. 其魁老爲南郭先生. 平安人, 姓服名元喬字子遷, 年六十有五, 居東都南郭, 故爲號. 以教授爲業, 名聲藉甚. 海內諸生, 負笈而至者, 不可舉數矣. 五尺童子挾簡者, 亦無不識有南郭先生者也. 王侯大夫折節爭下, 無不敬服焉. 一經品目則爲人所推重焉. 片言題簡首, 則書增價五倍. 周程張朱之書大廢當世, 秦漢以上之書行于海內, 斯人之力也.(中略) 徒以貴國人才之盛, 鴻儒故老亦何限. 其中有捨宋儒之固, 而別闢復古之門者乎?”

21) 劉維翰, 『鴻臚傾蓋集』 張 9: “所論可謂宏博. 然貴邦文章經術, 略已觀之. 學趨程朱門路者董一二, 文得歐蘇體裁者如景星. 雖以所論中見之, 自相矛盾. 安有學漢魏而以元美于鱗爲準者也. 南郭詩文亦已熟見, 聲病音律, 誠日東之未易得. 而終歸於雪樓孱裔, 如君之言, 無乃過乎.”

22) 위 같은 곳: “接韓人之所習本殊. 彼尸祝程朱, 過於孔子. 必以吾言爲記誦俗儒, 於聖人之道河漢也. 圓鑿方枘, 不敢與校之.”

23) 劉維翰, 『東槎餘談序』: “一發問則彼遷延避其鋒, 且遁辭汎應不暇眠食矣. 又稱有幹事進使館而去. 余懲其若是, 則謂豈足以强弩試微獸乎.”

남이라 겉으로 대접은 하지만 속으로 조선 사행의 위선적 행동을 경멸하는 태가 역력하다. 그래서 江戸의 文藝之士들이 들떠 흥분해도 자신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인 宮子亮이 가져온 통신사행 諸學士의 시문을 보고는 호기심을 억누를 길이 없어 생각을 바꿔 使館을 찾았다.

그는 여러 사람과 만났다. 그는 이런 저런 풍습과 의관문물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다가, 趙東觀에게 伊藤仁齋(1627-1705)와 荻生徂徠(1666-1728)의 저서가 조선에 전해졌는지 슬쩍 물었다. 趙東觀은 즉각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도 일본에 와서 처음 들었으며, 그나마 그 학술도 正路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程朱를 배척하고 王陸에 左袒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劉維翰은 이들의 학문은 왕양명과 육상산에 좌단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견을 가지고 문호를 세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박한 논거를 들어 설명했다. 머쓱해진 趙東觀이 자리를 피하려 들자, 그는 다시 조선에 호랑이가 있느냐는 따위의 閑談으로 화제를 돌리고 말았다. 그가 볼 때 조선 사행의 태도는 16년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제자 龍岡과 벗 金峰의 소개로 李彦瑱을 만난다. 필담으로 남은 것은 없지만, 李彦瑱은 劉維翰과 만나기 전에 용강 편에 王世貞에 대한 자신의 推重을 말했던 듯하다. 이렇게 보면 그는 일본 문사와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王世貞 이야기를 꺼낸 셈이다. 劉維翰은 金峰의 傳言에 기대를 갖고 그를 찾았다.

龍門：金峰에게 들으니, 그대가 문장에 있어 다만 명나라 嘉隆 연간의 王世貞과 李攀龍만을 취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추중하는 바는 王世貞으로 우주에 으뜸으로 여긴다 들었소. 이는 귀국 문사들의 선택과는 다르군요. 그 학술은 대개 또한 소견이 있겠지요. 어찌하여 귀국에서 염락의 학문을 중히 여기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소이다. 나 또한 그 臭味를 좋아한다고요. 나이 17, 18세 때 이 책을 구입하고 싶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능히 얻지 못하였소. 밤낮으로 애를 써서 『四部稿』와 『滄溟集』을 베꼈더랬소. 아아! 지금은 시들 해졌지요. 우연히 들으니 그대가 좋아하는 바가 내 마음과 부합되기에, 와서 뵈는 것이요. 다른 뜻은 없소이다.

雲我：훌륭한 분의 고심입니다. 저 또한 손수 쓴 것이 몇 상자나 되는데, 王世貞과 李攀龍의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는 이는 적고, 모르는 이가 많습시다. 나를 기리는 자는 적고, 나를 비방하는 자는 많더라도 군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홀로 서서 근심하지 않는 법이지요.

龍門：韓愈는 ‘일을 잘 처리해도 비방이 일어나고, 덕이 높아도 헐뜯음이 따라 온다[事修而謗興, 德高而毀來]’고 했소. 저는 이치를 아는 말이라고 생각하오. 王世貞 李攀龍 두 분 같은 이는 가룽의 즈음에 고문사를 창도하였소. 당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생각하기까지 했지요. 하지만 두 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였습시다. 어찌 王世貞과 李攀龍 두 분만 그랬겠습니까? 韓愈와 유종원 두 사람도 똑 같이 남들이 헐뜯어 나무라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습시다. 그 뜻은 대개 이 때문에 화를 부를지 언정, 요컨대 천추에 있어서는 어찌 걱정할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었지요. 어찌 韓愈와 유종원 뿐이겠습니까? 태사공도 이미 논한 바가 있습니다. 대장부의 본 뜻은 마땅히 이와 같아야지요. 제 생각에 귀국은 반드시 과거 시험을 위한 문장에 안주할 듯 하군요. 그렇지 않다면 마침내 송나라 문장의 힘없는 것에 뜻을 둘 듯 합니다. 따라서 공께서 고문사를 주장하는 것은 헐뜯는 해로움이 없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공은 마땅히 근심을

미리 막으십시오. 감히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글로 꾸며 나아가 취하려는 뜻이 없는지라, 죽은 뒤의 鐘子期를 기다릴 뿐입니다.

雲我：王世貞은 재주가 매우 높고, 배움이 몹시 넓어, 何景明이나 李夢陽에 견주어도 서로 능히 맞겨루지 못하고, 성대히 받들어 인정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침내 王世貞과 李攀龍을 나란히 일컫는데, 雲淳熙가 ‘王世貞과 李攀龍은 문단의 南面王이다. 하지만 문장에는 두 사람의 왕은 없는 법이니, 王世貞이 홀로 왕이 될만하다’<sup>24)</sup>고 했으니, 이 말은 가변히 볼 수가 없습니다.

龍門：공은 바로 王世貞의 후세의 종자기라 하겠소이다.<sup>25)</sup>

당시 劉維翰이 46세, 李彦瑱은 25세였다. 두 사람 모두 王世貞과 李攀龍의 문집을 베껴 쓴 경험을 공유했다. 劉維翰은 王世貞과 李攀龍의 공을 당송 고문을 주창한 韓愈 유종원과 같은 반열에 두고, 위로 司馬遷에 잇댔다. 劉維翰은 조선의 일반적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데, 고문사를 이처럼 옹호하면 험뜯음을 입을 게 뻔하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王世貞과 李攀龍 두 사람 중에 李彦瑱은 유독 王世貞만을 홀로 높이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이는 일본 문사들의 일반적 생각과 달랐으므로, 논쟁으로 발전한다.

첫 번째 필담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고문사를 공통 화제로 뜻이 맞은 두 사람은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 중간에 劉維翰은 成大中과 잠깐 필담을 나누면서 李彦瑱과 낮에 환담한 일을 말했다. 그가 王世貞을 준적으로 삼더란 말을 꺼내자, 成大中은 王世貞은 명의 대가임에는 틀림없지만 詩家正脈은 아닌 지라 취하지 않는다고 잘라 대답했다. 劉維翰이 맞받아 그 학식의 博大함이 고금에 으뜸인데, 특히 문장은 취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하자, 成大中은 슬쩍 화제를 딴 데로 돌려 버렸다.<sup>26)</sup>

그날 저녁 李彦瑱과 劉維翰은 다시 만나 필담을 續開했다. 이때 井敏卿이 동행했는데, 두 사람이 나누는 필담은 『松庵筆語』에 따로 실려 있다. 대화의 중심 소재는 처음부터 王世貞이었다. 劉維翰은 李彦瑱의 王世貞에 대한 취향을 좀더 깊이 확인 점검하고 싶어했다.

처음에 劉維翰이 최근 일본에는 王世貞과 李攀龍을 배우는 사람이 열에 일곱 여덟이나 된 다며, 조선 쪽의 정황을 묻자 李彦瑱은 중국도 시들하고 조선에서도 배우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다. 劉維翰은 일본은 중국이나 조선과 달리 과거 제도가 없으므로 무슨 목적을 가지

24) 虞淳熙가 「徐文長文集序」에서 한 말이다.

25) 劉維翰, 「筆談」, 『東槎餘談』 권하 : “龍門曰: ‘僕聞諸金峰, 足下於文章, 獨取嘉隆王李, 其尤所推重者吳郡, 爲宇宙第一也. 是卽有異貴邦文士之選也. 其學術蓋亦有所見, 焉爲貴邦重濂洛之學, 不欲言之. 僕亦有臭味之好. 年十七八之時, 欲購此書, 家貧不能得也. 日夜憤厲, 自寫四部稿滄溟集. 嗟乎! 今也衰矣. 偶聞足下所好, 與余心符矣. 所以來謁者, 豈有他乎?’ 雲我曰: ‘良工苦心. 僕亦手書數篋, 王李居多. 知者少, 不知者多; 譽我者寡, 毀我者衆. 君子不顧, 獨立亡悶.’ 龍門曰: ‘昌黎曰: 事修而謗興, 德高而毀來., 僕以爲知言也. 若王李二公, 在嘉隆之際, 唱古文辭. 時人不曉爲何等語, 甚則以爲狂妄. 二公處之夷然, 豈獨王李二公, 猶如韓柳二公, 而不顧人譏彈也. 其意蓋謂寧籍此買禍, 要在千秋則奚所患焉. 豈獨韓柳, 太史公既有所論矣. 乃丈夫本志, 當如此矣. 意者貴邦必安科第之文, 不然則終志宋文靡弱者然. 公唱古文辭者, 恐莫齟齬之害乎. 公宜防慮. 敢布腹心, 吾無銜文進取之意, 而媿死後之鐘期而已.’ 雲我曰: ‘王才甚高, 學甚博, 而懲何大復李空同, 不相能 盛相推詡. 世人遂並稱王李, 而雲淳熙曰: 王李文苑之南面王也. 然文無二王, 元美獨王矣. 此言不可忽.’ 龍門曰: ‘公卽吳郡身後之鐘期.’”

26) 劉維翰, 「筆談」, 『東槎餘談』 권하 : “龍門曰: ‘晝間與雲我李君, 罄頃刻之歡. 其才翩翩可愛. 公幹鞅掌, 不能悉所懷矣. 此人準的王弼州, 是貴邦所少也.’ 龍淵曰: ‘雲我名顯聞.’ 龍門曰: ‘李君虞裳也.’ 龍淵曰: ‘李君文章奇士也. 僕偶忘其號也. 吳門雖是有明大家, 終非詩家正脈, 我邦人不取.’ 龍門曰: ‘衆之所不取, 而李公取之, 眞奇士也. 弼州博大, 古今一人. 其詩則僕有取焉, 有不取焉. 若文章則不可不取也.’”

고 공부를 하지 않아 절로 風氣가 다르며, 학문의 진취도 있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16년 전 조선통신사와의 대화 때 王世貞과 李攀龍의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들이 불쾌해 하므로 다른 잡담만 나누고 헤어졌던 일을 말했다. 王世貞을 숭상하게 된 연유를 되묻자, 李彦瑱이 자신은 스승인 李用休 선생의 말씀을 받들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sup>27)</sup> 李彦瑱의 이어지는 대답을 들어보자.

雲我：錢謙益은 “하늘과 땅의 거대함과 옛날과 지금의 아득함 속에서 글하는 마음은 지극히 깊고, 문장의 바다는 지극히 넓다. 그저 한 두 사람을 지목하여 대가로 삼고 수레에 올라타 귀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소롭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王世貞과 李攀龍의 말을 익혀 모의하여 은미한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내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고는 별도의 안목과 솜씨를 내어 王世貞과 李攀龍에 나아갈 것을 생각하여 별도로 한 경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모하고 숭상하는 뜻은 사위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평생에 깨달아 이해한 것인지라 감히 바치는 것입니다.

龍門：대저 환골탈태는 옛 사람이 일컬은 바입니다. 한 글자 한 구절도 옛 자취를 따라 간다면 마침내 邯鄲의 소년이 엎드려 기어가는 격이 될 것입니다. 또 장차 완전히 王世貞과 李攀龍의 모습과 같다고 해도, 어찌 優孟이 孫叔敖를 흉내내는 것과 다르다 하겠습니까? 어찌 글씨를 배우는 자가 옛 법첩을 임시하여 흉내내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내가 공의 말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문사를 창도한 사람은 徂徠가 실로 효시가 됩니다. 李攀龍과 王世貞을 모의하여 별도의 기축을 열었으니, 의론에 우뚝한 견해가 많아 숭상할만 합니다. 이것은 잘 배운 것입니다. 내가 비록 때를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적이 본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王世貞과 李攀龍을 영수로 삼았으나, 재주가 성글고 배움이 얕아 애써 볼 수록 더욱 굳세고 높은 것만 깨달았을 뿐입니다. 조금 이해하게 되자 王世貞은 이르기가 쉽고, 李攀龍은 미치기가 어려웠습니다. 王世貞이 博大로써 李攀龍과 맞겨루었으나, 그 재주는 실로 한 등급 부족했지요. 나는 韓愈를 이끌고 유종원을 당겨, 王世貞을 하인 삼고, 李攀龍을 종으로 삼아 솟구쳐 선진을 올라타서 능히 좌씨와 司馬遷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王世貞 李攀龍을 北面하여 신하가 된다면 덕이 반으로 줄어들까 염려됩니다. 공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雲我：문 단아 곁고서 수레를 만들었는데, 천리에 바퀴 자국이 합치되니, 훗날 일본에서 글할 사람은 반드시 劉王孫일 것입니다.

龍門：넓고 크고 웅장한 재주로 저술이 풍부한 것은 우주에 王世貞 한 사람 뿐이라는 공의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취하는 바는 正編에 있습니다. 續編 같은 것은 뜻이

27) 劉維翰, 『筆談』, 『東槎餘談』 권하 : “龍門曰: ‘弊邦文章, 近代大變, 學王李者十七八, 貴邦如何?’ 雲我曰: ‘中土衰矣. 雖吾邦亦無人也. 皆汨沒科舉, 無習古文者託意奉行.’ 龍門曰: ‘吾邦士大夫, 世祿世業, 無科舉之制. 因無進取之心. 世人視文章爲長物也, 就中學文者, 實有千秋之意, 又無學八股之陋, 步驟古文辭者, 自無瞠若乎後矣. 大業所就, 蓋在於此乎.’ 雲我曰: ‘此事甚好.’ 龍門曰: ‘吾攀館有日也, 與學士三記室會, 未見若公才識卓越者也. 天不假良緣, 相見之晚, 可恨可歎. 余早知有公, 豈以公易諸學士, 多日虛多筆話, 實費浪說!’ 雲我曰: ‘對他邦文士, 談眞實學問, 以相切磋, 可也. 何須浪費筆舌, 爲閑說話?’ 龍門曰: ‘戊辰之年, 余與朴李諸學士會. 文章學術, 議論蜂起. 談及王李, 諸學士不悅, 觀色可知也. 吾懲如此, 於諸學士, 徒費浪說耳.’ 雲我曰: ‘人心如面, 所謂學士者, 吾不知.’ 龍門曰: ‘公崇尙兪州, 實貴邦中一人. 是不埃文王者, 佳佳.’ 雲我曰: ‘吾無奇識. 吾師有檀曼先生者, 文章海東千古一人. 吾受師說者如是.’ 龍門曰: ‘果知有淵源也. 初以爲貴國所尙則不過宋文平平者, 今聞公餘論也, 乃知國有人矣. 恐稱之者不多.’”

붓보다 앞서 있어 반드시 배울 것이 못됩니다. 이를 배운다면 글쓰기에 해로울 것입니다.

雲我 : 내가 보기에 도 王世貞의 박식함은 옛날에도 없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할만 하지요.<sup>28)</sup>

이 대화에서 劉維翰은 네 가지 중요한 지적을 남겼다. 첫째, 王世貞 李攀龍을 배우더라도 완전히 자기화하여 換骨奪胎해야지 그대로 흉내내는 邯鄲學步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우되 별도의 機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李用休가 「松穆館集序」에서 “시문에는 남을 좇아 의견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 자기를 좇아 견해를 일으키는 자가 있다. 남을 좇아 의견을 일으키는 자는 비루하여 말할 것도 없다. 자기를 좇아 견해를 일으키는 자도 혹 고루하거나 편벽된 것을 뒤섞지 말아야만 眞見이 된다. 또 반드시 眞才로 이를 보탠 뒤에 성취가 있게 된다. 내가 여러 해 이를 구하다가 松穆館主人 李虞裳 군을 얻었다.”<sup>29)</sup>고 한 논의와 완전히 상통한다. 王世貞 李攀龍을 배워도 擬古의 관점에서 흉내내는 데 그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점에서 두 사람은 의견이 완전히 합치했다.

둘째, 자기가 실제로 공부해보니 王世貞은 배우기가 쉽고 李攀龍은 어려워, 王世貞이 李攀龍보다는 한 등급 부족하다고 했다. 李彦瑱이 계속해서 王世貞만을 높이자, 자신의 체험을 말하면서 圭角을 살짝 눌러준 것이다. 실제로 荻生徂徠부터 王世貞이 아닌 오로지 李攀龍 한 사람만을 높이 평가한 것은 일본 문사들에게 일종의 통념이었다. 그런데 李彦瑱이 오직 王世貞 뿐이라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자 가만히 자신의 생각을 천명했다.

셋째 韓愈와 유종원을 이끌고 王世貞 李攀龍을 종으로 삼아 곧장 先秦으로 올라가 左丘明과 司馬遷의 경지에 다다르는 學文 경로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王世貞 李攀龍이 韓愈와 유종원을 거들떠 보지 않고 곧장 先秦兩漢으로 올라갈 것을 주장한 것보다 더 융통성 있는 견해다. 王李를 노예 삼고, 韓柳는 左右의 領導로 삼는다 함은 王李 보다 韓柳를 더 높인 셈이다. 목표를 先秦兩漢 古文에 둔 점은 같다. 매우 융통성 있는 활달한 견해로, 王世貞 李攀龍만 말하면 무조건 模擬로 몰아세우는 경직된 조선 문인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또한 그의 말투는 자신보다 21살이나 어린 李彦瑱을 은근히 경륜으로 누르는 기미가 느껴진다.

넷째, 王世貞의 글은 續編을 배우면 안 되고, 正編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王世貞의 『弇州四部稿』는 正編 174권과 續編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劉維翰의 王世貞 읽기가 피상적 수준이 아니라 精深한 깊이를 갖추고 있었음을 뜻한다. 실제로 正編에 수록된 초년의

28) 劉維翰, 「筆談」, 『東槎餘談』 권하 : “雲我曰: ‘錢虞山曰: 天地之大, 古今之遠, 文心至深, 文海至廣. 窃窃截一二人爲巨子, 乘車入鼠穴者可笑. 吾幼習王李家言, 擬摸入微中. 承吾師之教, 思別出手眼, 就王李, 別開一洞天. 然其慕向之意, 不但已. 此平生悟解者, 故敢奉獻.’ 龍門曰: ‘夫換骨奪胎, 古人所稱, 一字一句, 步驟舊轍, 遂爲邯鄲蒲伏耶. 又將宛若王李容貌, 則何以異優孟學孫叔敖耶? 奚與學書者, 臨摹古法帖, 殊哉. 余深有取公言也. 吾邦唱古文辭者, 徂來實爲嚆矢. 擬議李王, 別出杼柚, 議論卓見, 則有向焉. 是爲善學也. 吾雖不同時, 於此事則竊不能不淑艾也. 吾初以王李爲領袖, 才疏學淺, 鑽仰彌覺堅高矣. 至窺一斑, 乃謂王則易至, 李則難及. 王以博大敵李, 其才實減一等. 吾願提韓挈柳, 奴王隸李, 超乘先秦, 能爲左氏司馬矣. 不然北面王李, 則恐減半德矣. 公爲如何?’ 雲我曰: ‘閉門造車, 千里合轍, 異日文日東者, 必是劉王孫.’ 龍門曰: ‘博大雄才, 著述之富, 宇宙弇州一人, 公言不誣焉. 然吾所取在正編, 如續編則意在筆善, 不必學. 學之則害修辭.’ 雲我曰: ‘以余觀之, 元美博識, 古亦無之, 可異.’”

29) 李用休, 「松穆館集序」, 『松穆館燼餘稿』(총간 252, 487면) : “詩文有從人起見者, 有從己起見者. 從人起見者, 鄙無論. 卽從己起見者, 毋或雜之固與偏, 乃爲眞見. 又必須眞才而輔之然後, 乃有成焉. 予求之有年, 得松穆館主人李君虞裳.”

주장과 續編에 실린 만년의 견해는 자못 다르다. 속편의 경우 초기 擬古에 지나치게 경도되었던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劉維翰은 李彦瑱과의 짧은 대화에서 李彦瑱의 王世貞에 대한 취향이 정편이 아닌 속편의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재빨리 간파해내고, 이점에 대해 역시 주의를 준 것이다. 실제로 李彦瑱이 『엄주사부고』에서 전거를 끌어온 것을 보면 속편 쪽이 더 많아, 劉維翰의 지적은 핵심을 뚫고 있는 듯하다. 다만 그는 王世貞보다는 李攀龍을 더 높였고, 王世貞의 경우도 초기 정편만 평가하고, 후기 속편은 잘못된 것으로 인식했다. 두 사람의 문학견해 차이가 선명해지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필담 끝에 당시 자신 외에 井子愼이란 이가 李彦瑱과 수십 장의 필담을 나누었다고 附記했다. 井子愼은 『松庵筆談』을 남긴 今井松庵, 즉 井敏卿이었다. 그는 당시 24세로 의업에 종사했고, 李彦瑱보다는 한 살 아래였다. 넘치는 재기로 조선 사행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였던 인물이다. 『송암필담』을 보면 그는 거침없는 언변과 해박한 식견으로 成大中和 學詩法에 대해 당당하게 토론하고, 王世貞 李攀龍의 시를 ‘華而無實’로 폄하하는 成大中の 견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南玉 元重擧와는 조선 유학의 흐름을 논하며, 거침없는 논변을 펼쳐 두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다.

李彦瑱과 井敏卿의 필담은 『松庵筆談』의 맨 뒤쪽에 실려 있다. 그는 여러 차례의 필담으로 조선 사행의 수준에 실망하던 차에, 劉維翰을 따라 李彦瑱을 방문했다. 저녁에 다시 만나는 자리에도 동행하여 따라왔다. 劉維翰과 李彦瑱의 필담 당시에도 그는 동석해 있었다. 두 사람의 필담이 끝난 뒤 李彦瑱과 井敏卿의 필담이 다시 이어졌다.

井敏卿은 방문 목적을 대뜸 그대가 李王의 공부를 했다는 말을 듣고 臭味가 같아서 왔다고 말했다. 王世貞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한 李彦瑱의 의도는 어쨌든 계속 적중해서, 처음엔 통신 사행원들이 자리를 비울 때 시간을 때우기 위해 대신 대화하던 상대에 불과했던 그가, 뒤에는 점차 일본 문사들이 직접 그와 대화를 목적으로 방문하게 되어 위상이 자못 달라졌다.

井敏卿과의 필담은 크게 세 도막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마디는 3월 10일 낮에 처음 상면한 자리에서였다. 여기서도 수인사가 끝나자마자 둘은 王世貞 李攀龍에 대한 문답으로 대뜸 대화를 연다. 처음 井敏卿은 조선에 李王을 공부하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고 묻고, 李彦瑱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 몹시 애통하다고 대답했다. 역시 중국 쪽의 형편을 물었는데, 井敏卿은 이미 李彦瑱이 중국을 두 차례 다녀온 역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李王 외의 變幻을 말하자고 하자, 井敏卿은 우리가 李王을 함께 추중하는 것은 하나의 큰 사건이고 큰 인연이니, 밤중에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자며 첫 번째 대면을 마친다.<sup>30)</sup> 李彦瑱은 王

30) 今井松庵, 『松庵筆語』: “松菴曰: ‘貴國修李王之業者, 有幾人耶?’ 雲我曰: ‘皆如唾涕不取之, 僕甚痛之.’ 松菴曰: ‘中華如何?’ 雲我曰: ‘中華衰矣, 文風卑弱, 無王者氣.’ 松菴曰: ‘公能出衆楚之咻, 而倡莊嶽音, 奇士哉.’ 雲我曰: ‘李王何可望, 但樂之不已, 然非李王歟.’ 松菴曰: ‘百世而一士, 四海而一人, 恨相見之晚.’ 雲我曰: ‘比肩而立, 繼踵而至, 又何恨?’ 松菴曰: ‘臭味苟相合, 不唯骨肉親, 紛忙中不能盡鄙懷, 恨恨.’ 雲我曰: ‘諸公秉燭來, 當具一盂飯相待如何?’ 松菴曰: ‘願公作秉燭遊.’ 雲我曰: ‘宇宙大矣, 王李之外, 有許多光景, 許多變幻, 先生盡見而知之乎?’ 松菴曰: ‘天地之大, 宇宙之曠, 何能盡見而知之乎? 僕輩推李王者, 有一大事因緣, 然此事甚長, 非倉卒間可罄, 晚來可得從容矣.’”

李로 쓰는데 井敏卿은 꼭 李王으로 써서 둘 사이의 견해 차가 엇보인다.

두 번째 마디는 李彦瑱이 숙소에 돌아와 자신을 기다리던 井敏卿과 재회하는 장면이다. 간단한 수인사 이후 둘은 바로 논쟁에 돌입한다.

雲我 : 공은 王李를 숙독하였는가요?

松菴 : 李王의 글은 당시에 오하러 佶屈齧牙함을 괴로워 했지요. 저희야 평생 좋아해 마지 않지만, 羊棗의 기호일 뿐입니다.

雲我 : 公 등이 이미 王李를 숙독하였다 하나, 聖人께서는 ‘좋아하더라도 나쁜 점은 알아야하니 상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歷下 李攀龍의 고시는 漢魏에 필진하고, 율시는 盛唐과 맞겨루며, 문은 左馬에 가깝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兪州가 평하기를, “三代의 寶器나 海外의 珍壤과 같아 페르샤 상인이나 삼대 적 사람이 아니라도 그 뜻을 가르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松菴 : 이 말이 『藝苑卮言』에 나옵니다. 내가 진작에 읽어 알고 있습니다.

雲我 : 李子는 천고를 우습게 보아 才品이 몹시 높습니다. 하지만 글은 모의하는 의논을 고집하는 바람에 변화를 이루는 논의는 종종 신기한 변화가 없어, 마침내 王氏에게 몇 등급 뒤집니다. 兪州의 문장은 神龍이 바다를 노니는 듯 하여 천하의 통쾌한 일이지요. 하지만 일의 변화가 다함이 없고, 文心은 한량이 없으니, 엄주 외에 또 천만 명의 엄주가 있더라도 내 마음은 엄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兪州 門下의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고, 별도의 수단과 안목을 내어 兪山을 나무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松菴 : 천하의 소리는 五音을 넘지 않으나, 오음의 변화는 이루 다 들을 수가 없소. 천하의 색은 오색에 지나지 않지만, 오색의 변화는 이루 다 볼 수가 없소. 이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도는 規矩가 한번 만들어지면 천하의 무한한 事變도 내 손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소. 만약 망녕된 생각으로 마음을 본받고 손을 믿어 前人이 내다버린 것을 주워 진귀하고 좋은 것으로 여겨 신기함을 뽐낸다면 어찌 엄주가 말한 南面하여 冥山을 오르고, 발을 적서 대해를 건너려는 것에 견주겠소?

又曰 : 歷下는 아미산에 눈이 쌓인 것처럼 높고 화려한 것 일색이어서 그 짝을 찾아보기가 힘들오. 엄주는 큰 바다의 파도가 變幻을 헤아릴 수 없는 것과 같소. 요컨대 歷下는 높고 화려하나 변화가 적고, 엄주는 博大하지만 雅馴함이 부족합니다. 역하의 높은 점은 엄주가 미칠 수가 없고, 엄주의 큰 점은 역하 또한 능히 할 수가 없소. 두 사람은 우열이 없는 게지요.

雲我 : 아미산에 쌓인 눈과 큰 바다의 바람과 파도는 두 사람의 참된 면모입니다. 내 말은 산은 죽은 물건이어서 낮은 것은 높아질 수가 없고, 못난 것은 급게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다는 星宿海로부터 만리를 바빠 달려와도 중간에 수많은 魚龍이 일어남을 감추고 안개 물결이 가없으니 이것이 장관이지요. 王子가 아미산으로 歷下를 견주고, 스스로는 큰 바다에 견주었으니, 은미한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松菴 : 바다 속에는 진실로 허다한 魚龍의 변환과 무한한 烟波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산에도 高峰峻嶺과 奇禽異獸 및 金玉珍寶 같은 여러 가지 보배로운 물건들이 있으니, 마침내 우열은 없는 셈이지요.

雲我 : 천하는 산이 열에 셋을 차지하고, 물은 열에 여섯을 차지하며, 평지가 열에 하나입니다. 산이 물에 대적하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松菴 : 천하의 물은 붓도랑과 연못과 웅덩이 등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크기는 커도 죽히 볼 것이 없습니다. 대저 명산의 기이한 봉우리는 하늘 높이 솟아 해를 안아, 옥을 천 길이나 깎아 세우니 천하의 장관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산 쪽에 쏠립니다 그러.<sup>31)</sup>

두 번째 마디의 필담은 李攀龍과 王世貞의 우열론이 주제다. 李彦瑱은 일관되게 王世貞을 李攀龍보다 우위에 두고 논의를 펼쳤다. 그는 李攀龍이 模擬의 습벽을 버리지 못해 변화가 적다며 이점만 보더라도 王世貞보다는 몇 등급 아래의 솜씨라고 깎아 말했다. 이에 반해 王世貞은 神龍戲海 격이라 변화가 끝없이 무궁한 점을 높였다. 다만 자신은 그 변화를 사랑하는 것이지, 엄주의 문하인이 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자신만의 手眼을 갖추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이를 들은 정민경은 문장의 規矩가 일단 완성되면 천하의 모든 변화가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법이라고 전제하고, 李攀龍은 바로 완성된 문장의 規矩이니, 이것을 버리고 망녕되이 師心信手하여 제멋대로 주어모아 新奇를 추구하면 망녕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사람은 王世貞이 『예원치언』에서 李攀龍을 두고 ‘峨眉積雪, 閩風蒸霞, 高華氣色, 罕見其比’라 평한 데서 峨眉積雪의 비유를 따오고, 왕엄주를 大海波濤에 맞견주어, 山海優劣 논쟁으로 논의가 번졌다. 이들이 내건 비유와 인용 하나하나가 모두 王世貞의 『弇州四部稿』와 『藝苑卮言』 등에 나오는 용례를 활용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 속에 필담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다. 둘 사이에 이루어진 일종의 진검 승부였던 셈이다.

다시 필담은 세 번째 마디로 넘어간다. 이번에는 韓柳와 李王을 중심에 놓고 文變論을 두고 벌인 토론이다.

松菴 : 공이 韓愈와 柳宗元의 문장을 취하지 않고, 유독 王世貞만 그리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雲我 : 제가 韓愈와 蘇軾을 좋아하는 것은 창포김치 같습니다. 하지만 博識과 通辨은 문사의 급무니, 어찌 굳이 한 두 사람만을 굳게 지키겠습니까? 韓愈와 蘇軾은 만고의 一人이요, 王世貞은 그곳에 入室한 것입니다. 내가 韓愈와 蘇軾을 좋아하므로 왕씨를 좋아하는 것이고, 왕씨를 좋아하는지라 袁中郎·王思任·錢謙益·郭子章·虞德圓·李本寧 등 여러 사람을 좋아합니다.

松菴 : 엄주 이하는 죽히 논할 것이 못됩니다. 李王의 문장은 문사가 아름다운 곳은 마치 瑤池나

31) 今井松庵, 『松庵筆語』: “雲我曰: ‘公熟讀王李乎?’ 松菴曰: ‘李王之文, 當時尙苦佶屈齧牙, 吾輩平生好之, 不休唯羊裘之嗜耳.’ 雲我曰: ‘公等既熟讀王李, 然聖人云: 好而知其惡, 不可不詳察也. 歷下古詩逼漢魏, 律逼盛唐, 文逼左馬, 然弇列評曰: 如三代寶器海外珍壤, 非波斯胡與三代人, 可教旨.’ 松菴曰: ‘此言出於卮言, 僕嘗讀而知之.’ 雲我曰: ‘李子傲倪千古, 才品甚高, 然文守擬議以成變化之論, 無種種神化, 終遜王氏數等, 弇列文如神龍戲海, 天下快事, 然事變無窮, 文心無量, 弇列之外, 又有千萬弇列, 吾心悅弇列, 而亦不欲爲弇列門下人, 思別出手眼, 爲弇山屬坐人.’ 松菴曰: ‘天下之聲, 不過五音, 五音之變, 不可勝聽, 天下之色不過五色, 五色之變不可勝見, 文章之道, 規矩一成, 而天下無限事變, 莫不自吾手中出者, 如妄意師心信手, 前人棄去, 拾以爲珍好誇新奇, 豈不弇列所謂南面而陟冥山濡足而涉大海之比乎?’ 又曰: ‘歷下如峨眉積雪, 高華一色, 罕視其比, 弇列如大海波濤, 變幻不可量, 要之, 歷下高華而寡幻化, 弇列博大而乏雅馴, 歷下之高, 弇列不可及也. 弇列之大, 歷下亦不能爲也. 二家無優劣.’ 雲我曰: ‘峨眉積雪, 大海風濤, 二家之真誅, 吾謂山死物也, 卑者不能高, 頑者不能爲妍, 唯海則自星宿海, 奔走萬里, 中間藏許魚龍起, 烟波無限, 此壯觀也, 王子以峨眉比歷下, 自況以大海, 微旨見矣.’ 松菴曰: ‘海中固有許多魚龍變幻, 無限烟波, 名山亦有高峯峻嶺, 奇會異獸, 金玉珍寶, 種種瓌璋物, 畢竟無優劣.’ 雲我曰: ‘天下山居十分之三, 水居十分之六, 平地乃一分也. 山之不敵水多矣.’ 松菴曰: ‘天下之水, 溝渠畎澮, 池沼汗窪, 無所不至, 大則大矣, 無足觀者, 至夫名山奇峯, 冲天抱日, 玉削千仞, 則天下之壯觀, 無過於斯, 吾不得不爲山左袒.’

瓊泉과 같이 풍파를 기다리지 않고, 물결을 빌려오지 않고도 일종의 色相이 인간의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韓蘇의 문장은 논의가 기이한 곳은 마치 큰 물결이 천 길이나 되고 내뿜는 눈이 하늘을 치며 밤낮 빙빙 도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둘의 문풍은 크게 다르지요. 천하에 제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왼손으로 원을 그리면서 오른손으로 네모를 그리는 이치가 없는 법입니다. 이 주장이 어떻습니까?

雲我 : 육경이 변해서 左丘明과 司馬遷이 되었고, 左丘明과 司馬遷이 변해서 韓愈와 歐陽修가 되었습니다. 韓愈와 歐陽修가 변해서 王世貞과 李攀龍이 되고, 王世貞 李攀龍이 변해서 袁宏道와 錢謙益, 湯顯祖와 黃汝亨이 되었습니다. 이는 문장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저 사물은 오래되면 진부해 지는 법이지요. 만약 韓愈와 歐陽修가 말마다 左丘明과 司馬遷을 본받고, 王世貞 李攀龍이 말마다 韓愈와 歐陽修를 본받는다면 이는 천하에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제 고문을 배운다면서 글마다 王世貞과 李攀龍을 따라 하고, 그 뺨은 침을 चु는다면 이는 죽은 물건일 뿐이니 어찌 죽히 귀하다 하겠습니까? 내가 王世貞과 李攀龍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따로 手眼을 내서 千古를 타고 넘어 고개 숙여 韓愈와 歐陽修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王世貞 李攀龍을 배우면서 그 마음을 본받고 그 자취를 답습하지 않는다면 바야흐로 잘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松菴 : 육경이 변해서 左丘明과 司馬遷이 되었다는 것은 괜찮지만, 左丘明과 司馬遷이 변해서 韓愈와 歐陽修가 되었다는 것은 안 됩니다. 歐陽修는 韓愈를 배운 사람입니다. 韓愈와 蘇軾이 변해서 王世貞과 李攀龍이 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李攀龍과 王世貞은 고문을 익혀서 이룬 자입니다. 韓愈와 歐陽修를 배워서 변한 것이 아니지요. 李攀龍과 王世貞은 곧장 고문사를 익혔고, 韓愈와 유종원은 진부한 말을 제거하기에 힘썼습니다. 李攀龍과 王世貞은 고문과 땅이 맞닿았지만, 韓愈와 유종원은 큰 강에 가로막혀 있지요. 그런 까닭에 李攀龍과 王世貞을 익힌 자는 동쪽으로 수레를 몰아서 이르고, 韓愈와 유종원을 본뜬 자는 뗏목을 띄워 통해야만 先秦과 西漢의 國都로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마다 네 사람을 따라하고 그 뺨은 침이나 주워 모으는 것은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나는 잠시 네 사람을 배나 수레로 여길 뿐입니다. 뗏목을 버리고 수레를 부수며, 치마를 걷고 어지러이 달린다면 저는 옆길로 떨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벗어나 능히 도달하는 자가 없을까 걱정입니다. 조화의 교묘함은 꽃과 새를 폐하고는 별도의 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은 신기한 것이 모두 천고의 진부한 것 가운데 있다고 여기시는군요.

雲我 : 하늘은 지난 해의 진 꽃으로 다시 올해의 꽃이 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가지를 따라 따로 일종의 새 꽃술을 냅니다. 글 또한 이와 같습니다.

松菴 : 해마다 꽃은 모습이 다르잖코, 해마다 피꼬리는 소리가 같습니다.

雲我 :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더 새로워지지요.

松菴 : 매화는 향기롭고, 복사꽃이 어여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雲我 : 한 사람의 얼굴은 둥글거나 모나거나 석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로로 눈과 눈썹을 두고, 세로로 코를 놓아 수염과 귀와 입을 엮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마다 다르고 만 사람이 같지 않은 것은 조화의 기이함입니다. 글 한 편의 글자는 천백에 불과하지만 橫說豎說하여 문득 괜찮은 문장을 이루니, 이것은 문인의 조화가 공교로움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얼굴은 내 얼굴과 같고, 일본인의 얼굴은 중화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만국이 모두 같다면 이것이 무슨 물건입니까. 또 글마다 서로 본뜬다면 그대의 글이 王世貞 李攀龍의 글과 같고, 내 글도 王世貞 李攀龍의 글과 같게 됩니다. 천하 사람의 글이 모두 王世貞 李攀龍의 글과 같다면 이는 조물주의 조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

올시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으니, 선생께서 반드시 고문사를 하려거든 내 말을 金針으로 삼아 가만히 헤아려 보십시오.

松菴 : 무릇 천하 사람은 이목구비가 서로 비슷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만약 서로 비슷하지 않다면 소귀신이나 뱀귀신이니 사람의 종류가 아닙니다. 공의 이목은 내 이목과 같고, 고구려 사람의 이목은 중국 사람과 같아서 천하가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이 같지 않고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것은 조화의 공이니, 같은 가운데 다름이 있는 것이지요. 韓愈와 유종원은 고문을 배웠고, 李攀龍과 王世貞도 고문을 배웠습니다. 그대도 고문을 배우고, 나도 고문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韓愈와 유종원은 절로 韓愈와 유종원이요, 李攀龍 王世貞은 그대로 李攀龍 王世貞입니다. 공은 공이고 저는 저이니, 글마다 같지 않습니다. 이는 문장의 조화인 셈입니다. 그대도 또한 모의하는 의논의 숙련과 관습의 정밀함은 정신이 운용하는 바여서 따로 일종의 기상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다만 고문의 規矩를 취하지 않고 굳이 신기함을 내는 것은 귀와 눈을 잘못 붙이거나 코와 입 따위를 거꾸로 두는 것과 같게 되니 또한 하나의 기괴한 물건이 아니겠습니까? 공은 자못 好奇의 병통이 있으니, 제 몇 마디 말이 藥石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고문이라는 것은 秦漢 이상의 글을 말합니다.<sup>32)</sup>

井敏卿이 韓柳, 즉 韓愈와 유종원을 말하자, 李彦瑱은 이를 슬쩍 韓蘇, 곧 韓愈와 蘇軾으로 바꿨다. 온건한 유종원 보다 발랄한 蘇軾에게 자신의 취향이 정도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李彦瑱은 자신이 韓愈와 蘇軾을 무척 좋아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王世貞과 袁中郎 왕사임 등 명말청초의 문장가들까지 모두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井敏卿은 명말의 문장가들은 同列에 두고 말할 수 없다고 하여 袁中郎 이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을 비쳤다. 또 王李와 韓蘇는 문풍이 두 갈래로 달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李彦瑱은 文變의 독특한 관점을 피력했다. 시대마다에는 풍기가 있어, 오래되면 泯증내

32) 今井松庵, 『松庵筆語』: “松庵曰: ‘公不取韓蘇之文, 而獨夢寐弁州者何?’ 雲我曰: ‘僕嗜韓蘇如菖歎, 然博識通辨, 文士急務, 何必膠守一二人. 韓蘇萬古一人, 王其入室哉. 吾好韓蘇, 故好王氏. 又好王氏, 故好袁中郎王思任錢謙益郭子章虞行圓李本寧諸人.’ 松庵曰: ‘弁州以下不足論也. 李王之文, 其辭美處, 如瑤池瓊泉, 不待風波, 不假淪漪, 一種色相, 非人間物. 韓蘇之文, 其論奇處, 如巨浸千丈, 噴雪拍天, 日夜迴旋. 二者文風大殊, 天下雖有慧智人無左手畫圓右手畫方之理. 其說何如?’ 雲我曰: ‘六經之變而爲左馬, 左馬之變而爲韓歐. 韓歐之變而爲王李, 王李之變而爲袁錢湯黃. 此文章之不得不然. 夫物久則陳且腐矣, 如使韓歐語語效左馬, 王李語語效韓歐, 此天下無卓識人也. 今欲學古文, 而筆筆步驟王李, 拾其唾涕, 則死物也, 何足貴也. 吾之所貴乎王李, 以其別出手眼, 超乘千古, 不俯首就韓歐也. 如其學王李, 師其心, 不蹈其跡, 方可謂善學者也.’ 松庵曰: ‘六經之變而爲左馬可也, 左馬之變而爲韓歐不可也. 歐則學韓者也. 韓蘇之變而爲王李大不可也. 李王修古文而成者也, 非學韓歐而變也. 李王直修古辭, 而韓柳務去陳言, 李王接壤古文, 而韓柳限大江也. 故習李王者驅車而至焉, 傲韓柳者浮筏而通焉. 而得入先秦西漢之國都也. 然筆筆步驟四家, 拾其唾涕, 大不可也. 吾姑以四家爲舟車耳. 舍筏毀車, 蹇裳亂走, 則吾恐墮于旁蹊, 出于邪路, 未有能至者也. 造化之巧, 不能廢花鳥而別爲一種春. 公以爲新奇者, 盡在千古陳腐中.’ 雲我曰: ‘天不以去年之落花, 復爲今年之花, 從枝條別出一種新葉, 文亦如是.’ 松菴曰: ‘年年花不異形, 歲歲鶯不殊聲.’ 雲我曰: ‘愈出愈新.’ 松菴曰: ‘梅花芬芳, 桃花綽約, 古今不變.’ 雲我曰: ‘一人之面, 方圓不過面三寸. 而橫置眼眉, 豎置鼻. 綴以鬚髻耳口. 而人人殊萬人不同者, 造化之異也. 一文之字, 不過千百, 而橫說豎說, 便成種種文章, 此文人之造化同工者. 如公面如吾面, 日本人面如中華人, 萬國皆同, 是成何物哉. 又文文相仍, 公文如王李, 吾文如王李, 天下人文皆如王李, 是無造物之化. 吾非漫言者. 此有深意, 先生欲必古文辭, 以吾言爲金針暗度處.’ 松菴曰: ‘凡天下之人, 耳目口鼻, 無不相類者. 若不相類, 則牛鬼蛇神, 非人類也. 公耳目如我耳目, 句麗人耳目如中華人. 天下皆同, 而人面不同, 人人萬殊者, 造化之工, 同中有異也. 韓柳學古文, 李王學古文, 公學古文, 我學古文. 韓柳自韓柳, 李王自李王, 公自公, 我自我, 文文不同, 是則文章之造化也. 也亦唯擬議之熟, 貫習之精. 精神之所運, 別作一種氣象耳. 唯不取規規古文, 而強出新奇者, 此錯置耳目, 倒措鼻口之類, 不亦一怪物乎. 公頗有好奇之病, 僕之數語, 無爲藥石乎? 僕所謂古文者, 謂秦漢以上之文也.’”

서 저마다 나름대로의 수단과 안목을 부려 제 시대 또는 자신에게 맞는 글을 써낼 수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민경은 韓愈와 歐陽修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이하의 사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논쟁은 두 사람의 관점이 본질적으로 달랐음을 보여준다. 李彦瑱은 韓愈가 말한 ‘師其意 不師其辭’, 즉 그 정신을 본받고 표현은 본받지 말라는 주장에서 출발하여, 배우되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함을 강조했다. 歐陽脩는 스스로 韓愈를 숭회한 바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문장은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누가 누구를 배운다는 것은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歐陽脩가 韓愈를 배운 결과 韓愈와 전혀 다른 문장을 이룬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 李彦瑱 주장의 핵심이다. 이러한 주장은 조선의 고문가들이 늘상 하던 말이다.<sup>33)</sup> 하지만 井敏卿은 고문의 規矩가 일정하게 틀 지워져 있고, 계통이 엄연히 다르므로 이 둘을 섞거나 다 취하려 들면 잡다해질 뿐 아니라 글을 망치게 된다고 반론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先秦兩漢 古文을 전범으로 삼아 王世貞 李攀龍을 통해 그리로 도달하는 학습 경로를 설정했다. 이는 古文辭派, 즉 擬古文派 문인들의 뿌리 깊은 사고다. 시대 風氣가 다르고 世級이 달라 생기는 부득이한 변화조차 인정치 않고 典範을 향해 줄 세우기를 한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로 귀착된다는 것도 조선의 고문가들이 의고문가들을 향해 비판할 때마다 내세운 주장이다.<sup>34)</sup> 李彦瑱의 반박 논리도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다.

이어 두 사람은 新奇와 陳腐의 문제, 즉 文章 造化의 문제로 논의를 옮겨갔다. 팽팽한 논의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렸다. 李彦瑱은 해마다 묵은 가지에서 새 꽃이 피고, 사람의 얼굴이 하나도 같지 않듯이, 문장도 저마다의 개성을 갖추어야만 살아있는 글이 된다고 주장했다. 擬古의 주장은 천하 사람의 얼굴을 모두 王世貞 李攀龍과 같게 만들자는 것이니, 그래서야 어찌 조물주의 조화를 논하겠느냐고도 했다. 井敏貞은 사람이 이목구비를 누구나 지닌 점은 천하가 꼭 같다. 하지만 생김새는 저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달라지고 글마다 같지 않게 만드는 것은 문장의 조화다. 模擬의 공부와 貫習의 습득을 통해 고문의 規矩를 익히면 일종의 氣像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李攀龍과 王世貞을 통해 구하려는 것은 고문의 규구를 얻자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글은 해괴한 괴물이 되고 만다고 설파했다.

두 사람의 논점 대립은 팽팽하다. 李彦瑱은 내 말을 金針으로 삼아 흉내를 버리고 네 목소리를 찾으라고 말했다. 절대로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니니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충고했다. 결기마저 느껴진다. 井敏卿도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네 말을 들어보니 好奇 취향이 너무 강하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제 멋대로 글을 쓰며 新奇만 추구하면 해괴망측의 길로 떨어질테니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좋겠다.

논자의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의 말은 나름대로 다 타당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관점의 문제이지 시비의 문제는 아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확신과 확고한 문학관에 입각하여

33) 韓章錫이 「讀昌黎」에서, “學韓者, 莫善於歐陽子. 然韓之文, 崛奇而雄深, 歐陽則以適麗平婉勝, 何若是相反也. 於是乎 可見古人善學之道矣. 內得之心, 而外應乎氣, 以己之所能行之, 而字句之同與不同, 有不暇論也.”라 하고, 이어 “使歐蘇上而爲韓柳, 固不能也, 亦所不爲也. 使韓柳下而爲歐蘇, 則所不爲也, 亦未之能也. 韓柳歐蘇, 竟爲韓柳歐蘇而已矣, 反之而不害爲師. 法萬殊一理之謂也, 故曰: ‘歐陽子善學昌黎者也.’”한 것이 그 적실한 예이다.

34) 이와 연관된 논의는 鄭珉, 『古典文章論과 燕巖 朴趾源』(태학사, 2010)에 수록된 여러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논의를 펼쳤다. 당초 李彦瑱이 王世貞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모처럼 고문사에 경도된 조선 문사를 만나보게 된 기쁨도 잠시, 일본 문사들은 토론의 과정에서 자신들과 李彦瑱의 입각점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금세 간파했다. 하지만 그들은 젊은 조선 문사, 그것도 역관 신분엔 불과하여 필담의 기회조차 잡기 어려웠던 그에게서 오히려 발랄하고도 강렬한 사유의 힘을 느꼈다. 두 사람의 토론은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폭넓고 정밀한 독서에 바탕을 둔 眞劍勝負였다. 조선통신사가 일본 문사와 나눈 토론 중에서 井敏卿과 주고 받은 이 논쟁은 가장 치열하고 뜨거웠던 對話錄인 셈이다. 이들은 자기 입장을 서로 확인했고,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하지만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았고, 건강한 비판과 지적으로 토론을 맺었다. 그것만으로도 서로 흡족한 성과로 이해했다.

이밖에 內山栗齋의 『栗齋探勝草』 끝에 부록으로 실린 5월 5일의 문답 속에도 李彦瑱과 시를 주고 받은 기록이 있으나, 王世貞에 관련된 것은 없다. 마지막으로 사행이 끝난 후 大阪의 南川金溪는 자신의 『金鷄雜話』 중에서 李彦瑱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押物通事 중에 李彦瑱은 호가 曇寔이라 한다. 그 사람은 중국음에 대략 통하고 중국을 두 차례나 사신으로 다녀온 사람이다. 學文이 博物能文으로 일컬을 정도는 아니고 中等의 사람으로 보인다. 왕세정을 사모하고, 이반룡은 표절이라 하여 좋아하지 않았다. 일본의 荻生徂徠의 저술을 보고는 “荻生徂徠는 海内の 호걸이다. 동행한 사람 중에도 비방하는 이가 있지만 아꼴만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동행한 사람이란 學士 三書記 등으로 徂徠를 能文排道라 하고 혹은 邪說이라고 하여 불세의 재주를 가지고 황음의 파도에 매몰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浪華의 與力<sup>35)</sup>인 內山藤藏이란 사람이 曇寔과 나눈 필담에, “중화의 문물은 지금은 모두 오랑캐로 변하여 차마 볼 수가 없다. 학문도 호걸이 없다”고 하였다. 일본의 이름난 산수를 물으니, “琵琶湖, 富士山の 감상은 우리들도 처음부터 들은 바이고, 菅根의 호수는 매우 기이하다. 애석한 것은 富士山에 암석이 높은 곳이 적다는 점이다.”라고 답했다. 秋月도 말했지만 조선의 國制에서 주자학을 존중하여 異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가끔 드문 인물도 있다고 보았다.<sup>36)</sup>

內山栗齋 또한 李彦瑱의 王世貞 癖을 거론한 것으로 보아, 李彦瑱의 王世貞 관련 필담이 일본 지식층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는 荻生徂徠 이후 일본인들이 추송해마지 않았던 李攀龍을 표절에 가깝다 하고, 王世貞보다 몇 등급 아래라고 깎아내려 그들과 잦은 논쟁을 벌였다. 劉維翰을 비롯해 많은 일본 문사들이 李彦瑱의 발랄한 재기와 거침없는 언변에 감탄했다. 그 과정에서 당초 거의 존재감이 없던 그가 돌아올 즈음해서는

35) 요리키: 에도시대 職名의 하나. 에도 시의 행정·사법·경찰 임무를 맡았다. 지금의 경찰서장에 해당함.

36) 內山栗齋, 『栗齋探勝草』(『隨筆百花苑』 5): “內山栗齋, 『栗齋探勝草』(『隨筆百花苑』 5): “へ押物通事ノ中 李彦瑱、號ハ曇寔ナルモアリ。コノ人ハ唐音ニモ粗通ジ、唐ヘモ兩度マデ使セシ人也。學文ハ博物能文ト稱スル程ノコトニモアルマジケレドモ、中等ノ人ト見ユ。王元美ヲ慕ヘリ。于鱗ハ剽竊トテ好マズ。ワガ國徂來ノ著述ヲ見テイヘルハ、徂來ハ海内ノ豪傑也、同行ノ人ノ内ニモ謗ル人アリ、惜ムベシトイヘリ。同行ノ人トハ、學士三書記ナドハ徂來ヲ能文排道トイヒ、又アルトキハ邪說トイヒ、不世ノ才ヲ以テ荒淫ノ波ニ埋沒セリトイヘリ。コノ人々ヲ指テイフ也。浪華ノ與力內山藤藏ト云人[一本により「人」補]、曇寔トノ筆語ヲ見ルニ曰ク、中華ノ文物今ハ皆胡ニ變ジテ見ルニタヘズ。學問モ豪傑ナシトゾ。ワガ國ノ名山水ヲ問ヘバ答テ曰、琵琶湖、富士山ノ賞ハ吾輩モトヨリ聞トコロ、菅根ノ湖尤奇也。恨ムラクハ富士山ニ、巖石ノ峩々タル處寡シトイヘリ。カノ國ノ國制ニテ程朱ノ學ヲ重ンジ、異學ハ一人モナシト、秋月モイヒタレドモ、又マレニハケ様ノ人物モ有ト見ユ。”

일본 문사들에게 상당한 예우를 받는 인물로 부상했다.

당초 일본문사들이 李彦瑱에게서 기대했던 것은 荻生徂徠 이래 일본 고문사학의 東傳과 그 영향 아래 배태된 고문사학의 영향력이었던 듯하다. 하지만 대화의 과정에서 이들은 李彦瑱이 좋아하는 王世貞과 자신들이 추송해마지 않는 李攀龍 王世貞에 대한 생각이 뿌리부터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李彦瑱의 생각은 여타 조선 사행의 인식을 훨씬 앞질러 간 진보적인 것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일본 문사들의 고문사에 대한 생각은 姑息的 느낌이 없지 않다. 다만 이들의 학문 수준은 당시 조선 사행들이 본격적인 토론을 회피해야 했을 만큼 精緻하고 깊이가 있었다. 미리 준비한 까닭도 있지만, 독서의 폭과 깊이에서 이들의 수준은 결코 조선 문인들이 앞잡아 볼만큼 만만치 않았다.

#### IV. 남는 문제

劉維翰과의 문답에서 李彦瑱은 이렇게 말했다. “제 주머니 속에는 초고가 많습니다. 귀국 후 한 부의 책을 저술코자 하는데, 이름을 『珊瑚鐵網』이라 하겠습니다. 일본의 奇人才士와 신령스런 산과 좋은 물, 진귀한 보배, 풀과 꽃, 돌과 새짐승 하나 하나의 기이함을 또한 빠뜨리지 않고 다 포함시키렵니다. 마땅히 작은 진기를 실어, 천하만세로 하여금 용문선생이 있으나, 묻히어 세상과 만나지 못했음을 알게 하겠습니다.”<sup>37)</sup>

이 말에 따르면 李彦瑱은 일본 체류 중에 지은 시문을 모아 『珊瑚鐵網』이란 제목의 책으로 엮을 작정을 했던 듯 하다. 앞서 필답에서 자신이 밝힌 세 가지 소원, 즉 天下奇書, 天下佳士와 天下名山山水에 관한 내용 및 일본에 와서 직접 견문한 사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만난 일본 인사들의 小傳도 모두 수록하겠다고 했으니, 정리해둔 초고와 메모가 상당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그의 문집에 남아있는 일본 사행시의 시문은 고작 40여수에 지나지 않는다. 「自題日本詩集」이란 작품이 남았으니, 스스로 『日本詩集』을 묶고 앞에 題詩까지 달았던 일이 있다. 하지만 『珊瑚鐵網』이란 제목이 붙을 뻔했던 이 시집은 傳聞 그대로 죽기 전에 자신이 불태워 버렸거나, 다른 연유로 사라졌다. 『珊瑚鐵網』이란 제목에는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 산호는 남쪽 바다에서 나는 보배로운 물건이다. 일본에서 얻은 보배를 쇠그물로 쓸어담아 왔다는 뜻이다. 명나라 汪珂가 지은 48권 분량의 방대한 저술에 『珊瑚網』이란 저술이 있고, 또 명나라 朱存理의 『珊瑚木難』 8권이 있으며, 명나라 趙琦美는 『鐵網珊瑚』 16권을 엮었다. 특히 조기미의 책은 李彦瑱의 『珊瑚鐵網』을 순서만 바꾼 것이어서 흥미롭다. 李彦瑱은 진작에 이들 저작을 읽고, 그 제목에 흥취를 느껴 이에 버금가는 필기류 저작을 남길 의욕을 지녔던 듯하다.

귀국 후 李彦瑱은 출국 전과 달라진 위상을 피부로 느꼈다. 그의 활약상은 과장을 보태

37) 劉維翰, 「筆談」, 『東槎餘談』 하권 : “雲我曰: ‘吾橐中多草稿, 歸國後, 欲著書一部, 名以珊瑚鐵網. 盡括日東奇人才士, 靈山佳水珍寶, 一草一花, 一石一鳥獸之奇, 亦不漏失. 當載小傳, 使天下萬世, 知有龍門先生, 而沈沒不遇..’”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김조순이 「本傳」에 남긴 이야기 같은 것들이 그 좋은 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사행을 골탕 먹이려고 때로 몰려와 시문을 요구하고, 어려운 험운으로 된 시를 갑자기 내놓아 화운을 요구하곤 했다. 李彦瑱은 언제나 귀신같은 솜씨로 그들의 요구에 수응했다. 5백 자루의 부채를 가져와 5언율시를 요구한 일까지 있었다. 李彦瑱은 먹물 몇 되를 다 써서 부채를 모두 채웠다. 일인들은 다시 부채 500개를 가져와 기억력을 시험했다. 李彦瑱이 막힘없이 그 자리에서 떠올려 썼다. 하루 밤 사이에 부채 1천개에 글씨를 쓰고 5백수의 율시를 지었다.<sup>38)</sup> 그가 사행 일정을 마치고 大阪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지은 시문이 이미 출판되어 나왔다고 했을 정도이니, 일본에서 그가 보여준 활약상은 앞서 필담을 통해 본 것 이상이었을 것이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李彦瑱은 朴趾源에게 여러 차례 자신의 시문을 보내 評批를 청했다. 은근한 자신감과 자부심의 발로였다. 하지만 朴趾源은 뜻밖에 냉담한 반응으로 그를 격동시켰다. 이때 그가 대꾸했다는 ‘吳農細唾’와 李彦瑱의 ‘僮夫氣人’의 반응은 필자의 앞선 논문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재론치 않는다. 이 주제는 좀더 깊이 있게 따로 다뤄볼 작정이다.

그래도 남는 의문이 있다. 실제 작품을 통해 보면 李彦瑱의 정체성은 王世貞 보다는 공안파와 경릉파의 문예취에 더 가깝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 「弇園」에서 “王世貞의 기세는 참으로 文宗이니, 풍수가에 비유하면 大幹龍과 비슷하다. 눈 아래 石公 같은 천 백명의 무리야, 그에 대면 모두다 子孫峯 쫓 될 걸세. 弇園氣勢儘文宗, 譬似形家大幹龍. 眼底石公千百輩, 與他都做子孫峯.”이라 하여, 王世貞이 큰 등줄기라면 袁宏道는 겨우 거기서 갈려나온 지엽말단의 새끼 봉우리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袁宏道나 鍾醒 등의 공안 경릉의 문사들이 모두 王世貞의 磁場 안에 속한 잔가지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가 일본 문사와의 필담에서 시종일관 주장한 내용과도 조금의 차착이 없다. 또 「日本途中所見」 중의 시에도 “시골 선생 시와 문을 논하는 것은, 진흙으로 빚은 배에 솟으로 그린 눈. 韓歐만 높이고 王李는 후려치니, 꿈에선들 그네의 발바닥이나 보았으랴. 村夫子論詩文, 腹團泥眼鏤炭. 崇韓歐駁王李, 夢曾見他脚板.”라 하여 韓愈와 歐陽修만 높이고 王世貞 李攀龍을 우습게 보는 촌스런 풍조를 나무랐다.

이렇게 보면 李彦瑱의 王世貞에 대한 경도는 뿌리 깊은 것이었다. 일시적으로 일본 문사의 기호에 영합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가 아니었다. 다만 앞서 劉維翰이 王世貞의 續集을 읽으면 안된다고 한 데서도 보듯, 王世貞의 초기 저작과 후기 저작의 관점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李彦瑱이 경도되었던 속집의 문학 세계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면, 王世貞에게서 명말 공안파와 경릉파로 이어지는 맥락을 찾을 수 있겠는데, 아직 우리 학계의 논의는 그 단계에 올라와 있지 못한 듯하다.

王世貞을 바라보는 李彦瑱의 관점은 그의 스승인 李用休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

38) 金祖淳, 「本傳」(叢刊 262책 490면) : “一船中多能文士, 然神捷無有過彦瑱者. 日本人素狡, 每我使往, 輒羣至索翰墨, 或預構詩文, 多至屢千百言, 卒出求和, 冀以困之. 我人亦不欲詘, 必揮灑副之, 然亦患其太迫. 及彦瑱至, 羣倭持五百箒, 索五言律. 彦瑱即磨墨數升, 且吟且書, 俄頃而足. 羣倭環顧驚喜, 復持五百箒, 請曰: ‘已服公才思, 願試公記性.’ 彦瑱又且念且書, 如錄己言, 指間颯颯起秋雨聲, 須臾擲筆整襟而坐, 日未晡, 而書千箒, 賦五百律, 所記誦亦如之. 倭愈驚歎吐舌, 以爲神也.”

부분은 어쩌면 당시 남인 시단의 정체성 파악에 하나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李彦瑱과 일본 문사와의 필담 기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마치겠다. 여기서 미끄러져 나온 생각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高橋博巳, 「李彦瑱の横顔」(한국18세기학회 제 12차 학술발표회, 2005, 5.14) 발표문.  
 高橋博巳, 『東アジアの文藝共和國』, 日本 新典社新書 26, 2009.  
 宮瀬龍門, 『東槎餘談』, 日本 國會圖書館本  
 龜井南冥, 『泱泱餘響』, 『龜井南冥昭陽全集』 1, 日本; 葦書房有限會社, 1977.  
 今井松庵, 『松庵筆談』, 筆寫本  
 南川金溪, 『金溪雜話』, 『隨筆百花苑』 5.  
 內山栗齋, 『栗齋探勝草』附錄 韓客唱和, 日本 京都大圖書館本.  
 奧田尙齋, 『兩好餘話』, 筆寫本.  
 成大中 지음, 홍학회 옮김, 『부사산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소명출판, 2006.  
 元重擧 지음, 박재금 옮김,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출판, 2006.  
 元重擧 지음, 김경숙 옮김,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강동엽, 「虞裳傳에 투영된 李彦瑱과 그의 세계인식」, 『건국어문학』 제 19·20합집, 건국어문학회, 1995년, 55-76면.  
 강명관, 『공안과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구지현, 『계미통신사 사행문학연구』, 보고서, 2006.  
 김성진, 「南玉의 생애와 일본에서의 筆談唱和」, 『한국한문학연구』 제 19집, 한국한문학회, 1996년, 273-300면.  
 박희병, 『저항과 아만』, 돌베개, 2009.  
 이노구치 아즈시 저, 심경호·한예원 역, 『일본한문학사』, 소명출판, 2000년, 1-876면.  
 이용휴 저/조남권·박동욱 역, 『혜환 이용휴 시전집』, 소명출판, 2002년, 1-310면.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대출판부, 1996년, 1-407면.  
 정민, 「『東槎餘談』에 실린 李彦瑱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제 32집, 한국한문학회, 2003. 12, 87-123면.  
 정민, 「연암 척독소품의 문예미」, 『한국한문학연구』 제 31집, 한국한문학회, 2003.6, 49-87면.  
 정민,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8.  
 정민, 『고전문장론과 연암 박지원』, 태학사, 2010.  
 피정희, 「李彦瑱論」, 『조선후기 한문학작가론』, 집문당, 447-467면.  
 한태문, 「위향문인의 壬戌使行記 연구」, 『국어국문학』 제 30집,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93년, 195-213면.  
 한태문, 「李彦瑱의 문학관과 通信使行에서의 세계인식」, 『국어국문학』 제 34집,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97년, 41-60면.

## <李彦瑱과 日本文士の 王世貞 關聯筆談>에 대한 토론문

陳在教(成均館大)

<李彦瑱과 日本文士の 王世貞 關聯筆談>은 1763년 癸未使行에 참여한 李彦瑱(1740-1766)이 일본 문사와의 필담을 통해 ‘王李(王世貞과 李攀龍)’의 취향과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규명하였다. 특히 이언진은 일본 문사들과 달리 이반룡보다 왕세정의 박학과 학술, 문학 경향 등을 깊이 존중하고 문학의 개성을 강조하는 모습, 조선조 문인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王世貞에 시종일관 경도하여 자신의 사유와 문학적 지평을 넓혀가는 자양분으로 삼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언진이 일본 문사와의 필담을 통해 의례적 혹은 형식적 수준에서 필담하는 것을 넘어 ‘王李’를 매개로 지적 대화의 모습을 포착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이 중국의 왕세정을 대상으로 지적 대화를 함으로써 당대 양국 문단의 성향과 지식인 교류의 양상, 그리고 기존에 알려진 이언진의 면모를 보다 구체화 시키고 있다.

이 논문 자체가 양국 문사들과의 필담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추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기보다 양국 문사들이 왕세정을 독법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1. 이 논문은 서론에서 “당시까지 조선에서 평가 받지 못한 王世貞이 왜 갑자기 화제의 중심에 섰는가? 李彦瑱의 王世貞 관련 언급에 어째서 일본 문사들이 큰 관심을 보였을까? 이에 대한 조선 문인의 반응은 어땠나?”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이언진과 일본 문사들의 주로 관심을 보인 ‘왕세정’을 필담에서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언진이 癖에 가까울 정도로 왕세정에 심취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2. 이 논문은 李彦瑱과 井敏卿의 필담이 핵심이다. 특히 핵심적인 사안은 ‘王李’와 ‘李王’으로 지칭한 李攀龍과 王世貞의 우열론, ‘韓柳와 李王을 중심에 놓고 논란한 文變論’. ‘新奇와 陳腐와 같은 文章 造化의 문제 등이다. 이에 대해 “논자의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의 말은 나름대로 다 타당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것은 관점의 문제이지 시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관점의 문제’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듣고 싶다.

3. 李彦瑱이 井敏卿에게 “내 말을 金針으로 삼아 흉내를 버리고 네 목소리를 찾아라. 그리고 이 말은 절대로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니니 꼼꼼이 생각해보라.”고 충고하고 있으며, 이에 井敏卿도 “네 말을 들어보니 好奇 취향이 너무 강하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제 멋대로 글을 쓰며 新奇만 추구하면 해괴망측의 길로 떨어질 테니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서 한자어로, 그리고 대화내용과 부합된 정확한 표현 및 경어법과 품위 있는 武家の 언어로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참고하면 18세기 초부터 이미 역관의 일본어능력에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며, 『개수첩해신어』의 편찬 약 10여 년 뒤에 행해진 계미사행이 었기에 완전한 숙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적 이익의 감소로 인한 역관 자원의 부족 때문으로, 이는 조업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확인된다.

“전에는 倭譯도 致富한 자가 많이 있었는데, 한 번 長崎島가 江南의 장사꾼과 바로 통한 뒤로 부터 비단의 매매가 倭館을 거치지 않고 인삼의 가격이 또 거둬 높이 뛰어 이윤이 많지 않아 생활이 점차 어려워졌다. 그래서 글을 조금 아는 역관들의 子姪은 다 과거에 응시하고 그 선대의 업을 잇는 자가 매우 적으므로 후일 邊門의 일을 맡길 만한 자가 이로 인하여 얻기 어려워 지니, 이것이 더욱 답답한 일이다.”(『海槎日記』, 1763.11.10)

이는 당시 왜학역관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데, 실제로 통신사 사행록에는 어느 사행이든지 예외 없이 역관의 潛商이 문제로 등장한다. 1655년 사행의 경우 소통사 金春男이 남은 양식으로 銀을 산 일로 동래로 추방되고, 1719년 사행에는 역관 權興式이 인삼밀무역이 발각되자 음독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1730년대 일본과 중국간 직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왜관무역이 하향세를 걷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왜학역관의 경제적 이익도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흡인요인마저 시들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수한 역관 자원의 부족은 일본어능력 저하의 원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3. 극히 지엽적인 것으로, 발표자는 통역하는 이가 없어도 필담창화의 현장이나 업무연락 등에서 한문을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자를 통한 짧은 필담의 한 예로 일본 관리가 화장실에 간 원중거를 당황케 한 가마꾼을 꾸짖자 관리의 손바닥에 한자를 써서 그들을 용서받게 한 일을 들고 있다. 그런데 원중거의 『乘槎錄』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길게 서술되어 있어 단순히 손바닥에 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 관리도 전체 글을 이해했다기 보다 주요 어휘와 그 정황으로 미루어 원중거의 의도를 이해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 癸未信使の通訳たち・ノート

池内 敏（名古屋大学）

### はじめに

癸未信使の訳官（倭学訳官、日本語通訳）たちの日本語能力については、概ね低い評価しか与えられていない。たとえば、李元植は、癸未信使の正使趙曦の発言「両国の疎通は、専ら訳官にたよっているので、今度10人も連れてきたが、日本語に精通するものが甚だ少ないのには驚いた。」<sup>(1)</sup>（『海槎日記』癸未12月16日条）を引用するほか、訳官李命和について「この人は、…（中略）…和語も格別入組みたる事は通じがたく、…（中略）…少しむつかしき事、或は冗長なる事は、その語前後上下転倒錯出して、きこえぬこと多きか」とする否定的な評判（『金溪雑話』）をも引用する（〔李元植1997〕471頁、467－468頁）。李元植はまた、癸未信使の正使づき首訳崔鶴齡と副使づき首訳李命尹について、「（趙曦は一引用者注）崔鶴齡と李命尹の日本語実力が昔の名訳官には及ばなかったとのべている」と指摘する（同前471頁）。

この癸未信使に先立つ丁卯信使（1747年）の正使洪啓禧が『老乞大新釈』に寄せた序文<sup>(2)</sup>〔鄭丞恵1998〕の一節には「余が丁卯年（1747）に日本へ赴いたときの日本語通訳のまずさは、（燕行使の際の）中国語通訳のひどさに匹敵するほどであり、それで、『捷解新語』を相次いで訂正し、古今のはっきりした違いを明らかにすることで、通訳たちにとって便宜となった」<sup>(3)</sup>とする部分がある。この洪啓禧の感想をも併せ考えると、倭学訳官たちの日本語能力の低さは癸未信使だけの特殊事情ではなく、丁卯信使も含めた18世紀半ばを通じての事情であったと指摘できよう。

ところで、洪啓禧が「拙かった」とする丁卯信使随員の日本語通訳のなかに、当時39才の押物通事崔鶴齡がいる。『捷解新語』は朝鮮王朝後期を代表する日本語教科書だが、崔鶴齡は、1676年に活字本として刊行された『捷解新語』を二度にわたって改修した人物である<sup>(4)</sup>。すなわち洪啓禧が言う「通訳たちにとって便宜」となる作業を行ったのは、この崔鶴齡である。その崔鶴齡が、癸未信使に際しては正使づき首訳となり、正使趙曦からは「日本語実力が昔の名訳官には及ばなかった」と評されたという。

実は、崔鶴齡と李命尹の評価に関わる趙曦発言は、李元植が正確に引用しているように「雖不如古昔名訳之多識慮善倭語。蓋其為人則俱頻繁束矣」というものであって、かつての名訳官ほどの知恵も日本語能力もなかったとはいえ、二人とも常に厳格な態度を堅持したことを誉める発言である。発言は、4月7日の崔天宗殺害から始まった事件（後述）が、5月2日に犯人鈴木伝蔵の処刑によって幕を閉じたことを踏まえ、5月6日、この約一ヶ月間の訳官たちの努力を賞して為されたものである。趙曦は同じ日、「二人の首訳は、昼夜分かつたずあちらこちらに働きかけて、ついに伝蔵を処刑する現場に立ち会うことを果たし得た。これはいわば、誠を尽くせば得られないものは無い、を实地に示したものと云える」とさへ評している<sup>(5)</sup>。

本稿は、崔鶴齡ら癸未信使の訳官（正使づき首訳）たちの活動について、通訳に求められた能力との関わりに視点を据えながら検討するものである。

## 1. 使行録に見える訳官のすがた

### (1) 意思疎通と語学能力

意思疎通に必要な語学能力は所与の場面で求められる意思疎通の水準によって変化するから、語学能力の評価もまた必要とされる意思疎通の水準との対比によって可変的である。そして意思疎通それ自体は、語学能力を欠如した状態でも不可能ではない。癸未信使の使行録類から、まずは訳官ではない人たちの意思疎通に関わる記事を掲げてみる。

従事官づき書記金仁謙は、甲申2月1日、往路の彦根から大垣へ向かう途中の山道で大雨に見舞われ、山中で日暮れを迎えた。周囲が真っ暗闇で信使一行の姿はどこにも見えない。日本人の駕籠かきは意気消沈して駕籠を下ろして座り込んでしまう。「言葉も通じぬ倭人を頼みに／ただ坐しているのみ」という状態に不安と危険を感じ、金仁謙は「そこで奴らの着物をつかみ／揺すってこちらの気持ちを伝え／駕籠の中の食べ物を／いろいろ出して与え」た。すると、駕籠かきたちは大騒ぎしながら食べ物を食べ終え、ふたたび駕籠をかついで進み始めたという<sup>(6)</sup>【事例1】。

右の記事の前日（1月30日）、大津から彦根へ向かう行列のなかで、正使づき書記成大中の乗った輿は副使づき書記元重挙の輿より遅れ気味であった。成大中の輿と並んで進みたく考えた元重挙は、自分の輿近くにいた日本人「沙伊老五」（才五郎か）に声を掛けた。才五郎は頭を下げて両手を合わせながら、「はっ」と応じた。そこで、後ろに行く成大中の輿を指さしながら「のりもの、はよはよ」と声を掛け、次いで自分の輿について「のりもの、そろそろ」と声を掛けた。それで、二人の輿が並び行くようになったので、元重挙が「よかよか」と声を掛けたところ、二人の輿を担いでいた日本人夫らが大笑いしたという<sup>(7)</sup>【事例2】。

筑前藍島に滞留中の癸未12月9日、たまたま日本人小童が灯燭の準備にやってきたので、元重挙は、金仁謙（退石）のもとで働く東安なる人に日本語で話をさせてみた。東安は草梁に住んでいて日本語に馴れていたため、聞き取りや会話が可能だったという<sup>(8)</sup>【事例3】。

甲申正月2日、赤間関（下関）から室積へ船で進む。元重挙は、陸の方角に見える浦々について、以前の使行録などに依拠しながら浦名を一つ一つ挙げながら、日本人水主に確認する。水主のなかには「文字を解する」者がいて、頭を振ったり手を揺すったりしながら浦名の確認に応じた<sup>(9)</sup>【事例4】。

一方、これは使行録の記事によるものではないが、癸未信使と交流した伊勢菰野藩の藩儒南川金溪の場合を例示しよう。金溪は、朝鮮語の誉め言葉〈チョツソ〉を詩文贈答の現場で聞きかじり、朝鮮信使から書画を見せられるたびに〈チョツソ〉を繰り返していた。そうしたところ、信使たちは、金溪は〈チョツソ〉なる語を知っているようだな、という素振りであったという<sup>(10)</sup>【事例5】。また金溪は、「牌ト梨ト船ト、コノ三字一音ニテ〈パイ〉ト云ナリ。ソレユヘ牌ヲ持テ船ニノリテ梨ヲ食ヘリトイフコト、明カニイハ分ケ難シトナン、オカシキコト也。ワガ国ノ橋・端・箸ノ類ナルベシ。」ともする<sup>(11)</sup>【事例6】。

さて、【事例1】は、言語を介さない身振り手振りでの意思疎通である。【事例2・5】は、たまたま聞きかじった外国語の語句が、場面によっては意思を通じさせることにつながった事例である。【事例4】は、「新泊浦・丸尾崎・徳山・三田尻・笠戸」など、浦名を一つ一つ挙げながら眼前にある風景との対応関係を信使から問われたことに対し、水主が、その職業に伴って蓄積された地理的知識を背景にして応答できた事例である。ここでは発問も応答も単語であり、それはあるいは書かれた字句であったかも知れない。【事例6】が耳学問によるのか書籍を介した学習成果なのかは不明だが、ここで扱われているのは単語の知識に留まっている。

したがって、【事例3】を除けば、いずれの事例も単語ないしは字句による限定的な意思疎通である。任意の発話をいつでも即座に理解できたわけではなかったし、おそらくそうしたことは不可能であったろう。また【事例3】が具体的にどの程度の日本語会話を行ったかは不明だが、「草梁に住んでいて日本語に馴れていた」から会話が可能だろうと見なされた背景には、経験的な学習でもある程度までの意思疎通が可能だと考えられていたことがあるだろう。けれど、この事例に登場する東安なる人は訳官ではない。訳官に求められていた意思疎通能力は、経験的な学習によって獲得されるものとは異なるものであったと推測できる。

ところで、癸未信使の製述官南玉は「わが国の訳学・通事が理解できないだけでなく、大坂以西、西京や江戸といった地域の語は対馬人でも大部分は理解できない。通訳を介してよりも筆談で分かることの方が詳細である」と述べるから<sup>(12)</sup>、倭学訳官の日本語能力が必ずしも高くはない背景について、日本語における地域差(方言)の甚だしさを指摘する。対馬の日本人ですら理解不能なのだから、ましてや朝鮮王朝の倭学訳官では理解不能なものも致し方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あろう。南玉は、通訳より筆談の方がましだとすら述べる。

もっとも、だからといって南玉が日本の朝鮮語通詞の方が優秀だったと見ているわけでもなく、彼は対馬藩の朝鮮語通詞の能力についても疑義を呈している。南玉によれば、「癸未信使に随行する対馬藩朝鮮語通詞は50名ほどにもなるが、その多くは言葉が通じない。とりわけ多数は江戸へ行くのが初めてであり、問うても答えが返ってこない」というのである。通詞のなかでは松本善左衛門なる人が別格で、この人とほかに四人の通事だけが丁卯信使(1747年)時に随行して江戸行の経験をもつともいう<sup>(13)</sup>。南玉が、対馬藩の朝鮮語通詞について「多くは言葉が通じない(原文では「多未通語」)」と述べるのは、多数の通事を松本と対比する点に鑑みれば、単純な言語能力のことをのみ言ってるわけではなかろう。松本のように、信使随行と江戸入りの経験を踏まえて様々で任意の質問にも的確に答えうる知識を有しているか否かもまた重要だったのではなかろうか。

## (2) 使行録中の訳官たち

対馬府中で幾日も滞在を続けるあいだ、宿舎の三使を対馬藩主以下が慰問に訪れることがあった。金仁謙によれば、そうした際には「倭の奉行と崔首訳が／互いの言葉を伝えあう」<sup>(14)</sup>というから、首訳の役割は、当然のことながら、三使の発言を日本語に直して通訳することであった。同じ状況について元重挙は、「対馬藩の朝鮮語通詞が対馬藩主の言葉を伝えるだけで、以酌庵僧以下の言葉は伝えなかったから、この人たちの言葉は倭学訳官が通訳

した。」<sup>(15)</sup>ともいう。

日本人からの揮毫要求は対馬藩の朝鮮語通詞を介してなされ<sup>(16)</sup>、贈られた詩文に対する朝鮮信使書記からの返答・礼物は、対馬藩の朝鮮語通詞を介して送付する<sup>(17)</sup>場合もあれば、倭学訳官を介する場合<sup>(18)</sup>もあった。行路途中の物見遊山など公式行事には無いことがら朝鮮語通詞を介して提案されもした<sup>(19)</sup>。したがって、誰のどの発言をどの通詞／訳官が通訳するかは任務分担については、さらなる事例収集と検討が必要だろう。ただし、三使が関わる公的な内容の伝達や折衝は必ず首訳が担った。たとえば信使行列のなかには朝鮮国王国書を載せた輿があったが、大垣から名古屋へ向かう甲申2月3日、その輿の前を、対馬藩士が馬上のまま横切った。これを非礼と感じた正使は、首訳を介して対馬藩に抗議を行っている<sup>(20)</sup>。

ところで、通訳をするということは、単に言葉が通じるということに留まらず、自分たちの主張を相手に呑ませるところまで含み込む概念でもあった。甲申1月8日、鹿老渡での出来事である。[高島淑郎1999、220頁]の注記にもあるように、この日、対馬島主による出発の提案に対し、正使は強風だからとして承諾し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対馬島主の船だけは先に出発してしまった。そこで、正使は三首訳を厳しく叱責したというのである<sup>(21)</sup>。

首訳たちは三使らがなす公的行為の仲介者であり、首訳自らも儀礼的行為を行う存在であった。使行録のうち、行列の途中や日本側とともに行う儀式の次第が記述された場面では、三使らとともに進む三首訳の姿が追跡されるからである。

首訳たちはこうした朝鮮信使の「公」を担う者であったが、同時に使行録には、次のような「私」に関わる姿も書き留められている。金仁謙は、随行員のなかでも特に清廉潔白で知られた人物であったが、詩文を請う日本人が数多くの礼品を携えて来るのに対し、いつもこれを受け取ろうとはしなかった。こうした金仁謙の姿勢に対し訳官は、前例通りに礼品を受け取るよう促したという<sup>(22)</sup>。金仁謙は、首訳が対馬藩士たちと癒着していることを疑ってもいる<sup>(23)</sup>。

## 2. 崔天宗殺害事件における訳官たち

癸未信使が江戸での儀礼を終えて帰途につき甲申4月5日に大坂に到着したところ、7日未明に都訓導崔天宗が殺害される事件が発覚する(崔天宗殺害事件)。崔天宗はのどを鋭利な刃物で突かれて夥しい血を流しながらも、自分には恨みを買うような覚えのないことなどを述べ、結局、早朝に絶命する。正使の意向を受けた三首訳は連名で抗議文を対馬藩にあてて提出し、文中には、崔天宗が殺害されたことや殺害されるような恨みは身に覚えのないこと、凶器は日本製であることが記載されたが、ほとんど無視された。崔天宗の遺体は11日になって入棺され、13日に大坂市内の竹林寺に納められたが、その間、事件に関わる情報は信使側には一切伝えられなかった。当初は対馬藩側も把握できていなかった犯人についても、それが対馬藩朝鮮語通詞鈴木伝蔵で、既に大坂から逃走してしまったこと等々についても連絡されなかった。鈴木伝蔵が4月18日に捕縛されたことも即時に伝えられることは無かった。信使側に、犯人に関わる情報が風聞として伝わるのが19日のことであり、対馬藩から正式に伝えられるのは20日になってからだった。そして、江戸から幕府目付・曲淵勝次郎が急遽派遣され、鈴木伝蔵が5月2日に処刑されて、事件にとりあえぬの決着がつけられたのである[池

内敏1999]。

さて、本稿では、こうした事件概要のなかから4月20日の対馬藩側と信使側との対談に焦点を絞り、この対談において訳官がどのようにして自らの任務を遂行しようとしたかについて述べたい。まずは、対談の様子が端的に分かる対馬藩政史料<sup>(24)</sup>で見てみよう。

この日、午前10時ころに対馬藩主は信使客館に入り、信使奉行多田監物が取次役となって上々官崔知事へ〈1〉の内容を口頭で伝えた。

〈1〉このたびは思いがけない変事となり、ご心中を御察し申します。私どもも気の毒なことと存じております。さっそく幕府に連絡いたしましたところ、別紙のような指示が参りましたので、お伝えいたします。

そして、奉書紙に堅にして書かれた文書を上々官に渡した。

これに対して、三使から承知した旨の返答〈2〉があった。

〈2〉念の入ったことをしてくださり、安心いたします。

この返答は上々官から監物へ伝えられ、監物から藩主へ伝達した。

その後、ふたたび藩主から〈1'〉の内容を口頭で伝えた。

〈1'〉このごろになって犯人も捕らえましたし、まもなく御目付が江戸から到着すれば犯人に対する処分も下されることとなりましょうから、遠からず御上船なさって帰国の途にお就きにな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から、どうぞご安心下さい。

このように監物を取り次いで上々官を介して口頭で伝えたのち、三使衆から上々官を介して次のような話〈3〉があったので、これを藩主へ伝達した。

〈3〉誠信交隣に関わることでですから万事手抜き無く行うべきところ、今回は思いのほかのこととなり、あなたがたもども驚き入っております。今となりましては犯人もお捕まえになったとのことですから、さっそく事件内容を明らかなにさつうえでお仕置きを御命じになり、貴国(日本)としての法を貫かれ、犯人以外の無罪の者たちをお疑いになることはおやめになってください。対馬藩と朝鮮とは、これまでどおり変わることなく、また抜かりない意思疎通を続けたく思います。これからも万事は対馬藩主のみが頼りですから、対馬藩・朝鮮双方ともに末端の人々に至るまで厳しく申しつけて不埒なことの起こらないように致したく思います。

これに対する藩主からの返答〈4〉

〈4〉おっしゃったことはすべて承知いたしました。なお、お話にあったうち、無罪の者に対する吟味・仕置きの件等につきましては、町御奉行へお話になって下さい。

これに対して三使衆からの答え〈5〉

〈5〉我々の方からは対馬藩を頼る以外には術はなく、ほかへ何か申し入れをするなどということは考えておりません。

右のように対談が終わって、対馬藩主が帰るに際しては、三使衆が御出迎えのところまで見送りに出てこられた。

右の日本側史料に見える対談〈1〉～〈5〉は、すべて趙曦『海槎日記』甲申4月20日条で確認できる。また、右の引用史料に「多田監物が取次役となって上々官崔知事へ」とか「監物を取り次いで上々官を介して口頭で伝えた」「三使衆から上々官を介して次のような話があった」

などとあるように、日本側は多田監物が、信使側は首訳崔鶴齡が、対馬藩主と正使との対談を仲介し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

さて、この対談が「口頭で」なされたことは史料にも明らかなようにも見えるが、しかし実はこの対談は「口頭だけで」なされたものではなかった。同日の対談を同様に記録したもうひとつの対馬藩政史料には、右史料〈5〉と同文が収載されたのちに次のように付記される<sup>(25)</sup>。

右の口頭での対談は、受け答えの内容が多く、上々官の日本語が上手ではないので、もし言い間違いや話し漏れがあつては問題を生じるので、同じ内容を漢文でも書かせたそうだから、その漢文も多田監物から提出されたので、以下に記録しておく。

つまり、先に引用した対談記録や趙曦『海槎日記』等々の使行録類では口頭でなされたかのごとく見えた対談が、実は上々官崔鶴齡の日本語能力だけに依存していたのでは不安が残るから同内容を漢文で文章化して提出させ、これで対談内容を補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この点からすれば、首訳の通訳活動は、日本語会話だけでなされたものではなく、漢文をもあわせて行われたものだったと考えるべきだろう。筆談は、詩文贈答に際してだけでなく、詩文贈答に比べれば無味乾燥な政治折衝の場でも力を発揮したのである。

## おわりに

癸未信使に随行した首訳たちは、どうやら通説通り、日本語能力があまり高くはなかったように思われる。しかしながら、そうした「昔の名訳官には及ばない」程度の日本語能力であっても、このときの首訳たちは正使から褒め称えられた。訳官に求められたのは、単なる語学能力ではなく(あるいは、語学能力に多少の疑問符が付くにしても)、相手側から有益な内容を引き出してくる交渉力を含めた力量ではなかったか。

この交渉力を含めた力量という観点からすれば、漢文による筆談を補助手段とすれば、交渉能力それ自体は以前に比べて劣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そもそも「昔の名訳官」は交渉のすべてを、日本語能力のみで果たし得ていたのだろうか。

筆談も含めての交渉能力の総体的水準という観点からすれば、訳官の能力は「昔の名訳官」と比べて低下していたのか、いなかったのか。仮に趙曦が述べたように日本語能力が低下していたのだとすれば、そうした能力低下はいつごろから進行し始めたか、またその契機は何であったか。そうしたこともまた、今後の検討課題となっていくかざるをえない。

朝鮮語通詞・倭学訳官など相手国側の語学を習得した人々がいなくても、詩文贈答などの筆談の場にあつては漢文を介した意思疎通が行われていた。そして事務連絡のような内容もまた、筆談によってなされ得た。甲申2月4日、信使行列が鳴海を發つて岡崎へ向かったとき、元重挙は厠へ行って出立が後れた。彼が厠を出たときには行列の姿はどこにもなく、元重挙の乗るはずの輿だけはあつたが、それを担ぐ人夫の姿もなかった。かなり時間が経って漸く日本人の役人が現れたときに、元重挙はその人の掌に指で漢字を書いて短い筆談を行っている。

近世日朝間における通訳は、既に公用語としての漢文能力が幅広く存在することを背景にすることで存立しえたのではなかったろうか。

\*以下、注については、赤字部分だけ韓国語に翻訳してください。それ以外は、日本語であれ、漢文であれ、史料原文として、そのまま残していただければ結構です。

### 〈注〉

(1) 「両国言語之相通。全頼訳舌。而隨行十人。達通彼語者甚鮮。誠可駭然。」

(2) 朝鮮王朝期における漢学訳官たちの中国語学習書のひとつとして『老乞大』があり、その内容を修訂して1761年8月に刊行されたのが『老乞大新釈』である。洪啓禧は、1747年に丁卯信使正使として日本に派遣されたのち、1760年に燕行使として北京へ赴いた。『老乞大新釈』の撰者のひとり邊憲は、訳官として洪啓禧の燕行使行に同行した人物である。刊行期日にも明らかなように、燕行使行の記憶がまだ新鮮であったところに『老乞大』の修訂が企画され、刊行されたのである。

(3) 「余丁卯赴日本、南訳之鹵奔、殆有甚於北、故逐改編捷解新語、以弁其古今之判殊、諸訳便之」

(4) 第一次改修本（『改修捷解新語』）は1748年刊、第二次改修本（『重刊改修捷解新語』）は1781年刊[金基民2004]。

(5) 「兩訳昼夜不怠。多方用計。果得成其查獄。是謂至誠做去。無物不得也」(趙曦『海槎日記』甲申5月6日条)

(6) 「(前略) 従事官の部屋に顔を出した後／中食を済ませて先に出発する／二里ばかり進んだところで／日は暮れ大雨となった／道はぬかるみ難渋を極める／滑りやすいので／五人の駕籠かきは／交替しながら行くが／ほとんど先へは進めず／高みに駕籠を下ろし／うろたえるばかり／もう前進する意志はないようだ／四方を見回すと／天地果てなく広がり／一行の人々は姿も見えない／灯火までも消え／一寸先も見分け得ず／茫々とした荒野の中／言葉も通じぬ倭人を頼みに／ただ坐しているのみ／今宵のこの事態に／疲労はつり身の危険さえ感じる／ここで駕籠かきに逃げ出されたら／どんなに困るだろうか／そこで奴らの着物をつかみ／揺すってこちらの気持ちを伝え／駕籠の中の食べ物を／いろいろ出して与える／連中は大騒ぎしながらそれを食べた後／ようやくに駕籠を担ぎ／少しずつ進むが／いたる所でこの繰り返し(以下略)」(『日東壯遊歌』甲申2月1日条、[高島淑郎1999] 258-259頁、[沈載完1984] 191-193頁)

(7) 「欲與執輿并行而執輿方在後、余呼曰沙伊老五(사이노오)、沙伊老五(사이노오)俯首合掌、以應曰「何」(하／應諾也)、指後曰「彼老里毛老」(노리모노／乗物之方言也)「何要何要」(하요하요／促行也)「此老里毛老疎路疎路」(노리모노소로소로／徐徐也)、既并行相当曰「欲可欲可」(욕가욕가／好好也)、兩輿卒皆大笑」(『乗槎録』甲申1月30日条、[金景淑2006] 269-270頁)。なお、成大中『日本録』同日条には関連記事が得られない。

(8) 「是日適有小倭爲挑燭入來、觀其狀貌頗純實、賜坐興菓果、因招退石陪把東安、使之伝

語問答、蓋東安居於草梁習倭語故耳言」(『乗槎録』癸未12月9日条、[金景淑2006]170-171頁)

(9) 「舟循左陸為路、新泊浦・丸尾崎・徳山・三田尻・笠戸等之处、皆憑前聞而問之、倭沙工能解文字、點頭搖手以相可否」(『乗槎録』甲申正月2日条、[金景淑2006]210頁)

(10) 「〈ヨシ〉ト云フヲ〈チョツソ〉トイフ也。唐人ノ〈好〉ト云ニ当レリ。予、館中ニテコノコトヲキ、シユヘ、書画ナドヲ韓人ヨリ見セケル毎ニ、〈チョツソ〉〈チョツソ〉トイ、ヌレバ、金溪ガ〈チョツソ〉ト云フヲ知テ居ルト云ヤフナル様子ニテ、同列ノモノドモニ、指シテ笑ヒタリ」(『金溪雜話』卷之中、「朝鮮語学習」項、[貫井正之2010]333頁、一部手を加えた)

(11) 『金溪雜話』卷之中、「朝鮮音」項([貫井正之2010]342頁)。一部手を加えた。

(12) 「我国訳学・通事之不能曉、大坂以西、西京、江戸等之处語、馬州之倭多未通解、不如筆語之詳以訳探情其亦疎矣」(『日観記』第十、「語音」項、[金保京2006]601頁)

(13) 「馬州舌倭松本善左衛門、稍習我語、導入蛮土、常在唱酬之席、蓋舌倭隨行者殆且半百、而多未通語。又多初入江戸者不能答所問、獨松本與四舌倭、曾從丁卯使行僅一見西京・江戸云」(『日観記』癸未12月8日条、[金保京2006]284頁)

(14) 「奉行三名が先に来て／三使臣に拝謁を請う／(中略)／今度は対馬島主平義暢と／以酌庵僧竜芳が／西山寺の長老を伴ってくる／(中略)／島主の後ろに／紗帽を被った男三人が坐り／(中略)／倭の奉行と崔首訳が／互いの言葉を伝えあう」(『日東壯遊歌』癸未11月2日条、[高島淑郎1999]154-156頁、[沈載完1984]111-113頁)

(15) 「伝語官亦着烏帽、而只島主之言、酌僧以下不伝有語、則因崔訳以通」(『乗槎録』癸未11月2日条、[金景淑2006]107-108頁)

(16) 「継有本州禁徒、因伝語官来謁、因納大小二十卷紙為礼求書」(『乗槎録』甲申1月13日条、[金景淑2006]227-228頁)

(17) 「草安世竹俊屋答詩及弥八所求書本封、并六硯及所留四大筆録於小紙、給伝語官以伝」(『乗槎録』甲申正月1日条、[金景淑2006]208頁)

(18) 「以酌庵長老の弟子／春坡、蘭州、古堂の三人が／七律一首、七絶一首を／それぞれ詩作し届けてきたので／灯を点して次韻／訳官に託して送り返す」(『日東壯遊歌』甲申1月14日条、[高島淑郎1999]227頁、[沈載完1984]161頁)

(19) 「先に来ていた 伝語官が／見物を勧めるが／駕籠を下りているうちに／はぐれるおそれもあり／病氣と称して／そのまま今須へ直行する」(『日東壯遊歌』甲申2月1日条、[高島淑郎1999]256頁、[沈載完1984]189頁)

(20) 「途中、隨行の騎馬の者が／下馬せず国書の前を横切る／我が方の旗持ちが／下馬を命じ叱りつけたが／馬から下りぬどころか／旗持ちに殴りかかったので／使臣方が痛憤のあまり／進むことを拒否され／首訳を遣わして／この件を抗議される」(『日東壯遊歌』甲申2月3日条、[高島淑郎1999]262頁、[沈載完1984]195頁)

(21) 副房において三人の首訳を／ひっそらえて来るように命令される／この日強風が吹いているのに／出発した件につき／厳しく叱責の上帰される(『日東壯遊歌』甲申1月8日条、[高島淑郎1999]220頁、[沈載完1984]159頁)

(22) 昔から倭の儒者らが／詩文を求める場合には／硯、紙、筆墨や／さらに鏡、刀、鋏等々／

礼品を数多く持参して／頼んでくるという／我らたる者／請われるまま書き与えはしても／代価などどうして受け取れよう／(中略)／訳官らが来て言うには／「昔から文士というものは／これらの品を受け取って／旅支度のためにした借金を返し／友人たちにも分けてやりました／どうか前例通りお受取下さい」(『日東壮遊歌』癸未12月4日条、[高島淑郎1999]192頁、[沈載完1984]139-141頁)

(23) 「首訳の連中が／対馬人の言葉におどられ／使臣方を混乱させ／筆談の途を閉ざしてしまう」(『日東壮遊歌』甲申4月23日条、[高島淑郎1999]342頁、[沈載完1984]253頁)

(24) 4月20日条の原文翻刻は以下の通り。

四月廿日

○客館江役々相詰、

○大坂御逗留、

○江戸表より御奉書到来ニ付、三使衆江為御達、今日殿様客館江御入被遊筈ニ付、其段以御使者被仰遣、尤両長老江も御達有之、

○殿様御服以御麻上下被召、巳ノ下刻過、客館江御入、御休息之間江御居着被遊、三使衆頓而御出迎、尤御対客之間者此節之一件ニ付御吟味場ニ成差支候ニ付、御寄附上ノ間江御通、〈1〉殿様南ノ方、三使衆者北ノ方江御立並、御双方御会釈御二揖被遊、夫より両長老二揖相濟而、御茵之上ニ御着座、左之御口上被仰述、将監病氣ニ付信使奉行多田監物御取次仕、上々官崔知事江申達、

弥平安珍重存候、然者此節不意之變出来御心中察入候、於拙者も気毒存候、早速公儀江申上候処、別紙之通被仰出候付、相達候、

(別紙=奉書の内容は省略)

右之通、奉書紙堅ニ認、上々官江相渡、

〈2〉三使より御請

被為入御念御事難有安心仕候と之趣相応御返答有之、上々官より監物江伝、監物より御前江申上

右畢而、〈1´〉又々御口上申達、

此節科人も相知則被召捕候故、近々御目付到着候ハ、裁断相濟、無程可至御上船候間、御安心可被成候、

右之通監物御取次、上々官を以申述候後、三使衆より左之通上々官を以被申聞、御前江申上、

〈3〉誠信交隣之間諸事如在無之儀ニ御座候処、此節之變千万案外之次第、御同然驚入候、只今ニ而者科人御捕被成と之御事ニ候得者、早々御札明之上御仕置被仰付、貴国之御法を御立被成、其外無罪者共御疑之儀者御用捨可被下候、御自分様と我々間者以前之通不相替無御如在可得御意候、此以後諸事御自分様御頼存候、双方未々之者江堅申付、不埒之儀無之様仕度候、

〈4〉御答

被仰聞候趣委細致承知候、其内罪之有無御吟味御仕置等之一段者、町御奉行江御申達可有之候、

〈5〉三使衆三答

我々より御自分様を御頼申候外何方江も申入候覚悟ニ無し御座候、

右畢而御帰被成候付、三使衆御出迎之所迄被送出、

○上々官例之所階下迄御迎送申上、樂人共樂奏之、

(以下、二ヶ条略)

(『宝曆信使記録 奉行方八番 毎日記 下向京大坂在留中』慶應義塾大学所蔵・対馬藩政史料)

(25) 「右御口上、御応対之趣事長ク、上々官言語拙候故、若申違・申落等有之候而ハ如何ニ付、真文ニ而為認候由ニ而、監物より来候付、左ニ記置」(『宝曆信使記録 下向大坂ニ而中官崔天宗を通詞鈴木伝蔵殺害一件 御供方記録』慶應義塾大学所蔵・対馬藩政史料)

#### < 参考文献 >

池内敏 1999 『「唐人殺し」の世界』、臨川書店

貫井正之 2010 『豊臣・徳川時代と朝鮮』、明石書店

李元植 1997 『朝鮮通信使の研究』、思文閣出版

鄭丞恵 1998 「老乞大新釈 序文」 『文献と解釈』 4

金基民 2004 『捷解新語의改修過程과語彙研究』、보고사

辛基秀・仲尾宏 1994 『大系朝鮮通信使』第七卷〈甲申・宝曆度〉、明石書店

#### < 癸未信使の使行録 >

趙嘯『海槎日記』、

高島淑郎(訳注) 1999 金仁謙『日東壯遊歌—ハングルでつづる朝鮮通信使の記録』平凡社東洋文庫

沈載完(校注) 1984 『日東壯遊歌・燕行歌』韓国古典文学大系10、教文社

金景淑(訳) 2006 元重挙『乗槎録—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朝鮮後期知識人、日本と出会う)』소명出版

元重挙『乗槎録』、高麗大学校六堂文庫

南玉『日観記』、韓国国立中央図書館

金保京(訳) 2006 南玉『日観記—붓끄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筆先で富士山の風を切り進む)』소명出版

成大中『日本録』、高麗大学校図書館(『大系朝鮮通信使』第七卷による)

洪學姫(訳) 2006 成大中『日本録—부사산 비과호를 날듯이 건너 (富士山・琵琶湖を飛ぶように越えて)』소명出版

## 계미통신사(癸未信使)의 통역들 · 노트

이케우치 사토시(池内 敏, 名古屋大学)

### 들어가며

계미통신사(癸未信使)의 역관(왜학역관, 일본어통역)들의 일본어능력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낮은 평가만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이원식은 계미통신사의 정사(正使) 조엄(趙巖)의 발언 「양국의 소통은 오로지 역관에 의하기에, 이번에 10명이나 데리고 왔지만, 일본어에 정통한 자가 너무나 적어 놀랐다.」<sup>1)</sup> (『해사일기(海槎日記)』 계미년 12월 16일) 를 인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역관 이명화(李命和)에 대하여 「이 사람은 (중략) 일본어도 특히 복잡한 내용은 통하지 않고, 조금 어려운 것, 말이 길어지는 경우, 말의 전후, 좌우, 상하를 전도시켜 알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의 부정적인 평판 (『금계잡화(金溪雜話)』) 을 인용했다. ( [이원식(李元植)1997] 471쪽, 467-468쪽) . 이원식은 또한 계미통신사 정사(正使)의 수역(首訳) 최학영(崔鶴齡)과 부사(副使)의 수역 이명윤(李命尹)에 대하여 「(조엄(趙巖)은—인용자) 최학영과 이명윤의 일본어실력이 옛날 명역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의 책 471쪽) .

이 계미통신사보다 앞선 정묘통신사(丁卯信使, 1747년)의 정사(正使) 홍계희(洪啓禧)가 『노걸대신석(老乞大新釈)』에 쓴 서문(序文)<sup>2)</sup> [정승혜(鄭丞惠)1998] 의 일절에는 「내가 정묘년(1747)에 일본으로 갔을 때, 일본어통역관의 서투름은 (연행사 때) 중국어 통역관의 지독함에 필적할 정도였다. 그래서 『첩해신어(捷解新語)』를 계속 정정하고, 고금의 분명한 차이를 밝힘으로서 통역들의 편의를 도모했다」<sup>3)</sup>라는 부분이 있다. 홍계희의 감상을 함께 생각해 보면, 왜학역관(倭學訳官)들의 일본어 능력이 매우 떨어졌고, 이는 계미통신사만의 특수한 사정이 아니라 정묘통신사를 포함한 18세기 중반의 전반적인 사정이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홍계희가 「서툴렀다」고 지적한 정묘통신사 때 수행했던 일본어 통역관 중에, 당시 39세의 압물통사(押物通事)인 최학영이 있었다. 『첩해신어』는 조선왕조 시대를 대표하는 일본어교과서이다. 최학영은 1676년에 활자본으로 간행된 『첩해신어』를 2회에 걸쳐 다시 고쳐서 만든 인물이다.<sup>4)</sup> 다시 말해 최학영은 홍계희가 말한 「통역들의 편의를 도모」

1) 「兩國言語之相通。全賴訳舌。而隨行十人。達通彼語者甚鮮。誠可駭然。」

2) 조선왕조기의 한학역관들의 중국어 학습서의 하나로서 『노걸대(老乞大)』가 있고, 그 내용을 수정하여 1761년 8월에 간행된 것이 『노걸대신석(老乞大新釋)』이다. 홍계희는 1747년에 정묘신사정사로 일본에 파견된 후에 1760년에 연행사로 북경으로 향한다. 『노걸대신석』의 신자의 한 사람인 변헌은 역관으로서 홍계희의 연행사행에 동행한 인물이다. 간행기일에도 밝혔듯이 연행사행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을 때 『노걸대』의 수정이 기획되고 간행된 것이다.

3) 「余丁卯赴日本、南訳之鹵奔、殆有甚於北、故遂改編捷解新語、以弁其古今之判殊、諸訳便之」

한 작업을 수행한 자다. 최학영이 재미통신사 당시에 정사의 수역이 되어, 정사인 조업으로부터 “일본어 실력이 옛날 명역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실제로 최학영과 이명윤의 평가와 관련된 조업의 발언은 이윤식이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듯이 「雖不如古昔名訳之多識慮善倭語. 蓋其為人則俱頻繁東矣」라는 내용으로, 옛날의 명역관만큼의 지혜나 일본어능력이 없었다고는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상시 엄격한 태도를 견지했음을 칭찬하는 것이다. 이 발언은 4월 7일 최천중(崔天宗)의 살해로 시작된 사건(후술)이, 5월 2일에 범인 스즈키 덴조(鈴木伝藏)의 처형으로 막을 내린 정황을 감안하여, 5월 6일까지 약 1개월 동안의 역관들의 노력을 포상하기 위함이다. 조업은 같은 날 「두 사람의 수역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기 저기 움직여 결국에 덴조를 처형하는 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결착을 보았다. 이는 말하자면 성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높이 평가했다.<sup>5)</sup>

본고는 최학영을 위시한 재미통신사의 역관(정사의 수역)들의 활동에 대하여, 통역에 요구되는 능력과의 관계에 시점을 두면서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

## 1. 사행록(使行録)에 보이는 역관의 모습

### (1) 의사소통과 어학능력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학능력은 주어진 장면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의 수준에 의해 바뀌기 때문에, 어학능력의 평가 또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의 수준과 대비해서 가변적이다. 그리고 의사소통 그 자체는 어학능력을 결여한 상태라도 불가능하지 않다. 재미통신사의 사행록유(使行録類)에서, 우선 역관어진 닌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관한 기사를 들고자 한다.

종사관(從事官)의 서기 김인겸(金仁謙)은 갑신년 2월 1일, 가던 길인 히코네(彦根)에서 오가키(大垣)로 향하는 도중에 산길에서 큰 비를 만나서, 산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말았다. 주위가 새까맣고 통신사일행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일본인 가마꾼은 의기소침하여 가마를 내려놓고 주저앉아 버렸다. 「말도 통하지 않는 왜인을 의지하며/ 그저 앉아 있을 뿐」인 상태에 불안과 위험을 느꼈다. 그래서 김인겸은 「너석들의 옷을 움켜쥐고/ 흔들어서 이쪽의 마음을 전해/ 가마 속의 음식을/ 여러 가지 꺼내어 주었다.」 그러자 가마꾼들은 크게 소란을 피우며 음식을 다 먹고 다시 가마를 메고 길을 나섰다고 한다<sup>6)</sup> 【사례1】.

4) 第一次改修本(『改修捷解新語』)는 1748년刊, 第二次改修本(『重刊改修捷解新語』)는 1781년刊[金基民 2004].

5) 「兩訳昼夜不怠. 多方用計. 果得成其查獄. 是謂至誠做去. 無物不得也」(趙嘏『海槎日記』甲申 5月 6日條)

6) 「(前略) 從事官の部屋に顔を出した後 / 中食を済ませて先に出発する / 二里ばかり進んだところで / 日は暮れ大雨となった / 道はぬかるみ難渋を極める / 滑りやすいので / 五人の駕籠かきは / 交替しながら行くが / ほとんど先へは進めず / 高みに駕籠を下ろし / うろたえるばかり / もう前進する意志はないようだ / 四方を見回すと / 天地果てなく広がり / 一行の人々は姿も見えない / 灯火までも消え / 一寸先も見分け得ず / 茫々とした荒野の中 / 言葉も通じぬ倭人を頼みに / ただ坐しているのみ / 今宵のこの事態に / 疲労はつのもりの身の危険さを感じる / ここで駕籠かきに逃げ出されたら / どんなに困るだろうか / そこで奴らの着物をつかみ / 揺すってこちらの気持ちを伝え / 駕籠の中の食べ物 / いろいろ出して与える / 連中は大騒ぎしながらそれを食べた後 / ようやくに駕籠を担ぎ / 少しずつ進むが / いたる所でこの繰り返し (以下略)」(『日東壯遊歌』甲申 2月 1日條, [高島淑郎 1

이 기사가 있기 전날인 1월 30일, 오오쓰(大津)에서 히코네(彦根)로 향하는 행렬 중에, 정사의 서기(書記) 성대중(成大中) 탄 가마가 부사의 서기 원중거(元重挙)의 가마보다 조금 뒤쳐져 있었다. 성대중의 가마와 나란히 가고 싶었던 원중거는 자신의 가마 가까이에서 있었던 일본인 ‘사이로고(沙伊老五)’(실제로는 사이고로;才五郎로 추정됨)에게 말을 걸었다. 사이고로는 머리를 조아리고 양손을 맞대면서 ‘옛(はっ)’하고 대답했다. 그 때 뒤에 오는 성대중의 가마를 가리키며 「탈 것, 빨리빨리(のりもの、はよはよ)」라고 말하고, 이어서 자신의 가마를 가리키며 「탈 것, 슬슬(のりもの、そろそろ)」하고 말했다. 그러자 둘의 가마가 나란히 가게 되었고, 원중거가 다시 「좋아, 좋아」하고 말을 걸자, 둘의 가마를 지고 있던 일본인 인부가 크게 웃었다고 한다<sup>7)</sup> 【사례2】.

지쿠젠(筑前) 아이노시마(藍島)에 체류 중이었던 계미년 12월 9일, 우연히 일본인 동자가 등불을 준비하러 왔다. 원중거는 김인겸(退石) 밑에서 일하는 동안(東安)이라는 사람에게 일본어로 말을 시키게 했다. 동안은 초량(草梁)에 살고 있었기에 일본어에 익숙해서 듣기나 회화가 가능했다고 한다<sup>8)</sup> 【사례3】.

갑신년 정월 2일, 적간관(赤間関, 시모노세키;下関)에서 무로즈미(室積)까지 배로 향했다. 원중거는 육지 방면에서 보이는 포구에 대하여, 이전의 사행록 등의 내용을 기억해서 포구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일본인 선장(水主)에게 확인했다. 선장 가운데에는 「문자를 아는」 자가 있어서 고개를 젓거나 손을 흔들면서 포구의 이름을 확인시켜 주었다<sup>9)</sup> 【사례4】.

한편 이것은 사행록의 기사는 아니지만 계미통신사와 교류한 이세(伊勢) 고모노(菰野) 번(藩)의 번 소속 유학자 미나미카와 긴케이(南川金溪)의 경우를 예시하고자 한다. 긴케이(金溪)는 조선어의 칭찬하는 말 <중소(チョツソ)>를 시문중답 현장에서 주워듣고, 조선통신사가 서화를 보여줄 때마다 <중소>를 반복했다. 그러자 통신사들은 「긴케이가 <중소>라는 말을 알고 있는 모양」이라는 기색을 보였다고 한다<sup>10)</sup> 【사례5】. 또한 긴케이의 「牌와 梨와

999] 258-259頁、[沈載完1984] 191-193頁)

7) 「欲與執輿并行而執輿方在後、余呼曰沙伊老五〈사이노오〉、沙伊老五〈사이노오〉俯首合掌、以應曰「何」〈하/應諾也〉、指後曰「彼老里毛老」〈노리모노/乗物之方言也〉「何要何要」〈하요하요/促行也〉「此老里毛老疎路疎路」〈노리모노소로소로/徐徐也〉、既并行相当曰「欲可欲可」〈욕가욕가/好好也〉、兩輿卒皆大笑」(『乗槎録』甲申1月30日条、[金景淑2006] 269-270頁)。なお、成大中『日本録』同日条には関連記事が得られない。

8) 「是日適有小倭為挑燭入來、觀其狀貌頗純實、賜坐與菓果、因招退石陪把東安、使之伝語問答、蓋東安居於草梁習倭語故耳言」(『乗槎録』癸未12月9日条、[金景淑2006] 170-171頁)

9) 「舟循左陸為路、新泊浦・丸尾崎・徳山・三田尻・笠戸等之處、皆憑前聞而問之、倭沙工能解文字、點頭搖手以相可否」(『乗槎録』甲申正月2日条、[金景淑2006] 210頁)

10) 「〈ヨシ〉ト云フヲ〈チョツソ〉トイフ也。唐人ノ〈好〉ト云ニ当レリ。予、館中ニテコノコトヲキ、シユへ、書画ナドヲ韓人ヨリ見セケル毎ニ、〈チョツソ〉〈チョツソ〉トイ、ヌレバ、金溪ガ〈チョツソ〉ト云フヲ知テ居ルト云ヤフナル様子ニテ、同列ノモノドモニ、指シテ笑ヒタリ」(『金溪雜話』卷之中、「朝鮮語學習」項、[貫井正之2010] 333頁、일부 수정하였다.)

船, 3자1음(三字一音)으로 <파이(パイ)>라고 한다. 그래서 패(牌)를 들고 배(船)에 올라 배(梨)를 먹는다는 말은 분명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웃긴 말이다. 우리나라의 하시(橋)·하시(端)·하시(箸)의 종류와 같다.」라는 기술도 있다<sup>11)</sup> 【사례6】.

여기에서 【사례1】은 언어를 매개로 하지 않은 몸짓과 손짓에 의한 의사소통이다. 【사례2·5】는 우연히 주위들은 외국어 어구가 장면과 맞아 의사전달로 이어진 사례이다. 【사례4】는, 「신도마리우라(新泊浦)·마루오자키(丸尾崎)·도쿠야마(徳山)·미타지리(三田尻)·가사도(笠戸)」등, 포구 이름을 하나하나 들면서 눈앞의 풍경과 대응관계를 통신사가 묻자, 선장이 직업에 의해 축적된 지리적 지식을 배경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예이다. 여기에서는 질문과 대답이 모두 단어였거나, 혹은 손으로 쓴 자구(字句)였을지도 모른다. 【사례6】은 귀동냥에 의한 것인지, 서적을 통한 학습의 성과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다루어진 문제는 단어의 지식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사례3】을 제외하면 모든 사례가 단어 혹은 자구에 의한 한정적인 의사표현이다. 임의의 발화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바로 이해될 리 없었고, 그와 같은 일은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사례3】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본어회화가 이루어졌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초량에 살고 있어서 일본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회화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배경에는, 경험적인 학습일지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사례에 등장하는 동안이라는 사람은 역관이 아니다. 역관에게 요구되는 의사소통능력은 경험적인 학습으로 획득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추측된다.

그런데, 재미통신사의 제술관(製述官) 남옥(南玉)이 「우리나라의 역학(訳学)·통사(通事)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사카(大阪)의 서쪽지방, 사이쿄(西京)나 에도(江戸) 등의 지역 언어는 쓰시마인(対馬人)도 대부분 모른다. 통역보다는 필담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상세하다」고 기술하기에<sup>12)</sup>, 왜학역관(倭学訳官)의 일본어능력이 높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일본어 자체의 지역 차(방언)가 매우 컸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쓰시마의 일본인조차 이해가 불가능한데 하물며 조선왕조의 왜학역관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처럼 남옥은 통역보다 필담 쪽이 오히려 낫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옥은 일본의 조선어통사(朝鮮語通詞)가 우수했다고 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쓰시마 번의 조선어통사의 능력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했다. 남옥에 의하면 「재미통신사에 수행하는 쓰시마 번 조선어통사는 50명이나 되지만, 그 대부분은 말이 통하지 않는다. 특히 대다수는 에도에 가는 것이 처음이었고, 물어보아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 실정이었다. 통사 중에서는 마쓰모토 겐자에몬(松本善左衛門)이라는 사람이 특히 실력이 나왔고, 이 사람 외에 4명의 통사만이 정묘통신사(1747년) 때에 수행하여 에도에 갔던 경험이 있다고 한다.<sup>13)</sup> 남옥이 쓰시마 번의 조선어통사에 대하여 「대부분은 말이 통하지 않는

11) 『金溪雜話』卷之中、「朝鮮音」項(〔貫井正之2010〕342頁)。일부 수정하였다.

12) 「我国訳学·通事之不能曉、大坂以西、西京、江戸等之処語、馬州之倭多未通解、不如筆語之詳以訳探情其亦疎矣」(『日觀記』第十、「語音」項、〔金保京2006〕601頁)

다(원문에서는 「多未通語」)는 기술에서, 다수의 통사를 마쓰모토와 대비시킨 점을 비추어 생각하면, 단순한 언어능력만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쓰모토와 같이 통신사수행과 에도에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임의적인 질문에도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었는지 아닌지도 중요했을 것이다.

## (2) 사행록(使行錄) 중의 역관(訳官)들

쓰시마후추(對馬府中)에서 며칠 체재하는 동안에, 숙사에 있는 삼사(三使)를 쓰시마 번주(藩主)와 부하들이 위로방문 한 적이 있었다. 김인겸에 의하면 그 때에는 「왜의 봉행(奉行)과 최수역(崔首訳)이 / 서로의 이야기를 전했다」<sup>14)</sup>라는 점에서, 수역의 역할은 당연하지만, 삼사의 발언을 일본어로 고쳐 통역하는 것이었다.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원증거는 「쓰시마 번의 조선어통사가 쓰시마 번주에게 말을 전할 뿐, 이테이안(以酏庵)의 승려 이하의 말은 전하지 않았기에, 이 사람들의 말은 왜학역관이 통역했다」<sup>15)</sup>고 한다.

일본인들이 휘호(揮毫)를 요구할 때는 쓰시마의 조선어통사를 거쳤고<sup>16)</sup>, 보내온 시문(詩文)에 대하여 조선통신사서기(朝鮮信使書記)가 하는 답변·예물은 쓰시마 번의 조선어통사를 거쳐 송부하는<sup>17)</sup> 경우도 있었고, 왜학역관을 거치는 경우<sup>18)</sup>도 있었다. 가는 도중의 경치를 관람하고 즐기는 등 공식행사가 아닌 일들은 조선어통사를 거쳐 제안되기도 했다.<sup>19)</sup> 따라서 누구의 어떤 발언을 어느 통사/역관이 통역했는지 그 임무분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례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삼사와 관련된 공적인 내용전달이나 절충은 반드시 수역이 담당했다. 예를 들어 통신사행렬 중에는 조선국왕국서(朝鮮国王國書)를 실은 가마가 있었다. 오가키(大垣)에서 나고야(名古屋)로 향하던 갑신년 2월 3일에, 그 가마 앞을 쓰시마 번의 무사가 말을 탄 채로 가로질러갔다. 이를 예의에 어긋난다고 본 정사는 수역을 통해 쓰시마 번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sup>20)</sup>

13) 「馬州舌倭松本善左衛門、稍習我語、導入蛮土、常在唱酬之席、蓋舌倭隨行者殆且半百、而多未通語。又多初入江戸者不能答所問、獨松本與四舌倭、曾從丁卯使行僅一見西京・江戸云」(『日觀記』癸未12月8日條、【金保京2006】284頁)

14) 「奉行三名が先に来て / 三使臣に拜謁を請う / (中略) / 今度は對馬島主平義暢と / 以酏庵僧竜芳が / 西山寺の長老を伴ってくる / (中略) / 島主の後ろに / 紗帽を被った男三人が坐り / (中略) / 倭の奉行と崔首訳が / 互いの言葉を伝えあう」(『日東壯遊歌』癸未11月2日條、【高島淑郎1999】154-156頁、【沈載完1984】111-113頁)

15) 「伝語官亦着烏帽、而只島主之言、酏僧以下不伝有語、則因崔訳以通」(『乗槎録』癸未11月2日條、【金景淑2006】107-108頁)

16) 「繼有本州禁徒、因伝語官來謁、因納大小二十卷紙為札求書」(『乗槎録』甲申1月13日條、【金景淑2006】227-228頁)

17) 「草安世竹俊屋答詩及弥八所求書本封、并六硯及所留四大筆録於小紙、給伝語官以伝」(『乗槎録』甲申正月1日條、【金景淑2006】208頁)

18) 「以酏庵長老の弟子 / 春坡、蘭州、古堂の三人が / 七律一首、七絶一首を / それぞれ詩作し届けてきたので / 灯を点して次韻 / 訳官に託して送り返す」(『日東壯遊歌』甲申1月14日條、【高島淑郎1999】227頁、【沈載完1984】161頁)

19) 「先に来ていた伝語官が / 見物を勧めるが / 駕籠を下りているうちに / はぐれるおそれもあり / 病氣と称して / そのまま今須へ直行する」(『日東壯遊歌』甲申2月1日條、【高島淑郎1999】256頁、【沈載完1984】189頁)

20) 「途中、隨行の騎馬の者が / 下馬せず国書の前を横切る / 我が方の旗持ちが / 下馬を命じ叱りつけたが / 馬から下りぬどころか / 旗持ちに殴りかかったので / 使臣方が痛憤のあまり / 進むことを拒否され / 首訳を遣わして /

통역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전달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상대가 받아들여도록 만드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했다. 갑신년 1월 8일, 가로토(鹿老渡)에서 일어난 일이다. [다카시마 요시로(高島淑郎)1999, 220쪽]의 주기(注記)에도 있듯이, 이 날 쓰시마 도주(島主)의 출발제안에 대해, 정사는 강풍이라는 이유로 승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마 도주의 배만 먼저 출발해 버렸다. 그래서 정사는 삼수역(三首訳)을 엄하게 질책했다고 한다.<sup>21)</sup>

수역들은 삼사가 행하는 공적 행위의 중개자이고, 수역 스스로도 의례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였다. 사행록 가운데, 행렬 도중이나 일본 측과 함께 하는 의식의 순서가 기록된 장면에서는, 삼사들과 함께 행진하는 삼수역의 모습이 추적되었기 때문이다.

수역들은 이렇듯 조선통신사의 「공(公)」을 짊어진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사행록에는 다음과 같이 「사(私)」에 관한 모습도 기록되어 있다. 김인겸은 수행원 중에서도 특히 청렴결백한 인물로 유명했다. 시문을 부탁하는 일본인이 수많은 예물을 들고 왔지만 언제나 이것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김인겸의 자세에 대하여 역관은 전례(前例)와 같이 예물을 받으라고 재촉했다고 한다.<sup>22)</sup> 김인겸은 수역이 쓰시마 번의 무사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점도 의심하고 있다.<sup>23)</sup>

## 2. 최천종(崔天宗) 살해사건에 있어서 역관들

계미통신사는 에도에서 의례를 마치고 귀국 길에 오른 갑오년 4월 5일에 오사카(大坂)에 도착한다. 그리고 7일 미명에 도훈도(都訓導) 최천종(崔天宗) 살해사건이 발각되었다(崔天宗 殺害事件). 최천종은 목을 예리한 칼에 찔려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은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음을 토로하고, 결국 새벽에 절명한다. 정사의 의견을 들은 삼수역은 연명(連名)으로 쓰시마 번에 항의문을 제출한다. 문서에는 최천종이 살해당한 내용과 살해당할 만한 원한을 산 일이 없다는 사실, 흥기는 일본제라는 내용 등을 기재했지만, 거의 무시당했다. 최천종의 유해는 11일이 되어서 입관이 되고 13일에 오사카시내의 죽림사에 안장되었으나, 그 동안에 사건에 관계되는 정보는 통신사 측에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

この件を抗議される」(『日東壯遊歌』甲申2月3日条、[高島淑郎1999] 262頁、[沈載完1984] 195頁)

21) 副房において三人の首訳を / ひつとらえて来るように命令される / この日強風が吹いているのに / 出発した件につき / 厳しく叱責の上帰される (『日東壯遊歌』甲申1月8日条、[高島淑郎1999] 220頁、[沈載完1984] 159頁)

22) 昔から倭の儒者らが / 詩文を求める場合には / 硯、紙、筆墨や / さらに鏡、刀、鉄等々 / 礼品を数多く持参して / 頼んでくるという / 我らたる者 / 請われるまま書き与えはしても / 代価などどうして受け取れよう / (中略) / 訳官らが来て言うには / 「昔から文士というものは / これらの品を受け取って / 旅支度のためにした借金を返し / 友人たちにも分けてやりました / どうか前例通りお受下さい」 (『日東壯遊歌』癸未12月4日条、[高島淑郎1999] 192頁、[沈載完1984] 139-141頁)

23) 「首訳の連中が / 対馬人の言葉におどらされ / 使臣方を混乱させ / 筆談の途を閉ざしてしまう」 (『日東壯遊歌』甲申4月23日条、[高島淑郎1999] 342頁、[沈載完1984] 253頁)

쓰시마 번 측도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또한 범인이 쓰시마번의 조 선어 통사인 스즈키 덴조라는 사람으로 이미 오사카에서 도망갔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연락 을 해주지 않았다. 스즈키 덴조가 4월 18일에 잡혔다는 것도 바로 알려주지 않았다. 통신사 측에 범인에 관한 정보가 풍문으로 전해진 것이 19일이고 쓰시마 번에서 정식으로 전해온 것은 20일이 되어서이다. 그리고 에도에서 막부의 관리인 마가리부치 가쓰지로(曲淵勝次郎) 가 급파되고 스즈키 덴조가 5월 2일에 처형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다. [이케우치 사 토시 1999]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건 개요 가운데에서 4월 20일의 쓰시마 번 측과 신사 측과의 대담 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대담에서 역관이 어떻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먼저 대담 모습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쓰시마번 정사료(政史料)<sup>24</sup>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날 오전 10시 경에 쓰시마 번주는 통신사객관에 들어가서, 통신사를 봉행하는 다다(多 田) 간모쓰(監物; 당시의 관리)이 중개인이 되어서 통역을 담당하는 상상관(上上官)인 최지 사(崔知事)에게 (1)의 내용을 구두로 전했다.

(1) 이번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마음이 대단히 애통하시겠습니다. 저희들 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바로 막부에 연락한 바 별지와 같은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봉서지에 세로로 쓰여 있는 문서를 상상관에게 건넸다.

이에 대해서 삼사(三使)가 승낙한 내용의 답변을 했다.

(2)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안심했습니다.

이 답변은 상상관으로부터 간모쓰에게 전해지고 번주에게로 전달되었다.

그 후에 다시 번주로부터 (1')의 내용이 구두로 전해졌다.

(1') 지금은 범인도 잡혔고 곧 메쓰키(御目付; 당시의 관리)가 에도에서 도착하면 범

24) 4月20日条の原文翻刻は以下の通り。四月廿日 ○客館江役々相詰、○大坂御逗留、○江戸表より御奉書到来ニ付、三使衆江為御達、今日殿様客館江御入被遊筈ニ付、其段以御使者被仰遣、尤兩長老江も御達有之、○殿様御服以御麻上下被召、巳ノ下刻過、客館江御入、御休息之間江御居着被遊、三使衆頓而御出迎、尤御対客之間者此節之一件ニ付御吟味場ニ成差支候ニ付、御寄附上ノ間江御通、〈1〉殿様南ノ方、三使衆者北ノ方江御立並、御双方御会積御二揖被遊、夫より兩長老二揖相濟而、御茵之上ニ御着座、左之御口上被仰述、將監病氣ニ付信使奉行多田監物御取次仕、上々官崔知事江申達、弥平安珍重存候、然者此節不意之变出来御心中察入候、於拙者も氣毒存候、早速公儀江申上候処、別紙之通被仰出候付、相達候、別紙ニ奉書の内容は省略) 右之通、奉書紙堅ニ認、上々官江相渡、2) 三使より御請被為入御念御事難有安心仕候と之趣相應御返答有之、上々官より監物江伝、監物より御前江申上右畢而、〈1'〉又々御口上申達、此節科人も相知則被召捕候故、近々御目付到着候ハ、裁断相濟、無程可至御上船候間、御安心可被成候、右之通監物御取次、上々官を以申述候後、三使衆より左之通上々官を以被申聞、御前江申上、〈3〉誠信交隣之間諸事如在無之儀ニ御座候処、此節之变千萬案外之次第、御同然驚入候、只今ニ而者科人御捕被成と之御事ニ候得者、早々御糺明之上御仕置被仰付、貴国之御法を御立被成、其外無罪者共御疑之儀者御用捨可被下候、御自分様と我々問者以前之通不相替無御如在可得御意候、此以後諸事御自分様御頼存候、双方末々之者江堅申付、不埒之儀無之様仕度候、〈4〉御答 被仰聞候趣委細致承知候、其内罪之有無御吟味御仕置等之一段者、町御奉行江御申達可有之候、〈5〉三使衆三答 我々より御自分様を御頼申候外何方江も申上候覚悟ニ無し御座候、右畢而御歸被成候付、三使衆御出迎之所迄被送出、○上々官例之所階下迄御迎送申上、樂人共樂奏之、(以下、二ヶ条略) (『宝曆信使記録 奉行方八番 毎日記 下向京大坂在留中』慶應義塾大学所蔵・対馬藩政史料)

인에게 형을 내릴 것이니 바로 배에 오르시어 귀국하시는 것이 어떠하실지요. 안심하십시오.

이와 같이 간모쓰가 중개인이 되어 상상관을 통해서 구두로 전한 뒤에, 삼사중(三使衆)으로부터 상상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3)가 있어서, 이것을 번주에게 전달했다.

(3) 성신교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만사를 꼼꼼하게 챙겼는바, 이번에 생각하지도 않던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께서 놀라셨을 겁니다. 지금은 범인도 잡히고, 바로 사건 내용을 밝히려는 명령이 있으셨고 범인은 귀국의 법으로 처벌하시고 범인 이외의 죄가 없는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은 그만두십시오. 쓰시마 번과 조선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또 실수 없이 의사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은 쓰시마 번주에게 의지할 터이니 쓰시마 번 · 조선 양쪽이 모두 아랫사람들에게 엄중하게 이야기 해서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여기에 대한 번주의 대답(4)

(4) 말씀하신 사항은 모두 알겠습니다. 또한 말씀 중에 있었던 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에 대한 것은 마찌부교(町御奉行 ; 당시의 관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한 삼사중(三使衆)으로 부터의 대답(5)

(5) 우리들은 쓰시마 번을 믿을 수밖에 없고 다른 제의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이 끝나고 쓰시마 번주가 돌아갈 때에는 삼사중이 마중했던 곳까지 배웅하러 나왔다.

이와 같은 일본 측 사료에서 보이는 대답 (1)~(5)는 모두 조엄의 『해사일기』 갑신년 4월 20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인용사료에 「다다 간모쓰가 중개인이 되어서 상상관 최지사에게」라든가 「간모쓰가 중개인이 되어 상상관을 통해서 구두로 전했다」, 「삼사중으로부터 상상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 등에 보이듯이 일본 측은 다다 간모쓰가, 통신사 측은 수역 최학영이 쓰시마 번주와 정사와의 대화를 중개한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 대화를 「구두로」 했다는 것은 사료에서도 정확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대답은 「구두만」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같은 날의 대화를 동일하게 기록한 또 하나의 쓰시마 번의 정사료에는 위의 사료(5)와 같은 문장이 수록된 후에 다음과 같이 덧붙여졌다.<sup>25)</sup>

구두로 한 대답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많고 상상관의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이야기가 다르거나 전달내용이 빠졌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한문으로도 쓰게 하였고, 그 한문도 다다 간모쓰로부터 제출받아서 이하에 기록해 둔다.

25) 「右御口上、御応対之趣事長ク、上々官言語拙候故、若申違・申落等有之候而ハ如何ニ付、真文ニ而為認候由ニ而、監物より来候付、左ニ記置」(『宝曆信使記録 下向大坂ニ而中官崔天宗を通詞鈴木伝藏殺害一件 御供方記録』慶應義塾大学所蔵・対馬藩政史料)

즉 앞에서 인용한 대담기록과 조엄의 『해사일기』 등의 사행녹류에서는 구두로 한 것처럼 보인 대담이 실제로는 상상관인 최학영의 일본어 능력에만 의존하기에는 불안하여 같은 내용을 한문으로 문장화해서 제출시킴으로서 대담내용을 보충하였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수역의 통역활동은 일본어 회화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문도 함께 병행된 것이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필담은 시문증답(詩文贈答)만이 아니라, 시문증답에 비교하면 무미건조한 정치절충의 장에서도 힘을 발휘하였다.

## 나가며

계미통신사에 수행한 수역들은 통설대로 일본어능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옛날 명역관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라도 이때의 수역들은 정사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역관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단순한 어학능력만이 아니라(혹은 어학능력에 다소 의문이 있지만), 상대측으로부터 유의한 내용을 이끌어내는 교섭력을 포함한 역량이 아니었을까.

이 교섭력을 포함한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한문에 의한 필담을 보조수단으로 본다면, 교섭능력 그 자체는 이전에 비교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릇 「옛날 명역관」은 교섭의 모든 것을 일본어 능력만으로 했을까?

필담도 포함해서 교섭능력의 총체적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역관의 능력은 「옛날 명역관」들과 비교해서 저하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만일 조엄이 말한 대로 일본어 능력이 떨어졌다면 그러한 능력저하는 언제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것일까. 또 그 계기는 무엇이었던가. 그러한 점도 앞으로의 검토할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어통사·왜학역관 등 상대국 측의 어학을 습득한 사람들이 없어도 시문증답 등의 필담의 장에 있어서는 한문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었다. 그리고 사무연락과 같은 내용도 또 필담에 의해서 가능했다. 갑신년 2월 4일, 통신사행렬이 나루미(鳴海)를 떠나서 오카자미(岡崎)를 향했을 때 원중거는 화장실에 가서 출발이 늦어졌다. 그가 화장실을 나왔을 때에는 행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원중거가 타려던 가마만 있었고 그것을 메는 인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일본인 관리가 나타났을 때 원중거는 그 사람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한자를 써서 짧은 필담을 하였다. 근세 일본과 조선 간의 통역은 이미 공용어로서의 한문능력이 폭넓게 존재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 【参考文献】

池内敏 1999 『「唐人殺し」の世界』、臨川書店

貫井正之 2010 『豊臣・徳川時代と朝鮮』、明石書店

李元植 1997 『朝鮮通信使の研究』、思文閣出版  
鄭丞惠 1998 「老乞大新釈 序文」 『文献と解釈』 4  
金基民 2004 『捷解新語의改修過程과語彙研究』、보고사  
辛基秀・仲尾宏 1994 『大系朝鮮通信使』 第七卷〈甲申・宝曆度〉、明石書店

【癸未信使の使行録】

趙暉 『海槎日記』、  
高島淑郎（訳注） 1999 金仁謙 『日東壯遊歌—ハングルでつづる朝鮮通信使の記録』 平凡社  
東洋文庫  
沈載完（校注） 1984 『日東壯遊歌・燕行歌』 韓国古典文学大系10、教文社  
金景淑（訳） 2006 元重挙 『乗槎録—조선 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朝鮮後期知識人、  
日本と出会う）』 소명出版  
元重挙 『乗槎録』、高麗大学校六堂文庫  
南玉 『日観記』、韓国国立中央図書館  
金保京（訳） 2006 南玉 『日観記—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筆先で富士山の風を  
切り進む）』 소명出版  
成大中 『日本録』、高麗大学校図書館（『大系朝鮮通信使』 第七卷による）  
洪學姬（訳） 2006 成大中 『日本録—부사산 비파호를 날듯이 건너（富士山・琵琶湖を飛  
ぶように越えて）』 소명出版

## <癸未通信使의 通譯들>에 대한 토론문

한 태 문(부산대 국어국문학과)

이 논문은 그동안 통신사 연구에서 도외시되었던 조선 역관들의 활동을 계미통신사를 수행한 역관들의 통역 능력과 관련지어 살핀 것이다. 발표자는 당시 통신사를 수행한 조선 역관들에게 요구된 것은 단순한 일본어 어학능력만이 아니라 필담을 포함한 교섭능력까지 갖춘 것임을 밝혔다. 나아가 역관 외의 인물들도 한문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 점을 들어 근세 일본과 조선 사이의 통역은 이미 공용어가 된 한문에 대한 능력이 바탕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처음부터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지 않기에 다만 발표자가 맺음말 부분에서 제기한 두 가지 항목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다할까 한다.

1. 발표자는 역관의 일본어능력에 대한 趙曦의 비판에 대해, 필담을 포함한 교섭능력의 총체적 수준을 감안할 때, 계미통신사 수행 역관의 통역 능력이 과연 옛날 名역관에 비해 열등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최천중 살인사건의 해결과정을 통해 본 당시 역관들은 결코 그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통신사를 수행한 역관들이 당시에 일본어 구사능력은 기본이고 필담을 통한 교섭 능력까지 갖추는 것은 보편적이었다고 여겨진다. 조엄이 굳이 옛 명역관을 거론하며 당시의 역관들에 대해 “사려도 깊지 못하고 일본어를 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왕명을 수행하는 최고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의 중심이 되는 일본어 능력의 저하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는 “上上官의 일본어가 능숙하지 않아 한문으로 제출받아 기록했다.”는 對馬島측 사료와, 조엄이 역관의 일본어능력을 비판하던 그날(藍島, 12월 16일) 首譯 崔鶴齡의 감독하에 새로운 일본 어학서가 기획되어 마침내 귀국 후 『重刊捷解新語』(1781년)가 발간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2. 발표자는 만약 조엄이 말한 바대로 역관들의 일본어 능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면 그 능력저하의 시기는 언제부터이고, 계기는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를 외교언어의 변화와 경제적 이익의 감소로 인한 역관 자원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외교언어의 변화이다. 1747년 통신사행의 정사 홍계희는 회화중심의 학습서인 『捷解新語』(1676)가 편찬되었지만 그 사이 언어가 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폐단이 있어 『改修捷解新語』(1748)를 편찬한다고 「改修捷解新語序」에서 밝히고 있다. 실제로 『개수첩해신어』에서는 비록 불완전한 개수본이긴 하지만 上方語에서 江戸語로, 순일본어(和語)에

서 한자어로, 그리고 대화내용과 부합된 정확한 표현 및 경어법과 품위 있는 武家の 언어로 대폭 수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참고하면 18세기 초부터 이미 역관의 일본어능력에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며, 『개수첩해신어』의 편찬 약 10여 년 뒤에 행해진 계미사행이 었기에 완전한 숙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적 이익의 감소로 인한 역관 자원의 부족 때문으로, 이는 조업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확인된다.

“전에는 倭譯도 致富한 자가 많이 있었는데, 한 번 長崎島가 江南의 장사꾼과 바로 통한 뒤로 부터 비단의 매매가 倭館을 거치지 않고 인삼의 가격이 또 거둬 높이 뛰어 이윤이 많지 않아 생활이 점차 어려워졌다. 그래서 글을 조금 아는 역관들의 子姪은 다 과거에 응시하고 그 선대의 업을 잇는 자가 매우 적으므로 후일 邊門의 일을 맡길 만한 자가 이로 인하여 얻기 어려워 지니, 이것이 더욱 답답한 일이다.”(『海槎日記』, 1763.11.10)

이는 당시 왜학역관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인데, 실제로 통신사 사행록에는 어느 사행이든지 예외 없이 역관의 潛商이 문제로 등장한다. 1655년 사행의 경우 소통사 金春男이 남은 양식으로 銀을 산 일로 동래로 추방되고, 1719년 사행에는 역관 權興式이 인삼밀무역이 발각되자 음독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1730년대 일본과 중국간 직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왜관무역이 하향세를 걷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왜학역관의 경제적 이익도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흡인요인마저 시들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우수한 역관 자원의 부족은 일본어능력 저하의 원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3. 극히 지엽적인 것으로, 발표자는 통역하는 이가 없어도 필담창화의 현장이나 업무연락 등에서 한문을 통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자를 통한 짧은 필담의 한 예로 일본 관리가 화장실에 간 원중거를 당황케 한 가마꾼을 꾸짖자 관리의 손바닥에 한자를 써서 그들을 용서받게 한 일을 들고 있다. 그런데 원중거의 『乘槎錄』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길게 서술되어 있어 단순히 손바닥에 쓸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본 관리도 전체 글을 이해했다기 보다 주요 어휘와 그 정황으로 미루어 원중거의 의도를 이해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 1763년 통신사행과 필담창화 기록

## - 시문창화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구 지 현(연세대)

- I. 서론
- II. 1763년 조선 문사의 시문창화에 대한 인식
- III. 1763년 필담창화집에 나타나는 일본 문인의 시문창화 인식
- IV. 결론

### I. 서론

조선후기/에도시대 통신사 파견을 계기로 필담창화를 통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현전하는 필담창화집의 양을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특히 필담창화는 1682년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회를 거듭할수록 양적, 질적인 증가 양상을 보여준다. 유학자로 대표되는 일본 내 한문 담당층이 생겨나고 성장함에 따라, 조선 문인과 접하는 일본인의 범위도 확대되었던 것이다.<sup>1)</sup>

시문창화가 유독 일본 사행에서 활발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 쪽의 문사에 대한 욕구를 조선쪽에서 수용함으로써 시작되었던 점만은 확실하다. 그런데 1682년 壬戌/天和 사행 때 人見鶴山(히토미 가쿠산, 1638~1696)의 기록을 보면 일본 유학자들의 필담창화란 막부 유력자를 위해 시서화(詩書畫)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된 듯 한 인상이 강하다. 또한 1711년 유학자라기보다는 중국어 통역에 가까운 岡島冠山(오카지마 간잔, 1674~1728)이 大學頭에 초빙되어 조선 문사를 접대하였다. 물론 그의 뛰어난 중국어 능력이 조선인에게 통용되지는 못했지만, 이를 통해 일본 쪽에서 한문 능력은 중국어 능력처럼 외국인과의 소통을 위한 정도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다. 훨씬 후대인 1854년 미국의 페리 함대가 다시 내항했을 때 大學頭인 林復齋(하야시 후쿠사이, 1801~1859)가 파견되었는데, 당시 실제 교섭이 한문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하야시 집안이 전통적인 외교교섭의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로 추정하면, 일본에서의 유학자란 한문 해독 능력과 소통 능력을 지닌 통역에 가까운 존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 필담창화 교류층의 변화에 관해서는 「18세기 필담창화집의 양상과 교류 담당층의 변화」(구지현, 『조선통신사연구』 제 9호, 조선통신사학회, 2009.12, 1~39쪽)를 참조.

통신사를 계기로 직접 대면한 양국 문사의 신분적 특성은 매우 다른 것이었다.<sup>2)</sup> 교류의 중심에 있었던 제술관을 비롯한 조선의 문사는 외교 임무를 띤 관료였으며, 이들에게 유교 사상이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치사상이었다. 한문은 이미 공식 문어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이었으므로 공졸의 차이가 있더라도, 하고 하지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었다. 반면, 앞서 언급했듯 일본 문인에게 한문이란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유학자는 에도시대 일본 내에 새로 출현한 특수 계층이었다. 이들은 다이묘나 막부에 고용된 전문지식인으로, 조선 문사처럼 한 지역을 직접 다스리거나 하는 일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존재들이었다. 이들의 신분적 성격은 그들이 만난 조선 문사들보다는 중인계층과 훨씬 가까웠다.

시문창화 응대는 조선 문사에게 왕명을 받들어 행하는 임무였다. 제술관을 비롯한 서기 일행은 밀려드는 일본인의 요구에 시중일관 성실한 자세를 보인다. 그러나 일본 문인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연로 번이나 막부에 소속되어 있는 일본 문인은 주군을 위해 시서화를 잘 받아내야 했고, 조선인과 막힘없는 소통을 통해 쓸모 있는 한문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번사 예비층 혹은 이들을 길러내는 교수층이라 할 수 있는 민간 유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인과의 직접적인 대면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시문창화 기록이 번이나 막부에 초빙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작용하기도 했다. 1711년 稻生若水(이노 작수이, 1655~1715)가 박물학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도 이현(李璣, 1654~?)의 서문을 받고자 했던 것은 조선 문인의 글이 권위를 더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763년 癸未/寶曆 통신사 때가 되면 한문은 양국 문인 사이에 확실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정착한다. 개별적인 필담창화집이 다량으로 출현하고 시문창화와 필담이 분리되어 엮일 정도로 분량이 증가한다. 文雅를 추구하던 이전과 달리 구어에 가까운 필담이 오가기도 한다. 즉석에서의 필담조차 어려웠던 17세기와 달리, 능숙하게 한문을 다루는 일본 문인을 만나는 것이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때가 온 것이었다.

이 시기 양국 문인이 시문창화를 통한 교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 II. 1763년 조선 문사의 시문창화에 대한 인식

조선 쪽에서 일본문사의 시문창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임을 설치한 것은 1682년부터였다. 최초의 제술관인 성완(成琬, 1639~?)은 서기 이담령(李聃齡, 1652~?), 자제군관 홍세태(洪世泰, 1653~1725)와 함께 일본 문인을 상대하였다. 또 한 명의 서기인 임재(林梓, ?~?)는 현전하는 필담창화집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일본인 응대의 임무가 서기에게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711년이 되면 제술관 1인, 서

2) 18세기 양국 문사의 신분적 차이에 대해서는 「18세기 초 조일문사의 신분적 특성에 따른 필담교류의 문화양상에 대하여」(구지현, 『민족문화논총』 44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4, 185~214쪽) 참조.

기 3인의 구성이 정착되고, 이들 4인이 함께 일본인을 응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문인들과 직접 접촉하여 관찰하였던 조선 문인은 이 네 사람으로 압축할 수 있다.

최초로 등장한 제술관의 사행록은 1719년 제술관이었던 신유한(申維翰, 1681~?)이 쓴 『해유록(海游錄)』이다. 그리고 1763년에 와서야 남옥(南玉, 1722~1770), 성대중(成大中, 1732~1812), 원중거(元重舉, 1719~1790), 김인겸(金仁謙, 1707~1772) 등 제술관 및 서기의 사행록이 나타난다. 이들의 기록은 주로 전문에 의거해 기술했던 사신들 기록이나 관찰하는 입장에서 기록한 기타 사행원의 기록과 달리 일본인과의 시문창화에 대한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1711년 신유한은 제술관의 임무에 대해 “왜인들의 문자벽이 최근 더욱 성해졌다. 염모하여 무리를 이루어 학사대인이라 부르고 시문을 구걸하며 거리와 문을 메운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응접하여 우리나라의 문화를 선양하는 것을 반드시 제술관에게 책임지게 하니 그 일이 번잡하고 책임이 크다.”<sup>3)</sup>라고 설명한다. 또한 최창대(崔昌大, 1669~1720)의 “일본은 땅이 넓고 그 산수가 시원하고 곱다고 들었으니 반드시 재주가 높고 안목이 넓은 자가 있을 것이다. 사관의 창수하는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나 그대의 문자를 얻어 비평할 것이니 규구의 회맹처럼 마음으로 배반하는 자가 한두 사람 없지 않았던 경우가 있다면 두려워할 만하다.”<sup>4)</sup>라는 경계에 심분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聞見雜錄」에 보이는 신유한의 일본 문인들에 대한 평가는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결과라 해야 할 것이다. 그는 “대개 총명하고 민첩한 사람이 많아 함께 필담과 짧은 글을 쓰면 창졸간에 응대하는데 기이한 말과 훌륭한 얘기가 많다.”<sup>5)</sup>라고 하였다. “그들 중 문장을 좋아하는 자는 본래 타고난 총명한 성품에 과거의 표절하는 누가 없이 익숙하게 익히고 전념해서 다스려 그 공부를 끝까지 다해”<sup>6)</sup> 평가하는 말을 보면 정확하다고 하여 이들의 감식안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단, 신유한은 이들의 시작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본음에 청탁과 고저가 없어 성를 깨우치기 어렵고, 한문을 혼독함으로써 문장 체득이 어려운 점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인식은 동시대 일본 학자인 荻生徂徠(오규소라이, 1666~1728)가 혼독을 비판하며 중국의 음과 어순으로 경전 읽기를 주장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당시 일본 문사들의 전반적인 수준에 대해 신유한이 어느 정도는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763년 기록은 일본 문인을 평가하면서 이단에 대한 논박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문창화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설사 수용한 것이 모두 전할 만하더라도 오히려 말하기에 부족한데 더욱이 백 가운데 하나도 의미할 말이 없는 것을 가지고서 지극히 조악한 운자에 화운하고 지극히 추악한 오랑개에 아첨하

3) “倭人文字之癖 輒近益盛 艷慕成群 呼以學士大人 乞詩求文 填街塞門 所以接應彼人言語 宣耀我國文華者 必責於製述官 是其事繁而責大”(『海游錄』 서문)

4) “日東地廣 聞其山水爽麗 必有才高而眼廣者 不與使館酬唱之席 而得君文字雖黃之 有如堯丘盟 不無一二心背者 則是可畏已”

5) “其人率多聰敏明辨 與之爲筆談 短簡則倉卒應對 或有奇言美談”(『海游錄』)

6) “彼其好文者 以本品聰敏之性 無科學剽竊之累 而熟習專領 窮極其功”(『海游錄』)

는 것임에랴? 눈 깜짝할 동안 열 편을 짓기도 하고 하루에 종이 백 장을 넘기기도 하니 비록 조자건이나 왕자안처럼 민첩하더라도 어찌 하나라도 제대로 된 문장을 지을 수 있겠는가? 다른 나라 풍속에 우리의 추함을 드러내어 오랜 세월 비웃음을 전할 터이니, 나라를 빛내려는 것이 바로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재주를 자랑하려는 것이 바로 허풍을 떨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는 조정 에 상주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미리 그 나라에 통지하여 직접 사행에서부터 판단하여 그만두어도 충분하다.<sup>7)</sup>

남옥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일본 문사를 상대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한다. 이들은 신유한 때보다 약 2배로 늘어난 문사들을 상대했다. 수십 편의 시를 한꺼번에 짓다 보니 시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이러한 차화운시는 그대로 간행되어 일본 내에 유포되었다. 이는 제술관 파견의 궁극적 목표인 나라의 문화를 드러내는 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을 사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이다. 남옥은 아예 창수 자체를 그만 두기를 주장한다.

통신사행 중 문사라 일컬어지는 사람은 지극하게 선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장의 화려함과 넉넉함 뿐 아니라 반드시 지려가 있고 견식이 있어야 하며 풍류가 온자하고 아치가 빼어나며 더욱이 아울러 청렴결백하고 공평하며 풍모와 위기가 정숙한 연후에 바야흐로 이 선발에 맞는다. 사신은 고귀하고 높으니 어엿하게 일행의 위에 있으면서 다만 대체를 잡고 자중하여 관대함과 엄격함을 알맞게 할 수 있으면 된다.<sup>8)</sup>

원중거는 일본인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문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역설한다. 문장력 뿐 아니라 인격적인 품미도 함께 갖춘 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곧 조선을 대표하여 일본인을 직접 만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하게 지적한 것이 청렴함이다. 아울러 양의 선발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한다.

원중거가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까닭은 동래부 소속의 소통사들이 쓰시마인들과 결탁하여 밀무역을 통해 이익을 탐하는 행태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어에 능숙한 소통사는 사행의 제일선에서 일본인과 접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본 내지인이 조선인이 물건을 탐한다는 인상을 갖게 될까 우려했던 것이다.

사행 후 원중거는 양의의 역할에도 주목하는데, 제술관만큼 일본인과 접촉이 빈번했던 사행원이었기 때문이었다. 뒷부분에는 제술관 및 서기, 양의가 일본 문인을 직접 응대할 때 성실히 임하고 그들이 주는 선물을 거절하는 대신 작은 문방구나 음식을 마련해 선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일본인에게 보이고 싶은 조선인의 이미지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짐작케 한다.

사행에서 돌아와 정사 조엄(趙暉, 1719~1777)이 복명할 때, 영조는 사행원들의 활약에

7) “使其酬應者皆可傳 猶不足言 況以百無一味之語 和極惡之韻 媚極醜之蠻 或頃刻十篇 或日過百紙 雖子建子安之捷 其何能一成章乎 露醜於殊俗 傳笑於久遠 欲以華國者 適所以辱國 欲以夸才者 適所以誣才 此則不待上奏朝廷 先通其國 而直自使行 足可斷而罷之矣”(『日觀記』·「總記」)

8) “信行中所稱文士 不可不極選 蓋非特文章之華瞻 必得有志慮有見識 風流蘊藉 雅致標拔 而更兼廉潔公平 風儀整肅 然後方中此選 蓋使臣高貴尊重 儼然在一行之上 只當持大體自重 使寬嚴得中而已”(『乘槎錄』 4권)

대해 묻고 나서 “저들이 조선인의 문무 재주가 모두 어렵다 이르던가?(彼以謂朝鮮人文武才皆難矣云乎)”<sup>9)</sup>라고 확인한다. 통신사행에 문사와 무관을 파견하여 재주를 보이는 것은 국가의 문화와 무력을 일본에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창수를 그만 둘 것을 주장하는 남옥이나 문사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원중거의 주장의 배경에는 일본인과의 시문 창화란 곧 나라의 문화를 외국에 선양한다는 임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반면 창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위신을 추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1719년 신유한의 서문에 보이듯 제술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문창화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다.

### III. 1763년 필담창화집에 나타나는 일본 문인의 시문창화 인식

11차 사행에서 남옥이 창화시를 써준 일본 문인은 대략 5백 명 정도이다. 현전하는 필담창화집이 대체로 그러하지만 일본 문인들이 먼저 명함과 시를 통하고 조선 문사들이 응대하는 방식을 취한다. 필담에 사용되는 말은 매우 공손하고 수창시의 시어 역시 우호적이다. 그러나 통신사가 귀국한 후 엮어진 필담창화집의 서문이나 글귀의 주석들의 내용이 이와 이질적인 경우가 상당수 보인다. 이런 현상은 필담창화집이 다채롭게 남아있는 11차 사행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본문인이 시문창화에 대해 어떤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서문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조선 문장 비판의 단초 : 土風과 固陋

11차 사행에서 제술관 및 서기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수창시의 창작이었다. 최창대가 9차 제술관 신유한에게 했던 “천만 편의 시를 풍우처럼 신속하게 짓는 것은 거록의 제후를 두려워하게 할 수 있지만 한 명 맹획을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지는 못한다.(即千篇萬什驟如風雨 可使鉅鹿諸侯惴恐 不可使一孟獲心服)”라는 충고가 현실화된 것이다.

조선인의 「下里巴曲」은 모두 민첩한 것을 재주로 여기지만 우리의 「陽春白雪」은 각자 정교함을 지극한 것으로 여기니 우열을 논하면 저절로 분별이 된다. 시가 만일 정교하지 못하면 하루에 천 수를 짓더라도 어찌겠는가?<sup>10)</sup>

조선 문사의 질 낮은 창화시는 위와 같은 林東溟(하야시 토메이, 1708~1780)의 비판을 불러온다. 조선인의 시는 下里巴曲, 즉 통속적인 노래일 뿐이고, 일본 문인의 시는 양춘백설, 즉 심오하고 고아한 곡이다. 아무리 민첩해도 시의 수준이 낮으면 소용없다는 지적은 이제 시문창화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알린다. 시문창화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남옥의 주

9) 조엄, 『海槎日記』·〈筵話〉.

10) “韓人下里巴曲 共以敏捷爲才 我土陽春白雪 各以精工爲之 其優劣不論而自分焉 凡詩章苟不精工 則雖一日千首 奚以爲 不爲難耳”(『鷄壇嚶鳴』 序)

장은 일견 타당한 견해라 할 수 있다.

일본 문사층이 넓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훌륭한 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행원을 호행했던 那波魯堂(나바 로도, 1727~1789)은 『皇華集』을 거론하며 많지 않더라도 수준이 있는 화운시를 요청한다. 그러나 여기에 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성대중은 “연회자리에서 주선하는 사이 응대가 분주하고 시편과 문장이 넓게 쌓여 비록 스스로 적당한 문사를 택하여 그 성심을 표현하고자 해도 겨를이 없다.”<sup>11)</sup>라고 하여, 정성을 들여 시를 짓고 싶어도 밀려드는 요구에 시간이 없음을 지적한다.

내가 한사가 네 번 수빙함을 만나 그 창수한 것을 열람하였더니 신묘년 사행원 가운데 이동락이 출중했다. 이후 이번 사행에 남추월, 성용연 역시 거벽이 된다. 그러나 모두 그 토풍(土風)을 잡고 있어 소황의 말과 가운데 뛰어난 것일 뿐이다. 필담 같은 것은 응수가 민첩해서 사뭇 종횡으로 자유로운 듯하다. 이는 평생 공부한 것이 타고난 듯 습관이 된 것이라 응수하는 데 힘쓸 뿐, 어찌 문장에 불만한 것이 있겠는가? 삼한 땅에서 선비를 뽑는 법은 한결같이 명나라 제도의 정시를 따라 염락낙민의 경의를 전용하고 성리를 주장함으로써 예약에 끼친다. 그러므로 문장은 오로지 달의를 주로 하고 수사의 도를 버렸다. 당연히 고문사의 묘함과 숲처럼 줄지어 있는 작자를 알지 못한다.<sup>12)</sup>

萩藩 明倫館의 학두인 山根華陽(야마네 카요, 1697~1772)는 고문사와 문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비판적인 견해를 지닐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가 1711년, 1719년, 1748년, 그리고 1763년 네 차례 사행을 겪었다는 점이다. 카요가 1719년 신유한, 1748년 이봉환(李鳳煥, ?~1770) 등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법한 인물들을 놓아두고 이현을 최고로 꼽은 이유는 최초라는 경험이 주는 신선함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711년 마음대로 한문을 써내려가고 즉석에서 차화운시를 써주는 솜씨는 그 민첩함만으로 찬탄과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회를 거듭할수록 조선 문사의 민첩함은 식상한 것이 되어버린다. 과거 공부 때문에 천성처럼 길러진 것일 뿐이라는 언급은 신기함이 걷힌 후의 분석적 시각을 보여준다. 뜻을 전달하는 것을 주로 하고 수식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일면에는 시상을 고르지 못한 채 기계적인 창수로 응대하는 행태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도 했다.

내가 조선인이 문장 짓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니 본디 한유·유종원·구양수·소식의 문장을 하지 않고 또 이반룡·왕세정의 문장을 하는 것도 아니라 실로 지방 속습이 있다. 그리고 한 결 같이 사승을 지켜 다시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고루함이 심함을 고금 필담을 열독하면 알만하다.<sup>13)</sup>

11) “樽俎折旋之間 應副紛拏 篇章浩疊 雖欲自擇其文辭 導達其誠心 亦未暇也”(『東遊篇』 서문)

12) “余及觀韓使四修聘也 閱其所唱酬者 辛卯幕中李東郭已超乘矣 爾後此行南秋月成龍淵亦爲巨擘焉 然而皆操其土風 蘇黃末派之雄耳 如夫筆語者 應酬敏捷 頗似得縱橫自由也 是其生平之所業 習慣如天性 而有是應務而已 何有文章之可觀 蓋韓土取土之法 一因明制廷試專用濂閩之經義 主張性理 以遺禮樂 故文唯主達意 而修辭之道廢矣 宜乎不能知古文辭之妙 而列作者之林也”(『長門癸甲問槎』 서문)

13) “余詳察朝鮮人作爲文章 固不爲韓柳歐蘇 又不爲李王 實有方土俗習 而一守其師承 不復少變矣 固陋之甚 閱古今筆話可知也”(『兩好餘話』 발문)

那波魯堂의 아우인 奥田尚齋(오쿠다 쇼사이, 1729~1807)은 조선 문장이 方土俗習이 있는 촌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비판의 화살은 문장 자체보다는 필담을 향해 있다. 그가 고루하다고 한 부분은 필담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양한 경전 해석이 난무하던 당시 일본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사행이 시작된 이래 조선 문사는 교조적인 주자 해석의 옹호를 반복하였고, 구체적인 내용 역시 1711년 필담이나 1763년 필담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 1763년 고문사과의 위력을 실감한 원중거를 비롯한 조선 문사들이 정주학을 더욱 강경하게 옹호하였다.<sup>14)</sup> 이 때문에 조선 문인이 고루하고 변화가 없다는 인상이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밀려드는 시문창화에 대한 성실한 응대와 국체를 보호하려는 강경한 언사는 외교 임무에 충실한 관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한문학적 성취를 이루어낸 1763년의 일본 문인들에게는 비판의 빌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한문으로 하는 전투 : 文戰

문화를 선양한다는 조선 문사의 인식과 대조적으로 일본 문사들의 글 가운데는 시문창화를 전투에 비유하는 표현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최초의 필담창화집이라 할 수 있는 기록인 1636년의 『朝鮮筆談集』에서부터 이러한 표현을 찾을 수 있다. 石川丈山(이시카와 조잔, 1583~1672)은 이문학관 권척(權忒, 1599~1667)과의 필담 기록에 대해 발문에서 “다만 만날 때의 풍개만 취해서 기록하여 글로 싸운 징험으로 삼을 뿐(齎記取會次之風槩, 以爲文戰之徵矣耳)”<sup>15)</sup>이라고 하여 조선인과의 필담창화를 글로 하는 전투인 ‘文戰’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시와 문의 기량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戰詩’, ‘戰文’이라고 한 것은 중국 당사에서 이미 보이는 표현이다. 기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일이 과거시험이었기 때문에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경우에는 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지만,<sup>16)</sup> 임자(林滋, ?~?)의 <文戰賦>에서 보이듯 글을 쓰는 것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당나라 시를 추종했던 조잔은 무장 출신이기도 했기에 이런 표현이 좀 더 익숙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1763년이 되면 시문창화를 전투에 비기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보인다.

문진(文陣)에서 한쪽을 맞이하는 데 공격하는 것, 수비하는 것, 도전하는 것, 둔을 치는 것은 요체가 모두 그 적당함에 달려 있다. 진실로 그렇지 않으면 서로 친압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후퇴하니 어찌 피차 보탬이 되겠는가?<sup>17)</sup>

위 글은 細井平洲(호소이 헤이슈, 1728~1801)이 南宮大湫(난구 타이슈, 1728~1778)에

14)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 인식』 164쪽, 해안, 2006.

15) 小川武彦·石島勇 공저, 『石川丈山年譜』附編, 「筆談跋」, 靑裳堂書店, 1994, 812쪽.

16) “初應進士試, 中朝無總麻之親, 達官無半面之舊, 策蹇步於利足之途, 張空拳於戰文之場”(〈與元九書〉)

17) “凡文陣之逆韓客也 攻者守者挑戰者結屯者 要皆在其允當矣 不則相媾 不則交綏 抑何益彼此哉”(『南宮先生講餘獨覽』 발문)

게 써준 발문에 나오는 글이다. 둘 다 절충학파로 분류되는 유명한 유학자이다. ‘文陣’이라는 용어가 보통은 문단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위 인용문에서는 시문 창화의 행위 하나하나가 전투에서의 공격과 수비로 비유되어 표현된다. 더 나아가 지나치게 우호적이거나 아예 두려워 교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싸움을 독려하는 듯한 인상마저 든다. 인용문에서 文이라는 글자만 빼면 실제 전투를 가리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이다.

내가 천조에서 욕되게 관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기를 세우고 복을 치며 상대할 수가 없었으나 이 책에 눈을 부쳐 이로써 그 전투를 논평할 수 있었으므로 서를 지어 몹시 부러워하는 뜻을 부친다.<sup>18)</sup>

위 인용문은 오사카와 교토의 시사에서 활동하던 시인들의 창화집을 엮은 『和韓雙鳴集』의 서문 뒷부분이다. “論隴其戰”의 전투란 바로 조선 문인과의 시문창화를 가리키며, 그 과정은 “旗鼓相當”이라 비유된다. 이 서문의 작자 山井靑霞(야마노이 세이카, 1708~1795)는 천황에게 피리를 가르치기도 했던 雅樂家였다.

위에서 보듯 조선 문사와의 시문창화를 전투로 비유하는 것은 유학자든, 음악가든 상관없이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다투어 번갈아서 읊조리고 응수하여 마치 능력과 재주를 다투고 겨루는 것처럼 하니 이에 성의는 알아지고 사치는 가벼워져 풍아 영가의 의의가 없어졌다”<sup>19)</sup>라고 하며 재주를 경쟁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시문 창화 자체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대중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라 하겠다.

그들이 명을 받든 것을 안 이래로 각기 사계(詞鷄)를 기른 자 가운데 연륜이 있으면 모두 스스로 ‘교만한 기운이 이미 거의 다했다. 우리 기술의 온전함은 감히 응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기르기 어려움은 자기가 좋아하는 바 때문이니 목계와 비슷함에 무엇이 있겠는가? 한 번 우리 동쪽 지역에 들어오면 일 좋아하는 선비들이 있는 곳마다 무리를 이루어 한관을 우러러 사장으로 곧바로 향한다. 큰 놈은 의기양양해 하고 작은 놈은 두려워한다. 붓의 부리는 짙은 듯하고 문의 기운은 우뚝하여 계씨의 갑옷 입힌 닭을 부끄러워하고 후씨의 쇠 발톱 씌운 닭을 천하게 여긴다. 저들과 싸우는 자를 일일이 셀 수 없다.<sup>20)</sup>

위는 林東溟가 北山橋庵(기타야마 키츠안, 1731~1791)에 써준 서문이다. 윗글에 나오는 목계(木鷄)란 무적 상태의 싸움닭을 말한다. 『장자(莊子) · 달생(達生)』에 紀渚子가 왕을 위해 싸움닭을 키웠는데, 닭에게 교만한 기운이 다 사라져 다른 닭이 울어도 반응하지 않아 나무 닭처럼 보이자 다른 닭들이 감히 응대하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한다. 토메이는 시재를 연마하는 것을 싸움닭 기르는 것에 비유하여 사계(詞鷄)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문재가 뛰어난

18) “余以辱職官於天朝 不得與彼人旗鼓相當 而得寓目此集 以論隴其戰 序以寓健羨之意云”(『和韓雙鳴集』 서문)

19) “君競唱迭酬 若爭能較才者然 於是乎誠意淺而辭致輕 風雅詠歌之義亡矣”(『東游錄』 서문)

20) “蓋知其承命以來 各養詞鷄者有年所 而皆自謂 虛驕之氣 既已幾矣 吾術之全 無敢應者也 然養之難 以己所好 則安有於其似木鷄乎 一入我東域 好事之士 所在爲群 望韓館而直前詞場 大者昂然 小者竦然 筆嘴如削 文氣崢嶸 愧季氏介羽 賤后氏金距 與彼相關者 不可枚數”(『鷄壇嚶鳴』 서문)

난 문사는 큰 닭, 서투른 문사는 작은 닭이다. 붓은 부리가 되고 문장의 기운은 싸움의 기세가 되는 것이다.

시문창화를 닭싸움에 비유할 수 있는 일본 문인의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앞서 지적한 대로 조선 문인과의 필담창화를 전투로 보는 일본 문인들의 인식 배경에는 한문 능력을 하나의 기량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文以載道’와 같은 논쟁은 애초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의 지식을 유용하게 습득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였다. 한문학 혹은 한학에 종사하는 일본 문인은 이를 위해 다이묘에게 고용된 존재로, 주군에게 이용가치가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과거제도가 없는 일본에서 외국인들과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가는 자신의 한문 능력의 척도를 가늠한 중요한 기회였다. 조선인을 상대로 기량을 겨룬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전투와 싸움에 비유하는 표현이 글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 3. 武力의 等値로서의 文力：神功王后와 豊臣秀吉의 비유

『通文館志』의 기록에 따르면 외교 재개를 거절한 조선 정부에 도쿠가와 막부는 “임진년 일은 관동에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아는 바가 없는 데다 더욱이 지금 다 평적(平賊：平秀吉)의 악함을 미워한다. 사실 원수가 아니니 화호 통하기를 원한다.”<sup>21)</sup>고 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조선 쪽 기록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조선의 원수를 대신 갚아준 인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원중거는 임진왜란에 대해 “秀賊”이 예의의 일부분이라도 알았더라면 사납게 날뛰던 임진년의 변이 없었을 것이라고 탄식한다. 그리고 이 예의로 들어가는 길을 바로 문장이라고 여겼다.

지금 바야흐로 나가사키의 책이 날마다 이르러 나라 안 문화에 바야흐로 흥기하는 기세가 있음을 보니, 만약 이 기세를 통해 예속의 아름다움에 나아가게 한다면 저들의 상세히 알기를 청하는 자세와 명민한 품성으로 한 번 풍속이 변하여 제나라 수준에 이르는 기미가 없다고 어떻게 알겠는가? 저들이 만약 예의를 알고 염치를 알아 도리로서 일을 처리한다면 역시 하나의 군자국이니 교제의 의리는 따라서 자명해질 것이다.<sup>22)</sup>

그는 일본 문사들의 호학하는 자세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이를 예의와 염치를 아는 군자국이 될 수 있는 기미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교린체제가 이어지면 더 이상 병화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예의를 전혀 모르던 무력의 도요토미는 그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상황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763년 일본 문사들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1763년 柴野栗山(시바노 리츠잔, 1736~1807)의 『隣交詩史』에 보이는 내용은 당시 유학자들이 가진 인식을 대표한다고 할

21) “壬辰之事 身在關東 無所預知 況今盡反平賊之惡 實非讐怨 願與通和云”(『通文館志』 6권)

22) “見今方長崎之書日至 而國中文化 有方興之勢 若能因其勢 而進之於禮俗之美 則以彼人請詳明敏之姿性 亦安知無一變至齊之幾耶 彼若知禮儀識廉恥 處事以道理 則亦一君子之國 而交際之義 隨而自明”(『乘槎錄』 4권)

수 있다. 신공왕후의 삼한정벌설이 시의 앞부분을 이루며 중반에는 임진왜란을 매우 상세하고 읊고 있고 후반부는 통신사에 대해 서술한 1천8백자로 이루어진 이 시는 조선 문사들에게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풍공이 심원한 계책을 일으켰으나 제로는 큰 피가 부족했고 기요마사는 한갓 날쌔고 용맹했으나 유키나가는 아침뿐이었지(豊公動遠略 諸老乏宏模 清正徒精悍 行長是諂諛)”와 같이 도요토미를 거론하는 내용이나 일본군이 조선 전역을 참혹하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묘사한 구절은 조선 문사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것이었다. 이 시는 화운을 거부당한 채 명함과 함께 돌려보내졌다.<sup>23)</sup>

필담창화집 서문에도 신공왕후의 삼한정벌,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4세 소년 平俊卿의 필담창화집인 『賓館唱和集』에 보이는 서문이다.

옛날에 神功王后는 한 번 뽕나무 활을 펼쳐 삼한을 복속시키고서 무덕을 길이 떨쳐 삼한을 개처럼 대우하였다. 근세에 豊臣왕이 삼척짜리 검을 지니고 스스로 나아가 조선을 정벌하니 팔도가 바람에 쓰러지듯 복종하였고 남아도는 용기로 호랑이를 잡았다. 이 두 차례 전쟁을 국가의 명예로 성대히 여긴다. 지금 平俊卿의 시는 神功王后의 활이다. 문장으로써 닦고 도로써 베풀며 漢魏를 자기의 군대로 떨쳐 일으키고 李白과 杜甫를 그 장수에 임명한 것이다. 風雅를 현으로 삼고 比興을 화살로 삼아 원숙함과 고상함으로써 활시위를 힘껏 당기고 수려함과 화려함으로써 활을 쏘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平俊卿의 글은 豊臣왕의 검이다. 쇠의 정화로써 빛을 삼고 철의 정화로써 먹을 삼았다.<sup>24)</sup>

신공왕후와 도요토미는 조선에 무력을 편 영웅으로 표현된다. “豊臣王”이라는 표현은 리츠잔의 “豊公”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막부에서 조선에 사용한 “平賊”과 상반되는 호칭이다. 이를 ‘國譽’로 여긴다는 말은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소년의 재주를 칭찬하는 데 별 문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平俊卿의 詩文이 활과 검이라는 무기로 비유되는 것은 시문창화가 싸움으로 비유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공왕후와 도요토미의 비유는 문장으로 조선을 정벌한다는 의식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호전적이라 할 수 있다.

삼한이 우리 대동에 통한 지 오래되었다. 혹은 우호로써 하고, 혹은 무력으로써 하고, 혹은 귀화하였다. 옛날은 우선 놓아두자. 풍공이 간과로 저 나라에 위세를 떨쳐 두려워하게 한 이후로 병사가 끊이지 않았고 드디어 문으로써 무력을 바꾸었다. 그 싸움 역시 무력과 같은 것인지, 서로 이둔(利鈍)이 없을 수 없다. 요컨대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 기자의 가르침이 아마도 쇠했나 보다.<sup>25)</sup>

23) “昌平學生有柴邦彦者 年少號栗山 操筆如流 出百八十韻 更出七律一首 詞筆稍優 諸詩並追和 詳見邦彦之作 則先有儷序 雖是選體 亦自綺麗 排律用事該贍 皆有註說 既富且妍 藻致爛輝 可謂東來後初見 但叙龍蛇事多失敬義 不可與之酬和 遂與詩紙名刺並還投 蓋其妙歲博文 才思超群 其舉止雖燭下卒乍之間 亦見驕妄勝德之氣 文與識一惟物雙栢是師者也”(『日觀記』 2월 25일)

24) “昔者神皇后 一張桑弓 制服三韓 武德永威 待之以狗 近世豊臣王 提三尺劍 自將伐韓 八道風靡 餘勇獵虎 吾日本之於朝鮮 蓋以此二役 盛爲國譽矣 今俊卿之詩 神后之弓也 修之以文 施之以道 漢魏振其旅 李杜拜其將 風雅爲絃 比興爲矢 圓朗以引滿 秀華以射發 而無不中也 俊卿之書 豊王之劍也 金莢爲筆 鐵精爲墨”(『賓館唱和集』)

25) “韓之通我大東也尙矣 或以好或以戎或歸化 古者姑置焉 自豊公之以干戈震恐彼國 使聘不絕 遂以文易戎 其戰也

세이카는 조선과 통한 방법으로 好·戎·歸化의 세 가지를 들고 있으나 부각시킨 것은 戎이다. 옛날의 일이란 신공왕후의 삼한정벌을 가리킨다. 그리고 조선의 사행이 마치 도요토미의 위세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도요토미 정권에 황윤길 등이 파견된 통신사는 임진왜란 전에 있었고, 시문창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방식은 도쿠가와 막부에 와서 활발해졌으나 이를 짐작할 만한 구절은 없다.

고대 신공왕후가 삼한을 무력으로 복속시켰고, 근세 도요토미가 다시 조선을 무력으로 굴복시켰다는 두 사건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단언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무력이 문력으로 바뀌었을 뿐 조선은 일본의 힘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원증거는 武의 對峙點에 文을 두고 있다. 武는 야만으로 이어지고, 문은 군자국으로 이어지는 출입구인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 문인들은 武와 文을 等值하고 있다. 앞서 과거에 무력을 통한 두 번의 조선 정벌이나 문력을 통한 조선 문사의 굴복은 동질의 현상으로 이해된다.

#### IV. 결론

조선과 일본의 문사들에게 필담창화는 어떤 의미를 가졌던 것일까?

우선 조선쪽을 살펴본다면, 제술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일본문사 응대를 위해 설치된 것이었기 때문에 시문창화는 외교 임무 수행의 성격이 강했다. 시문창화를 통해 자기 나라의 문화를 드러내야 한다는 의무와 응대를 그르침으로써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이 일관되게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시문과 필담에는 양국의 우호를 확인하는 내용이 많이 담기게 된다. 그러나 일본 문인의 문사에 대한 욕구는 상상을 초월해서 11차 사행에 이르러 정점에 이른다. 사행록에 종종 보이는 문장으로 오랑캐를 교화한다는 입언은 말에 그칠 뿐, 수많은 일본 문인을 상대하여 창화시를 만들어내기도 바쁜 상황이었다. 그런 데도 이들은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히 임무를 완수하였다.

반면 1763년 일본 문인이 시문창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통신사 초기와 달라져 있었다. 일본 문인들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탓에 조선 문사들은 시문의 수준을 고려할 여력이 없었다. 한편 정주학에 대한 지나친 옹호는 새로운 조류를 갈망하는 일본 문인들에게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조선 문사의 관료적 성실성은 도리어 일본 문인들이 조선인의 시문에 대해 비판할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더욱이 일본 문인들의 성격은 조선 문사와 상이하였다. 이들은 한문학적 지식을 관장하여 주군을 위해 사용하는 고용인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조선 문사와의 필담창화는 그들의 기량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로 활용되었다. 필담창화 능력은 일종의 기술이었고, 조선인과 만남은 기술을 겨루는 장이 된다. 주로 전투로서 양국 문인의 창수 행위가 설명되고, 시문

---

亦猶戎乎 互不無利鈍 要之不能勝於我 箕子之訓其衰耶”(『和韓雙鳴集』 서문)

은 무기로 표현되는 경우가 발견된다. 비록 필담창화는 우호를 얘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문에서는 ‘문전(文戰)’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더 나아가 조선인과의 시문창화를 신공왕후의 삼한 정벌과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에 비유하는 호전적인 인식도 나타난다. 임진왜란의 경험 위에 문무를 대치점에 두고 군자국와 오랑캐 나라를 이분하며, 문을 추구하는 일본에 호감을 느낀 것은 조선 문사의 허상이었다. 이미 전쟁이 종식되어 무력이 쓸모없어진 혹은 억제하는 도쿠가와 막부에서 일본 유학자들에게 문력이란 새로운 신분상승의 통로였다. 이들은 별 거리낌 없이 문력을 무력과 등치시켜 표현한다. 조선인이 보지 못하는 서문에서는 금기에 구애받지 않았고, 필담창화의 효과를 상찬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과장이 일어날 소지도 내포하고 있었다.

양국 문사는 신분적 입장이 달랐고 시문창화를 통한 효용도 달랐다. 같은 자리에서 필담창화를 나누었으나 각자 주목하는 부분이 달랐다. 조선 문사는 선린우호라는 외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무였다. 반면 일본 문인에게는 자신들의 한문 능력을 입증해 보이고 때로는 한문학적 지식을 습득 혹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으므로, 조선 문사와는 달리 개인적인 욕구를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이다.

## <1763년 통신사행과 필담창화 기록 -시문창화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야노 다카요시(세종대)

본고는 1763년 통신사행에 있어서 필담창화에 대한 양국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당시의 한국과 일본의 시문창화에 대한 인식차이를 드러냄으로서 일본 문인이 그렇게 인식하게 된 이유를 밝히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선통신사의 언행이나 견문 등 기록상의 사실 뿐만 아니라, 당시 양국 지식인의 시문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명히 하려는 논문으로서 상당히 흥미가 있고 문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연구의의가 있습니다. 토론자 본인의 전공이 근세가 아니고 고대·근대문학으로서 발표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느낀 바를 이하 열거하겠습니다.

이국(異國)간의 문화나 사상을 비교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양국의 시대배경에 대한 고찰과 당시 양국의 문화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이해이겠다. 1763년의 한국은 조선왕조의 안정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유교를 통해 민족의 전통을 다시 세워 민족문화의 깊이를 구축하려는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말하자면 문화의 충실기이다. 유교의 대가 이퇴계(1501-1570)선생님이 이미 나왔고 유교의 체계적 기반을 완벽하게 세운 시기로서 전통문화의 성숙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한편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유교를 무사의 학문으로 이미 정해 이퇴계 선생님을 비롯해 유교국가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섬기고 있을 때이다.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초대하는 것도 일본 쪽에서 제기한 것이며 이에 경계하는 이왕조를 설득해서 이루어진 것이 조선통신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쿠가와 막부는 이퇴계 선생님의 영향을 크게 받은 막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역사에 있어서도 도쿠가와시대는 안정된 평화로운 시대이고 천하태평(天下泰平) 속에서 무사는 행정을 담당하고 질서의 유지와 산업의 육성, 그리고 문화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뜻밖에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신분제도하에서 발전한 것은 가장 지위가 낮은 상인들로 인한 상업과 그들의 서민문화이었다. 이는 근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도쿠가와 사회는 정치적 성향이 크지만, 유교는 신분사회를 기초로 만들기 위한 윤리로 기능했다. 무사는 문무(文武) 양쪽을 함께 배워 겸비하는 것을 요구받았다. 위정자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면 천하도 훌륭하게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자학(朱子學)의 정치도덕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한 도쿠가와 막부였지만, 18세기가 되면서 사상적으로도 변하기 시작했고 하나의 계몽의 시대를 맞이했다.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성(理性)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전통적 생각이나 가치관을 의심하고 구사상을 비판하는 새로운 정신적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17세기의 유교는 하나의 형식이 되고 말았고 사상계의 관심사는 유교자체가 아니라 진리일반이 되었다. 쇄국 속에서도 데지마(出島)를 통해 서양문물을 수입하여 자연과학문명을 적극적으로 배워 서양적 합리주의를 암묵리에 수용해갔다. 이렇게 해서 18세기에는 새로운 사상적 발상이 가능하게 되어 개명(開明)적 사상가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에 있어서 1763년은 이러한 사상적 변화의 시대였으며 그런 시기에 전통문화의 충실화를 향하고 있는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당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17세기의 일본 사상적 상황과 18세기의 그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1. 조선 문장 비판의 단초>는 변함이 없는 조선 문사의 창화시의 ‘반복’에 대해 ‘어느 정도 한문학적 성취를 이루어낸 일본 문인들’이 비판했던 것이라기보다 근대의 도래를 느끼면서 더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는 일본 지식인의 지적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 한문으로 하는 전투: 文戰 >에 대해서도 이미 전통적 유교에 대한 신념을 잃은 일본 무사가 도덕보다 전략을 더 지향하는 측면이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어쨌든 ‘필답에 사용되는 말은 매우 공손하고 수창시의 시어 역시 우호적’인데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귀국한 후 엮어진 필답창화집의 서문이나 글귀의 주석들의 내용(만)이 이와 이질적’이라는 것은 ‘일본문인의 신문창화에 대한 (호전적) 인식’의 태도라기보다 필답창화집의 편집을 맡은 사람들의 소행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서문과 글귀에 첨가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11차 사행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일부의 현상을 예로 해서 일본 문인 전체의 문제로 삼길 수 있는지 의문이다.

문헌의 필자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그 문헌의 성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주 18) 19) 20)은 모두 ‘서문’을 인용한 것이지만, 이가 언제, 어떤 동기로 인해 어떤 목적으로 쓰게 되었고 본문에 붙이게 되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용문 각주 15) 17)의 ‘발문’에 대해서는 당시 문사의 한문 이해도를 고려하면서 다시 인용문을 해석 할 요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각주 18)의 ‘서문’의 필자에 대해서는 雅樂家로서 당시 일본 유교를 대표할 수 있는 문사로 볼 수 없는 것 같다.

<3. 武力の 等價로서의 文力: 神功王后와 豊臣秀吉의 비유>에 대해서는 14세 소년에 대한 글이나 雅樂家の 글을 인용해서 일본 문사의 호전적 성격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14세의 소년이나 雅樂家가 일본 儒者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神功皇后를 마치 역사적 실제인물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녀는 설화에 나타나는 가공의 인물이며 실제인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두 사건’이나 ‘두 번의 조선 정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학술로서 논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당시 일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학술로 논할 때는 이를 사실처럼 말할 수 없다. ‘일본 문인들은 武와 文을 等値하고 있다.’는 것도 주자학에 따른 일본 무사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용한 일본문헌이 일본 당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문헌인지 특수한 문헌 인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필자가 어떤 인물인지도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763年 癸未 通信使行과 東亞細亞 文化 接觸

(午後 一次 發表 및 討論)

司會: 李勝洙(漢陽大)

◇ 李弘湜(漢陽大)

癸未通信使行으로 바라본 韓日 關係의 變化 探索

/ 討論: 金亨泰(延世大)

◇ 高橋博己(金城學院大)

洪大容・李徳懋らのプリズムを通して見る日本の文雅

-東アジア学芸共和国への助走-

洪大容・李徳懋 의 프리즘을 통해 본 日本의 文雅

/ 討論: 安大會(成均館大)

# 1763 계미통신사행과 한일 관계의 변화 탐색<sup>1)</sup>

## - 충돌과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

이 홍 식(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I. 서론
- II. 사행단의 출발과 인식의 점검
- III. 사행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과 갈등
- IV. 최천중 피살 사건과 그 의미
- V. 결론

### I. 서론

계미통신사행(1763~1764)은 조선이 에도 막부에 파견한 11번째 사행이다. 조엄(趙巖)을 정사로 하고, 남옥(南玉)·원중거(元重擧)·성대중(成大中)·김인겸(金仁謙)이 제술관과 서기로 참여하였다. 마지막 12차 통신사행이 신미년(1811)에 대마도에서 역지교빙(易地交聘)의 형태로 이루어진 만큼, 계미통신사행은 조선의 사절단이 에도를 방문한 마지막 사행이다. 이 사행을 통해 양국은 필요한 정치적 이익을 담보한 채<sup>2)</sup> 활발한 문화 교류를 이어나갔는데, 주로 필담과 시문 수창을 통해 이루어진 문화 교류는 여러 편의 사행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전한다.<sup>3)</sup> 문화 교린 외교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교류와 소통의 이면에는 단절과 불통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특정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특히 사행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갈등을 조장하는 주요 조건이 되었다. 전명례(傳命禮)를 둘러싼 각종 의례의 변화는 조선 통신사들의

1) 이 논문에서 인용한 모든 예시문들은 김보경, 홍학희, 김경숙, 박재금 선생의 번역본에서 차용한 것이며, 분량 제한으로 말미암아 원문을 따로 부기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2) 이 시기에 이르면 통신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에 대한 회의가 본격화된다. 정사 조엄은 조선이 많은 재물을 소비해가며 있을 수 없는 원수를 먹이는 것이라고 하여 통신사 파견에 의문을 보였고, 원중거 또한 통신사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민폐가 많고, 조선측 역관들은 대마도와 유착관계에 있으며, 막대한 교역 물품 때문에 재정 손실이 많은 점을 들어 통신사 제도를 개혁하고자 제안하였다. 그 결과 논의된 것이 바로 역지교빙(易地交聘)이었다. 김보식, <조선후기 通信使行員의 對日認識>, 《대동문화연구》 4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132~133쪽 참조.

3) 계미통신사행의 경우 단일 사행으로는 가장 많은 수의 사행록이 지어졌다. 조엄의 『해사일기(海槎日記)』, 남옥의 『일관기(日觀記)』·『일관시초(日觀詩草)』·『일관창수(日觀唱酬)』, 성대중의 『일본록(日本錄)』, 원중거의 『승사록(乘槎錄)』·『화국지(和國志)』, 김인겸의 『日東壯遊歌』, 오대령의 『명사록(冥槎錄)』, 변탁의 『계미수사록(癸未水槎錄)』 등이다. 김보경, <계미사행 조선 문사들의 江戶 체험과 그 의미>,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119쪽 참조.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고대사와 임진왜란에 대한 왜곡은 조선 통신사들의 분노를 자극했으며, 반주자주의를 지향하는 일본 고학의 등장과 성행은 조선 통신사들을 당황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귀로에 대판에서 터진 최천중 피살 사건은 통신사행의 단절과 불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어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러한 일련의 갈등 양상은 양국 간의 관계 변화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지표를 제공한다. 이전에는 있지 않았거나 있어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일들이 계미통신사행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주자학과 중화주의를 중심에 둔 조선의 교린 외교 정책과 반주자주의와 탈중화주의로 나아간 일본의 외교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들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행록 곳곳에서 교류와 소통의 틈을 비집고 터져 나온 단절과 불통의 잔재들을 찾아 정리하는 작업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 정립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 및 역사와 세계 인식의 차이를 검토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련의 계미통신사행기록을 주된 텍스트로 삼아 한일 양국 교류의 갈등 원인과 지점 및 양상을 밝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한일 양국의 관계 변화 정도와 의미 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사행단의 출발과 인식의 점점

조업을 정사로 한 계미통신사행단은 과거사, 특히 임진왜란에 대한 철저한 재인식과 더불어 주자학에 토대를 둔 중화주의 및 문화우월주의에 입각한 채 사행길에 올랐다. 이는 조선 통신사들이 교린 외교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기반이 되었고, 나아가 덕천막부와 불통하고 갈등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대들에게 시 짓는 능력이 있는지 먼저 시험해보고자 하니, 그대들은 나가서 함께 시를 짓고 시가 이루어지는 차례대로 와서 내도록 하라.<sup>4)</sup>

향(香)을 맞이하는 일을 과한 뒤에 임금께서 승현문에 납시어 통신사로 가는 세 사신을 입시하도록 하니, 정사 조엄·부사 이인배·종사관 김상익이 차례로 앞에 나아갔다. 임금께서 친히 ‘이릉송백(二陵松栢)’이란 글귀를 외우면서 목이 메고 눈물을 머금어 감개하는 뜻을 나타내시며, 친히 ‘잘 다녀오라’[好往好來]는 네 글자를 써서 세 사신에게 각각 주어 사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선대를 생각하는 효성과 신하를 자신처럼 여기는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감동되어 간절히 흠모하고 감탄하게 한다.<sup>5)</sup>

1763년 8월 3일 첫 노정에 오르는 사행단을 두고 영조는 두 가지를 주문했다. 첫 번째는 시재(詩才)이고 두 번째는 와신상담의 역사인식이었다. 문화 교린 외교의 최전선에 있었던 시문 수창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조는 삼사와 제술관 및 서기의 시재를 시험해 보았고,<sup>6)</sup> 이

4) 원중거, 『승사록(乘槎錄)』, 계미년(1763, 영조 39) 7월 24일(기묘) 조.

5) 조엄, 『해사일기(海槎日記)』, 계미년(1763, 영조 39) 8월 3일(정해) 조.

6) 시문을 통해 문화적 우위를 지키려는 의도는 복명하는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764년 7월 8일 남옥이

릉송백(二陵松栢)이란 말을 들어 임진왜란의 아픈 기억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주문하였다.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150년이 넘는 시점이었지만 그 때의 기억은 통신사들의 머리에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었고, 시문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린 의지도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처음 부산에 도착해서 나는 두 벗에게 “일본인은 정주가 있다는 것을 모르므로 나는 정주를 인 용하여 그들을 대하려 하니 형들의 뜻은 어떠합니까?”라고 하니 두 벗이 어렵게 여기며 말하였다. (중략) 내가 말하였다. “정주의 도를 내 어찌 능히 알겠습니까마는 다만 이것이 아니면 내게는 손 을 의뢰하고 입을 의뢰할 말이 없으니, 둔열한 내가 설령 재미있는 말을 하고 웃으며 놀려고 해도 원기가 넘치게 이야기하는 것은 평생 능하지 못한 것이니, 생각건대 어찌 억지로 능하겠습니까? 또 충신독경(忠信篤敬)은 오랑캐들에게 베푸는 지름길이니, 가령 가벼이 조금 겹게 재담을 섞어 그 들에게 다른 풍속의 웃음과 즐거움을 베푼다고 해도 내 마음에 홀로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이른바 나라를 빛낸다는 일컬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여깁니다. 우리 예의의 나라 조선이 장엄하고 공경함을 스스로 지니고 관복을 단정히 하며 행동과 위엄 있는 고동의 법칙을 잃 지 않고, 정주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경서가 아니면 인용하지 않는다면 생각건대 좋지 않겠습니 까? 시문에 이르러서는 재주가 이미 미치지 못하니 반드시 간략히 하고자 합니다.”<sup>7)</sup>

여기에 더하여 원증거를 비롯한 통신사들은 주자학적 세계인식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 다. 당시 일본에서는 고학과의 등장으로 주자학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난 시점이라,<sup>8)</sup> 통 신사들의 주자학적 세계인식 강화는 대립과 갈등을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셈이다. ‘충신독 경(忠信篤敬)은 오랑캐들에게 베푸는 지름길’이라는 말에서 보듯 주자주의에 입각한 세계인 식은 한일 관계에서 문화적 우열을 나타내주는 주요 지표로 인식된 만큼, 정주가 아니면 말 하지 않고 경서가 아니면 인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학문적 논쟁에만 한 정되지 않고 시문 수창의 태도와 방향까지도 조정하였는데, 예의의 나라 조선에 맞는 시문 수창의 태도와 방향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원증거는 통신사행 내내 겸양(謙讓)에 힘을 쏟고, 편안하고 고요하게 응대하는 것을 중시하였다고 했다. 큰 참(站)에 당도하면 시를 가지고 온 사람, 문목을 가지고 온 사람, 필 답을 하려는 사람, 밖에서 관광을 하는 사람 등 수백 명이 구름처럼 모이다 보니 혼란스러 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중에도 원증거는 차례와 질서를 지키며 정성을 다해 응대하였다. 간혹 가볍고 성급한 무리가 글을 얻지 못할까 저어하여 차례를 어기면 이렇게 타일렀다 한 다. “만 리 밖 사람이 겨우 잠깐 한 자리에 모임을 얻었으니 진실로 깨우쳐 훈계할 때가 아

북명할 때 영조는 “그 나라의 문장이 전과 비교하여 어떠하며,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우열이 또한 어떠한 가?”라고 물었고, 남옥은 “이전 사행 때는 잘 알지 못하오나 문기가 점점 열려서 전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곧 중화와 오랑캐와 같은 차이가 있으니 우열을 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듯합니다.”라고 답하였다.

7) 원증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3월 10일(신유) 조.

8) 고학과는 1665년 산록소행(山鹿素行, 1622~1685)이 『성교요록(聖教要錄)』에서 주자학을 비판하고 고학의 입장을 천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이등인재(伊藤仁齋)·동애(東涯) 부자를 중심으로 하는 고의학파(古義學派)와 적생조래(荻生徂徠)·태재춘대(太宰春臺) 등을 대표로 하는 고문사학과(古文辭學派)로 나뉘지면서 발전 한다. 이등인재의 여러 저서들은 이미 1707년과 1719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조선에 유입되어 조선 학자들에 게 읽히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하우봉의 <조선 후기 통신사행원의 일본 고학 이해>, 《일본사상》 8, 한국일 본사상사학회, 2005, 185쪽 참조.

됩니다. 군자는 사람을 덕으로 사랑하는 것이니 만약 그대에게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대를 그르다고 여기면 성신(誠信)의 도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부끄러워하는 빛이 있으니 이는 덕으로 나아가는 기본입니다. 늙은 내가 함께 있는 것이 몹시 기쁩니다.”<sup>9)</sup>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을 이마에 대고 땅에 엎드려 예를 올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또한 이마에 손을 대고 그렇게 하였다 한다. 단순히 시문만을 수창한 것이 아니라 겸양과 예의를 함께 진했던 것이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내가 세 벗에게 “시를 화답하여 주고 폐물을 받는 것에는 의가 없으니 하나도 받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중략) 저들의 지경에 들어온 뒤 일기(一崎) 이후로 와서 만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폐물을 가지고 왔으나 하나도 받지 않았다. 적간관(赤間關)에 이르자 초안세(草安世) 무리들이 선물을 주려고 하였으나 모두 사양을 하였다. 그러냈더니 다만 벼루를 가지고 와서 두루 두 개씩 주려고 하면서 말하였다. “여러 공께서 청렴하고 맑으심으로 스스로 지키시는데 저희들이 감히 따르고자 하지 않음은 아닙니다만, 이 벼루는 적간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 공들께서 바야흐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저희들이 바치는 것 또한 정이 담긴 예이니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내가 대답하였다. “군자는 사람을 덕으로 아깁니다. 우리 무리가 돌아갈 때 짐이 깨끗하여 물건이 하나라도 있다는 누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또한 상쾌하지 않겠습니까?”<sup>10)</sup>

예의와 겸양에 대한 강조는 시문 수창 시 폐물을 주고받는 의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전까지 으레 받았던 폐물을 원증거는 남옥과 성대중과 김인겸에게 받지 말자고 건의했고, 실제로 그 다짐을 지켰다고 했다. 많이 베풀고 불필요한 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일본 내에서 네 사람은 청렴하고 맑은 군자의 덕을 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교린의 본의에 다가갈 수 있었다. 물건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덕으로 사람을 대하는 조선 통신사들의 행위와 그것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곧 주자학에 토대를 둔 중화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며 문화적 우위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여기에 더해진 투철한 역사인식은 통신과 교린의 본의를 더욱더 강화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통신사에 대한 일본의 인식 변화와 맞물려,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양국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 Ⅲ. 사행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과 갈등

#### 1. 사행 의례의 변화와 갈등

1607년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 파견을 출발로 새롭게 시작된 한일 관계는 1636년 통신사로 이름을 바꾼 이후 보다 활발히 교류를 이어나간다. 이 즈음 조선은 문화 교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제술관과 서기를 동행하게 하였고, 서화에 뛰어난 사자관과 화원도 증

9) 원증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3월 10일(신유) 조.

10) 원증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3월 10일(신유) 조.

원하여 일본과 본격적인 문화교류 태세를 갖추었다. 문화교린에 바탕을 둔 통신사행은 해를 거듭하면서 교류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가지만, 갈등의 씨앗은 늘 안고 있었다. 특히 전명례(傳命禮)와 같은 의례에서 빚어진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

통신(通信)이란 양국이 서로 신의를 통하며 대등한 교린 관계에 있음을 의미했지만, 실상 조선의 통신사들은 일본에 대해 문화적 우위를 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그에 준하는 의례의 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덕천막부는 통신사행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한일 관계를 모색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보이며, 진정한 교린을 위한 상호주의를 강조하게 된다. 이에 신정백석(新井白石) 같은 이는 일본의 천황과 청조의 천자를 대등하게 놓고, 막부장군을 일본국왕으로 하여 조선국왕과 대등하게 하려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조선을 일본보다 낮추어 보려는 의도까지 내보였다.<sup>11)</sup> 그러니 둘 사이에는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sup>12)</sup>

그 첫 번째 틈은 상근관(箱根關)을 지날 때 드러난다. 통신사들은 관애(關隘)에 두 개의 판자 문짝만 있을 뿐인 상근관을 지나면서 이유 없이 말에서 내려야 했는데, 이것은 관백이 조선에 대한 자기 우위를 강제한 모욕적 조치였다. 이에 남옥은 “손님과 주인이 서로 예와 의를 잃은 것으로 원래의 규례에 모두 어긋나는 일”이라며 분노했고,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지어 나파사증(那波師曾)을 통해 담당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sup>13)</sup>

강호에 머물렀다. 전명했다. (중략) 말에서 내리고 가마에서 내리는 절차가 허물어져서 옛 관례보다 한 문씩 물러났다. 심지어 하배들이 자기가 모시는 상관의 담뱃대를 휴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망령되이 높이는 것이 점점 증가하는 꼴이 이와 같았다. 그런데 성 안에서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부는 것은 왜경과 이곳 모두 그 관례가 뒤섞인 것에 구애되지 않으니, 가소로운 일이다. 전명한 뒤에는 마치 무거운 짐을 풀어놓은 것 같았다. 그러나 가는 데에 모시는 바가 없고 거하는 데에 의지할 바가 없으니 문득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것같이 느껴졌다. 전명을 하기 전에도 굴욕이 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삼대의 관복을 갖추고서 붉은 함에 상감의 서찰을 받들고 옥백과 피폐를 더하여 그 이른바 위제(僞帝)라는 자가 있는데도 논하지 않고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한 추장에게 무릎을 꿇었다. 또 그 사자가 일찍이 한 번도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도리어 겹겹 바다를 건너서 목숨을 가버려 여겨 전하기를 이와 같이 했거늘, 그 치욕스러운 일을 직접 목도한 뒤에는 갑절이나 분통하고 원통해서 곧장 머리카락이 갓을 뚫고 나오려고 했다. 날이 저문 뒤에 관소로 돌아와서 김인겸이 한가롭게 누워서 하루를 보낸 것을 부러워했다.<sup>14)</sup>

본격적인 틈은 전명연(全命宴)에서 드러난다. 전명연에 참석하기 위해 관백의 처소로 들어가는 절차에서부터 갈등이 빚어졌다. 말에서 내리고 가마에서 내리는 절차가 옛 관례보다

11) 정장식, 〈통신사의 새로운 시각〉, 《일본문화학보》 44, 한국일본문화학회, 2010, 447쪽.  
 12) 1711년 8차 통신사행 당시 일본의 문형은 임대학두(林大學頭)를 제쳐두고 신정백석(新井白石)에게 넘어가 있었다. 신정백석은 통신사행의 접대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빙례 개정을 요구하여 사행단과 계속 마찰을 일으켰다. 더하여 국서를 전달하고 답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휘(避諱) 논쟁이 일어 사행이 지체되기도 했다. 이런 일로 일로 인해 조태억 일행은 귀국 후 바로 귀양을 떠나야 했다.(구지현, 〈통신사를 통한 한일 문학 교류의 전개 양상〉, 《한국한문학회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132쪽.)  
 13) 남옥, 『일관기』, 갑신년(1764, 영조 40) 2월 19일(신축) 조.  
 14) 남옥, 『일관기』, 갑신년(1764, 영조 40) 2월 27일(기유) 조.

한 문씩 물러났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남옥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다. 특히 진흙 구덩이에서 말에서 내리게 하여 신이 젖고 옷이 더러워진데다가, 예전에는 하관까지 모두 연회의 예식에 참석하게 한 관례를 깨고 중관만 들어가도록 한 것을 두고도 매우 통탄스럽게 여겼다.<sup>15)</sup> 그러나 통신사들을 더욱 곤욕스럽게 만든 것은 위제(僞帝), 즉 관백에게 무릎을 꿇고 네 번 절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일본 내 각 주의 태수들도 관백을 뵈는 때 모두 당에 올라 두 번 절을 하는데, 유독 조선 통신사만 네 번 절을 해야 했으니<sup>16)</sup> ‘분통하고 원통해서 곧장 머리카락이 갓을 뚫고 나오는 듯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풍신수길 이전에는 일본이 문서에 항상 조선의 임금을 두고 ‘황제폐하’라고 일컬었으니, 그 감회는 더했을 것이다. 그러니 전명연에 참석하지 않은 김인겸이 얼마나 부러웠겠는가?

이 즈음에서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구도가 변하였고, 그 구도의 변화만큼이나 충돌과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를 중심으로 비교우위를 지속적으로 접하려 했던 조선과 이와 반대로 새로운 관계 변화를 꾀했던 일본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양국 간에 상생적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나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를 조공사절과 같이 보는 문인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재미사행이 있던 바로 그해인 1763에 출간된 『조선인대행열기대전(朝鮮人大行列記大全)』에서는 통신사가 일본에 온 유래를 신공황후(神功皇后) 설화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면서 통신사를 마치 조공사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sup>17)</sup>

이 틈은 양국의 정치 관계와 문화 교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지점이다. 하지만 조선의 통신사들은 수치스러움과 통탄함 등 요동친 감정을 쏟아내는 데 집중하여, 그러한 변화의 동인이나 그것이 가지는 의미 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들이 과거지향적일 수밖에 없고, 감정적 토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물론 원증거의 『화국지』와 일군의 저작들처럼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상의 충돌과 갈등 지점이 한일 관계의 변화를 읽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 2. 역사 인식의 차이와 갈등

호시의 첫 마음은 칼이 마치 이끼 낀 양  
백 년의 쌓인 심회 뉘를 향해 풀어 볼까  
이릉의 송백 생각하면 눈물이 한도 없는데  
백발을 머리에 얹고 여기 온 것 부끄러워

弧矢初心劍欲苔            百年幽抱向誰開  
二陵松栢無窮淚            羞戴蕭蕭白髮來 - 「유우석의 시에 차운하다(次劉禹錫韻)」

15) 원증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2월 27일(기유) 조.

16) 원증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3월 10일(신유) 조.

17)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252쪽.

앞서 살펴 본대로 사행의 출발에 앞서 영조는 삼사와 제술관 및 서기에게 이릉송백(二陵松柏)이란 말을 주지시켰다. 임진왜란 당시에 왜병에 의해 파헤쳐진 이릉, 즉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에 대한 상기는 통신사행이 단순히 문화교린의 수준을 넘어서서 과거 역사의 재현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정사 조엄은 『해사일기(海槎日記)』 수창록(酬唱錄)에서 위와 같이 읊었다. 임진왜란 이후 150년 이상이 지난 즈음에도 쌓인 심회는 눈물을 자극하기 충분했고, 원수의 나라에 사행을 떠나는 것이 부끄러운 감정으로 표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이릉송백(二陵松柏)의 문제는 조선과 덕천막부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도 작용하였다. 1598년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사망하고 1603년 덕천가강이 막부를 세우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덕천막부에서 대마도를 통해 먼저 교섭 재개를 청하고, 매년 2~3차례씩 사절단을 파견하여 국교 회복을 요청하였다.<sup>18)</sup> 이에 조선정부는 1606년 덕천막부에서 먼저 통교를 요청하는 국서를 보낼 것과 임진왜란 때 이릉을 파헤친 범인을 색출해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막부에서는 그해 11월에 국서를 보내고 대마도 왜인 두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소환하였다.<sup>19)</sup> 국교를 회복함에 있어서 이릉송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소환된 두 사람은 실제 범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에서 두 사람을 처형했으니, 국교 재개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다 보니 이릉송백에 담긴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하였고, 150년이 지난 즈음까지 문제가 되기에 이른다.

시방언이란 자는 나이가 젊으며 호는 울산이다. 붓을 잡고 마치 물 흐르듯이 108운을 써 내고 다시 칠언율시 1수를 내놓았는데 사필(詞筆)이 제법 뛰어났다. ... 그러나 용사의 일을 서술한 것은 공경하는 뜻을 많이 잃어버려서 가히 더불어 수창할 수가 없었다. 더디어 시 종이와 명함을 모두 돌려보냈다.<sup>20)</sup>

호를 울산이라고 하는 시방언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스물아홉 살이었는데 재기가 극히 뛰어났다. 그런데 우리가 늦게 나와 본 것으로 인해 자못 화내는 말을 하였다. 대개 아침밥을 먹은 뒤 이미 와서 모여 앉아 있었는데, 임채주가 온 것으로 인해 대마도 사람들이 아뢰지 않아 드디어 밤이 되었기 때문이다. 180구로 된 오언고시와 율시와 절구를 바쳤기에, 열어 보니 오언고시는 나를 세운 때부터 두 나라의 일을 인용했는데 말이 극히 놀랍고도 망령되었다. 이에 드디어 화답하지 않고 다른 작품들과 필담을 봉하여 돌려주었다.<sup>21)</sup>

과거사에 대한 통분의 감회는 사행단이 에도에 머무르는 중에 다시금 폭발한다. 1764년 2월 25일 원중거와 남옥은 세 사상과 함께 임채주를 만난 뒤에 목정간(木貞幹)을 비롯한 왜인 아홉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시방언(柴邦彦)이란 사람이 끼어 있었다. 시에 능하여 원중거와 남옥의 관심을 받았지만, 고대사와 임진왜란의 왜곡으로 서로 충돌하게 된다. 이

18)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06.

19) 김문식, <조선후기 通信使行員의 對日認識>, 《대동문화연구》 4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128쪽.

20) 남옥, 『일관기』, 갑신년(1764, 영조 40) 2월 25일(정미) 조.

21) 원중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2월 25일(정미) 조.

갈등의 골은 ‘놀랍고도 망령되었다’는 원증거의 탄식에 잘 드러나 있는데, 결국 시방언과의 시문 수창과 필담은 중지되고 만다. 상반된 역사 인식이 가져온 교류의 단절은 그 자체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22)</sup>

이에 원증거는 『화국지』를 집필하면서 일본의 자의적 역사 기록에 나타난 허구와 왜곡을 지적하였다. 일례로 「서복사(徐福祠)」에서는 진시황 때의 방사 서시(徐市)의 일본도래설과 고문육경이 일본에 남아 전한다는 설이 근거가 없거나 와전된 것임을 밝혔다. 「왜황본말(倭皇本末)」에서는 왜황의 즉위 이전을 기록한 상고사에서 개벽 후의 천신(天神) 7대, 지신(地神) 5대에 대해 그 수가 모두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신라·백제·고려와의 통사와 전별」에서는 일본 사서에 보이는 신공왕후(神功王后)의 삼한정벌이 황탄하여 이치에 닿지 않아 쓸 만하지 않다고 하였다.<sup>23)</sup> 이뿐 아니라 「풍신수길의 본말」, 「임진년 침략 때의 적의 동정」, 「우리 조선의 일본 정벌 기록」 등을 기술하여 한일 관계사를 점검하려 하였다.<sup>24)</sup>

더하여 원증거와 성대중은 한일 관계사에서 중요한 역사 인물 중 한 사람인 안용복(安龍福, 1658~?)의 삶을 재구해 낸다.<sup>25)</sup> 안용복은 17세기 무명소졸(無名小卒)로 두 차례나 일본에 건너가서 조선의 강역에 속했던 울릉도와 독도의 경계를 해결하였던 인물이다. 그의 활동은 이후 조선과 덕천막부에서도 정치·외교적으로 비상한 관심을 받았는데,<sup>26)</sup> 특히 조선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극복하고 지켜낸 애국인물로 그려져, 이릉송백으로 대표되는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고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한일 관계사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니 이릉송백과 안용복은 한일 양국의 역사가관이 부딪히는 지점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sup>27)</sup>

22) 시방언을 두고 남옥은 물쌍백을 스승으로 삼은 자라 하여 조래학자로 판단했지만, (남옥, 『일관기』, 갑신년(1764, 영조 40) 2월 25일(정미) 조.) 그는 철저한 주자학자였다. 대학두를 보좌하여 국학 부흥에 앞장서고, 누구보다 고학을 배척하고 주자학을 옹호한 인물이었다. (구지현, 『계미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서, 2006, 274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옥이 시방언을 조래학자로 판단했던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나온 오류이겠지만, 더하여 남옥이 조래학과 반조선적 역사인식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실제로 조선의 통신사들이 주자학을 통한 도덕의 확립이 일본의 재침을 막는 길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상기할 때 이는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통신사들의 인식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지도 분명히 드러난다.

23) 『화국지』에 나타난 원증거의 한일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박재금의 〈원증거의 『화국지』에 나타난 일본인식〉(《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13~216쪽.) 참조.

24) 원증거는 「임진년 침략 때의 적의 동정」이란 글을 지으면서 다음과 천명했는데, 이 말에서 그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임진년의 일은 앞서 사람이 기록하여 실은 것이 광대하고 상세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모두 한결같이 우리나라의 일만을 말하고, 적국의 정세에는 상세하지 못하였다. (중략) 내가 왜인들이 간행한 몇 권의 작은 기록을 얻어 참조하고 합하여 엮어서 이 조항을 지었다. (중략) 아. 내가 반드시 이것을 기록하려고 한 이유는 곧 그것을 잊지 않고자 한 것이다. 이는 와신상담이 남아 있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보는 자는 마땅히 그것을 살펴야 할 것이다.” ; “흉악한 무리의 시초와 종말을 모두 기록하고자 한 이유는 임진왜란의 시작과 결말을 갖추기 위한 것이니, 보는 자는 마땅히 잘 알아야 할 것이다.”

25) 원증거는 「안용복전(安龍福傳)」뿐만 아니라 「이충무공유사(李忠武公遺事)」와 「제만춘전(諸萬春傳)」을 지었으니,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26) 진재교, 〈元重擧의 「安龍福傳」 연구-안용복을 기억하는 방식〉,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2009.

27) 『동사여담(東槎餘談)』에는 1764년 역관 이언진이 일본에 갔을 때 주고받은 필담이 실려 있어 주목을 받았는데, 한일 역사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글도 실려 있어 주목을 요한다. 특히 『동사여담』에 붙어 있는 궁전명(宮田明)의 서문이 그렇다. 소개하면 이렇다. “조선이 우리에게 맞서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신후(神后, 신공황후)는 아득하거나와 풍왕(豊王, 풍신수길)이 한번 주먹을 휘두르자 거의 폐허가 되었다. (중략) 또 문명 백 년에 겨우들이 배출되고 전적들이 다 구비되어 시서와 예악의 교화가 자족하니 외부에서 구할 것이 없다. 그런데 저 하찮은 조선 선비가 어떻게 우리를 오랑캐로 비교할 수 있겠는가?”

### 3. 주자학과 고학의 대립과 갈등

계미사행에 정사로 참여했던 조엄을 비롯하여 남옥, 원중거, 성대중, 김인겸 등 네 학사는 공히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주자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조선의 학술에 굉장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sup>28)</sup> 특히 원중거는 사행에 앞서 벗들에게 정주(程朱)로 일본인을 대할 것을 주문할 정도로 주자학에 대한 확신이 견고했다. 이들에게 주자학은 일본에 대한 문화교린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목적이었던 셈이다.

반면에 계미사행이 이뤄지던 당시의 일본 학술·사상계에서는 주자학이 아니라 조래학(徂徠學)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주자학이 표방되었으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조래학이 수용된 사례가 많았다. 18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정상금아(井上金峨), 편산겸산(片山兼山)으로 대표되는 절충학파가 등장하여 조래학을 비판하기 시작했으니,<sup>29)</sup> 계미사행단이 활동했던 당시의 일본은 조래학으로 대표되는 고문사학이 전성기를 누리던 때였다. 그러다 보니 주자학을 신봉하는 조선의 통신사들과 반주자학적 노선의 조래학을 신봉하는 일본 학자들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었다.

식후에 기번실이 본 주의 여러 유생들과 함께 들었다. (중략) 그 다음은 농장개(瀧長愷)인데, 자는 미팔(彌八)이고 호는 학대(鶴臺)이다. 스스로 말하기를 세자의 시독(侍讀)이라 하였고 역시 명령을 받들어 왔다고 하였다. 세자라고 이르는 자는 강화의 번저(蕃邸)에 있으면서 3년을 가서 사는데 지금은 손님을 접대하러 나와 있다고 한다. 대개 구정로(龜井魯)<sup>30)</sup>가 일컬었던 농미팔이 바로 이 사람으로 이곳 지방의 오래된 유생이다. 그 다음은 근태덕(近泰德)이란 자로서 호를 남명(南冥)이라고 하는데, 농장개(瀧長愷)의 문도이며 국학생도라고 일컬었다. 농미팔은 지주(地主)의 관대함을 잔뜩 말하고 관소가 누추하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의 연원을 물어보았더니 조래(徂徠)를 말하였다. 독소(獨嘯)에 대해 물었더니 재기가 있다고 하였다. 조래 앞에는 나산(羅山) 임도춘(林道春)과 성와(腥窩) 등염부(藤斂夫)가 있고 조래 뒤에는 패신독(貝信獨)이 있다고 말하였다. “정주를 학문으로 본받아 배움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실에 구애받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정주의 도는 하늘 가운데의 해와 같으니 이를 배반하고 달아나는 사람은 모두 도깨비나 요괴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난 경박한 무리들이 매번 문자를 보고 자세히 모르면 갑자기 의심과 우매한 생각이 들어 간혹 등을 돌리고 그림자로 달아나는 자들이 있는데, 그대의 나라에는 듣자니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여기시는지 모르겠군요?”라고 말을 하였더니 “감히 복종하여 따르지는 못하겠습니다.”<sup>31)</sup>

28) 계미사행단으로 참여했던 인물들 중 일본의 학술과 갈등하지 않고 소통했던 사람은 이언진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만하다. 한태문, 〈李彦瑱의 文學觀과 通信使行에서의 세계인식〉, 《국어국문학》 34,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7. ; 정민, 〈『東槎餘談』에 실린 李彦瑱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 강순애 외, 『우상잉북』, 아세아문화사, 2008.

29) 하우봉, 〈조선 후기 통신사행원의 일본 고학 이해〉, 《일본사상》 8,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5, 192쪽.

30) 구정로는 계미사행단이 1763년 12월 8일에 처음 만났던 고학파의 의유(醫儒) 구정남명(龜井南冥)을 가리킨다. 고학파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충기가 빼어나고 조선의 사행원들을 성심으로 접대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더욱이 일본의 문사들을 소개하여 조선의 사행원들이 일본의 학적 풍토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구정로와 계미통신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였다. 김호, 〈1763년 癸未通信使와 日本 古學派 醫儒 龜井南冥의 만남-조선인의 눈에 비친 江戶時代 思想界〉,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사학회, 2008.

그 갈등의 일단을 위 예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정로의 소개로 알게 된 농장개(瀧長愷)는 조래학을 이어받았는데, 통신사행원과 분명한 대립각을 세워 논쟁하고 있다.<sup>32)</sup> 원중거가 주자학적 화이론을 바탕으로 농장개를 설득해보지만, 농장개의 조래학 고수는 단호하다. 주자학에 기반을 둔 조선 사행원들의 주장과 논리가 더 이상 일본 문사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니 조선의 통신사들은 조래학을 이은 일본의 학자들과 갈등하고,<sup>33)</sup> 나과사증(那波師曾)과 같은 주자학 신봉자들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sup>34)</sup> 에도에서 만난 태학두 임신언(林信彦)에게 이단설을 금하고 주자학을 부흥시키기 위해 경서대전과 정주학서를 간행하여 보급할 것을 간곡히 권유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선 통신사들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주자를 공격하는 자들 중에는 인재가 많고 주자를 중주로 하는 자들 중에는 재주가 떨어지는 자가 많았으니,<sup>35)</sup> 주자학의 부흥은 요원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에로부터 서양과 남만의 배들로 우리 장기에 들어오는 것이 백 이삼십 국입니다. 또 <지구도(地球圖)> 와 『곤외외기(坤輿外記)』를 보고 『명청회전(明清會典)』과 『일통지(一統志)』를 살펴보면 실려 있지 않은 나라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우주가 크고 나라가 많은 것이 이와 같지만, 그 나라들은 각각 그 나라의 도를 가지고 있어 나라가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합니다. (중략) 이용후생의 도를 세우고 덕을 이루는 도를 세웠으니, 모두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다스려지고 백성이 편안한데 또 다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어찌 반드시 중국만 귀하고 이적의 가르침은 폐해야 하겠습니까?<sup>36)</sup>

더욱이 조래학을 이은 학자들의 논리는 반주자주의를 넘어서 조선적 중화주의의 경계를 벗어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원중거가 농장개를 만나 필담하면서 당시 중국 서적의 주요 수입 창구였던 장기를 두고 ‘인의와 염치의 가르침을 담은 예서가 유입되는 창구’로 이해한 반면, 농장개는 장기를 ‘세계 만국과 소통하는 통로’로 이해하였다.<sup>37)</sup> 원중거가 화이론에 바탕을 둔 철저한 중심논리를 펼친 반면 농장개는 다양성과 상대성을 긍정함으로써 중심논리

31) 원중거, 『승사록』, 계미년(1763, 영조 39) 12월 28일(경술) 조.

32) 농장개 외에도 강호에서 만난 강효선(岡孝先), 서경에서 만난 파마청현(播磨淸絢), 대판에서 만난 영부봉(永富鳳) 또한 조래학을 신봉했던 학자들로 조선의 통신사행원들과 마찰이 있었다.

33) 남옥의 『일관기』 갑신년(1764, 영조 40) 2월 17일(기해) 조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전한다. “나과사증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사(儒士)들이 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여기는 오래 머물러 계실 곳이니 반드시 날마다 계속해서 올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물무경이 시를 창수하는 것은 시의 도가 아니라고 했으니, 그 풍문을 들은 자들이 그래서 혹 오지 않은 것인가?’ 물무경의 시문과 학문에 대한 조선 통신사들의 비판과 물무경을 추종하던 일본 유사들과의 갈등이 시문 수창과 필담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음을 상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34) 조선 사행원들과 나과사증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김성진, <癸未使行時의 南玉과 那波師曾>, 《한국문학논총》 40, 한국문학회, 2005.

35) 남옥, 『일관기』, 「충기」, 문장 조.

36) 瀧鶴臺, 『長門癸甲問槎』上, “自古西洋南蠻舟舶, 來吾長崎者, 百二十國. 又見地球圖坤輿外記, 而考諸明清會典一統志, 其所不載者尙多矣. 宇宙之大邦域之多如此, 而其國各有其國之道, 而國治民安也. (중략) 立利用厚生之道, 立成德之道, 皆所以代天安民也. 國治民安, 又復何求. 何必中國之獨貴, 而夷教之可廢乎.”

37) 김보경, <계미사행 조선 문사들의 江戸 체험과 그 의미>,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139쪽.

를 허물고 있다. 실제로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 등 서양에서 유입된 세계전도는 조선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허무는 데 일조하게 되는데, 재미통신사행원들이 만난 일본의 조래학자들은 이미 중국 중심의 세계관과 주자 중심적 세계관을 허물고 새로운 중심으로서의 일본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주자학을 중심으로 조선적 중심논리를 펼치려 했던 통신사들과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저들이 만약 인의와 염치를 알고 옛 것을 기뻐하고 지금에 돌이킨다면, 이는 단지 그 나라의 다행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이 침략 당할 우환이 더욱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직이 장기의 물화와 서적을 일러 '진실로 청나라 사람의 상업적 이로움이며 또한 일본 문명이 걸린 운수'라고 한 것이다.<sup>38)</sup>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일본의 학문관이나 세계관의 단순한 변화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조선의 통신사들이 시문의 수창과 필담 교환에 공을 들이면서 주자학을 전면내 내세웠던 데에는 다른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즉 조선적 중화주의 속에 일본을 편입시키려는 의도와 일본의 문화적 성장, 특히 주자학에 토대를 둔 문화적 성장을 통해 일본의 재침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따라서 반주자주의 노선을 걷는 조래학의 성장과 유행은 '더 이상 일본을 중심논리 속에 편입시켜 제어할 수 없으며, 문화 교린의 궁극의 목적인 동아시아 평화도 장담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물쌍백과 그의 학문을 이어 받은 학자들은 정치와 도덕을 나누어 정치를 도덕보다 우위에 두고, 인이란 마음의 문제 즉 개인 도덕이 아니라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정치를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39)</sup> 실제 물쌍백은 덕천막부의 장군에게 강의를 하고 자문에도 응하였는데, 당시 원록(元祿, 1688~1704)·향보(享保, 1716~1736) 연간의 막번체제 동요의 요인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체제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학설이 사유의 양식과 방법적 참신성에도 불구하고 막번체제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게 된다.<sup>40)</sup> 물쌍백과 그를 추종하는 학자들이 이끌어낸 막번체제의 강화는 결국 조선과의 관계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조선의 통신사행을 조공사행으로 이해하는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내게 된다.

#### IV. 최천종 피살 사건과 그 의미

재미통신사행은 그 어느 때보다 사건 사고가 많았다. 특히 사행 중에 4명이나 목숨을 잃어 사행단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두 명은 칼에 맞아 죽었고, 한 명은 상처 때문에 죽었으며, 다른 한 명은 병들어 죽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도훈도(都訓導) 최천종(崔天宗)이다. 대판에 머무른 지 3일 쯤 되던 갑신년(1764) 4월 7일에 왜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사행원이

38) 원증거, 『화국지』, 「중국통사정벌(中國通使征伐)」 조.

39) 부마진 저, 하정식 외 옮김,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 243쪽.

40) 하우봉의 <조선후기 통신사행원의 일본 고학 이해>, 《일본사상》 8, 한국일본사상학회, 2005, 170쪽.

피해를 입은 것은 실로 사행이 있는 이래 처음 있는 변고였다. 풍신수길의 집권하고 있을 때에도 사신 일행에게는 털끝만큼의 해도 미치지 않았으니,<sup>41)</sup> 통신사들이 받았던 충격은 가히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충격은 한일 양국의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즉 조선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예시하고 있어 더욱 주목을 요한다.

통사가 저들이 와서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아뢰려고 새벽에 사차(舍次)에 들어왔다가 잘못해서 병풍을 넘어뜨렸는데, 이로 말미암아 한 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 매우 소란스러웠다. 허규(許圭)는 놀라 두근두근 거리는 증세가 있어 듣거나 보거나 번번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보며 두려워하였고, 변박(卞璞)은 잠깐 울다가 잠깐 놀라다가 하며 또한 의심증을 일으켰다. 일행이 모두 위협해 하고 두려워하며 밤마다 번번이 공연히 놀라기가 여러 번이었다.<sup>42)</sup>

사건 이후 통신사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하룻밤에도 여러 번을 놀라고, 바람이 불어 장막이라도 움직이면 문득 자객이 왔는가 하고 의심하였다. 정상(正相) 또한 근심스러워 성대중에게 물었을 정도였으니,<sup>43)</sup> 그 두려움과 공포의 크기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마냥 떨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사행단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 외교사절단이다. 그 일원이 공식 사행 중에 피살되었으니, 한일 양국 간에 전쟁에 준하는 심각한 외교 분쟁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sup>44)</sup> 사건의 중대함과 위급함으로 인해 세 사상과 네 학사는 사건이 마무리 된 뒤에 떠나기로 협의하고,<sup>45)</sup> 29일 동안 대판에 머무르며 사건 해결의 추이를 지켜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sup>46)</sup> 그저 울분을 삼키는 것뿐이었다.<sup>47)</sup>

4월 7일 : 마추는 사람을 보내 상황을 묻지도 않고 마치 듣지도 못한 일인 양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일행은 고기도 먹지 않고 일공도 바치지 말라고 했다. 또 붓과 벼루를 모두 거두어 들여 왜인들을 접견하고 시

41) 성대중, 『일본록』,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7일(무자) 조.

42) 원중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8일(기축) 조.

43) 성대중, 『일본록』, 갑신년(1764, 영조 40) 5월 4일(신해) 조.

44) 원중거는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8일(기축) 조에서 축상(筑常)과 필답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통신사행이 끝날 수 있음을 천명했고, 성대중은 『일본록』 갑신년(1764, 영조 40) 5월 4일(신해) 조에서 임진 왜란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45) 원중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8일(기축) 조.

46) 남옥은 『일관기』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29일(경술) 조에서 “4~5일 동안 외부인과는 전혀 소통할 수 없었다. 가번 장로의 도승들은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했다가 중간에는 또 아무개와 서로 결탁했다고 하더니 드디어는 발걸음과 편지를 판 끊어버렸다. 누각 위에서 만나기라도 하면 외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라고 말했으며, 갑신년(1764, 영조 40) 5월 5일(병진) 조에서는 “승려의 무리들이 뇌물을 받고 발걸음을 끊은 후에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마도 오랑캐 누구누구는 구류되고 누구누구는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았는지도 오히려 며칠 전에야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 조선의 사행원들이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유폐되어 있어 사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음을 잘 보여준다.

47) 원중거는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9일(경인) 조에서 “일행은 대부분 울분에 쌓여 거의 사람마다 병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술회했고, 남옥은 『일관기』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20일(신축) 조에서 “도추가 처음 접견했을 때는 한 마디도 책임을 지려는 말이 없고, 처음에는 오히려 조선인과 왜인을 구분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댔다. (중략) 참으로 놀랍고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감정 토로는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를 수용하는 일을 폐기했다.<sup>48)</sup>

4월 8일 : 역시 와서 검사하지 않았다. 사상이 마추에게 편지를 썼으나 마추는 편지를 받고도 또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안과 밖의 소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마치 깊은 구렁이에 빠진 것 같았다.<sup>49)</sup>

4월 9일 : 저녁에 대판성의 관리가 다시 와서 검사했으나 역시 조사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sup>50)</sup>

4월 11일 : 격군 60여 명이 관을 메고 문을 나서는데 대마주의 금도들이 정문으로 잘못 나갔으며 길을 막고 못 가게 하였다. 다시 작은 문으로 들어와 관을 멈추는데 대판성 사람들이 병풍을 가지고 와서 가려 주려고 하자, 대마도인들이 중관의 관은 짙으로 덮는 것이 마땅한데 어찌 병풍을 쓰냐고 질책하며 물리게 하였다. 아무 것도 씌우지 않은 관을 길에 두고 지관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밤이 되도록 갈 수가 없었다.<sup>51)</sup>

4월 12일 : 이날도 또한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sup>52)</sup>

4월 13일 : 최천종의 관은 이날 새벽에 겨우 나갈 수 있었다. 대마도인들이 대판윤에게 보고하고 회답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나가도록 허락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sup>53)</sup>

4월 14일 : 마추가 7일 만에 비로소 답장을 보냈다. 처음에는 사건의 진상을 속이고 은폐하며 모호하게 하려는 계책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중략) 그러나 대략 놀라 동요하거나 스스로 책임을 지는 듯한 말은 없었다.<sup>54)</sup>

4월 18일 : 저녁에 듣자니 전장(傳藏)이 단과주에서 잡혀 압송되어 와서 하옥되었다고 한다.<sup>55)</sup>

이는 최천종 살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위에 소개한 예시 문은 최천종이 살해된 1764년 4월 7일부터 범인으로 지목된 영목전장이 하옥된 4월 18일 까지의 간략한 일지이다. 통신사행원 피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한없이 더디고 불성실했다. 사건 직후 대마도주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sup>56)</sup> 대마도주의 서신은 7일 만에야 도착했다. 더하여 대마도인들은 최천종의 죽음을 일본인에게 떠넘긴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고, 최천종이 자살을 했다고 원근에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변고를 당한 이후 대마도 왜인들 거의 모두가 마치 힘썼던 일을 성공시킨 자들처럼 굴었으며, 한 마디 위로하는 말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고를 당한 일을 거론하지 않았다.<sup>57)</sup> 뿐만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조선 통신사의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였다.<sup>58)</sup> 심지어는 5월 2일 하구(河口)의 북쪽 물가에서 이루어진

48) 남옥, 『일관기』,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7일(무자) 조.

49) 남옥, 『일관기』,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8일(기축) 조.

50) 남옥, 『일관기』,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9일(경인) 조.

51) 성대중, 『일본록』,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11일(임진) 조.

52) 원중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12일(계사) 조.

53) 원중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13일(갑오) 조.

54) 남옥, 『일관기』,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14일(을미) 조.

55) 원중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18일(갑오) 조.

56) 원중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7일(무자) 조.

57) 원중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8일(기축) 조.

58) 원중거는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9일(경인) 조에서 “대판 사람이 오로지 왜인에게 맡기니 대마도 왜인 또한 이를 따라 말이 없었다. 벼슬아치가 나와서 문 밖에 앉아 통사와 금도를 불러 들여서는 간략히 혈문을 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을 금하여 참가해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고, 남옥은 『일관기』

전장의 형 집행에도 참관할 수 없게 하였다.

조선의 사행원들을 더욱 더 분노케 한 것은, 일본이 밝힌 영목전장의 최천중 살해 동기였다. 최천중이 죽기 전 날 저녁 영목전장에게 밥을 나누어주면서 젓가락은 주지 않자 그가 젓가락도 달라고 하니, 천중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채찍으로 어깨를 두어 대 내려친 까닭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이런 변고를 일으켰다고 했다. 또 거울을 잃어버린 최천중이 영목전장을 의심하여 욕하자 영목전장이 화를 내었고, 이에 최천중이 다시 화를 내며 말채찍으로 뺨을 때렸기에 복수를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최천중은 애초에 밥을 나눠준 일도 없고, 처음부터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대마도인과 다툼 적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니 사건 조사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까지도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만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개인의 우발적 사건으로 바뀌었고, 그 원인이 조선의 사행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건을 공론화하려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통신사들이 옥안과 결안을 요청하지만 이마저도 국법을 핑계로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였다. 실제로 수백 명이 구금을 당했고, 21명이 중죄에 얽혔으며, 봉행(奉行)·장감(將監)·간사관(幹事官) 등이 강호로 압송되었는데도, 일본인은 끝내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물론 조선의 통신사들도 사건의 진실을 알 길은 없었다.<sup>59)</sup> 살해 동기 또한 의심스러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현재까지 전하는 대마도의 『종가기록(宗家記錄)』에도 거울을 둘러싼 다툼이 원인이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어태소(御台所)에서 반찬과 자온 장식품을 조선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다툼이 되었다고도 하였다. 여전히 대마도인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원인을 기술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sup>60)</sup>

사행원 피살 사건은 전에 없던 것으로 한일 관계의 변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사행원들은 대부분 사건의 배후로 대마도인을 지목하고 막부와 연관관계를 애초부터 상정하지 않았지만,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우선 대마도인과 막부는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실리를 추구했기 때문에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대마도인과 내지인을 구분하여 사건을 파악함으로써 부분을 보고 전체를 놓치는 우를 범하였다는 사실이다.<sup>61)</sup> 그리고 두 번째는 일개의 대마도인이 조선을 상대로 이런 사건을 벌일 정도라면, 이 즈음 조선 통신사의 권위가 그리 강력한 힘을 발휘

---

갑신년(1764, 영조 40) 4월 28일(기유) 조에서 “감찰 곡연과 어목부 4명, 소목부 4명이 전장을 자세히 조사하여 판단하고 이미 법을 갖추어 공초를 매듭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초의 내용을 볼 수는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지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59) 이에 여러 사행원들이 사건의 발생 원인을 추론하는데 대체로 대마도 왜인의 계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중에서 원중거의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5월 7일(무오) 조에 실려 있다. “그 뜻인 즉 반드시 밤을 타고 몰래 들어가 조선 사람 한 명을 살해하고 그림자와 자취를 없게 한다면 조선 사람들이 반드시 귀신과 같다고 여기고 두려워 떨며 말 없이 빨리 갈 것이며, 왜에서는 마땅히 조선 사람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살인하였으니 바깥 사람에게는 관련되지 않았다고 당연히 선언할 것이다. 일인 즉 혼적을 모두 없앤다면, 앞으로 사행이 있을 때 조종하기가 더욱 쉽고 이익을 사냥하는 편리함이 더욱 늘어질 것이라고 계획하였던 것이다.”

60) 김경숙, <玄川 元重學의 對馬島人 인식고가 그 의미-일본 내지인 인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350쪽.

61) 김경숙, <玄川 元重學의 對馬島人 인식고가 그 의미-일본 내지인 인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364~365쪽.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사행단을 호종하면서 대마도인들이 벌인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이에 대한 사행단의 대응은 미미하기 그지없었다.

일본에서 밝힌 바대로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인 조선 통신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분명히 짙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건 해결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사건에 대한 통신사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막아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했으며, 사건을 왜곡하려 한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도 조선의 통신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1811년 마지막 통신사행이 대마도에서 역지교빙의 형태로 이뤄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이러한 태도 변화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천중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25년이 지난 1789년 대판에서는 ‘한인한문수관시(韓人漢文手管始)’라는 이름의 가무기(歌舞伎)가 초연되었는데, 이 해에 신정백석(新井白石)의 뒤를 이은 중정적선(中井積善)이 역지교빙론을 제안했다.<sup>62)</sup> 시문 창작 시 조선 문사가 보여준 태도에 반감을 보이는 등 양국의 대등한 관계를 줄곧 주장해온 인물에 의해, 최천중의 죽음을 다룬 기연이 초연된 1789년에 역지교빙이 제안되었다는 사실은 양자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 V. 결 론

계미통신사행은 조선과 덕천막부 사이에 이루어진 11번째 사행이자, 조선의 사행단이 에도를 방문한 마지막 사행이다. 조선이 일본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1811년 대마도에서의 역지교빙을 끝으로 양국 관계는 다시금 단절되었고, 이후 근대화와 제국주의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선과 덕천막부는 상생이 아닌 상반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문화 교린의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도 그 이면에 많은 갈등 요소를 안고 있었던 양국의 관계, 즉 통신사행을 통해 확립된 관계는 언제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충돌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 특히 계미사행에서 이 충돌은 본격화되며 그 갈등의 씨앗도 분명히 드러난다.

대개 그 나라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이처럼 막혀 있고, 호행할 때의 기가오가 호령에 모두 통솔하는 명령이 없으며, 손님을 대하는 예절도 특별히 논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전후의 사행이 돌아와서 기록으로 남긴 많은 것이, 휘장의 무늬 있고 아름다운 빛이요, 접대할 때 예절이 있었다는 점이였다. 그러므로 매번 통신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여 뿔히기를 구한다. 소위 네 문사도 세속에서는 영광스럽게 뿔힌 것이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대개 이것은 저 나라에 들어간 뒤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진실은 매번 통신사가 있으면 대마도인들은 재물을 획득하고 관백은 이름을 얻으며 백성들에게는 관광하는 즐거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 일행은 마상재를 하

62) 김성진, 〈癸未使行時의 南玉과 那波師曾〉, 《한국문학논총》 40, 한국문학회, 2005, 112쪽.

여 광대가 되고, 문사도 광대가 되고, 복장은 장식을 꾸미며, 생황과 피를 불며 움직이며 한바탕 희롱하고 갖고 노는 도구를 제공할 뿐이다. 이는 이미 부끄럽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 저 나라의 문기가 날로 퍼지며 지식도 날로 개척이 되어 비웃고 모욕을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 물무경의 시문을 보니 이를 알 수 있다.<sup>63)</sup>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통신사행은 여러 분야에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며 충돌하고 갈등하였다. 계미사행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갈등에 대한 조선 통신사의 반응은 위 원중거의 기술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원중거에게 계미사행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사행이었고, 문화적 우위를 지키지 못하고 광대로 전락하고만 사행이었으며, 주자학적 세계관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행이었고, 역사적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심리적 트라우마가 발현된 사행이었다. 철저한 역사 인식과 투철한 주자학적 세계관, 여기에 더하여 빼어난 시재를 가지고 사행길에 올랐지만 이미 일본은 조선이 그어놓은 경계 밖을 지향하고 있었고, 이미 경계 밖에 있었다. 원중거가 수많은 시문 수창과 필담 교환에도 불구하고 단절과 불통을 떠올렸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계미사행을 통해 조선의 통신사들은 일본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정사 조업은 일본의 발달한 기술 문명에 관심을 보이며, 정포(定浦)에서 수차를 보고 조선에서 농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려가게 하였다. 농사뿐 아니라 방직에 필요한 물레방아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는 과거 사신들이 문화적 우월성에만 빠져 도외시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sup>64)</sup>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자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조선적 중화주의가 약화된 것도 아니었으며, 이 경계 안으로 일본을 끌어들이려 우위를 점하려 했던 의도 또한 줄지 않았다. 반면에 당시의 일본은 이 모든 것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통신의 의미 그대로 조선과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려 하였고, 나아가 조선을 자신의 경계 속에 포섭하려고까지 하였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조선의 역사적 상흔을 자극했고, 반주자학적 노선을 확고히 했다. 이 과정에서 최천중 살해 사건도 발생하게 된다. 계미사행을 통해 한일 양국 관계의 질적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계미사행 당시에 발생한 모든 충돌과 갈등은 우연이 아니라 양국의 분명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 계미사행 당시 일본이 보여준 일련의 인식 변화는 당시 조선의 타자로서, 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외면된 것이 사실이다. 시문 수창과 필담 교환을 통해 드러난 소통의 지점보다 정치적·역사적·사상적 갈등으로 드러난 불통의 지점에서, 한일 양국이 상생적 관계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부족하였다. 통신사행원들이 남긴 사행록과 관련 기록들이 이덕무·유득공 등 실학과 지식인들의 대일관심을 자극하고 대일인식의 폭을 넓힌 것은 사실이지만, 이 또한 대중관심이나 대중인식에 비하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지나친 대륙 중심·중국 중심의 세계관과 뿌리 깊은 역사적 반감 및 문화적 우월주의가 해양에 대한

63) 원중거, 『승사록』, 갑신년(1764, 영조 40) 5월 7일(무오) 조.

64) 이해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248~250쪽.

학지(學知)를 차단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상호 우호관계는 1811년 이후 단절되고 1876년 이후 굴절되고 만다.

### <참고문헌>

- 남 옥 지음, 이혜순 감수, 김보경 옮김, 『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 성대중 지음, 이혜순 감수, 홍학희 옮김, 『부사산 비파호를 날듯이 건너』, 소명출판, 2006.
- 원중거 지음, 이혜순 감수, 김경숙 옮김,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 원중거 지음, 이혜순 감수, 박재금 옮김,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소명출판, 2006.
- 조 엄 지음, 『해사일기』, 국역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77.
- 강순애 외, 『우상잉북』, 아세아문화사, 2008.
- 구지현, <통신사를 통한 한일 문학 교류의 전개 양상>, 《한국한문학회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132쪽
- 구지현, 『계미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서, 2006, 274쪽.
- 김경숙, <玄川 元重擧의 對馬島人 인시고가 그 의미-일본 내지인 인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364~365쪽.
- 김문식, <조선후기 通信使行員의 對日認識>, 《대동문화연구》 4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132~133쪽.
- 김보경, <계미사행 조선 문사들의 江戸 체험과 그 의미>,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119쪽.
- 김성진, <癸未使行時의 南玉과 那波師曾>, 《한국문학논총》 40, 한국문학회, 2005, 112쪽.
- 김 호, <1763년 癸未 通信使와 日本 古學派 醫儒 龜井南冥의 만남-조선인의 눈에 비친 江戸時代 思想界>, 《조선시대사학보》 47, 조선시대사학회, 2008.
- 박재금, <원중거의 『화국지』에 나타난 일본인식>,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13~216쪽.
- 부마진 저, 하정식 외 옮김,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 243쪽.
-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경인문화사, 2006.
-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248~250쪽.
- 정 민, <『東槎餘談』에 실린 李彦瑱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회연구》 32, 한국한문학회, 2003.
- 정장식, <通信使의 새로운 시각>, 《일본문화학보》 44, 한국일본문화학회, 2010, 447쪽.
- 진재교, <元重擧의 「安龍福傳」 연구-안용복을 기억하는 방식>, 《진단학보》 108, 진단학회, 2009.
- 하우봉, <조선후기 통신사행원의 일본 고학 이해>, 《일본사상》 8,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5, 185쪽.
- 한태문, <李彦瑱의 文學觀과 通信使行에서의 세계인식>, 《국어국문학》 34,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7.

# <1763년 계미통신사행과 한일 관계의 변화 탐색>에 대한 토론문

김 형 태(연세대 국학연구원)

본 토론자는 논문이 학술적 가치를 담보함은 물론이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강박증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홍식 선생님의 논문은 본 토론자의 지적 욕구를 충족 시킴과 동시에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논문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사행의 전후 시간 순서에 따라 계미통신사행의 갈등 원인과 양상을 적절히 배치하고 풀어나간 점은 마치 한편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본 듯한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의 미덕을 돋보이게 합니다.

발표자는 평소 동아시아 국가 간 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왔고, 본 논문은 그러한 연구의 일부 성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토론자도 계미통신사행을 통해 한일 관계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큰 관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평소 풀리지 않는 제 의문을 제기하고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료의 편중 문제입니다. 발표자가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는 대부분 조선 측 인사들의 사행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신사와 관련된 연구도 일부 성과를 제외하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자칫 조선 편향적 도그마(dogma)에 빠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일본 측 인사들이 남긴 필담(筆談) 자료도 상당수 산재해 있고, 현재 연세대학교 허경진 교수와 그 연구팀에 의해서 학진과제로 번역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팀에서 본 토론자가 자료를 살펴본 바로는 양국이 계미통신사행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날만 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1711년 신묘(辛卯)사행이나 1748년 무진(戊辰)사행보다 훨씬 심도 있는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물론 일본 측에 의해 가감(加減)된 측면도 있겠고 형식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컨대, 양국 의원(醫員) 간이나 문사(文士)들과의 상호 문답 및 수창(酬唱)은 앞선 사행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친교적인 상황을 보입니다. 즉, 양국 간 거시적 구도에서는 갈등이 존재했겠지만, 미시적 구도 속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미지(未知)와의 조우(遭遇)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율배반적 측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차후 양국 자료에 대한 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립과 갈등이 더 부각된 발표자의 논의대로라면, 양국의 명분에 따른 계미통신사행의 갈등과 실제 친교의 상황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갈등의 원인 문제입니다. 발표자는 그 원인을 ‘조선 사행단의 주자학적 세계인식 강화’와 ‘일본이 기존 동북아 질서를 허물고, 스스로 새로운 중심임을 자각’했다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일견 매우 타당한 견해이지만, 여기에 덧붙여 ‘서양과의 교류와 수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일본은 이미 17세기인 1609년부터 네덜란드·영국 등과 통상을 개시했고, 1634년 나가사키[長崎]에 인공섬 데지마[出島]를 조성해 본격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흡수합니다. 예컨대, 이 당시 외과술을 받아들인 의학(醫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즉, 필담에 참여한 일본 한방의(漢方醫)가 야마와키 도요[山脇東洋]에 의해 1759년에 출판된 일본 최초의 해부 도록(圖錄) 『장지론(藏志論)』을 언급하며, 조선 의원에게 인체 해부에 대한 견해를 물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가 되면, 이미 동반자 관계에 있어서 조선이 서양보다 좋은 파트너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판단이 일본 내에 지배적이었으므로 양국이 선진 문명 수용 측면에 의해서 대립하게 되었고, 이후 통신사행도 축소·폐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셋째, 최천중 피살 사건의 원인 문제입니다. 발표자는 본 논문에서 이 문제를 크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 과정과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명쾌하지 않습니다. 발표자가 잠깐 제시한 ‘도난과 무시’는 신빙성이 낮은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는 알려진 바대로 ‘인삼 밀무역’ 쪽에 무게가 더 실리지 않을까요? 당시 왜관(倭館)의 사정에서도 일본의 영원한 로망(roman)이었던 인삼과 관련된 사건과 처벌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당시 양국의 교역 상황과 관련해서도 흥미롭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본 논문의 3장인 ‘사행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과 갈등’의 일환이므로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천중 피살 사건은 본 토론자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본 토론자가 오자(誤字)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 1) 4쪽 인용문 중 3행 “그러**냈**더니” → “그러**했**더니”
- 2) 8쪽 12행 “비상**은** 관심” → “비상**한** 관심”
- 3) 8쪽 각주 27번 3행 “조선이 우리**게** 맞서지” → “조선이 우리**에게** 맞서지”
- 4) 11쪽 19행 “이끌어내게 **덴**다.” → “이끌어내게 **된**다.”
- 5) 12쪽 각주 46번 3행 “편지를 **뎌** 끊어버렸다.” → “편지를 **딱** 끊어버렸다.”

흥미롭고 좋은 내용의 논문을 읽을 수 있어서 내내 행복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공부가 적은 사람으로서 발표자의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우문(愚問)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헤아려주십시오. 차후 보다 더 훌륭한 논문으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 洪大容・李徳懋らのプリズムを通して見る日本の文雅

## —東アジア学芸共和国への助走—

高橋 博巳(金城學院大學)

### 1

一七六三年の通信使行で文化媒介者の役割を果たしたのは、成大中（一七三二～一八〇九）や元玄川（一七一九～九〇）である。彼らが帰国後、周囲の人々に日本で見聞した文人活動を生き活きと伝えたおかげで、李氏朝鮮の北学派と呼ばれることになる思想家たちの文集のなかに少なからぬ日本の文人への言及がのこされることとなった。一例として洪大容（一七三一～八三）の「日東藻雅跋」を挙げる。

斗南の才、鶴台の学、蕉中の文、新川の詩、兼葭・羽山の画、文淵・大麓・承明の筆、南宮・太室・四明・秋江・魯堂の種種風致は、即ち我邦に論無し。之れを齊魯・江左の間に求むれども、亦た未だ得易からざるなり。況んや諸人は、未だ必らずしも極選為らざれば、則ち其の余は想う可きに足るなり。寧んぞ左海絶域を以て、之れを少なしとせんや。然りと雖も、文風競いて武力振るわず。技巧日に<sup>うご</sup>盪き、鉄劍日に鈍れば、則ち西隣の並びに其の福を受く。厥<sup>そ</sup>の利は博きかな。伊物二氏、宜しく以て吾が韓に尸祝すべし。

（『堪軒書』三）

ここに列挙された「斗南」細合半齋（一七二七～一八〇三）や「鶴台」滝弥八（一七〇九～七三）、また「蕉中」僧大典（一七一九～一八〇一）、「兼葭」木村兼葭堂（一七三六～一八〇二）、「魯堂」那波魯堂（一七二七～八九）らは、多少とも近世学芸に関心のある者には既知の人物といえる。そもそも細合半齋が斗南と号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成大中に「北斗以南の一人」と称されたからである（大典「跋合麗王韓客唱和卷」、『小雲棲稿』十）。兼葭堂の「画」もさることながら、頼春水（一七四六～一八一六）が、

世肅は好事名を著わす。<sup>もと</sup>雅より芸能多し。凡そ、書画篆刻、及び諸機巧、指を染めざる莫し。人最も其の画、及び物産の学を推す。余は則ち其の書を読み、善く要領を得たるを歛す。凡そ舶来の書籍、其の新旧同異、増損出入の類、歴歴暗記し、問いに随いて響応す。

(「在津紀事」下、『春水遺稿』別卷二)

と伝えているように、「好事」多才な人で、周囲に大勢の同好の士が集まったのも頷ける。春水によれば、兼葭堂はさらに読み巧者だったという。そして大典の「兼葭雅集図序」は、「兼葭の集は、文を以て同じうするなり」に始まる格調の高いもので、兼葭堂の「和」と「礼」を重んじる精神が的確に述べられており、その結果交際範囲はついに「異域万里の外」にまで及んだというのが、大容らに感銘をもって受け止められたのではなかろうか(『小雲棲稿』七)。

しかし「新川」岡田新川(一七三七~九九)や「承明」福原映山(一七三五~六八)となると、知名度はかなり落ちる。「文淵」朝比奈玄洲(?~一七三四)は、二次前の己亥一七一九年の通信使に応接した尾張藩の右筆で、その事績は『蓬島遺珠』(享保五年、一七二〇刊)に伝えられているが、今では忘却の彼方に霞んでいる。

そこで改めて、このように必ずしも「極選」ではない人々が「才学」と「詩文筆画」の代表としてばかりでなく、「種種風致」という曰く言い難い魅力の持ち主として言及された意義は何だろうかと問うことにしたい。「才学」も「詩文筆画」も、それがどの程度のものかは、書かれたり描かれたりしたのを見ればおおよそ見当がつく。しかし「風致」だけは、その人自身を知らなければ捉えようがない。したがって洪大容はこれらの人々のちょっとしたエピソードを聞く機会があったのであろう。「風致」を謳われた五人のうち、魯堂は通信使に随行して東海道を往復しているし(『東遊編』明和元年、一七六四刊)、井上四明(一七三〇~一八一九)もまた備前岡山藩儒として牛窓で詩文を唱酬している(『槎客萍水集』)。そして日比野秋江(一七五〇~一八二五)は岡田新川門下の儒者というふうに、実際に通信使との接触の機会も多か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そういう際の風雅な挙措に目を留めた成大中や元玄川を通じて、情報は洪大容らにもたらされたのである。

ところで洪大容がこう記したとき、「才学」や「詩文筆画」よりも「種種風致」のほうが貴重だという思いが次第に強くなってきたのではなかろうか。というのも、のちに洪大容が北京に相似た文人を探して赴いたとき、念願叶って嚴誠(一七三三~?)や潘庭筠(一七四二~?)・陸飛(一七一九~?)らと知り合ったさい、潘庭筠に「東方の風流佳話、願わくは之れを聞かん」と問われて、

我が東人、大抵鈍滞にして、風流の事は、絶えて伝う可き無し。

と謙遜しつつ、潘庭筠・嚴誠の二人に向かって、

弟の二兄に於ける、其の才を愛するに非ざるなり。其の学を取るなり。其の学を取るに非ざるなり。其の心を慕うなり。只だ恨むらくは、言語通ぜず、逢別太だ忙しくして、未だ尽く深奥を叩く能わざることを。

(「乾浄術筆談」、『湛軒書外集』二)

と述べていたからである。ここでは、相手に求めるものが「才」や「学」ではなくて「心」だという点が注目される。人格を形成するのに「才学」だけでは十分でなく、「心」つまり人間性が大事だという表明である。

この点については、李徳懋(一七四一~九三)も李雨邨(調元)宛て書簡に、

凡そ友を取るの道は、先ず其の品を看て、後に其の材を看る。

(『青莊館全書』一九)

と記して、同様の姿勢を示している。朴齊家(一七五〇~一八〇五)もまた、

嗟乎、吾が東三百年、使价相接するも、一名士を見ずして帰るのみ。今、堪軒先生、一朝天涯知己を結び、風流文墨、其の翩翩を極む。其の人たるも、皆な依依として往日巻中の人なり。

(『貞蕙閣集』四)

というように、燕行使三百年の歴史のなかに、大容と巖誠や潘庭筠らの交流を正当に位置づけて、その画期的な点を強調している。これが新たな規範となって、文明は成熟に向かうのである。

## 2

李徳懋が編んだ「天涯知己書」は洪大容が清朝の中国に出かけたさいのドキュメントを集めたものであるが、そのなかに突如として兼葭堂が登場して読者を驚かせる。

日本人は江南に通う。故に明末の古器、及び書画・書籍・薬材、長崎に輻湊す。日本兼葭堂主人、木世肅、秘書三万巻を蔵す。且つ多く中国の名士と交わる。文雅方に盛んなる、我が国の比す可きに非ざるなり。

(『青莊館全書』六三)

これは兼葭堂の蔵書情報が朝鮮の知識人の強い関心事だったことを示すものだ(大典「兼葭堂蔵書序」、『小雲棲稿』七参照)。ことに末尾の「文雅…我が国の比す可きに非ざるなり」の一言には、その心服のほどがうかがわれよう。李徳懋はこのほか「清脾録」(『青莊館全書』三二)や「耳目口心書」(同上、巻五二)のなかでも、折あるごとに「兼葭堂」の項目を立てて詳細に言及している。成大中宛て書簡に、「兼葭堂図、及び一百単八図」の借覧を申し出て、「天下の宝」「千古勝絶」と褒めちぎっていることとともに忘れがたい反応である(同上、巻一六)。

## 3

第三の柳得恭(一七四八~一八〇七)の例も興味深い。李書九(一七五四~一八二五)に書き与えた「日東詩選序」にはこう記されている。

日本は東海中に在り。中国を去ること万里、最も我に近し。攷を其の国の著わす所の『和漢三才図会』の書に取れば、則ち詩書礼楽戦陣の法、以て桑門外道博奕戯具に至るまで、我より之れを得ざる莫し。其の国を顧みるに風俗儂利に富み、淫伎巧匠多し。而るに独り

詩に工みなること能わず。源氏より政を為し、羈縻絶えず。関白新たに立てば、必ず来たりて使いを請う。我れ、三品官一人を以て正使に充て、侍従一人、之れに副う。又た一人従事官と為し、文啣一人、製述官と為し、往きて之れを聘す。正副使・従事官、各おの書記一人を辟す。材官劍客良医画師吹唱擊毬、凡そ一芸有る者は、悉く幕中に致して、最も書記を重んず。一行皆な属目す。歳癸未、前任長興庫奉事元玄川重挙、是の選に膺る（中略）

玄川翁、雅に篤厚にして、喜んで程朱の学を談じ、彼の中、益ます之れを重んじ、必ず老先生と称す。其の能文の士は、率ね医官积流多し。而して合離・井潜・那波斯曾・富野義胤・岡田氏兄弟、尤も傑然為り。皆な之れと深く相交わる。其の帰後に及び、薑山居士、其の海航日記中の贈別詩六十七首を鈔し、名付けて『日東詩選』と曰う。余に属して

之れが序を為らしむ。其の詩の高き者は三唐を模擬し、下き者は王李に韜こう翔しやうし、侏離の音を一洗し、多とするに足る者有り。（『冷齋集』七）

あるいはこの「薑山居士」すなわち素玩亭、李書九（一七五四~一八二五）が編集した『日東詩選』も、洪大容が読んだ『日東藻雅』と同じものであったろうか。というのも双方ともに元玄川によって伝えられたものに拠っているばかりでなく、挙げられている日本の文人も概ね重複しているからである。「韜翔」は思うままに遊び回る意で、玄川が唱酬した日本の詩人たちの作が、上出来な部類は「三唐」に迫り、それほどでないものも「王李」の余波を受けて、ともかく和臭を脱した域に達していたという。「侏離」は異民族の言葉が理解できないさま。いづれにしても高い評価といえる。

#### 4

第四の例は朴齊家の場合である。齊家は「戯れに王漁洋の歳暮人を懐かしむに倣う、六十首」の「小序」に、

余は百に一能無し。楽しみは賢士大夫と遊ぶこと、既に之れと交わり好し。又た終日疊々として已むること能わざるなり。人頗る其の間日無きを笑う。

（『貞蕤閣集』初集）

と記し、その六十首のなかには、李徳懋を筆頭に朴趾源（一七三七~一八〇五）らの師友に続いて、会ったこともない滝鶴台や竺常、木弘恭らが登場する。まず「竺常」すなわち大典について。

春秋辞令至今存	春秋の辞令 今に至りて存す
封建千年姓是源	封建千年 姓は是れ源
一部蕉中鈴木事	一部蕉中 鈴木の事
直追班史駕中原	直ちに班史を追い 中原に駕す

「源」とあるのは徳川家の祖が源義家（一〇三九～一一〇六）の孫新田義重にさかのぼるとされていることに拠るか。「鈴木のこと」は対馬藩士、鈴木伝蔵による崔天宗殺人事件の顛末を大典が書き記して通信使一行に与えたことをいう（「書鈴木伝蔵事」、『萍遇録』下）。末句は、その文体が前漢の正史『漢書』に迫る名文だという意。

「木弘恭」こと、兼葭堂にはこう詠まれている。

学半社中開講席	学半社中 講席を開き
兼葭堂裏盛文儒	兼葭堂裏 文儒盛んなり
風流何限成書記	風流何ぞ限らん 成書記
万里携来雅集図	万里携え来たる 雅集の図

「学半社」は細合斗南の塾の名前なので、若干の混乱があるものの、承句以下を兼葭堂主人がもし目にしたならば、会心の笑みを漏らしたにちがいない。「学半」は「<sup>おし</sup>学うるは学ぶの半ばかり」（『礼記』学記）に拠る。転結句は、成大中も風流ではあるが、『雅集の図』を見ると浪華の風流もなかなか大したものだという意。

このように、洪大容に始まり李徳懋、柳得恭、朴齊家に至るまで、ことごとく会ったこともない人物を友人に数え入れること自体、通念や偏見に囚われない学芸共和国に相応しい振る舞いといえるだろう。

## 5

通信使帰国後の展開がこうして大容の燕行に始まり、さらに一七七七年には李徳懋・柳得恭・朴齊家・李書九ら四名の詩選『巾衍集』が北京にもたらされて、李雨邨・潘庭筠の評・序を得て、翌年には李徳懋・朴齊家の二人が燕行使の一員として北京に派遣され、紀昀（一七二四～一八〇五）や羅聘（一七三三～九九）らとも交遊し、名実ともに学芸共和国の様相を呈するに至った。

それに対して、兼葭堂周辺ではどうだったろうか？ 管見に入った細合半齋の「重鍍韓本蒙求序」には、

是の本は、大典禪師、往年以酌に留職の時、獲る所にして、愛すること甚だし。乃ち手ずから之れを校し、帰院の後、書賈、重梓を請う。師業已に序して以て行わんことを許して、未だ果たさずして寂せり。（『隠居放言』下、享和三年、一八〇三序刊）

と見え、対馬の以酌庵輪住のさいに入手した「韓本蒙求」を大切にしていたことが知られる。大典が朝鮮修文職にあった時期は安永七年（一七七八）から天明三年（一七八三）まで、実際に対馬に赴任したのは天明元年から三年間のことで、「異域万里の交」の人々が住む鷄林を指

呼の間に望む地に赴いて何を思ったか、そのことを伝える詩文はのこされていないようだ。それだけに一層、ソウルの学芸共和国の華やぎは私どもの目には眩しく映るのかもしれない。

# 洪大容과 李德懋의 프리즘을 통해 본 일본의 文雅

—동아시아 학예공화국으로의 조주(助走)—

다카하시 히로미(高橋 博巳, 金城學院大學)

## 1

1763년 통신사행에서 문화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은 성대중(成大中, 1732~1809) 그리고 원현천(元玄川, 1719~1790)이었다. 그들이 귀국 후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에서 보고 들은 문인활동을 생생하게 전한 덕분에, 이씨조선의 북학과(北學派)라고 불리는 사상가들의 문집 안에 일본 문인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게 남겨지게 되었다. 한 예를 들자면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의 「일동조아발(日東藻雅跋)」이 있다.

두남(斗南)의 채주와 학대(鶴臺)의 학술, 초중(蕉中)의 문장과 신천(新川)의 시(詩), 겸가(兼葭)와 우산(羽山)의 그림, 문연(文淵)과 대록(大麓), 승명(承明)의 글씨, 남궁(南宮)·태실(太室)·사명(四明)·추강(秋江)·노당(魯堂)의 이런저런 풍치(風致)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제노(齊魯)와 강좌(江左)의 사이에서 구한다 해도 또한 쉬 얻지 못한다. 하물며 이 여러 사람들은 굳이 최고를 선발한 것도 아니고 보면, 그 나머지는 가늠해 보기에 충분하다. 어찌 좌해(左海)의 절역(絕域)이라 하여 우습게 보겠는가? 그러나 문풍(文風)을 다투어 무력(武力)이 떨쳐지지 않고, 기교가 날로 더해져 철검(鐵劍)이 나날이 둔하게 되면 서쪽 이웃이 아울러 그 복을 받게 될테니 그 이익이 크다 하겠다. 이(伊), 물(物) 두 사람은 마땅히 우리나라를 위해 빌어야 할 것이다.<sup>1)</sup>

여기에 열거된 ‘두남(斗南)’ 호소아이 한사이(細合半齋, 1727~1803)이나 ‘학대(鶴臺)’ 다키야하치(滝弥八, 1709~1773), 그리고 ‘초중(蕉中)’ 소우 다이텐(僧大典, 1719~1801), ‘겸가(兼葭)’ 기무라 겐카도(木村兼葭堂, 1736~1802), ‘노당(魯堂)’ 나와 로도(那波魯堂, 1727~1789)들은, 다소나마 근세 학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일 것이다. 애초에 호소아이 한사이(細合半齋)가 ‘두남(斗南)’이라는 호를 가지게 된 이유는 성대중(成大中)으로부터 ‘북두이남(北斗以南)의 한 사람’이라 불리었기 때문이다.<sup>2)</sup> 그뿐만 아니라 겐카도(兼葭堂)의 ‘그림’에 대하여 라이 슌스이(賴春水, 1746~1816)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 洪大容, 「日東藻雅跋」, 『湛軒書』 內集卷3(叢刊 248冊 74面) : “斗南之才, 鶴臺之學, 蕉中之文, 新川之詩, 兼葭羽山之畫, 文淵大麓承明之筆, 南宮太室四明秋江魯堂之種種風致, 卽無論我邦, 求之齊魯江左間, 亦未易得也. 況諸人者未必爲極選, 則其餘足可想也. 寧可以左海絕域而少之乎. 雖然文風競而武力不振, 技巧日濫, 鐵劍日鈍, 則西隣之并受其福, 厥利博哉. 伊物二氏, 宜以尸祝於吾韓矣.”

2) 大典「跋合麗王韓客唱和卷」, 『小雲棲稿』十

세속(世肅)은 호사명(好事名)을 나타낸다. 그는 원래 예능(芸能)에 탁월하다. 서화전각(書畫篆刻) 및 모든 기교(機巧)에 손을 대지 않은 분야가 없다. 그 중에서도 그림과 물산(物産學)에 관한 학문이 추천할만하다. 나는 그의 책을 읽고 나서, 그가 터득한 요령이 감탄스러웠다. 무릇 박래(舶來)한 서적(書籍)의 신구동이(新舊同異)는 물론, 증손출입(增損出入)의 종류를 또렷하게 암기(暗記)하여, 질문에 따라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다.

(「在津紀事」下、『春水遺稿』別卷二)

‘세속(世肅)’은 겐카도(蒹葭堂)의 자(字)이며 ‘호사(好事)’ 다재(多才)한 사람이었기에, 주위에 수많은 동호(同好)인들이 모였다는 사실도 수궁이 간다. 1779년에서 1802년까지의 내방자와 방문 장소는 미즈타 노리히사(水田紀久)선생께서 편집한 『완본겐카도일기(完本蒹葭堂日記)』(藝華書院, 2009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통신사를 맞이했던 시기의 기록은 없다. 슌스이(春水)에 의하면 겐카도(蒹葭堂)는 독서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다이텐(大典)의 「겐카아집도(蒹葭雅集圖)」의 서문(序文)은, “겐카(蒹葭)의 집(集)은 문(文)을 위함과 같다”라는 격조 높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겐카도(蒹葭堂)의 ‘화(和)’와 ‘예(禮)’를 중시하는 정신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그 결과 교제의 범위가 마침내 ‘이역만리(異域万里) 외부’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점이 홍대용들에게 감명을 주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sup>3)</sup>

그러나 ‘신천(新川)’ 오카다 신센(岡田新川, 1737~1799)이나 ‘승명(承明)’ 후쿠하라 에이잔(福原映山, 1735~1768)으로 말하자면 지명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문연(文淵)’ 아사히나 겐슈(朝比奈玄洲, ?~1734)는 기해통신사(1719년)를 맞이한 오와리한(尾張藩)의 유헌(右筆)<sup>4)</sup>였다. 그의 사적(事績)은 『봉도유주(蓬島遺珠)』(1720년 간행)에 전해지지만 지금은 망각의 저편에서 희미할 뿐이다.

그러하기에 더욱, 이와 같이 반드시 ‘최고의 선발’이 아닌 사람들이 ‘재학(才學)’과 ‘시문필화(詩文筆畵)’의 대표이자,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풍치(種種風致)’라는, 말하자면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매력의 소유자로 언급된 의의는 무엇인지 다시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재학(才學)’도 ‘시문필화(詩文筆畵)’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쓰인 글과 그려진 그림을 보면 대략 짐작이 간다. 그러나 ‘풍치(風致)’만큼은 그 사람 자체를 알지 못하면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홍대용은 작으나마 이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을 기회가 있었으리라 추측해 본다. ‘풍치(風致)’를 칭찬받은 5명 중에 노당(魯堂)은 통신사를 수행하며 도카이도(東海道)를 왕복했다.<sup>5)</sup> 이노우에 시메이(井上四明, 1730~1819) 또한 비젠오카야마(備前岡山)의 번유(藩儒)로 우시마도(牛窓)에서 시문을 창수(唱酬)했다.<sup>6)</sup> 그리고 히비노 아키에(日比野秋江, 1750~1825)는 오카다 신센(岡田新川) 문하의 유학자로 보여, 실제로 통신사와 접촉할 기회도 많았던 모양이다. 그러한 만남 중에 풍아한 거조(举措)를 눈여겨본 성대중이나 원현천을 통하여, 그들의 정보가 홍대용에게 전해진 것이다.

3) 『小雲棲稿』七

4) 右筆; 번(藩) 무가(武家)의 비서역할을 담당했던 문관(文官).

5) 『東遊編』1764년 간행.

6) 『槎客萍水集』

그런데 홍대용은, 스스로 이렇게 기록하던 중에 ‘재학(才學)’이나 ‘시문필화(詩文筆畵)’보다 ‘이런저런 풍치(種種風致)’가 더 귀하다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나중에 홍대용이 베이징(北京)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문인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바람이 이루어져 엄성(嚴誠, 1733~?), 반정균(潘庭筠, 1742~?), 육비(陸飛; 1719~?) 등과 사귀면서 반정균(潘庭筠)에게서 “동방(東方)의 풍류가화(風流佳話)에 대해 들려주기 바라오”라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나라 사람은 대개가 둔체(鈍滯)하기에, 풍류에 관하여 전할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게 말하면서, 반정균, 엄성 두 사람을 향해,

아우는 두 형의 재주를 사랑함이 아닙니다. 학술을 얻어도 그 학술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사모함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만나고 헤어짐이 너무나 분주하게 이루어져 아직 심오한 경지의 문을 두드리지 못함입니다.

(「乾淨衲筆談」, 『湛軒書外集』二)

이렇게 슬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재주(才)’나 ‘학술(學)’이 아니라 ‘마음(心)’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인격을 형성함에 있어 ‘재학(才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마음(心)’ 다시 말해 인간성이 중요하다는 표명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조원(調元) 이우촌(李雨邨)에게 보낸 편지에도 동일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무릇 친구를 얻는 길은, 우선 그 인품을 보고, 그 다음으로 그 재능을 봄이다.

(『靑莊館全書』一九)

박제가(朴齊家, 1750~1805)도 마찬가지다.

아아! 우리나라가 3백년 간 사신을 서로 맞았지만 한 사람의 명사도 돌아오음을 보지 못했다. 이제 담헌(堪軒) 선생이 하루아침에 천애지기(天涯知己)를 맺어, 풍류(風流)와 문묵(文墨)을 지극히 펼치니, 그 사람은 모두 다 지난 날 책 속에서 만나보던 사람들이었다.<sup>7)</sup>

이처럼 연행사(燕行使) 삼백 년의 역사 속에, 홍대용과 엄성, 반정균의 교류를 바르게 정립시켜, 그 획기적이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모델이 되어 학예공화국에 생명이 불어넣어졌다.

7) 朴齊家, 「與徐觀軒」, 『貞蕤閣集』 文集 卷4(叢刊 261冊: 661面) “嗟乎! 吾東三百年使价相接, 不見一名士而歸耳. 今湛軒先生一朝結天涯知己, 風流文墨, 極其翩翩, 其人者皆依依焉往日卷中之人也.”

이덕무(李德懋)가 엮은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는 홍대용이 청조(淸朝)인 중국에 출타했을 당시의 기록을 집성한 것이지만, 그 안에 느닷없이 겐카도(兼葭堂)가 등장하여 독자를 놀라게 한다.

일본인(日本人)은 강남과 통상하는 까닭에 명말(明末)의 고기(古器)와 서화(書畫) 및 서적(書籍)과 약재(藥材)들이 나가사키에 모여들었다. 일본의 겸가당주인(兼葭堂主人) 목세숙(木世肅)은 비서(秘書) 3만권(萬卷)을 간직해두고 중국의 명사와 많이 교류하여, 문아(文雅)가 바야흐로 성대하다. 우리나라에 견줄 수 있는 바가 아니다.<sup>8)</sup>

(『靑莊館全書』 六三)

이는 겐카도(兼葭堂)의 장서 정보가 조선 지식인의 큰 관심거리였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9). 특히 말미의 “문아(文雅)가 우리나라에 견줄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는 문장만으로도 얼마나 감복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덕무(李德懋)는 이밖에도 「청비록(淸脾錄)」<sup>10)</sup> 이라든지,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sup>11)</sup> 안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겐카도(兼葭堂)’의 항목을 설정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성대중(成大中)에게 보낸 서간에는 ‘겸가당도(兼葭堂圖)’ 및 ‘일백단팔도(一百單八圖)’의 차람(借覽)을 의뢰하며 ‘천하의 보물’ ‘천고승절(千古勝絶)’이라고 극구 칭찬했던 사실도 잊기 어려운 반응이다.<sup>12)</sup>

셋째로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예도 흥미롭다. 이서구(李書九, 1754~1825)에게 써준 「일동시선서(日東詩選序)」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日本은 동해 가운데 있고 중국과는 만리나 떨어져 있어, 우리와 가장 가깝다. 그 나라에서 지은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란 책을 보면 시서예악(詩書禮樂)과 전진(戰陣)의 방법에서부터 상문(桑門)의 외도(外道)와 노름하는 놀이기구까지 우리로부터 얻지 않은 것이 없다. 살피건대 그 나라는 부유하고 풍속은 약삭빨라 음란한 기교와 공교로운 장인바치가 많다. 하지만 유독 시만은 잘 하지 못했다. 원씨(源氏)가 정사를 맡은 이래로 기미(羈縻)함이 끊이지 않았다. 관백(關白)이 새로 서면 반드시 사신을 청하러 오니, 우리는 삼품관(三品官) 한 사람을 정사(正使)에 충당하고, 시종(侍從) 한 사람을 붙여 주었다. 또 한 사람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고, 문함(文啣)을 맡은 한 사람

8) 李德懋, 「天涯知己書」, 『靑莊館全書』 권 63(叢刊 259冊 123面): “日本人通江南, 故明末古器及書畫書籍藥材, 輻湊于長崎. 日本兼葭堂主人木世肅, 藏秘書三萬卷, 且多交中國名士, 文雅方盛, 非我國之可比也.”

9) 大典「兼葭堂藏書序」, 『小雲棲稿』 七을 참조

10) 『靑莊館全書』 三二

11) 앞의 책, 卷五二

12) 같은 책, 卷一六

은 제술관(製述官)으로 삼아 가서 방문하였다. 정부사(正副使)와 종사관(從事官)은 저마다 서기(書記) 한 사람씩을 두었다. 재관(材官)과 검객(劍客), 양의(良醫)와 화사(畫師) 및 취창격구(吹唱擊毬) 등 무릇 한 가지 재주가 있는 자들은 모두 막중(幕中)으로 불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기(書記)여서 일행이 모두 눈길을 주었다. 기미(癸未)년에 전임(前任) 장흥고봉사(長興庫奉事) 중거(重舉) 원현천(元玄川)이 그 책임에 뽑혔다. (중략)

현천옹(玄川翁)은 맑고도 도타워 정주학(程朱學)을 애기하길 좋아하니, 저들 가운데서 더욱 이를 중히 여겨 반드시 노선생(老先生)으로 일컬었다. 능문(能文)의 인사로는 의관(醫官)과 석류(釋流)가 많았는데, 합리(合離)·정잠(井潛)·나파사증(那波斯曾)·부야의운(富野義胤)·강전씨(岡田氏) 형제(兄弟) 등이 특히 우뚝하였다. 모두들 그와 더불어 깊이 서로 사귀었다. 돌아온 뒤에는 강산거사(薑山居士)가 그 항해일기(海航日記) 가운데 실려 있는 증별시(贈別詩) 67수를 가려 뽑아 이름하여 『일동시선(日東詩選)』이라 하고, 내게 서문을 부탁하였다. 그 시는 높은 것은 삼당(三唐)을 모의하였고, 낮은 것은 왕세정과 이반룡을 고상(翱翔)하니 주리(侏離)의 소리를 깨끗이 씻어 훌륭한 점이 있었다.<sup>13)</sup>

‘강산거사(薑山居士)’ 소완정(素玩亭)과 이서구(李書九, 1754~1825)가 편집한 『일동시선(日東詩選)』도, 홍대용이 읽은 『일동조아(日東藻雅)』와 같은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 이유는 양쪽 모두 원현천(元玄川)에 의해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론되는 일본 문인도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이다. ‘고상(翱翔)’은 자유로이 마음대로 유희(遊回)한다는 뜻으로, 원현천이 서로 주고받은 일본 시인들의 작품이, 잘 지은 부류는 ‘삼당(三唐)’에 육박하고, 그다지 좋지 않은 것도 ‘왕세정과 이반룡’의 여과를 받아, 어찌 되었든 간에 일본 색채를 벗어난 영역에 도달해 있다는 말이다. ‘주리(侏離)’는 이민족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어느 쪽이든 결국 높은 평가라 할 수 있다.

#### 4

네 번째 예는 박제가(朴齊家)의 경우이다. 박제가는 「장난삼아 왕어양(王漁洋)의 세모회인시(歲暮懷人時) 60수를 본떠 짓다」의 ‘소서(小序)’에,

나는 백에 한 가지도 능한 것이 없으나 현사대부(賢士大夫)와 더불어 노니는 것을 즐기고. 이와 더불어 사귀는 것을 좋아하여 또 온 종일 힘써도 능히 그만 두지 못하니, 사람들이 한가한 날이 없음을 웃곤 한다.<sup>14)</sup>

13) 柳得恭, 「日東詩選序」, 『冷齋集』卷7(叢刊 260책 111면) : “日本在東海中, 去中國萬里, 最近於我. 取攷其國所著和漢三才圖書, 則詩書禮樂戰陳之法, 以至桑門外道博奕戲具, 莫不自我得之. 顧其國富風俗價利, 多淫伎巧匠, 而獨不能工詩. 自源氏爲政, 羈縻不絕, 關白新立, 必來請使. 我以三品官一人充正使, 侍從一人副之, 又一人爲從事官, 文啣一人爲製述官, 往聘之. 正副使從事官各辟書記一人, 材官劍客良醫畫師吹唱擊毬凡有一藝者, 悉致幕中. 而最重書記, 一行皆屬日焉. 歲癸未, 前任長興庫奉事元玄川重舉膺是選. (중략) 玄川翁雅篤厚, 喜談程朱之學, 彼中益重之, 必稱老先生. 其能文之士, 率多醫官釋流, 而合離井潛那波斯曾富野義胤岡田氏兄弟, 尤爲傑然. 皆與之深相交. 及其歸後, 薑山居士鈔其海航日記中贈別詩六十七首, 名曰日東詩選, 屬余爲之序. 其詩高者摸擬三唐, 下者翱翔王李, 一洗侏離之音, 有足多者.”

이렇게 기록했고, 그 60수에는 이덕무(李德懋)를 필두로 박지원(朴趾源, 1737~1805) 등 사우(師友)에 이어 만난 적도 없는 다키 가쿠다이(滝鶴台)나 지쿠쥬(竺常), 보쿠코쿄(木弘恭)<sup>15)</sup> 등이 등장한다. 아래는 우선 ‘지쿠쥬(竺常)’ 다시 말해 다이텐(大典)에 관한 글이다.

春秋辭令至今存	춘추(春秋)의 사령(辭令)이 이제껏 남았으니
封建千年姓是源	봉건천년(封建千年)에 그 성(姓)은 원(源;미나모토)씨일세.
一部蕉中鈴木事	한부 초중(一部蕉中)의 영목(鈴木;스즈키) 사건(事) 적은 글은
直追班史駕中原	곧바로 반사(班史)를 쫓아 중원(中原)을 능가하리.

‘원(源)’은 도쿠가와(徳川) 집안의 선조가 미나모토 요시이에(源義家, 1039~1106)의 손자 넷타 요시시게(新田義重)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래에 근거했다고 추측된다. ‘영목의 사건(鈴木事)’은 쓰시마(対馬) 번사(藩士) 스즈키 덴조(鈴木伝藏)가 일으킨 최천종(崔天宗) 살인 사건의 전말을 다이텐(大典)이 기록하여 통신사 일행에게 전했던 사실을 이른다.<sup>16)</sup> 마지막 구(句)는 그 문체가 전한(前漢)의 정사(正史) 『한서(漢書)』에 필적하는 명문(名文)이라는 뜻이다.

‘목홍공(木弘恭)’ 즉 겐카도(蒹葭堂)에 대해서는 이렇게 읊고 있다.

學半社中開講席	학반사(學半社) 가운데서 강석(講席)을 열었으니
蒹葭堂裏盛文儒	겸가당(蒹葭堂) 안에는 문유(文儒)가 성대하다
風流何限成書記	풍류(風流)는 끝이 없어 성서기(成書記)께서
万里携來雅集圖	만리(万里)에 아집도(雅集圖)를 가지고 오셨구려.

‘학반사(學半社)’는 호소아이 도난(細合斗南)이 연 사숙(私塾)의 이름이기에 약간의 혼란은 있지만, 승구(承句) 이하를 겐카도(蒹葭堂)가 혹시 보았다면, 틀림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회심의 미소가 흘러나왔을 것이다. ‘학반(學半)’은 “가르침(學)은 배움의 반(半)이다”<sup>17)</sup>라는 고사에 근거한다. 전결구(轉結句)는 성대중(成大中)도 풍류(風流)이기는 하지만 《아집의 그림(雅集圖)》을 보니 낭화(浪華;오사카 지역)의 풍류도 꽤 대단하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처럼 흥대용을 시작으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만난 적도 없는 인물을 우인(友人)에게 가르쳐주는 행위 자체가, 통념이나 편견에 구애 받지 않는 학예공화국(學芸共和國)에 어울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14) 朴齊家貞, 「戲傲王漁洋歲暮懷人 六十首 并小序」, 『貞蕤閣初集』(叢刊 261冊 469面) : “余百無一能, 樂與賢士大夫遊, 既與之交好, 又終日麴麴不能已也. 人頗笑其無閒日焉.”

15) 원래 한자는 木孔恭. 孔恭은 겐카도(蒹葭堂)의 이름이다.

16) 「書鈴木伝藏事」, 『萍遇錄』 下

17) 『禮記』 學記

통신사가 귀국한 후의 전개는 이렇다. 홍대용의 연행(燕行)을 시작으로, 1777년에는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서구 4명의 시선(詩選) 『진언집(巾衍集)』이 베이징(北京)에 전해졌고, 이우촌(李雨邨), 반정균(潘庭筠)의 평(評)과 서(序)를 얻었다. 다음 해에는 이덕무, 박제가 두 사람이 연행사의 일원으로 베이징에 파견되어 기윤(紀昀, 1724~1805)이나 나빙(羅聘, 1733~1799)들과 교류(交遊)하였으니, 명실상부한 학예공화국의 양상을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켄카도(菴葭堂)의 주변은 어떠했을까? 개인적인 소견이 포함된 호소아이 한사이(細合半齋)의 「重鋟韓本蒙求序」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이 책은 다이텐선사(大典禪師)가 예전에 이데이(以酏)에 유직(留職)했을 당시에 얻은 이후로 지극히 아껴왔다. 본인이 직접 교합(校合)하였고, 원(院)에 복귀한 후에는 서적상(書賈)에게 중재(重梓; 중판)를 부탁했다. 이미 서장(序)을 써서 가지고 가라고 허락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하여 아쉽다. (『隱居放言』 下、享和三年、1803 序刊)

다이텐(大典)이 쓰시마(對馬)의 이데이암(以酏庵)에 거주했을 당시에 입수한 「한본몽구(韓本蒙求)」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다. 다이텐이 조선수문(朝鮮修文)의 직(職)에 임명된 시기는 1778년부터 1783년까지였지만, 실제로 쓰시마에 부임한 것은 1780년부터 3년간이었다. ‘이역만리의(異域万里)’의 교우(交友)들이 살고 있는 계림(鷄林)을 지호지간(指呼の間)에서 바라다 볼 수 있는 땅에 부임하여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아쉽지만 전해 내려오는 시문(詩文)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하기에 더욱 서울 학예공화국의 화려한 흥겨움이 한층 더 우리들의 눈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홍대용(洪大容)·이덕무(李德懋)의 프리즘을 통해 본 일본의 문아(文雅)>에 대한 토론문

安大會(成均館大 漢文學科)

다카하시 교수님의 발표는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무라 겐카도 [木弘恭]를 비롯한 日本 學者 文人들에 대한 조선 학자의 인식이 변화한 양상이 어떠한 意義를 지녔는지를 잘 解明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洪大容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의 관계가 단순하게 ‘재학(才學)’이나 ‘시문필화(詩文筆畵)’보다 ‘이런저런 풍치(種種風致)’를 더 고귀한 것으로 간주했을 것이라는 말은 수긍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발표문이기에 많은 정보와 분석이 담겨 있지 않아 질의할 점이 많지 않으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의문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두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선생님이 쓰신 글의 논지로 보아 겐카도와 같은 日本 學者들의 風致를 강조한 人間本位的인 만남에 대한 조선 학자의 憧憬이 元重舉, 成大中の 媒介를 거쳐 洪大容을 비롯한 李德懋 朴齊家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이들이 후에 淸나라 文士들과 天涯知己의 交友關係를 맺는 하나의 동기를 만들었다고 보시는 듯합니다. 그랬을 蓋然性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관계를 연결할 만한 端緒나 情況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듯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겐카도를 중심으로 일군의 학자들이 활동한 양상을 성대중 원중거 등이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지요? 蒹葭堂에서 벌어진 활동상을 일본의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요?

세 번째로는 蒹葭堂을 비롯한 일본 문사의 활동상과 文藝는 주로 성대중과 그 주변인물에 큰 足跡을 남겼는데 교수님도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밖에도 비슷한 시기의 문사인 尹光心은 <<并世集>>에서 斗南을 비롯하여 7인의 일본문사의 시를 뽑아 수록했고, 柳得恭의 경우에도 <<竝世集>>에서 木弘恭의 <題蒹葭堂雅集圖>를 비롯하여 문사 9인의 시를 뽑아 수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는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李書九의 『日東詩選』과 洪대용이 본 『日東藻雅』와 같은 선집들에서 취사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활용된 것까지 함으로써 다룬다면 더 설득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1763 年 癸未 通信使行斗 東亞細亞 文化 接觸

(午後 二次 發表 및 討論)

司會：李勝洙(漢陽大)

◇ 仲尾宏(京都造形藝術大)

篆刻家・沢田東江と《多胡碑》の 伝播

篆刻家 沢田東江와 《多胡碑》의 傳播 / 討論：吳正嵐(南京大)

◇ 金聲振(釜山大)

癸未使行團의 大坂滯留와 大典禪師 竺常 / 討論：申翼澈(韓中研)

◇ 鄭恩主(韓中研)

癸未(1763) 通信使行 關聯 繪畫 研究 / 討論：劉順英(弘益大)

## 篆刻家 사와다 토코(沢田東江)와 「多胡碑」의 전파

나가오 히로시(仲尾宏, 京都造形藝術大)

### 들어가며

1764년, 갑신년의 조선 통신사행은 일본 문인과 통신사와 그 수행원들 간의 전에 없는 문화 교류를 낳았다. 또한 이른바 「연행록(燕行錄)」도 그 어느 때보다 많아, 일행들이 일본을 관찰한 결과와 다채로운 교류의 흔적을 오늘날까지 남기고 있다. (에도 빙례(江戸聘礼)는 1764년이므로 계미년이 아님)

이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에서 일본 문화의 열매가 명확하게 「물건」으로서 조선으로 전파한 한 예로, 사와다 토코(沢田東江)의 경우를 다루기로 한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기술한 것처럼 그의 손으로 만든 문화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도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전해진 일본 문화라고 하면, 1711(신묘년)의 일본 에도막부 수뇌부의 중축을 이루며, 조선 통신사를 영접하는데 많은 일을 한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예가 잘 알려져 있다. 1710년에 류큐 왕국(琉球王国)의 사은·경하사(謝恩·慶賀使: 豊見城王子·与那城王子)가 에도에 갔을 때, 하쿠세키의 친구인 후카미 겐타이(深見玄岱)에 의해 「白石余稿」가 일행에게 맡겨졌다. 이 것은 류큐(琉球) 사람이 지은 작품으로서 베이징으로 보내지고, 그것을 읽은 한림원 편수 정임약(鄭任鑰)은 당나라 시문학의 황금기인 盛唐 시기의 위대한 시인들의 장점을 겸비한 것이라 칭찬하는 서문을 붙여 류큐국(琉球国)에 돌려주었다고 한다. 그 사본은 하쿠세키(白石)가 은퇴한 후에 그에게 보내져, 현재도 아라이(新井)가문에 대대로 전해지고 있다(1).

그러나 이렇게 다른 나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전파된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만약 그 전파 과정을 따라가려고 하면, 역시 매년 수 차례, 약 200년 동안에는 수백 차례 조선에서 중국으로 파견되었던 「연행사(燕行使)」의 루트를 고찰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연행사(燕行使)」 일행을 통해 다양한 일본에 관한 정보가 중국으로 전해졌으며, 문물도 적지 않게 전해졌을 것이다. 참고로, 이현식(李玄植) 씨에 의하면,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12회 조선통신사 삼사(三使) 가운데, 그 후에 「연행사(燕行使)」의 일원이 되어 베이징으로 파견된 사람이 15명이나 있었다고 전해진다(2). 삼사(三使)가 아닌,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성대중(成大中; 龍淵)이라는 서기 수준의 사람까지 확대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일본의 문화 정보에 대한 관심은 특히 18세기 후반에 두 번에 걸쳐 에도에

은 조선통신사의 사신 행차에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후마 스스무(夫馬進) 씨는 지적한다. 후마(夫馬)씨는 이 논문에서, 1764년의 조선인 유학자는 일본으로부터 「섭취(攝取)」하려고 하는 의욕이 특히 강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지금부터 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먼저 사와다 토코(沢田東江)의 교류와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로 한다.

○사와다 토코는 다음에 기술하는 몇 가지 아호(雅号)를 쓰고 있다. 1764(宝曆14)년에 조선통신사와 만날 당시에는 「토코(東郊)」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통칭으로 알려져 있는 「토코(東江)」라 칭하며 논지를 진행하기로 한다.

## 1. 사와다 토코(沢田東江)와 조선통신사의 만남

사와다 토코(1732~96)는 일반적으로는 文治朗 또는 文治, 위(偉)는 鱗, 자(字)는 文龍, 景瑞, 東江, 東郊, 来禽堂, 玉島山人 그 밖에도 많이 있었다. 에도(江戸) 료코쿠(兩國)에서 태어나, 출신 신분은 여러 설이 있으나, 나카노 미쓰토시(中野三敏) 씨에 의하면, 무사 계급이라고 보면 된다고 한다. 이것은, 이번 장에서 다룰 막부의 인장 제작에 관한 일을 일개 낭인이나 상인 출신자에게는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젊어서부터 서예를 자주 하며 서예가를 지망하였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그 재능을 인정받은 것은 훗날의 일로, 그 때까지는 유학자로서 뜻을 세우고 당시 에도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던 이노우에 란다이(井上蘭台)의 가르침을 받아, 「古注學」을 배웠다. 또한 다양한 문장을 써, 그 서예의 뛰어난 점이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1759(宝曆9)년 3월, 막부의 명령으로 막부의 「서인(書印)」을 전서하였다고 앞서 언급했던 나카노 미쓰토시 씨는 전한다(4). 이는 스승인 이노우에 란다이가 에도 막부의 학문 관장 기관의 우두머리(大學頭)였던 林씨 가문의 일을 했던 것이 인연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 토코도 임씨 가문에 출사(出仕)했거나,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 받게 되었을 것이다. 훗날, 대학두인 임씨 부자가 동문들을 이끌고 필담을 주고 받기 위해 에도에 있는 통신사 일행을 찾아 왔을 때에도 토코는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코는 그 때까지 서학자(書學者)로서 『서학전(書學筌)』를 비롯한 저서를 발간하는 등의 업적을 쌓은 상태였다. 전각(篆刻), 서학(書學), 그리고 경학(經學) 등 토코의 다채로운 활약은 점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 같다. 나카노 씨에 따르면, 토코는 이 즈음 임가의 기록 담당관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토코의 『서학전』 및 『서범(書範)』에는 이노우에 란다이(井上蘭台), 이노우에 킨가(井上金峨) 등이 서문(序)과 발문(跋文)을 보냈다.

그건 그렇고, 토코는 1764(宝曆14)년 2월16일 에도에 도착한 조선통신사 일행과 만날 수 있었던 듯하다. 에도성에서 있었던 국서(國書)를 전달하는 빙례(聘禮)는 2월27일(이하, 날짜는 정사(正使) 조엄(趙暉)의 『해사일기(海槎日記)』에서 참조)이고, 가치장군(家治將軍)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회답서가 통신사에게 전해진 것은 3월7일의 일이었으나, 그 사이에 대학두 임씨 부자와 그 동인들이 수 차례에 걸쳐 일행의 숙소인 아사쿠사(淺草)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를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그 일시에 대해서는 위의 『해사일기(海槎日記)』, 및 서기 성대중의 『일본록(日本錄)』(내제는 사상록(槎上錄))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참가했던 사람의 이름이나 필담과 응수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도쿄의 저서 『경개집(傾蓋集)』에 담긴 제술관(製述官) 남옥(南玉; 秋月), 서기 성대중, 원중거(玄川), 김인겸(退石) 등과 나눈 필담과 응수도 이즈음의 일이었을 것이다.

토코가 이 조선의 네 문인과 교류한 전말을 상세하게 기록한 『경개집』에는, 토코가 막부의 명을 받아, 가치(家治)의 답신에 사용한 인장을 전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보력 14년(1764) 갑신 2월, 조선 사신이 왔다. 내가 이때 명을 받아 어서보(御書寶)를 새겼다. 일을 마치고 나서 3월 3일에 상국사(相國寺) 첨장로(瞻長老)의 시자인 굉선사(宏禪師)를 따라 빈관에서 사객(四客)을 만나 역외의 신교(神交)를 맺었다. 이에 한 차례의 대화를 취해 기록하여 훗날의 안면으로 삼는다. 동도처사 평린은 적다.

宝曆十四年甲申二月、韓使來聘、麟時奉命篆御書寶。事畢、三月三日、依相國寺瞻長老侍者宏禪師、謁四客於賓館、遂結域外之神交。於是取一話錄之、以充他日之顏面云。東都處士平麟職(5)。

이에 따르면, 통신사 일행의 에도 도착 전후에 이미 답신의 인각(印刻)은 완성되어 있었고, 아마 그 공을 인정받아 대학두(大學頭)인 임가(林家)에서 통신사와의 교류하는 자리에 토코가 참가하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다. 또한 이 기회를 주선한 굉선사(宏禪師)는 당시 쓰시마(對馬)에 있는 이정암(以酌庵) 당번(輪番)인 상국사(相國寺) 유천승첨(維天承瞻, 이텐쇼센)의 사자(侍者)였다. 또 남옥(南玉)의 『일관기(日觀記)』의 2월25일 대목에는 「周宏、周遵來話。平麟號東郊、工於印章、為閔白印寶者」라고 쓰여 있어 토코가 가치(家治) 인장 작성자였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이미 조선측에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통신사 일행이 에도에 체류하는 동안에 임가의 동인들이 히가시혼간지(東本願寺)의 숙소를 방문했던 일정을 제시한다.

- 2월22일 · 聞製述書記之言、則大學頭林信言(鳳谷)、與其子秘書監信愛(竜輩)來見。筆談而文筆無可觀云。(이하 생략) ((6) 이하 『海』로 표기)
- 林大學頭林信言與其子秘書監信愛來酬終日。((7) 이하 『日』로 표기)
- 2월23일 · 林祭酒門徒十一人來見。(『日』)
- 2월24일 · 林門九人來見。(『日』)
- 2월25일 · 午間大學頭林信言父子請見例也。(이하 생략) (『海』)
- 林祭酒父子來見使相林門九人來見。夜深又受其詩未及酬。(『日』)
- 2월27일 · 國書伝命。

2월29일이 되어, 일본 측의 회답 국서 초본이 도착한다. 그러나 그 문언에 대해서 조선 사절단 측은 「신경(新慶)」 「수목지성(修睦之誠)」 라는 말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며 개서를 요구한다. 그로 인해 임대학두(林大學頭)가 3월2일 제술관(製述官)을 만나러 오는 등, 그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신경(新慶)」 「수목지성(修睦之誠)」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하여, 총 아홉 자를 고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하였다(8).

그 밖에, 이번 행례(行禮)에서는 당시의 조선 왕조의 금지령에 따라 금주를 명(命) 받았으므로 빙례(聘禮) 때는 빈 잔을 주고 받을 것, 정사(正使) 조엄(趙曠)이 대군(大君)=소군(將軍)과 천황 직위의 관계에 대해 깊이 걱정을 하게 되는 것 등, 교린관계 상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도 의식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통신사의 에도 체재 중의 일본인 문인과의 교류에 관한 기록은 끝난다. 그러나 교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와다 토코의 『경개집』에 크고 작은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9).

『경개집』에는 사와다 토코(東江)와 그 일행인 서기들이 우정을 나눈 기록도 있다. 3월 3일의 기록에는 성대중이 토코(東江)에게 자신의 이름의 인장 제작을 부탁하는 대목이 있다. 성대중(龍淵)은 말한다.

飽聞足下金石之聲、曾因宏師人奉求和章、亦意足下、其或留念否。

토코가 대답하기를, 정중하게 「보잘것없는 재능(薄技)」을 바치겠으니, 귀하의 호를 무어라고 새길까요? 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대중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여, 토코는 바로 제작을 시작한 듯 하다.

龍淵言、号則姑舍、如得姓名則幸矣。

통신사는 3월11일, 에도를 출발하여 시나가와(品川)의 숙소인 도카이지(東海寺)에 도착하였다. 그곳에 토코와 그의 친구 한대년(韓大年) 등 열세 명의 문인들이 폭우 속을 뚫고서, 계타(下駄)에 우산을 쓰고, 엮어져 뒹굴면서 찾아온 것, 그리고 각자 작별 선물을 전한 것이 김인겸(金仁謙)의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졌다. 그들, 특히 토코와 한대년(韓大年)은 밤이 깊도록 가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김인겸 등의 옷깃을 붙잡고 헤어짐을 아쉬워하였다고 하는 정경도 함께 쓰여 있다(10).

성대중이 소망하던 토코의 인각 두 개와 한대년(韓大年)이 보낸 붓 세 자루는 이 때 전해졌음에 틀림없다. 성대중의 『日本錄』에는 다음 날도 두 사람이 비가 오는 가운데 뒤를 쫓아온 것도 기록되어 있다(11). 이렇게 해서 사와다 토코의 전각가로서의 명성은 그 작품과 함께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전해졌다. 오사카(大阪)의 나카노지마(中之島)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동화명공인보(東華名公印譜)』에는 이들 일본 문인들이 보낸 인장의 인보(印譜) 14면이 기록되어 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현식(李玄植) 씨의 연구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12).

## 2. 多胡碑와 조선통신사를 통한 조선·중국으로의 전파 경위

군마현(群馬県; 上野国) 요시이초(吉井町)에는 711년(日本和銅四年)3월9일에 그 부근의 육향(六郷)을 재편성하여 「다호군(多胡郡)」이 설치되었다. 고대 국가의 지방 지배 제도의 재편으로, 기록은 『속일본기(續日本紀)』에 있다. 그 비문은 한쪽 면에 6행80자의 해서체를 중심으로 한 문자군(文字群)이 있는데, 일본의 삼대 고비(古碑)로서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현재는 국가 특별 사적으로 지정). 최근에는 그것의 동아시아로의 전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일부분을 소개하고, 조선 통신사가 일본의 고문화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비문은 금석(金石)연구의 세계에서는 이미 「한례(漢隸)」의 옛 방법을 따른 귀중한 비문으로 인정되어, 중국에서도 이미 오랜 세월이 걸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일본의 최근의 연구는 삼인(杉仁), 대교수일(大橋修一), 앞서 언급한 삼촌방언(杉村邦彦)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13). 본 연구는 그들의 연구 성과의 혜택을 받은 부분이 많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이제, 다호비(多胡碑)가 조선통신사에게 전해진 후에 사와다 토코보다 먼저, 상야국(上野国) 하인전(下仁田)의 거상이자 부농이자 뛰어난 유학자였던 타카하시 도사이(高橋道齋)에 대해서 언급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도사이(道齋)의 정확한 출생, 사망 년도는 미상이지만, 이름은 구랑우위문(九郎右衛門), 자는 극명(克明), 구재(九齋)라는 별호도 있다. 보력(宝曆) 첫 해 즈음, 이 도사이(道齋)가 그가 살던 하인전(下仁田)에서 가까운 길정(吉井)에 있는 고비(古碑)가 중국 한대(漢代)의 서예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탁본을 떠서 에도에서 서예가로서 크게 성공한 사와다 토코에게 전했다. 두 사람은 에도의 고이재(高頤齋)의 제자로서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 1754(宝曆4)년에, 토코는 길정촌(吉井村)의 다호비를 그와 들어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물론, 그 때도 상당 수의 탁본을 떼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윽고 도사이(道齋)는 토코의 도움을 받아 『상모다호군비첩(上毛多胡郡碑帖)』을 간행했다. 그 서문에 앞서 기술한 정상난태(井上欄台, 1705~61)는 구봉(九峰, 道齋)이 비석 앞에서 「留宿其下坐臥」라고 하였다고 기술하고, 그 기개를 당의 구양순(歐陽詢)의 고사에 비하며 칭찬하였다(14). 위 내용으로 사와다 토코가 늦어도 1754(宝曆4)년에는 현지에서 탁본을 떠서 그것을 1764(宝曆14)년의 조선통신사에게 보냈거나, 그 이후에도 현지를 방문하여 새로운 탁본을 떼서 그것을 선물로 주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사와다 토코는 이 다호비가 갖는 의의와 그 문자법(字法)의 훌륭함을 도사이가 처음으로 그에게 전해주었다

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것은 도쿄가 통신사 일행, 특히 제술관인 南玉(秋月), 서기 성대중(龍淵), 원중거(玄川), 김인겸(退石)과의 筆談唱和集인 『傾蓋集』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이 도사이(道齋)의 이름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秋月云、其東古碑、奇崛可荷萬萬。

東郊云、上野国九峰山人、名克明、頗好古之士。此石本、即所翻刻其家也。

秋月云、多胡碑得之、甚奇。非足下尚奇之癖、何以得此、詩亦奇雅、欲和此韻以上付奇之末。(이하 생략)

고교도재(高橋道齋)는 이때, 아마 고향인 길정(吉井)에 있었을 것이다. 함께 있었던 것 같은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 그러나, 도사이(道齋)의 시문 두 편이 이들 통신사 수행원에게 보내졌다. 이는 수하창오(須賀昌五) 씨가 하인전(下仁田)의 신호수웅(神戶守雄) 씨가 소장하고 있는 도사이(道齋)의 한시를 조사하여 발견하였다(15).

이에 따르면, 하나는 김인겸에게 보낸 것이고, 또 하나는 원중거에게 보낸 것이었다. 전자는 한시 앞에 「呈金書記退石上毛」라고 되어 있어, 상야국(上野国)의 도사이(道齋)가 도쿄에게 맡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자에는 「呈元書記元川」라고 쓰여 있는데, 동시에 직접 전한 것이 분명하다. 이 둘 모두 일행이 에도를 떠나 귀국길에 오를 당시의 석별의 의미가 담겨 있어, 도사이(道齋)는 비로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다호비의 비문 탁본과 앞서 언급한 서적(『上毛多胡郡碑帖』)을 전함으로써, 친근감을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다.

『경개집(傾蓋集)』의 첫 부분에 갑자기 다호비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당시 이미 일행 가운데, 적어도 네 명 중 누군가에게 비문의 탁본과 『상모다호군비첩(上毛多胡郡碑帖)』가 사전에 전해져 있었을 것이다. 그 후에 도쿄는 충분히 면회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3월3일에 다호비에 대해서, 네 학자의 감상과 의견을 구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南玉에 이어 성대중(龍淵)은 도쿄의 요청에 응하여 다음과 같이 느낌을 전했다.

龍淵云、多胡碑字法甚奇崛、可謂貴邦金石之寶。潛光閃彩、待足下而始發、亦豈非異事耶。(후략)

그리고 도쿄가 이와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는 육오다하성비(陸奥多賀城碑)의 탁본을 소개하자, 성대중은,

龍淵云、字法雖古、終不及多胡之吉屈。

東郊云、足下實具眼之士。

라고 응수하였다.

원중거(玄川)는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玄川云、碑本作几已受賜、奇古癸之、既知其奇、当和 章以統一奇。  
東郊云、多謝多謝。

그리고 김인겸을 제외한 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제전(題箋)에 의한 시문을 남겼다. 모두 당시 조선국의 아호인 「소화(小華)」를 호 앞에 붙이고 있다.

題和景瑞所藏多胡碑郡碑 小華秋月子  
和平東郊韻、題其所所藏多胡碑後 小華龍淵子  
題平景瑞帖 小華玄川子 (시는 모두 생략)

김인겸(退石)의 경우에는 다른 장에 한 수 남기고 있다.

再和平東郊韻 退石

이리하여 적어도 몇 장의 다호비 탁본과 그 해설서인 『상모다호군비첩(上毛多胡郡碑帖)』이 이 때에 조선으로 전래 되었다. 이 때, 정사 조엄(趙曠) 등 삼사에게도 이들 물품이 기증되었는지에 관한 확증은 없다. 삼촌방언(杉村邦彦) 씨는 정사에게도 기증되었다고 앞의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확증은 없다. 그 후, 이 탁본의 운명이 기구하였다는 것은, 성대중이 남긴 비문의 동정에 관한 사료에 명확하게 남아 있다. 삼인(杉仁) 씨, 대교수일(大橋修一) 씨 그리고 그것을 부연(敷衍)한 삼촌방언(杉村邦彦) 씨 등의 연구에 따르면, 성대중의 문집 『청성집(靑城集)』에 성대중과 정사의 직계 자손 중 한 사람인, 趙寅永이 친한 사이였으며, 게다가 그는 조선금석학회(朝鮮金石學會)의 리더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 『청성집(靑城集)』의 서문을 썼으며, 아마도 성대중은 인영(寅永)에게 일본에서 가지고 온 다호비(多胡碑)의 탁본을 기증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대중은 『청성집』에서는, 도쿄에 대한 찬사와는 별도로 「然余以其字画之太詭藏之巾旬」라고 하여, 오랜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우연히 송덕문(芝溪)이 이것을 보자, 그는 신기하게도 「漢隸之古法」한 글이라고 말하였다. 그 일로 성대중도 이 비문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조인영(趙寅永)에게 양보하고, 인영(寅永)은 1816(조선 순조18)년에 연행사의 일원으로 북경에 갈 때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지기(知己)가 된 사람들에게 그 쌍구본(雙佯本)을 기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인영은 친구인 김정희에게 이 탁본을 보냈으며, 이것을 입수한 섭지선(葉志詵)도 그것을 보고 그의 저서 『일본잔비쌍구본(日本殘碑雙佯本)』에 실제 있었던 일로서 수록하였다.

그 밖에, 섭지선(葉志詵) 외에도 조지겸(趙之謙), 양수경(陽守敬), 전운룡(傳雲龍) 등이 다호비를 접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섭지선(葉志詵)의 『금석문자칠종(金石文字七種)』에도 다호비의 비문이 각인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陽守敬은 그 친구이자 초대 일본공사인 하여장(何如章)을 통해, 일본에 다시 소개하였다. 최근, 다호비 기념관에 보내져 오는 정보들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廣東省) 산두시(山頭市) 조양구(潮陽區) 면성진(棉城鎮)에 있는 개인 저택 정원(西園)에 다호비 전각면이 전시,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이 정원은 1898년에 착공되었다고 하니, 중국 청조 말기의 문인들이 이 비문이 문화적으로 큰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소중하게 다룬 결과라고 생각된다(16).

이렇게 하여, 다호비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 조선·중국·일본의 문화 교류의 가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었다. 이 시대, 조선통신사가 가지고 돌아간 문물은 조선 국내에서 소중이 다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에서도 후세에게까지 대대로 전해진 것이 서적을 비롯하여 아직 다수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의 유학계(儒學界)의 동향이나 그 평가도 조선의 실학과 학자뿐만 아니라, 중국으로까지 전해졌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앞으로도 조선 통신사의 업적을 서둘러 찾아내야 할 것이다.

## 주석

- (1) 宮崎道生 『新井白石』 吉川弘文館 1988年 二三五~二三七頁
- (2) 李玄植 「燕行使小攷-洪大容의 入燕과 『薊南尺牘』을 중심으로-」 近畿大学文芸学部 紀要『文学・芸術・文化』五一―号 一九九三年六月
- (3) 夫馬進 「朝鮮通信使에 의한 日本古学 認識」 『思想』九八一号 二〇〇六年一月  
夫馬進 씨는 二〇〇六年一月, 교토 대학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에서 「十八世紀의 日朝 學術關係의 轉換-朝鮮通信使와 朝鮮燕行使」에 대해 보고하였다.
- (4) 中野三敏 『近世新崎人伝』 岩波現代文庫 二〇〇四年 二〇三頁 외.
- (5) 『傾蓋集』은 (4)의 中野三敏 씨가 소장한 사본이 유일한 자료인데, 그 사본을 차용하여 주요 부분을 인용하여 소개한 사람이 몇 명 있다. 본 연구도 그 연구들을 참조하였다.
- (6) 조엄의 『海槎日記』, 辛基秀·仲尾宏編 『大系·朝鮮通信使』第七卷 수록본 참조.
- (7) 成大중 『日本録』, 위와 같음.
- (8) 家治의 답신은 『通航一覽』 朝鮮国部七七 「兩國書並び議者信使御暇等·明和度」에 수록되어 있으나, 인장 등은 생략되어 東江의 전각인(篆刻印)은 볼 수 없다.
- (9) 『傾蓋集』에 대해서는 杉村邦彦氏의 「多胡碑의 朝鮮 伝播에 관한 新資料」 『書学書道史研究』十八号 二〇〇八年 이외에 신·로사 「日本 多胡碑의 朝鮮·中国으로의 伝播에 關해서- 『傾蓋集』를 中心으로」 二〇〇九年 京都大学 日本文化交流史 合同 세미나에서 보고됨.
- (10) 金仁경 『日東壯遊歌』 高島淑郎訳 平凡社東洋文庫 三〇八~三一〇頁
- (11) 成大중 『日本録』, 같은 해 三月十一日 대목.
- (12) 이현식 『朝鮮通信使 研究』 思文閣出版 一九九七年 三六一~三六六頁
- (13) 杉仁 『在村文化의 情報 發進과 朝鮮·中国의 多胡碑 文字와 在村學者의 活動』 吉川弘文館 二〇〇一年, 大橋修一 「日·朝·淸의 文物 交流史의 位置 断面, 朝鮮通指使를 中心으로 하여」 『全国大学書道学会研究集録 平成 十五年度』 全国大学書道学会 二〇〇四年, 杉村邦彦 前掲出書 및 『바다를 건넌 多胡碑展-多胡碑의 朝鮮·中国으로의 전파-』 吉井町多胡碑記念館 二〇〇六年
- (14) 高橋道齋·沢田東江 『上毛多胡郡碑帖』의 井上通熙(蘭台) 서문, 1676(宝曆7)년의 연호가 있다.
- (15) 須賀昌五 「高橋道齋와 朝鮮通指使」 『群馬歴史散歩』 第一百八十号, 二〇〇三年
- (16) 多胡碑記念館 『前出書』 외에 「『西園』 築山 洞窟内 『多胡碑』의 模刻」이라고 하는 紹介文과 図版에 그 소개가 있다.

## <전각가 사와다 토코(沢田東江)와 《多胡碑》의 전파>에 대한 토론문

우 정 란(吳正嵐, 南京大)

이 논문은 한중일 삼국의 문헌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1964년 일본 전각가 사와다 토코(沢田東江)와 조선통신사의 교류, 특히 《多胡碑》의 전파와 관련된 활동들에 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습니다. 논문 말미에 부록으로 제시한 사진자료들은 매우 진귀한 것들로서, 《多胡碑》가 한중일 삼국에서 전파되는 궤적을 형상화하여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각사(篆刻史)적 각도에서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교류를 연구하는 시각은 가히 선진적인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도 본 논문을 읽고 많은 소득을 얻었는데, 여기서는 나가오 선생님께 이하 세 가지 작은 문제들에 대해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갑신년 삼월 십이일의 교류에 관해서 본 논문 4페이지에 “성대중(成大中)의 《일본록(日本錄)》에 ‘다음날 두 사람이 비가 오는 가운데, 그들(통신사)을 쫓아가 배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본 논문의 서론에 근거해 볼 때 이 두 사람은 응당 토코와 大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成大中의 《日本錄》 ‘3월 12일’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대년 한천수(韓天壽)와 평영(平英)이 후지사(藤澤)역까지 송별한 사건이고, 《경개집(傾蓋集)》에 실린 동강이 3월 11일 밤에 지은 《정조선학사삼서기서(呈朝鮮學士三書記書)》에도 “한대년(韓大年)과 평자찬(平子燦)이 석별의 정이 깊어, 통신사를 후지사와역까지 따라갔다. 나는 (몸이 약해) 먼거리 여행을 할 수 없는데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서 멀리 떠날 수 없으니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써 동강은 3월 12일에 나가지 못하였고, 나가 송별한 것은 한대년과 평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나가오 선생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스기 히도시(杉仁)선생 등 중국에서의 《多胡碑》 전래상황에 대한 일본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어떤 문헌들에 기초해 이루어지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교류(일본 전각가 沢田東江와 조선통신사의 교류)가 한일 양국의 전각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 篆刻家沢田東江與《多胡碑》的傳播（討論）

吳 正 嵐(南京大)

〇〇先生のご発表は、中日韓三国の文献をつかって1764年に日本の篆刻家沢田東江が朝鮮通信使との交流、とくにたご碑についての活動をふかく研究されたものです。文末に付された画がとても重要です。この絵はたご碑が中日韓三国につたえられた軌跡を示しています。この大作をはいけんしてとても勉強になりました。つぎの問題をちょっとうかがいたいです。

一、甲申年三月十二日の交流について、玉稿の第4頁に“成大中の《日本録》には翌日も二人が雨中をおいかけてきたことも記されている”と書いておられます。玉稿の前文をよれば“二人”とは東江と大年を指しています。しかし成大中《日本録》“三月十二日”條によれば、藤澤驛までみおくりに行くのは大年と平英です。《傾蓋集》にも三月十二日に東江がいけなか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二、杉仁氏等日本の學者は、たご碑の中國への傳播を、どの文献にもとづいて研究しておられますか？

三、この時の交流が韓日篆刻史にどのように影響していますか？

# 「癸未使行團의 大坂滯留와 大典禪師 竺常」

金 聲 振(釜山大 漢文學科)

- I. 序論
- II. 癸未使行時의 大典禪師 竺常과 菴葭堂會
- III. 癸未使行 이후의 大典禪師 竺常
- IV. 結論

## I. 序 論

귀환길에 오른 癸未使行이 大坂에 도착한 직후 발생한 최천중 피살사건으로 인해 사행단은 한 달 동안 大坂에 머무르게 되었다. 남옥등은 사건 직후부터 일본측 문사들과의 詩文唱和를 중단하였으나 필담 및 서신왕래는 금하지 않았다. 大典禪師 竺常이 당시에 필담한 것을 묶어 펴낸 『萍遇錄』도 그 결과물 가운데 하나이다. 『萍遇錄』에는 大坂과 京都를 위주로 한 당시 關西지역 문화계의 흐름이 잘 드러나 있고, 한일양국 지식인들의 지적 성향을 짐작하게 할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이 『萍遇錄』은 한일간의 문화교류 내지 양국 문사간의 문학적 교류를 살펴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萍遇錄』을 집중적으로 다룬 국내의 연구물은 아직 없는 듯하다.<sup>1)</sup> 이는 『萍遇錄』이 일본측 문헌인데다 필담만을 다루었고, 계미사행단의 기록물에서 『萍遇錄』과 이를 찬술한 竺常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은 때문인 듯하다. 성대중은 竺常을 ‘일본 땅의 제일가는 인재’로<sup>2)</sup>, 남옥은 ‘名利로써 처신하는 자가 아닌 사람’<sup>3)</sup>으로, 원중거는 ‘文辭에 있어서도 대개 위인’으로 평하는<sup>4)</sup> 등 竺常에 대해 호의적이기는 하였으나, 竺常이 객관을 처음 찾아 필담을 나눈 것이回程길에 오른 1764년 4월 5일이었고 이내 최천중의 피살사건이 발생해 격의 없는 교류가 어려웠던 것이다.

『萍遇錄』을 쓴 大典禪師 竺常은 귀로의 사행단이 大坂에 머무는 동안 가장 빈번하게 사행단과 접촉한 일본문사이다. 竺常은 당시 大坂의 문화계를 주도한 木世肅과 片山北海, 사행단이 江戶에 갔다 大坂으로 돌아오는 동안 자청해서 사행단을 護從하며 詩文을 酬唱한 京都의 那波師曾 등을 대신해서 사행단과 필담을 나누며 교류를 이어갔다. 竺常은 최천중 피살사건 발생 직후부터 범인인 鈴木傳藏이 사형될 때까지 줄곧 처리 경과를 사행단에게 전하기도 했고, 사건의 전

1) 김영남이 「木村菴葭堂의 繪畫 研究」(석사학위논문, 고려대대학원, 2005)의 V장. ‘조선문사와의 회화교류’에서 ‘菴葭堂雅集圖의 제작’과 관련하여 『萍遇錄』을 거론한 것이 가장 깊이 있게 다룬 예이다. 이밖에 강동엽이 「風流三昧의 生活」(『日本學』11, 東國大日本學研究所, 1992)에서 木村菴葭堂와 조선문사들과의 교류를 다루면서 『萍遇錄』을 다루었고, 구지현이 『계미통신사 사행문학 연구』(보고서, 2006)의 III. 「필담창수집의 서술양상」에서 계미사행과 관련된 필담창수집의 한 예로 『萍遇錄』을 들기도 하였으나 『萍遇錄』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물은 아직 없는 듯하다.

2) 成大中, 『日本錄』 권1, 1764년 5월 6일조.

3) 南玉, 『日觀記』 秋, 1764년 4월 5일조.

4) 元中舉, 『乘槎錄』, 1764년 4월 6일조.

말을 기록해서 사행단에 넘겨주기도 했다. 竺常은 성대중의 청을 받아들여 蒹葭堂會와 관련된 그림과 讚詩에 대해 序文을 지어 사행단에게 증정하기도 하였고, 사행단이 大坂을 떠나 귀로에 오른 뒤에도 이례적으로 南玉등과 두 차례 편지를 주고 받기도 했다. 그리고 사행단이 귀국한 지 2년후에 ‘전례없이’ 시문이 포함된 서한을 雨森芳洲의 아들을 통해 초량의 왜관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한일 양국 문사간의 문학적 교류로서는 보기 드문 예인 것이다. 그리고 1781년에는 幕府로부터 朝鮮修文職을 임명받아 조선과의 외교전반을 총괄하게 되었다. 竺常 자신이 『萍遇錄』에서 자신의 師祖라 칭한 太虛禪師 顯靈이 1682년에 以酌庵의 輪番僧으로 부임한 뒤 100년만에 다시 그 자리를 이어받았던 것이다. 1783년에 2년의 朝鮮修文職 임기를 마치고 京都로 돌아온 竺常은 4년 뒤인 1787년에 將軍承襲이 이루어졌을 때 聘使의 연기를 주장하여 관철시켰으며, 조선조정에 보내는 관련 외교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연기된 통신사의 파견은 1789년 中井積善에 의해 제안된 易地交聘論 등의 우여곡절을 거쳐 1811년 對馬島易地通信으로 시행된다. 이는 竺常이 주장하고 그 시행을 주도한 聘使延期가 조선후기의 마지막 통신사행이 된 1811년의 辛未使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萍遇錄』과 竺常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대상의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1811년의 易地通信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석사학위논문인 「1811年 對馬島 易地通信 研究」<sup>5)</sup>에서조차 竺常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재미사행시 接伴僧인 維天長老 承瞻의 書記를 자원하여 大阪에서부터 江戶까지의 왕복노정에서 통신사 일행을 護行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문창수와 필담을 나누고 이를 『東遊篇』이란 책자로 펴낸 那波師曾의 예에 주목하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sup>6)</sup> 이와는 별도로 재미사행단이 지대한 관심을 표한 바 있는 木村巽齋의 蒹葭堂會와 그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混沌社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sup>7)</sup> 蒹葭堂會가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混沌社의 결성에 이르게 된 데에는 癸未使行團의 大坂체류시 關西지역 문인들과 나눈 문학적 교류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최천중 피살사건 이후 片山北海와 木村巽齋, 那波師曾 등은 객관 출입이 통제되었지만, 竺常은 계속해서 객관에 출입하면서 필담을 주고 받았다. 이것이 필자가 竺常과 그가 쓴 필담집인 『萍遇錄』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筆談과 서신교환을 통한 사행단과 竺常의 문학적 교류, 그리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萍遇錄』까지를 함께 다루어야만 재미사행시의 한일양국 문사간의 교류, 특히 사행단과 關西지역 문사들과의 문학적 교류의 실체를 제대로 구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758년에 蒹葭堂會가 발족된 후 최초의 사업이 竺常의 시집인 『昨非集』을 출간하는 것이었고 <蒹葭堂雅集圖>에 서문을 쓴 것도 竺常이었다. 그리고 竺常이 1764년 4월 5일에 大坂客館을 찾아 처음으로 사행단과 필담을 나누었을 때, “저와 木弘恭輩는 方外에서 막역한 사이이며 오늘 찾아뵙게 된 것도 木氏로해서입니다. 청컨대 조금 틈을 내셔서 木弘恭등과 한 번 조우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신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sup>8)</sup>라고 말한 바 있다. 竺常이 蒹葭堂會의 주요 멤버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混沌社와는 무관해 보인다. 竺常이 蒹葭堂會 및 混沌社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밝히는 것 또한 본고의 목표중의 하나이다.

5) 岩方久彦, 『1811年 對馬島 易地通信 研究』,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대학원, 2004.

6) 拙稿, 「癸未使行時의 南玉과 那波師曾」, 『한국문학논총』 제40집, 한국문학회, 2005. 참조.

7) 拙稿, 「癸未使行時의 筆談唱和와 大阪의 混沌社」, 『한국문학논총』 제54집, 한국문학회, 2010.

8) 竺常, 『萍遇錄』 甲申 四月五日條, “衲與木弘恭輩, 方外莫逆. 今日奉謁, 亦木氏是由, 請少閑暇, 與弘恭等, 周旋一遭, 幸甚.” \*이하 ‘萍遇錄』 4월 5일’식으로만 표기함.

## II. 大典禪師 竺常과 蒹葭堂會

좋은 바람을 기다리며 부산에서 48일을 머물렀던 계미사행단이 부산포를 떠나 佐須浦에 도착한 것은 1763년 10월 6일이었다. 佐須浦에 5일, 府中에서 16일을 포함해서 37일을 대마도에 머무른 사행단은 바람을 기다려 壹岐島에서 19일, 藍島에서 23일을 머물렀다. 23일동안 藍島에 머무는 동안 사행단은 筑州의 서기인 井土周道와 櫛田彥, 嶋村崎, 의원인 龜井魯 등과 시문창화를 했다. 이때의 시문창화를 기록한 것이 『泱泱餘響』으로 龜井魯의 문집에 실려 있다. 남옥은 龜井魯에 대해 “그가 從遊한 자는 이른바 獨嘯菴 永富鳳(龜井魯가 ‘海東의 일인자’라고 함: 원주)과 僧 大潮, 木弘恭 등인데 모두 大坂에 있다.”<sup>9)</sup>고 했다.

龜井魯에 대해 가장 좋은 평가를 내린 사람은 성대중이다. 성대중은 『日本錄』의 第1冊 『槎上記』의 말미에 <書日本二才子事>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실었는데, 성대중이 말한 두 才子 가운데 한 사람이 곧 龜井魯이다.

내가 일본에 이르러 기이한 인재 두 명을 만나 보았는데, 筑州의 龜井魯와 西京의 那波師曾이 그들이다. 魯의 나이 20여세에 개연히 사방을 유력하며 학문을 닦고자 하는 뜻이 있어 서쪽으로 長崎로 가서 官庫에 비장되어 있는 책을 보고 大潮禪師를 스승으로 삼았으며, 동쪽으로 大阪으로 가서는 木弘恭과 福尙脩, 合離를 사귀었으니 弘恭은 곧 蒹葭堂의 주인이다. 그리고 永富鳳을 스승으로 섬겼다. 龜井魯는 이른바 東海의 대학자로 내가 일인자로 지목하는 자이니 시문이 모두 빼어나고 식견과 깨달음은 더욱 기이하다.<sup>10)</sup>

성대중이 말한 大潮禪師는 竺常의 스승이고 木弘恭은 竺常가 교유한 자이니, 사행단은 藍島에서 이미 竺常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사실은 성대중이 大坂의 객관을 찾은 竺常과 필담을 하면서 “제가 전에 筑州를 지나면서 龜井魯를 만나 그의 『東遊集』을 보고 이미 世肅과 麗王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sup>12)</sup>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竺常이 『萍遇錄』에서 世肅이라고 칭한 사람은 蒹葭堂 木村巽齋이고 麗王이라고 칭한 사람은 賴春水の 『在津記事』에 ‘合離麗王’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인물로 北山彰의 『鷄壇嚶鳴』에는 合斗南, 남옥의 『日觀記』<sup>13)</sup>와 元中學의 『乘槎錄』에는 合離, 이덕무의 『淸脾錄』에는 合離·合離王, 이덕무의 『耳目口心書』에는 河曲合離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蒹葭堂會 및 混沌社의 핵심멤버 중의 한사람이다. 성대중이 竺常과의 필담과 <書日本二才子事>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사행단은 藍島에 머무는 동안 龜井魯와의 필담창화를 통해 龜井魯가 사귀었다는 木弘恭과 福尙脩, 合離 등의 蒹葭堂會에 대해 그 대략을 들었던 것이다.

龜井魯와 大潮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중거의 『乘槎錄』 12월 10일조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9) 南玉, 『日觀記』夏, 12월 9일조, “其所從遊者, 所謂獨嘯菴永富鳳, 魯以爲海東一人, 僧大潮·木弘恭, 皆在大坂”

10) 成大中 지음 홍학희 옮김, 『日本錄』, 부사산 비과호를 날듯이 건너, 소명출판, 2006. pp.138-139.

11) 賴春水の 『在津記事』 ‘筑前龜井道載’條에 의하면, 龜井魯가 京都에 일이 있어 大坂을 지나면서 小石元俊의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蒹葭堂 주변인사들과 교유하게 된 것 같다. 龜井魯는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元俊의 집에 머물렀다고 한다. “筑前龜井道 名魯, 號南溟. 有事于京, 過大坂, 寓元俊, 以故交也. ……上京竣事, 又寓元俊”

12) 『萍遇錄』 5월 3일조, “龍淵曰: ‘僕前過筑州, 遇歸龜井魯. 見其東遊集, 已知有世肅麗王輩’”

13) 남옥의 『日觀記』春 「唱酬諸人」條에는 合離라는 이름 밑에 ‘字는 麗玉, 號는 斗南이다.’라고 부기되어 있다.

대개 龜井魯는 시를 筑前州의 승려인 元皓에게서 배웠는데 元皓는 字를 月枝라 하고 號를 大潮라고 한다. 大潮는 護園에게서 배웠다. 護園은 성명을 物雙柏一이라고 하고 號를 徂徠라고 하는 자인데 처음으로 명나라의 시를 얻어 이로 인해 문호를 크게 열었다. 獨嘯菴이라는 자가 그 문인이다. 獨嘯는 이름을 永富鳳이라고 한다.<sup>14)</sup>

남옥은 大潮禪師가 大坂에 있다고 하였으나 成大中은 龜井魯가 長碕에 가서 大潮禪師를 스승으로 삼았다고 했고, 元中擧는 筑前州의 승려라고 하였다. 하지만, 大潮禪師는 肥前州(지금의 長碕縣) 龍津寺의 化霖에게서 법통을 이었고 竺常의 『昨非集』에 <送大潮和尚歸肥前>라는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성대중이 말한 것처럼 長碕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禪僧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大潮禪師는 京都에 있는 黃檗山萬福寺에 중용되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京都에 자주 왕래했고, 竺常의 시는 大潮禪師가 1750년에 京都에서 肥前으로 돌아갈 때 쓴 것이다. 1750년이라면 龜井魯가 8세, 竺常은 32세, 大潮는 75세가 되던 해이다. 그후 계미사행단이 藍島를 떠나 京都로 향하던 1765년 1월에 竺常은 大潮禪師의 90세 탄신을 맞아 祝序를 썼다.<sup>15)</sup> 이렇게 볼 때 竺常은 大潮禪師가 京都 黃檗山에 머물 때에, 그리고 龜井魯는 大潮禪師가 京都에서 肥前으로 돌아간 뒤에 그로부터 시와 학문을 배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어쨌든 사행단에게 가장 먼저 일본의 대표적 재사로 확실하게 각인된 龜井魯가 중용한 사람들이 木弘恭과 福尙脩, 合離 등 蒹葭堂會의 주요 멤버들이고 그의 스승이 大潮禪師인데 大潮禪師에게서 시를 배운 竺常 역시 蒹葭堂會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행단은 한달여 뒤인 1764년 1월 13일에 牛窓에 정박하게 되는데, 이곳의 관소에서도 備前州의 文學인 井潛과 世子侍讀이며 무진사행시에 창화를 한 바 있는 近藤篤, 泮宮文學인 和田邵 등과 筆談唱和를 했다. 이때의 筆談唱和를 기록한 것이 『甲申槎客萍水集』이며, 이와는 별도로 井潛이 자신의 필담창화를 위주로 기록한 것이 『牛渚唱和集』<sup>16)</sup>이다.

秋月：“大阪과 江戸 사이에 문장하는 선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원컨대 그 성명을 듣고자 합니다.”

潛：“大阪은 제가 잘 알지 못하니 미루어두기로 하지요. 들은 바대로 말씀드리자면 平安에는 岡白駒·武欽繇·芥煥·清絢 등이 있고, 東都에는 岡孝先·松維時·餘承裕·宇惠·服服元雄·井孝德 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밖에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sup>17)</sup>

大坂과 京都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牛窓에서의 필담임에도 사행단은 井潛에게서 竺常은 물론 木弘恭과 片山北海 등, 蒹葭堂會와 관련된 어떠한 말도 듣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성대중과 김인겸이 龜井魯등과의 필담을 떠올리며 필담을 이어갔다.

龍淵：“芥煥과 清絢은 播摩州의 清絢입니까?”

潛：“그렇습니다.”

14)원중거 지음 김경숙 옮김, 『乘槎錄.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p.173

15)小島文鼎, 『大典禪師』, 同朋社, 1927. pp.173-174 참조.

16)井上四明이 편찬한 『牛渚唱和集』은 上下 2권으로 된 寫本으로, 九州大學韓國研究센터의 年報 Vol.9(2009.3)에 자료로 소개된 바 있다.

17)井上四明, 『牛渚唱和集』, “秋月曰; ‘大阪江戸之間, 有文章之士幾人否? 願聞其姓名.’ 潛曰; ‘大阪則不佞之所不熟, 姑且舍之. 如以所聞, 平安則岡白駒·武欽繇·芥煥·清絢等, 東都則岡孝先·松維時·餘承裕·宇惠·服服元雄·井孝德輩. 其他僕未知之.’”

龍淵: “『善隣風雅』는 일찍이 그 서문을 보았습니다. 大阪城에 號가 獨嘯菴인 永富鳳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대는 이 사람을 아십니까?”

潛: “생각지 않게 清絢의 이름이 멀리 大國에까지 알려졌군요. 공의 말로 보아 대개 그 사람이 귀히 여길 만한 것 같습니다. 永富鳳은 저도 그를 알지 못합니다.”

退石: “筑前州의 龜井道哉라는 사람을 그대는 아십니까?”

潛: “또한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sup>18)</sup>

사행단의 기대와는 달리 井潛등은 蒹葭堂會에 대한 것 뿐 아니라, 龜井魯가 말한 京都의 문인들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리고 永富鳳은 물론 龜井魯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결국 사행단은 藍島에서 龜井魯를 통해 蒹葭堂會에 대해 들은 이후로는 大阪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여전히 木弘恭과 蒹葭堂會에 대해서는 달리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大坂에 입성한 후 객관에서 木弘恭을 만난 남옥은 龜井魯의 편지를 永富鳳에게 전해달라고 木弘恭에 부탁했다. 木弘恭이 永富鳳과 연락이 되는 사이임을 알고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남옥의 『일관기』에는 언급이 없으나 원중거의 『乘槎錄』 1월 25일 기록에 ‘獨嘯라는 사람도 또한 병을 칭하면서 오지 않았다.’는 구절이 있다. 남옥이 木弘恭을 처음 만난 것은 1월 22일이고 永富鳳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木弘恭에게 부탁한 것은 1월 24일인데 1월 25일에 永富鳳이 병을 칭하며 오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이는 아마도 木弘恭이 永富鳳에게 편지를 전하면서 다음에 永富鳳과 함께 오겠다는 언질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중거는 이러한 언급에 이어, 蒹葭堂會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다.

시는 合離가 남달리 뛰어난 巨擘이었다. 木弘恭은 圖章으로 이름이 났는데 바람에 나부끼듯이 뛰어난 재주가 있었으며 浪華에서 가장 좋은 술집에서 술을 챙겼다. 또한 長崎島로부터 책을 구매하는데 南京의 책을 매우 많이 샀다. 강가에다 집을 짓고 蒹葭藏이라는 현관을 걸어두었는데 책이 삼만권에 이른다고 한다. 福尙脩은 의원인데 시를 잘했다. …… 木世肅과 合離와 福尙脩와 大江資衡은 우리들을 기쁘게 접대하고자 하여, 賈島가 신라 사신을 접대하면서 배를 부렸다는 옛일로써, 사신들을 충족시켰다는 이름을 구하고자 하여, 三使의 배에 나누어 올랐다가 우리 네 사람을 만나지 못하자 슬프게 돌아갔다. 世肅은 柳營長을 만나게 되어 몇 마디 필담을 하고 또 우리들에게 통해질 것을 스스로 구하였다. 우리들은 이미 龜井魯를 통해 그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다.<sup>19)</sup>

『승사록』의 이 기록에는 남옥의 『일관기』에서와 마찬가지로 木弘恭의 藏書와 致富, 蒹葭堂, 龜井魯를 통해 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 등이 언급되어 있다. 合離와 福尙脩가 蒹葭堂을 중심으로 木世肅과 교류했다는 언급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大江資衡이 木世肅과 合離와 福尙脩 등과 함께 三使의 배에 오르는 이벤트성 행사까지 벌였다는 것 등에 대한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앞서 사행단이 大坂에 도착한 후 첫 번째로 필담을 나눈 1월 22일에, 남옥은 이날에 나눈 필담을 나눈 일본 문사들을 별도로 『일관기』에 열거하였다. 이날 남옥이 만난 일본측 문사는

18)井上四明의 앞의 책, “龍淵…曰:‘芥煥·清絢是播摩清絢耶?’. 潛曰:‘然’. 龍淵曰:‘善隣風雅, 曾見其序文矣’. 又曰:‘大阪城有永富鳳號獨嘯菴者, 君知之否?’. 潛曰:‘不計, 清絢之姓名, 遠聞於大國. 就公之言, 盖見其人可貴矣. 永富鳳, 不佞未知其人’. 退石曰:‘筑前龜井道哉者, 君知之耶?’. 潛曰:‘亦未知其人.’”

19)원중거 지음 김경숙 옮김 전개서, pp.240-241

源文虎, 南川維遷, 奧田元繼, 木弘恭, 左詢, 長維往, 齊震, 芥煥, 芥元澄, 井高登, 堀玄圭, 稻其昌, 內山之明, 富維章, 石方董, 岡王謙, 福尙脩, 片猷, 僧義端 등이었는데, 남옥은 유독 木孔恭에 대해서만 ‘木弘恭의 字는 世肅, 號는 蒹葭堂이다. 浪華 위에 堂을 열고 중국의 奇書들을 쌓아 놓고 해마다 천여 종씩 사들였다. 날마다 사방의 시와 술을 즐기는 무리들을 모았다. 호걸스러운 선비로 이름이 났으니 곧 龜井魯가 칭찬한 사람이다.’<sup>20)</sup>라고 상세하게 細注를 달아 설명하였다.<sup>21)</sup> 이밖에 남옥은 『芥園問槎』라는 필담창화집을 남기고 있는 芥煥에 대해서는 ‘字는 彦章, 號는 丹丘. 글로 이름이 났다. 곧 井潛이 칭찬한 사람이다. 西京에 거한다.’라 하였고<sup>22)</sup>, 木弘恭과 더불어 蒹葭堂會의 주축멤버인 片猷에 대해서는 “號는 北海. 越後人이다. 글 잘하는 것으로 이름이 났다.”<sup>23)</sup>라고 기록하였다. 이날부터 木弘恭과 蒹葭堂, 그리고 ‘시와 술을 즐기는 사람’으로 일컬어진 蒹葭堂會가 사행단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날의 『일관기』 기록에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木弘恭과 富維章, 福尙脩, 片猷 등 蒹葭堂會의 주요 멤버를 포함한 19명이 기록되어 있으나, 원증거는 『승사록』에서 이날 필담을 나눈 사람이 80여명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芥煥과 그 아들 元澄, 木弘恭과 合離, 福尙脩, 南川維遷 등의 이름만을 기록하였다. 『일관기』에 없는 合離가 『승사록』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 대신 片猷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 두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이날의 필담창화에는 蒹葭堂會의 木弘恭과 合離, 富維章, 福尙脩, 片猷 등 5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남옥과 원증거 공히 蒹葭堂會에 대해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필담창화에 임했다가 점차 木世肅과 蒹葭堂會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듯하다.

『일관기』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날인 1월 23일의 필담창화에는 北山彰이 계미사행의 大阪 迎接 역할을 맡았던 岸和田藩의 藩主 岡部氏의 부탁을 받고 片猷와 함께 필담창화를 하였는데, 이를 기록한 것이 『鷄壇嚶鳴』이다.<sup>24)</sup>

문: “그대는 이 5인을 아십니까? 和韻詩를 보내고자 하나 보낼 인편을 얻지 못해서일 뿐입니다.”

답: “木世肅과 合斗南(=合離), 福正修(=福尙脩)는 七僧(=北山皓)과 우의가 좋으나 그 나머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문: “『明史』가 中原에서 과연 전해오는 것이 있습니까? 사라지고자 하는데 그대가 나를 위해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밖에 『三才圖會』 『本草綱目』도 사라지고 싶은데 그 값은 얼마나 됩니까?”

답: “『明史』는 중국 배에 실려 온 것이 혹 있을 수도 있으나 값이 매우 비쌉니다. 『三才圖會』는 日本板은 없고 『本草綱目』은 日本板과 中國板이 있는데, 中國板이 역시 적습니다. 日本板은 정밀한 것과 조잡한 것의 두 종류가 있는데, 정밀한 것은 80錢쯤 하고 조잡한 것은 50錢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나라에는 판본이 있습니까?”<sup>25)</sup>

이 필담에서 묻는 사람은 김인겸이고 답하는 사람은 北山彰이다. 北山彰은 남옥등과 필담창화

20)남옥, 『일관기』 秋 1월 22일조, “木弘恭, 字世肅, 號蒹葭堂. 開堂於浪華之上, 畜中國奇書, 歲買千餘種, 日會四方詩酒之徒, 以豪士名, 龜井魯所稱也.”

21)원증거 역시 같은 날의 기사에서 “木弘恭은 字가 世肅인데, 바로 龜井魯가 말했던 바의 蒹葭子란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원증거 지음 김경숙 옮김, 전개서, p.239

22)남옥, 『일관기』 秋 1월 22일조, “芥煥, 字彦章, 號丹丘, 以文名. 卽井潛所稱也. 居西京”

23)남옥, 『일관기』 秋 1월 22일조, “片猷, 號北海. 越後人. 有文名”

24)日本 大阪府 松原市 歴史ウォーク No.75 <詩文や儒学に秀でた橘庵>, <http://www.city.matsubara.osaka.jp/>

25)北山彰, 『鷄壇嚶鳴』, “語次出五人和章云-金退石. 君知此五人否? 欲以和章送之, 而不得信便故耳. 答-北山彰. 木世肅合斗南福正修, 與七僧友善, 其他僕不知之. 問-金退石. 明史, 自中原, 果有來傳者否? 欲買去, 君能爲我宜覓否? 其他三才圖會本草綱目, 亦買去, 其價幾? 答-北山彰. 明史華舶所載來, 或有之, 價甚貴. 三才圖會, 無和板. 本草綱目, 桑華俱有, 華板亦少. 和板精粗有二, 精者許八十錢, 粗者五十錢. 貴邦無板本否?”

를 하다가 그의 중형제인 北山皓와 함께 병을 이유로 필담에 참여하지 않은 김인겸의 방으로 찾아가 필담을 나누었다. 김인겸이 말한 5인 가운데 세 사람은 蕪葭堂會의 주요 멤버였다. 北山彰이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北山皓와 우의가 좋다’라 한 것으로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北山彰은 木孔恭을 비롯한 蕪葭堂會 멤버들과 교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필담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김인겸은 『明史』와 『三才圖會』 『本草綱目』처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책들을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재미사행단을 포함한 조선의 지식인들은 長崎에 직접 가서 중국의奇書들을 천여 권씩 사 모으고 있다는 木孔恭과 그가 주도하는 蕪葭堂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豬口篤志는 『日本漢文學史』에서 江戸時代의 關西의 詩壇을 이끈 宇野明霞의 門下에 龍草廬와 片山北海, 釋大典(=筑常) 등이 있으며, 龍草廬의 제자로는 大江玄圃, 片山北海의 제자로는 柴野栗山, 尾藤二洲, 古賀精里, 賴春水 등이 있다고 하였다.<sup>26)</sup> 豬口篤志가 말한 大江玄圃는 남옥의 ‘唱酬諸人’조에 大江資衡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로, 玄圃는 그의 호이며 字는 稚圭이다. 사신들을 충족시켰다는 이름을 구하고자 하여 뱃놀이를 하면서 木世肅이 合離, 福尙脩, 大江資衡 등과 함께 했다는 것인데, 木世肅과 合離, 福尙脩 등은 蕪葭堂會의 주요 멤버들이니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 京都에 사는 大江資衡이 함께 한 것은 이처럼 宇野明霞를 정점으로 한 關西地域의 학맥이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豬口篤志는 龍草廬와 그 문하인 大江資衡 등과 함께한 詩社를 幽蘭社라고 칭한다고 했다. 이는 大江資衡이 蕪葭堂會 멤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混沌社와는 다른 그룹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混沌社는 大坂을 중심으로 한 詩社인 반면, 幽蘭社는 京都를 중심으로 한 詩社였다. 그런 때문인지 京都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竺常과 那波師曾, 大江資衡 등은 모두 反徂徠學의이라는 사상적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混沌社의 멤버로 활동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大江資衡은 1월 24일에 大坂의 객관에서 조엄, 이인배, 김상익 등 三使와 남옥과 성대중, 김인겸, 원중거 등 제술관 및 3書記 외에 李佐國, 南斗昊, 金相玉 등 醫官 및 裨將과 唱和를 하였다. 그리고 江戸에서 돌아오는 길에 京都의 객관에서 남옥과 성대중, 김인겸, 원중거 외에 李彦瑱, 李佐國, 李梅, 趙東觀, 崔壽仁, 金應錫, 洪聖源, 李彦佑, 金有聲, 洪善輔, 劉弘道, 曹學臣, 梁榕 등과 시를 贈答하였다. 조선측 문사 22명과 시문을 주고 받은 셈이다. 이렇게 大江資衡이 조선측 문사들과 필담창화한 것을 묶어 편찬한 책이 『問佩集』인데, 여기에는 大江資衡이 조선측 문사들과 창화한 詩文 97首와 啓言 4篇이 실려 있다. 그런데, 京都에서의 필담창화시 大江資衡은 성대중에게 시를 주면서 “지난번에 木世肅에게 부탁하여 거친 시를 드렸는데 좋은 화운시를 내려주셨습니다.”<sup>27)</sup>라 하고, 원중거에게 시를 주면서도 “접때에 木世肅에게 부탁하여 비루한 시를 드렸는데 使行이 동쪽으로 간 다음에 삼가 좋은 화운시를 받게 되었습니다.”<sup>28)</sup>라고 하였다. 또한 남옥은 大江資衡에게 주는 시에 ‘木世肅君에게 맡겨 전달한다’라는 副題를 단 후 “仙家の玄圃가 어디 있음을 아노니 / 멀리로 蕪葭堂에게 기대어 뒤늦게 풍류를 보내노라”라는 구절로 尾聯을 썼다.<sup>29)</sup> 이 시에서 ‘遙倚蕪葭’라 한 것은 남옥이 아마도 大江資衡을 蕪葭堂會의 일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용한 문구일 것이다.

26) 豬口篤志, 『日本漢文學史』, 角川書店, 1984., pp.305~310

27) 大江資衡, <用前韻呈成龍淵>, 『問佩集』, (『和韓雙鳴集』 卷1, 平安書肆.), “向者, 托木世肅, 呈蕪詞, 辱賜高和”

28) 大江資衡, <用前韻呈元玄川>, 앞의 책, “曩者, 托木世肅, 呈鄙詞二章, 文旆東行之後, 欽領高和”

29) 南玉, 『酬大江玄圃 憑木君世肅傳達』, 앞의 책, “仙家玄圃知何在, 遙倚蕪葭送晚風” 이 시는 남옥의 『日觀唱酬』中에 副題 없이 그대로 실려 있다.

往路의 사행단이 大坂客館에 머무는 동안 필담창화를 한 일본문사들의 중심인물들은 蒹葭堂會 멤버들이었는데, 歸路의 사행단이 京都를 떠나 大坂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탄 후 처음으로 大坂 경내에 들어왔음을 실감하게 하는 것 역시 蒹葭堂會와 관련된 일이었다.

木弘恭과 福尙脩가 인장을 새겨서 보냈다. 이는 우리가 행차하는 중에 여러 인장으로 하나의 印譜를 만들고 合離가 그 서문을 쓴 것이었다. 가히 그 부지런하고 신의 있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이들이 ‘신의 있다’고 한 것은 사행단이 大坂城에 머무르던 1월 24일에 남옥이 木世肅과 福尙脩가 인장에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歸路에 한두 개 새겨서 달라고 했는데, 이를 어김없이 지키고 또 미리 印譜까지 만들어 둔 것을 말함이다.

사행단은 4월 5일에 大坂城에 도착한 후 이내 다시 필담창화를 하였다. 남옥의 『일관기』에 기록된 일본측 문사들은 釋竺常, 西翼, 奥田元繼, 衢貞謙, 木弘恭, 河子龍, 合麗王, 福尙脩, 安井屬玉, 瀧怨, 崖弘毅, 鳥宗成, 源文龍, 膝邦, 西田思明, 伴直治, 西熙, 釋水月, 館屯, 菅繼明 등이다. 釋竺常이란 이름이 필담창화를 한 사람들의 첫머리에 올라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萍遇錄』에 따르면 竺常은 木弘恭, 子玄 등과 함께 객관을 찾았다. 竺常은 사행단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후, 이내 “저와 木弘恭輩는 方外에서 막역한 사이이며 오늘 찾아뵙게 된 것도 木氏로 해서입니다. 청컨대 조금 틈을 내셔서 木弘恭등과 한 번 조우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신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습니다.”<sup>31)</sup>고 말했다. 이어 성대중이 木弘恭과 필담을 하다가 말이 蒹葭堂의 일에 미치자, 竺常은 “浪華의 蒹葭는 國風에도 실려있으니 世肅이 堂을 이렇게 이름한 것은 참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海內에서 시와 문장으로 酬贈한 것이 천백으로 헤아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름이 이역에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世肅의 光榮이 더할 나위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sup>32)</sup> 필담을 마친 竺常은 木世肅의 집에 갔다가 다음날 다시 객관을 찾아 필담창화를 했다. 이날 필담창화에 참여했던 일본문사들이 30여인이나 되었기 때문에, 모두 넓은 대청마루에 나가 대열을 이루어 필담창화를 했다. 이때 竺常과 子玄, 木世肅, 河子潛이 한 대열을 이루어 남옥과 성대중의 옆에 있었다.<sup>33)</sup> 이날 寒疾로 인해 객관에 오지 못한 片山北海가 이전에 성대중에게 시를 증정한 것에 대해 竺常을 통해 화답시를 청하였다. 이때 竺常은 ‘내 친구 片孝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豬口篤志가 지적한 것처럼 片山北海와 竺常 공히 宇野明霞의 제자였던 때문으로, 竺常이 片山北海를 ‘吾友’라고 칭했던 것이다.

이러한 필담에 이어 성대중과 竺常은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竺常: 天和때의 通信 때에 翠虛 成先生이란 분이 있었는데, 공은 그 집안과 어떻게 되십니까? 나의 師祖이신 太虛禪師께서 당시 以酌庵 住職으로 있으면서 사신을 맞이해서 함께 주선을 했습니다. 詩들이 지금까지 절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龍淵: 翠虛선생은 저의 從曾祖이십니다.

30) 南玉, 『日觀記』秋 卷8, 4월 4일조, “木弘恭福尙脩, 刻送印章. 仍以我行中, 諸印爲一印譜, 合離爲之序. 可見其勤而有信.”

31) 『萍遇錄』 4월 5일條, “衲與木弘恭輩, 方外莫逆. 今日奉謁, 亦木氏是由, 請少閑暇, 與弘恭等, 周旋一遭, 幸甚.”

32) 앞과 같은 곳, “龍淵與木世肅語, 及蒹葭堂事, 余曰; ‘浪華蒹葭, 著於國風, 世肅名堂, 良有以也. 海內贈詩如文者, 以百千數. 然今得流名于異域, 寔諸公之賜也, 卽世肅光榮莫過焉’”

33) 『萍遇錄』 4월 6일조, “與子玄詣館. 是日人士, 來爲唱酬者, 三十有餘人, 故皆出在廣堂. 余與子玄·世肅·河子潛, 爲一隊, 在秋月龍淵傍.”

竺常: 명문가이시니 높일 만합니다. 저는 본래 官刹에 있었습니다. 병이 많아서 물러나 江湖에 노닐었는데, 일찍이 浪華에 있을 때에 木弘恭등에게 護從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京都의 동쪽에 살고 있는데, 靑山을 마주하고 綠水를 두르고 있어 공들을 한번 놀러 오게 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sup>34)</sup>

竺常이 말한 ‘天和때의 通信’이란 숙종8년(1682)에 있었던 壬戌使行을 가리킨다. 이때 성대중의 從曾祖父되는 成琬이 제술관으로 파견되었다. 竺常의 祖師라는 太虛禪師는 법명이 顯靈이며 相國寺 慈雲庵에 있다가, 1682년에 以酌庵의 輪番僧으로 임술사행 당시 사행단을 맞이해서 창화를 한 승려이다. 太虛禪師의 법통을 이어받은 승려가 獨峰和尚이며, 獨峰和尚의 법통을 이은 이가 大典禪師 顯常(=竺常)이다.<sup>35)</sup> 임술사행시에 제술관이었던 성완의 종중손인 성대중과 以酌庵 輪番僧이었던 太虛禪師의 師孫인 竺常이 大坂客館에서 필담을 주고받는 장면도 경이로운 일 이거니와, 竺常이 객관을 방문하기에 앞서 壬戌使行時의 제술관은 물론 당시에 창화를 주고받은 시문의 소재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음은 놀라운 일이다. 竺常은 이에 앞서 자신이 木弘恭輩와 방외에서 막역한 사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木弘恭’이라 하지 않고 ‘木弘恭輩’라고 하더니 여기에서 다시 ‘木郎輩’라고 하였다. 이는 竺常이 자신이 菴葭堂會의 일원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竺常은 이 필담에 이어 元曉·慧灌·退隱·松雲 등을 거론하며 조선의 高僧과 名刹, 그리고 宗派 등에 대해 물었고 성대중이 石屋-太古-幻庵-龜谷-正心-智嚴-靈觀-休靜-鞭羊·松雲으로 이어지는 佛家の 법통을 말했으며, 약간의 논쟁이 있었다. 竺常이 화제를 돌려 退溪의 流風에 대해 묻자, 원중거가 간단히 답을 한 후 퇴계의 뒤에 율곡이 있다면서 시호와 함자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는 이내 竺常이 화제를 돌려 성대중에게 木弘恭이 전날 부탁한 문장에 대한 비평을 부탁하였다. 이날 竺常은 하천의 칭호, 『皇華集』에 실려 있는 서거정등의 詩文唱和, 산천에 대한 제사, 성명과 본관, 雨森芳洲의 학술문장에 대한 견해, 조선의 과거제도, 品階 등에 간단히 물었고 사행단 역시 간단히 답을 했다. 竺常은 이어 趙東觀, 李彥瑱과 品階와 처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子玄·木弘恭과 객관을 나왔는데, 다음날 다시 객관에 갔다가 최천중 피살 사건으로 인해 저지당하였다.

원중거의 『승사록』에는 竺常이 최천중의 피살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4월 8일에 객관에 들어와 최천중 사건과 관련된 필담을 나눈 것으로 되어 있고 필담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으나, 『萍遇錄』에는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필담기록이 전혀 없다. 그런데 『萍遇錄』의 서문에 “변고를 만나 갑자기 禁絶되었다. 얼마 안 있어 高官의 무리에 이름을 끼워 겨우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sup>36)</sup>는 구절이 있고, 4월 7일의 기록에 이어 “내가 돌아가 세숙의 집에 있는데 하루는 宏公(=周宏)이 와서 말하기를, ‘紫衣僧의 문하인들은 객관에 왕래할 수 있습니다. 禪師께서도 또한 응당 이름을 끼워 門禁을 푸십시오.’라 하였다.”<sup>37)</sup>라는 구절이 있다. 周宏이 말한 紫衣僧이란 加番長老僧<sup>38)</sup>을 말하는데, 당시에 竺常 역시 加番長老僧인 維天承瞻과 마찬가지로 相國寺에 적을

34) 『萍遇錄』 4월 6일조, “余曰: ‘天和通信, 有成翠虛先生者, 公豈其家耶? 吾師祖太虛, 時住以酌庵, 爲迎賓, 相與周旋. 詩什于今藏在寺云.’ 淵曰: ‘翠虛先生, 僕之從曾祖也.’ 余曰: ‘名家可崇也. 衲本住官刹, 以多病謝遊江湖, 曾在浪華, 爲木郎輩所檀護. 現今占居京洛之東, 面以靑山, 帶以綠水, 恨不得公等一遊.’”

35) 竺常은 京都 五山禪林의 한 지파인 臨濟宗楊岐派 내의 佛光派-佛國派에서 갈라져나온 大慈門派에 속하며, 그 계보는 ‘無求周仲-瑞溪周鳳-默堂壽昭-子建壽寅-香甫慶集-玉英慶瑞-太虛顯靈-獨峰慈秀-梅藏顯常’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의 梅莊顯常이 竺常의 법호이며, 이 계보상 太虛顯靈이 梅藏顯常의 사조가 되는 것이다. 玉村竹二, 『五山禪林宗派圖』, 思文閣出版, 1985. p.195 참조.

36) 『萍遇錄』(序), “又遭有變, 遽爾禁絶. 尋廁名紫衣之徒, 稍得往來.”

37) 『萍遇錄』 4월 7일조, “余回在世肅家, 一日宏公來語曰: ‘紫衣門下人, 得往來館中, 師亦當須廁名, 以解門禁.’”

38) 加番長老: 통신사 일행을 호행하기 위해 幕府에서 파견한 승려로 接伴僧이라고도 한다. 『增訂交隣志』 제5권 「志

두고 있었으므로 維天承瞻의 문하라는 이름을 빌어 객관에 출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원중거가 『승사록』 4월 8일조에 ‘변고가 일어난 뒤 酬唱과 응접을 폐했고 대마도인들도 또한 밖에서 막아, 묻고 듣는 것이 모두 막혔다. 다만 승려 무리들이 때때로 왔을 뿐이다. 竺常이 이날 들어왔다.’고 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승사록』의 이날 기록에는 ‘周遵 무리들이 말하기를’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리고 4월 12일과 4월 13일에는 周奎, 4월 15일에는 周遵과 周宏, 그리고 以酌庵 輪番僧 守瑛長老<sup>39)</sup>의 도승인 心緣과 通節 등의 이름이, 4월 17일에 心緣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남옥의 『일관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그러다 4월 18일 저녁에 최천중의 살해범인 傳藏이 丹波州에서 압송되어 와서 하옥되었으며 19일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최천중의 피살 사건 이후에도 紫衣僧의 도승들은 계속 객관을 왕래하였으나 竺常은 어느정도 날짜가 지난 후에 周宏의 조언에 따라 객관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최천중 피살사건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선 4월 20일에야 竺常 등과의 필담이 재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龍淵: 근일에 계속해서 蒹葭堂에 있었습니까? 매양 周宏·周遵 등에게 부탁해서 같이 올 수 있도록 매개해 달라고 하였으나 門禁이 풀리지 않아 구름같은 종적 또한 막혔습니다. 어제 편지를 보니 이미 동쪽으로 돌아갈 뜻을 가진 듯하여, 배에 오르기 전에 한 번 얼굴을 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지척을 떨어져도 생각은 도리어 간절한 것인데 오늘 이렇게 와주시니 실로 뜻밖의 일이라 얼마나 위로가 되겠지요. 木世肅은 변함없이 평안하며 承明(=福尙脩)과 斗南(=合離) 같은 사람들도 날마다 함께 따라다닙니까? 좋아하면서도 볼 수 없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竺常: 저는 前日 이래로 계속해서 蒹葭堂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것 없이 공들 외에는 입에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인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관문을 뚫을 수가 있었는데 世肅등은 다만 변함없이 목말라 할 따름입니다. 斗南과 承明 역시 때때로 돌아갔다가는 오고하지만 그 마음은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sup>40)</sup>

인용된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성대중은 계속해서 蒹葭堂會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성대중이 木弘恭에게 蒹葭堂에서의 모임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거기에 福尙脩와 合離 등이 시나 발문을 써주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해둔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竺常이 계속 蒹葭堂에 있었는지, 그리고 木弘恭과 福尙脩, 合離 등이 계속 어울려 다니는지를 물었던 것이다. 최천중 피살사건 이후 竺常과 여타 蒹葭堂會 멤버들은 객관의 출입이 통제되었지만, 을 비롯한 周宏등은 接伴僧의 문도라 하여 출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성대중은 이들에게 竺常과 같이 올 수 있도록 부탁하는 한편 편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성대중은 4월 9일과 14일에 竺常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周宏을 통해서 竺常에게 전달했는데,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는 모두 『萍遇錄』 下卷에 실려 있다.

」 「三使臣私禮單」조에 ‘護行長老 2인 - 한 사람은 以酌庵長老이고, 다른 한 사람은 加番長老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加番長老僧은 紫衣를 입었으므로 周宏이 ‘紫衣’라 한 것이다. 계미사행시의 加番長老僧은 1742년~1744년과 1752년~1754년 두 차례에 걸쳐 對馬島의 以酌庵 輪番僧을 역임한 바 있는 相國寺 巢松軒의 維天承瞻이었다. 竺常 역시 相國寺의 慈雲庵에 있었으므로 維天承瞻의 徒僧인 周宏이 竺常에게 ‘紫衣僧의 문하’라고 하고 객관에 출입해보라고 권했던 것으로 보인다.

39) 守瑛長老는 東福寺 소속으로 號는 玉嶺이다. 1748년에 65대, 그리고 1764년에 74대 以酌庵의 輪番僧이 되었다. 上村觀光, 『禪林文藝史譚』, 大鏡閣, 1919. pp.504-505 참조.

40) 『萍遇錄』 4월 20일조, “龍淵曰: ‘近日連在蒹葭堂否? 每托宏·遵輩, 每與同來, 而門禁未解, 雲蹤亦阻. 昨見惠札, 意已東歸, 因知登船之前, 容有一面, 而尺地睽違, 懷想徒切, 今日貴臨, 實是望外, 何等慰幸. 世肅一向平安, 而承明斗南輩, 日與追隨否. 愛而不見, 如何.’ 余曰: ‘衲前日以來, 連在蒹葭, 日無它談, 口公等不置. 衲以緇衣之宜, 且得透關, 世肅輩, 只一向飢渴耳. 斗南承明, 亦時還往, 心亦無二.’”

宏師(=周宏)이 지니고 온 편지가 이르렀기에 열 번이나 받들어 읽었습니다. 뜻은 진실되고 말은 아름다워 사담으로 하여금 자꾸만 읽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宏師가 말하기를, “公禁이 비록 엄하기는 하지만 장로의 門徒에 이름을 끼워 넣으면 출입의 편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응당 찾아뵙고 주린 회포를 풀면 다행일 것이라 또한 그때를 기다립니다.<sup>41)</sup>

이 편지는 筭常이 4월 16일에 周宏을 통해 성대중에게 보낸 것이다. 이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서, 최천중 피살사건으로 인해 門禁이 엄해진 후로 周宏에게 편법을 듣게 된 4월 16일까지는 객관에 출입하지 못했던 것 같다. 성대중이 4월 9일에 筭常에게 보낸 편지의 뒤에 ‘7일에 客館에 이르렀으나 들어가지 못해서 짧은 편지를 써서 龍淵에게 부쳤는데 9일에 이러한 답이 있게 된 것이다.’<sup>42)</sup>라고 쓴 것으로 보아서도 그러하다. 筭常은 4월 16일에 성대중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가 비록 구름이나 물결처럼 떠돈다고는 하지만 또한 자못 아름다운 동산이 있으니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어 곧 배타고 돌아 갈 것입니다. 돌아가기 전에 꼭 한번 찾아뵙고 싶으니 해량하소서.’<sup>43)</sup>라는 말로써 곧 京都로 돌아갈 것이며 京都로 가기 전에 한번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용한 필담 중에 있는 ‘동쪽으로 돌아갈 뜻’이란 바로 이를 말한 것이다.

남옥과 원증거가 筭常과 한두 차례 필담을 나눈 후, 성대중이 다시 筭常과 이렇게 말을 주고 받았다.

龍然:“접때에 世肅에게 편지로 부탁을 해서 浪華의 봄날에 새벽이 밝아오는 것과 蕪葭堂에서 우아한 모임을 갖는 것을 그려달라고 하고 스님과 麗王, 承明한테는 혹은 시로써, 혹은 跋로써 써달라고 했는데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世肅은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미 초안을 잡았는지요, 그리고 스님께서도 원고를 써 놓으신 것이 있는지요. 서쪽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는 얼굴을 보려 해도 만리길이니 이렇게 여러 차례 말하는 것입니다.”

余:“圖畫 한 건은 世肅과 저희들이 이미 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世肅이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으니, 행차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sup>44)</sup>

‘蕪葭堂에서의 우아한 모임’이란 곧 蕪葭堂會를 말함이다. 성대중의 눈에는 신분과 계층에 구애받지 않고 어울려 교분을 나누고 시회도 여는 蕪葭堂會가 무척이나 부럽게 느껴졌던지 일부러 그림과 시, 題跋을 부탁했던 것 같다. 또한 사행단이 귀국한 뒤에는 부탁한 그림과 시문을 얻을 방법이 없으므로 누차 재촉을 하였던 것이다. 성대중은 이렇게 부탁을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지, 이번에는 筭常에게 ‘加番長老의 객사에 머무르며 한가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떻겠는지’<sup>45)</sup>를 물었다. 조선후기에 이루어진 12차례의 통신사행 가운데 조선의 문사가 일본의 문사에게 시문의 창화가 아닌 별도의 그림과 시, 題跋을 청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거나 일본의 문사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加番長老의

41)『萍遇錄』下卷, 「與龍淵成公」, “宏師齋華簡至, 捧讀十回, 情惻辭婉, 使人依依不勝聞之. 宏師曰: ‘公禁雖嚴, 凡廁名長老之徒者, 得便宜出入. 納則心蕩矣. 旦夕當一趨謁, 以解調飢之懷, 幸且俟之.’”

42)『萍遇錄』下卷, 「復常上人」, “七日至館, 不得入. 乃以單簡, 寄龍淵, 而九日有此答也.”

43)『萍遇錄』下卷, 「與龍淵成公」, “納雖雲水浪迹, 亦頗有丘園之賁, 不可久留茲土, 方將命舟矣. 命舟之前, 必一奉扣, 諒之.”

44)『萍遇錄』4월 20일조, “龍淵曰: ‘向書托世肅, 畫浪華春曉及蕪葭堂雅集, 而師及麗王承明輩, 或詩或跋以識, 其未而惠之. 世肅已領諾矣. 果已起草, 而師亦有贖稿否? 西歸之後, 要作萬里顏面, 故如是屢言耳.’ 余曰: ‘圖畫一事, 世肅及納輩, 既領命矣. 此固所願也. 世肅稍試粉本, 及大施之未發, 必當奉呈’”

45)앞과 같은 곳, “龍淵曰: ‘師姑留紫衣館中, 閑時輒相訪做穩, 如何?’”

숙소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竺常은 ‘제가 加番長老의 숙소에 머무르게 되면 시기하는 자가 많을 것이므로 그 뜻을 따를 수 없다’<sup>46)</sup>고 사양하였다.

竺常은 성대중의 편지에서 밝힌 것처럼 다음날인 4월 21일에 京都로 돌아갔고, 4월 27일에 남옥과 원증거에게 최천중의 살해범인 傳藏에 관한 기록이 첨부된 편지를 보냈다. 5월 2일 子亥이 竺常을 찾아 傳藏의 옥사가 이루어져 참수에 처해질 것이며 사행단이 5월 4일에 大坂을 떠날 것이라고 보고를 하자, 竺常은 藥樹(=淨王)와 함께 이날 저녁에 대판으로 내려갔다.<sup>47)</sup> 5월 3일 아침에 大坂에 도착한 竺常은 객관을 찾아 「記傳藏事」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성대중으로부터 조선의 과거제도에 관해 정리된 소책자를 받았다. 竺常이 두 번째로 大坂客館을 찾아 필담을 나눌 때 과거제도에 대해 물은 바 있기 때문이다. 성대중이 筑州에서 龜井魯를 만나 木世肅과 合離 등의 蒹葭堂會에 대해 들었다는 사연을 말하면서, 竺常과 늦게 만났는데 이제 곧 떠나야 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였다. 竺常 역시 늦게 만난 것은 한스럽지만 뜻밖의 번고를 만나 체류하게 되어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답하였다.<sup>48)</sup>

성대중과 竺常은 이어 다음과 같은 필담을 주고 받는다.

龍淵: “제가 비록 사사로운 의리로 唱和를 하지 못했지만, 스님의 글과 글씨는 매우 좋아합니다. 바라건대 저를 위해 贈行序 한 통을 지어주셔서 만리 여정에서 볼 거리로 삼게 해주시면 어찌하실런지요.”

竺常: “拙工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雅集圖의 서문은 이미 원고가 이루어졌으니, 청컨대 보시고 질정해주십시오.”<sup>49)</sup>

성대중은 竺常에게 <蒹葭堂雅集圖>의 서문에 이어, 贈序를 써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성대중은 축상의 글과 글씨를 좋아한다고 했고 贈序를 부탁하기도 했는데, 그는 계미사행의 문사 가운데 竺常을 가장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竺常과 두 번째의 필담을 나눈 4월 6일의 기사에서 竺常을 평하여 ‘그가 쓴 필담은 모두 외워서 전할 만한 것이었다.’ ‘사람이 침착하고 묵직하며 그릇이 그 재주에 걸맞으니 아마도 일본 땅의 제일가는 인재라 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성대중이 竺常에게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보이기는 했지만, 조선 문사의 공통적인 관심은 蒹葭堂會와 蒹葭堂會의 중심적인 인물인 木弘恭이었다. 김인겸이 ‘오랫동안 木世肅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서쪽으로 갈 것이니, 이 구구한 뜻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자 竺常은 ‘木世肅이 다만 關譏를 두려워해서 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침 올 때에 心緣스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心緣스님 역시 木世肅을 도와 데리고 오려는 뜻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sup>50)</sup> 김인겸이 병 때문에 붓을 잡을 수가 없고 世肅을 기다릴 수 없으니 뜻을 전해달라고 자리를 뜨자 남옥도 이내 木世肅이 무고하냐고 묻고 축상이 다시 앞에서와 같은 대답을 했다. 다음날 竺常이 淨王을 데리고 공관에 갔을 때에도 남옥은 재차 木世肅은 오지 않느냐고 물었다.

사행단에게 木世肅과 福尙脩·合離 등의 蒹葭堂會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린 사람은 藍島의 龜井魯였는데, 성대중과 남옥 등도 龜井魯의 스승인 大潮禪師가 竺常의 스승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46) 앞과 같은 곳, “衲留在紫衣館中, 亦頗有猜忌, 不得從命.”

47) 『萍遇錄』 5월 2일조, “子亥來報曰: ‘傳藏獄成, 今日當斬. 朝鮮使者, 當以四日發浪華云.’ 余乃與藥樹, 是夕下江.”

48) 『萍遇錄』 5월 3일조 해당부분 요약.

49) 앞과 같은 곳, “龍淵曰: ‘僕雖以私義, 不得酬和, 師之文與筆, 甚所愛悅. 望爲僕作贈行序一通, 以作萬里啓面之資, 如何.’ 余曰: ‘拙工未能也. 如雅集圖序, 既已成稿, 請賜觀正.’”

50) 앞과 같은 곳, “退石曰: ‘久不見世肅, 今將西去矣. 爲致此區區之意.’ 余曰: ‘世肅只畏關譏, 不敢入來. 適來與緣師, 話及之. 緣亦意助世肅, 欲携以來, 未知果能否.’”

왔는지 竺常에게 龜井魯와 大潮禪師에 대해 물었다.

龍淵: “스님께서는 龜井魯를 아십니까?”

竺常: “알지 못합니다.”

龍淵: “참으로 才子입니다. 스님께서 후에 반드시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말이 헛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秋月: “大潮師는 龜井魯의 스승입니다. 物茂卿이 일찍이 그와 우애가 좋았고, 지금은 그 法臘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瓶鉢이 無恙하며 筑西의 산에서 늙으신다 합니다. 스님도 또한 함께 청담을 나누셨습니까? 이 老禪師는 깨달음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지만, 듣자하니 그 시문이 매우 좋다고 하는데, 한스럽게도 그 시문을 아직 얻어 보지 못했습니다.”

竺常: “大潮和尚께는 일찍이 직접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못 본 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87세이신데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그 학문 또한 뛰어난 叢林에서의 용과 같습니다.”

龍淵: “스님께서는 이곳에 호가 獨嘯菴인 永富鳳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까? 그 사람은 재주와 학문이 어떠한가?”

竺常: “알지 못합니다.”<sup>51)</sup>

사행단은 牛窓에서도 井潛에게 龜井魯와 永富鳳에 대해 물어본 바 있으나,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일본의 지식인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지 묻는 것이 좀더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竺常과의 필담을 통해 20여년 전에 竺常이 大潮에게 배웠고, 그 뒤에 龜井魯가 大潮에게서 배웠지만 竺常과 龜井魯는 서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竺常과 永富鳳이 서로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출발일이 임박해오자 성대중을 비롯한 사행단의 초미의 관심사는 애써 부탁한 葦葭堂雅集圖와 이에 대한 題詩와 跋文을 과연 건네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그래서 성대중은 5월 4일에 객관을 찾은 竺常에게 葦葭堂雅集圖등이 이루어졌는지 재차 확인하고 있다.

龍淵: 世肅의 浪華葦葭圖는 과연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스님의 기문도 이미 써져 있는 것입니까? 닳을 올리는 것이 모래이니, 그전에 반드시 보내오셔야 할 것입니다. 스님께서 내일 지니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竺常: 世肅은 집안의 文翰이 있고 해서 늦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엇그제부터는 계속해서 바쁘게 힘을 써서 오늘 아침에 완성을 했고, 題詩와 跋文 역시 모두 써놓았다 하니 내일에는 응당 가져와 드릴 수 있습니다. 傳藏의 기문은 아직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또한 내일에는 완성해서 가져오겠습니다.<sup>52)</sup>

성대중의 생각으로는 木世肅이 ‘술을 팔아 책을 사서 집에 가득하니 대단히 기이한 일’이었고, 남옥에게는 ‘장사치의 고을에서 超出해서 上人에게 歎賞을 받으니 참으로 진흙 속에 있는 한 송이의 연꽃’같은 존재였다.<sup>53)</sup> 竺常은 약속대로 5월 5일에 木世肅이 그린 葦葭堂雅集圖와

51) 『萍遇錄』 5월 3일조, “龍淵: ‘師知龜井魯否?’ 余曰: ‘不識.’ 淵曰: ‘眞才子也. 師後必見, 可知吾言不誣.’ 秋月曰: ‘大潮師, 龜井魯之師也. 物茂卿, 曾與之友善, 今其法臘甚尊, 瓶鉢無恙, 老于筑西之山云. 師亦與之揮塵否? 此老禪悟未知如何, 而聞其詩文甚好, 恨未得見之.’ 余曰: ‘大潮和尚, 固尚親炙之. 然不相見殆二十年. 今茲八十有七, 尚爾康健, 其學亦藉藉, 叢林之間龍.’ 龍淵曰: ‘師知此處有永富鳳號獨嘯菴者否? 其人才學如何?’ 余曰: ‘未知也.’”

52) 『萍遇錄』 5월 4일조, “龍淵曰: ‘世肅浪華葦葭圖, 果也成本, 而師之記文, 亦已書之否? 解帆在再明, 其前必須送來矣. 師若明日袖來則好矣.’ 余曰: ‘世肅有家翰, 因致遷延, 一昨以來, 連忙用力, 今朝告成. 題詩跋文, 亦皆寫上, 明日當袖來奉呈. 傳凶記文, 且未錄全, 亦以明日成之携來.’”

53) 앞과 같은 곳, “淵曰: ‘……聞其賣酒購書, 溢宇盈棟, 大是奇事’ …… 秋月曰: ‘狙僧之鄉, 世肅超出, 爲上人所賞, 眞是淤泥中一朵蓮’”

孝秩·麗王·承明·子琴·公翼·藥樹主人·世肅 등 7인이 쓴 題詩, 그리고 竺常 자신이 쓴 서문과 <傳藏記文> 등을 모두 가지고 객관에 가지고 왔다. 竺常과 淨王이 객관에 이르러 남옥등의 방에 가 보니 남옥이 자고 있으므로 淨王이 南玉을 흔들여 깨웠다. 자는 사람을 깨워 자신들이 왔다고 알릴 정도로 어느 정도는 격의 없는 사이가 되었던 것이다. 이날 竺常이 淨王을 데리고 객관에 도착했을 때에는 마침 남옥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남옥등은 자신들이 먹던 인절미와 김치를 나누어 竺常과 淨王에게 주어 먹게 한 바 있었다. 竺常이 필담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원중거는 ‘내일 다시 오느냐’고 묻고 竺常이 반드시 온다고 하자, 김인겸이 藥果와 柿餅을 내어 먹게 했다. 사행단이 大阪城을 떠나기 전날이 마침 단오이기도 하고 먼저 출발하는 군관들을 전송할 필요도 있고 해서, 객관에서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竺常과 淨王에게 떡을 먹게 했다.

竺常등과 藥果를 나누어 먹었다는 것은 원중거의 『승사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양국의 문사들은 약과를 나누어 먹고는 선물을 나누기도 했다.

가) 두 장로의 처소에서 모두 답례를 보내오고 陶國興은 부채 여덟 개를 보내왔다. 그러므로 약과와 잣과 호도를 얻어 답례하였고, 드디어는 전대 속에 있는 남은 종이와 붓과 부채 등의 물건을 다 기울여 周奎와 周遵과 周宏에게 많이 주고, 師曾과 仲達에게 그 다음으로 주고, 竺常과 淨王에게 그 다음으로 주고, 合離와 木弘恭과 福尙脩에게도 또한 미친 바가 있었다. 물건 하나도 남기려 하지 않았다. 세 벗도 모두 그러하였다.<sup>54)</sup>

나) 玄川이 남은 부채와 새 부채를 각각 하나씩 꺼내어 나에게 주면서 남은 부채의 위에 이렇게 題하였다. “때묻은 것이 부끄러울 것 같으면 玄川子가 줄 수 없었을 것이고, 때묻은 것을 싫어할 것 같으면 蕉中師가 반드시 받지 않았을 것이다. 때묻은 것으로 주고 때묻은 것으로 받으니 의당 그 때묻음이 오래 갈 것이리라. 甲申年 仲夏에 玄川子가 글을 써서 蕉中師에게 주노라.<sup>55)</sup>

가)는 원중거의 『승사록』에 실려 있는 기록이고, 나)는 竺常의 『萍遇錄』의 5월 5일자 기록이다. 원중거의 기록에서 약과와 잣이 들어있는 柿餅 등을 나누어 먹은 것은 앞서 인용한 『萍遇錄』의 기록과 같은데, 전별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서 나누어주었다는 기술은 원중거가 마치 등급을 매겨 나누어준 것처럼 다소 건조하게 느껴진다. 이에 비해, 원중거가 남은 부채 위에 題를 써서 竺常에게 주었다는 『萍遇錄』의 기록은 신선하고도 훈훈하다. 남은 부채를 건네기가 멋쩍어서 부채 위에 題를 써서 주었겠지만, 竺常은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와 닿았는지 題跋 전체를 그대로 기록해 두었다. 쓰던 부채를 주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격의없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는 竺常과의 만남이 늦기는 했지만 최천종 피살사건 이후로 엄해진 출입통제로 인해 일본문사와의 소통은 竺常에 집중되면서 친밀감을 느끼게 된 때문일 것이다.

최천종피살사건이라는 뜻밖의 변고로 인해 한달여를 大坂에 머물렀던 때문인지 大坂城을 떠나 귀국길에 오르는 1764년 5월 6일의 일을 기록한 사행록과 필담창화기록은 모두 석별의 정이 애절하게 묻어난다.

저녁이 되자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관소 안에서 울며 이별하는 사람은 號가 石屏인 陶國興, 그 다음은 號가

54) 원중거 지음 김경숙 옮김, 앞의 책 5월 5일조. pp.464-465

55) 『萍遇錄』 5월 5일조, “玄川, 出故扇新扇各一握, 贈余, 且書題故扇上曰; ‘垢可愧也, 則玄川子不可予也. 垢可厭也, 蕉中師不必受也. 垢以與之, 垢以受之, 宜其垢之可久也. 甲申仲夏, 玄川子書贈蕉中師.’”

綠疇인 安井屬玉, 號가 東陵인 瀧恕, 號가 蘭陵인 三宅彬이었으니 모두가 泉州의 儒官들이었다. 배가 정박해 있는 곳에 못 미쳐서는 木世肅과 合離와 筑常과 淨王의 무리가 길옆에 함께 앉아 있었다. 이에 벗들과 함께 말에서 내려 길에 섰는데 그들이 모두 감히 길옆에 설치한 竹欄의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그래서 죽란 밖에 가지런히 서서 손을 잡고 이별을 하였는데 世肅이 황공해하고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合離는 하늘을 가리키며 가슴을 어루만졌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 마음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오열을 하였는데 눈물이 얼굴을 뒤덮었다. 筑常은 연달아 소리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어 옷깃을 적시었으니 모습과 행동이 더욱 가관이었다.<sup>56)</sup>

이는 원중거의 『승사록』에 실려있는 기록인데, 陶國興·安井屬玉·瀧恕·三宅彬 등의 泉州의 儒官들과 木世肅·合離·筑常·淨王 등의 蒹葭堂會의 멤버 두 부류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별을 안타까워 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木世肅과 合離와 筑常 등 蒹葭堂會 멤버들의 모습들이 인상적이다. 하지만 竺常에 대해 ‘연달아 소리 없이 눈물을 줄줄 흘리어 옷깃을 적셨다’고 하면서 ‘가관’이라 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은 의외이다. 슬피하는 木世肅등의 모습을 섬세히 묘사한 원중거와 달리, 남옥은 “우리들은 곧바로 나무로 향했다. 길 왼편에 竺常, 淨王과 合離, 木弘恭, 片猷, 釋 德雲이 모여 앉아 전송하는 것이 보였다.”고 기록하였고<sup>57)</sup>, 성대중은 “木弘恭, 合離, 片猷, 竺常, 淨王 등은 길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말에서 내려 악수하고는 헤어졌다.”<sup>58)</sup>고 간략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승사록』의 기록에는 片猷가 없는 데 비해, 『일관기』와 『일본록』의 기록에는 片猷와 釋 德雲이 들어있고 또 ‘모여앉아’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 가지의 기록 공히 蒹葭堂會의 멤버들이 그룹을 이루어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당시의 정황은 『萍遇錄』에 잘 나타나 있다.

6일 辰下. 나는 孝秩, 麗王, 世肅, 藥樹 등과 堺筋街로 가서 상점 하나를 빌려 행렬을 기다렸다. 나는 藥樹와 함께 약속한 바의 記文과 印石을 가지고 왔고, 孝秩·麗王·藥樹 역시 각각 증별시 한 수를 가지고 있었다. 世肅은 선물할 인주를, 麗王은 붓을 가지고 한 묶음을 이루어 기다렸다.<sup>59)</sup>

사행단으로서야 이들의 동태를 알 수 없으니 ‘모여앉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이처럼 미리 약속을 해서 상점까지 빌려놓고는 행렬을 기다렸던 것이다. 사행단이 출발을 하루 앞둔 5월 5일, 남옥을 비롯한 조선측 문사들이 木世肅의 안부를 묻고 木世肅과 작별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므로, 筑常은 “반드시 木世肅등과 약속을 해서 길가에서 기다렸다가 諸公과 한번 손을 잡고 작별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筑常이 ‘公館에서 동쪽으로 6町쯤 가서 북쪽으로 꺾으면 강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이의 서쪽 끝에 있는 집 하나’라고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하자, 김인겸이 “다음날 닭이 울 때 떠나려고 하는데 世肅이 길가에서 기다리기가 어려울 듯하니 스님께서 많이 주의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김인겸과 筑常이 몇 차례의 필담을 통해 재차 확인을 하였다. 김인겸이 다시 “우리들 네 사람은 각기 세 척의 배에 있을 것이니 회동하기가 어려울 듯하다”고 걱정을 하자, 筑常이 “그러면 반드시 길가

56)원중거 지음 김경숙 옮김, 전계서, pp.465~466.

57)남옥 지음 김보경 옮김, 전계서. p.495

58)성대중 지음 홍학희 옮김, 전계서. p.103

59)筑常, 『萍遇錄』, 5월 6일조, “余與孝秩麗王世肅藥樹, 去堺筋街, 借一店上, 以候鹵簿. 余與藥樹, 齋所約記文印石, 而孝秩麗王藥樹, 亦各有贈別一詩. 世肅有贈紫硃, 麗王有贈筆併, 爲一束以待.”

에서 한번 악수를 해야겠다”고 하였다. 이때 柳營將이 와서 이 약속을 듣고는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려고 하므로 筑常이 종이 위에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그려보였다.<sup>60)</sup> 비록 최천중 피살사건이라는 돌발사태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달여 동안 大坂의 객관에 체류하게 되면서 그 어떤 통신사행 때보다도 蕪葭堂會로 대표되는 일본 關西지역 문사들과의 교류가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관기』등의 계미사행 사행록에는 실려있는 많은 교류의 실상이 필담창화의 한 축을 맡았던 당사자의 한사람의 기록에 실려진한다는 점에서 『萍遇錄』의 의미를 재삼 확인할 수 있다.

### III. 癸未使行 이후의 大典禪師 竺常

『萍遇錄』은 大坂客館에서 竺常이 사행단과 주고받은 필담과 약간의 편지를 수록하고 있는 기록물이므로, 이를 통해 계미사행 이후의 竺常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성대중이 藥樹와 얘기하면서 ‘두 스님을 데리고 귀국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라는 말을 하자, 竺常이 ‘저는 구름처럼 노니는 한 몸입니다. 하물며 부모가 이미 죽고 형제들이 있어 성묘를 함에 있어서라. 만약에 길이 있어 만리길을 표표히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꺼리겠는가?’라고 말한 것이 『萍遇錄』에 실려 있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61)</sup> 이는 竺常이 후에 對馬島 以酏庵의 輪番僧으로 나가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성대중과 竺常·淨王 두 승려간 필담의 내용은 성대중의 『일본록』에도 실려있다.

禪僧 竺常은 호를 焦中이라고 한다. - 중략 - (竺常은) 대마도 승려의 직책으로 동래로 나와 나를 만나기를 기약하였으나 내가 사양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 往生하고 싶다며 이별에 임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으니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 좋아하기가 이와 같았다. 사람이 침착하고 묵직하며 그릇이 그 재주에 걸맞으니 아마도 일본 땅의 제일가는 인재라 할 것이다. 淨王 또한 奇才였다.<sup>62)</sup>

竺常이 ‘대마도 승려의 직책으로 동래로 나와’라고 한 것은 초량왜관 내에 설치되어 있던 東向寺의 승려를 의미한 것인 듯하다. 東向寺의 승려는 대개 대마도의 以酏庵 및 京都의 天龍寺·相國寺·建仁寺·東福寺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相國寺의 승려였던 竺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竺常의 제의를 성대중이 거부했기 때문에 竺常이 초량왜관의 東向寺에 오는 것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竺常은 그로부터 17년 뒤인 1781년에 결국 對馬島 以酏庵의 61代 輪番僧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對朝鮮 외교의 최전선에 서게 된다.

竺常은 사행단이 대판을 떠나 귀국길에 오른 뒤에도 두 차례의 편지를 보냈다. 남옥의 『일관기』에 의하면, 사행단을 태운 배는 5월 6일에 大坂城을 떠났지만 역풍으로 인해 배를 띄우지 못하고 兵庫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兵庫체류 4일째인 5월 9일에 인편을 통해 사행단에 편지를 보내었고, 6월 15일에도 다시 편지를 보내었다. 성대중의 『日本錄』과 원중거의 『乘槎錄』에도

60) 竺常, 『萍遇錄』 5월 5일조 筆談 要約.

61) 앞과 같은 곳, “龍淵, 與藥樹語, 有恨不得携二師西歸之語. 余曰; ‘衲雲遊一軀, 況父母既沒, 有兄弟掃墳墓哉. 苟有路可由萬里飄飄, 何所憚乎.’”

62) 성대중 지음 홍학희 옮김, 전게서 권1. 5월 6일조. pp.104~105

같은 내용의 기록이 실려 있지만, 『일본록』에는 6월 18일에 竺常과 淨王, 木弘恭, 福尙修, 周奎 등외에 那波師曾, 周遵, 周宏, 合離, 富野義胤 등에게도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승사록』에는 바로 다음날인 5월 10일에 竺常과 淨王, 木弘恭, 福尙修, 周奎 등외에 那波師曾, 周遵, 周宏, 合離, 富野義胤 등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대중의 『일본록』 6월 18일조에는 앞서 언급한 것 외에 “밤에 단숙이 筑常과 淨王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5월 20일에 보낸 것이었다. 답장을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남옥등과 편지를 주고받은 竺常은 계미사행단이 귀국한 지 2년이 지난 영조42년(1766) 10월, 초량의 倭館을 통해 다시 계미사행시 필담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네 명에게 시문을 보내왔다.

병술년 7월 萬年寺의 승려 周奎(號 羽山) 竺常(號 焦中) 竺常의 徒僧인 淨王(고친 이름은 淨復, 號는 聞中), 浪華의 木弘恭(자는 世肅) 등 네 명이 각각 시를 쓰고 周奎는 都狀書를 지어 對馬州 雨森東의 아들 津을 통하여 草梁의 倭館으로 보내왔다. 10월에 동래의 差役 崔鶴齡이 그것을 한양으로 전달했다. 그것은 그 네 명이 각각 우리 네 명에게 보낸 시로서 이전에는 의거할 만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sup>63)</sup>

남옥은 萬年寺라고 하였으나, 이는 竺常이 소속된 相國寺가 있는 萬年山의 잘못인 듯하다. 이 기술과는 달리 남옥의 『일관기』 ‘창수제인’조에서는 계미사행시 접반승 承瞻을 ‘萬年山의 승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같은 相國寺라고는 하지만 承瞻은 巢松軒 소속이었고, 竺常은 慈雲庵 소속이었다. 承瞻은 이미 相國寺 巢松軒 소속으로 두 차례(1742-1744, 1752-1754)에 걸쳐 對馬島 以酌庵의 輪番僧을 역임한 바 있고 그런 연유로 해서 계미사행시에는 통신사접반승(=加番長老)을 지냈다. 竺常등이 雨森東의 津을 통해 詩札을 보냈을 당시에는 對馬島 以酌庵의 輪番僧은 天龍寺의 元穹禪師였지만 天龍寺·相國寺·建仁寺·東福寺 등 五山の 4사찰은 以酌庵의 운영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相國寺의 승려인 周奎·竺常·淨王 등과 木弘恭이 詩札을 어려움없이 對馬島를 거쳐 초량왜관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 문사가 조선측의 통신사행단이 귀국한 지 2년 뒤에 별도로 詩札을 보낸 것은 좀처럼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드문 일이었다. 다만 1682년의 壬戌使行時 野鶴山이라는 사람이 임술사행의 成琬과 洪世泰에게 시찰을 보낸 것이 유일한 사례였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네 명의 일본측 문사들이 조선측의 제술관 및 서기에게 각각 詩札을 보내온 것이다. 그만큼 癸未使行에서 조선측 문사들과, 일본 특히 關西地域 문사들이 각별한 문학적 교류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임술사행시의 제술관 성완은 성대중과 竺常의 필담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처럼, 성대중의 從僧 祖였다. 그리고 임술사행시 성완을 護從하며 접반을 맡았던 對馬島 以酌庵의 輪番僧은 竺常의 師祖인 大虛顯靈이었다. 어찌면 이러한 인연 때문에 對馬島 以酌庵과 초량왜관을 경유해서 시찰을 통신사행의 제술관 및 서기에게 보내는 전례를 원용해서, 竺常 역시 시찰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다. 筑常등 4인의 詩札이 남옥등에게 전달된 것은 1766년 10월이었지만, 이 詩札을 쓴 것은 1766년 7월이었다. 그렇다고 남옥등이 1764년 6월 이후로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닐 터인데, 남옥등이 大阪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뒤에 무슨 이유로, 그리고 무엇을 계기로 筑常과 木世肅 등이 詩札을 보내왔던 것일까? 사행단이 大阪을 떠나 귀국선에 오른 5월 6일자 『일본록』의 다음 기록은 이 의문을 푸는 작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듯하다.

63) 남옥 지음 김보경 옮김, 전계서, p.537

弘恭의 자는 世肅인데 부유하며 호협기가 있어 빈객들을 통틀어 서쪽으로 筑州에서부터 동쪽으로 江戸에 이르기까지 世肅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강가에 蒹葭堂을 짓고 책 5만여권을 소장하고 있는데, 평소에 그의 문도 9명과 고아한 모임을 갖고는 그림을 그려 나에게 부쳐 주었다. 世肅의 그림과 筑常의 序, 合離의 시가 최고였다. 福尙脩 또한 모임 중의 인재로서 世肅과 더불어 견줄 만한데, 둘 다 장사일로 집안을 일으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 이러한 사실을 헐뜯기도 하였다.<sup>64)</sup>

성대중이 말한 ‘그의 문도 9명’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蒹葭堂雅集圖>에 題詩를 한 孝秩, 麗王, 承明, 子琴, 公翼, 藥樹主人 등 6인과 이 그림에 序文을 단 筑常이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蒹葭堂會가 발족된 것은 木世肅이 23세때인 1758년의 일이었으며, 발족 당시의 멤버는 細合半齋(=合離) 외에 20인이었다고 한다.<sup>65)</sup> 『大典禪師』의 「年譜」에 의하면, 竺常은 1757년 12월에 慈雲庵을 물러나 교외에 한거하고 있었다.<sup>66)</sup> 竺常은 4월 6일에 있었던 성대중과의 필담에서 ‘저는 본래 官刹에 있었습니다. 병이 많아서 물러나 江湖에 노닐었는데, 일찍이 浪華에 있을 때에 木弘恭등에게 護從을 받았습니다.’<sup>67)</sup>라고 말한 바 있다. 竺常이 말한 官刹이 곧 相國寺 慈雲庵이며, ‘浪華에 있을 때에 木弘恭등에게 護從을 받았다’는 것은 곧 蒹葭堂會가 발족된 1758년을 전후해서 木弘恭등과 함께 활동을 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蒹葭堂會는 발족된 지 3년째인 1761년에 蒹葭堂會에서는 최초의 사업으로 『昨非集』을 출간하는데, 이 책이 곧 筑常의 시집이다. 이렇듯이, 蒹葭堂會는 출범시부터 竺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筑常이 <蒹葭堂雅集圖>에 대한 서문을 쓰게 된 데에는 이러한 사연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相國寺 本山에서는 『昨非集』이 출간된 1761년에 竺常의 歸山을 추구하고 그 다음해에도 慈雲庵의 監司大綱을 통해 재차 귀산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해에 있을 계미사행을 위해 相國寺 本山 차원에서의 대비책이었을 수 있다. 통신사의 응대를 위해 문장력이 있는 竺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계미사행단이 大阪을 떠난 뒤부터 木世肅등이 남옥등에게 詩札을 보낸 1766년 7월 사이에 ‘蒹葭堂雅集’의 주체인 木世肅과 그 ‘문도’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混沌社의 創立이다.<sup>68)</sup> 混沌社는 混沌詩社라고도 하였으며, 1764년 5월경에 창립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고 1765년 9월에 창립되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1765년 9월에 창립되었다고 하는 견해는 『混沌社吟稿』에 실려 있는 平澤旭山の <混沌社吟稿序引>, 山震의 <同乙會吟稿序>, 片山北海의 <混沌詩社說>, 田中鳴門의 <混沌說>, 葛子琴의 <混沌社歌奉贈片北海先生> 등의 내용에 따라 제기한 것이다. 이들 기록에 의하면, 混沌社의 甲會가 1765년 9월 16일에 열렸고 9월 26일에 乙會가 열렸으니, 混沌社의 처음 모임이 있었던 1765년 9월을 창립시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sup>69)</sup> 이와 달리, 久保三千雄은 1764년 5월에 계미사행단에 <蒹葭堂雅集圖>를 증정할 무렵에 混沌社가 창립되었다고 본다. 久保三千雄은 『木村蒹葭堂のサロン』에 실린 <木村蒹葭堂年譜>의 1764년조에서 “朝鮮使節 일행의 書記였던 成大中에게 <蒹葭堂雅集圖>를 증정하였다. 이 무렵, 片山北海에

64)성대중 지음 홍학회 옮김, 전계서 권1. 5월 6일조. pp.104~105

65)中村眞一郎, 『木村蒹葭堂のサロン』, 新潮社, 2000. p.716

66)小畠文鼎의 전계서, p.421

67)『萍遇錄』 4월 6일조, “余曰: ‘……衲本住官刹, 以多病謝遊江湖, 曾在浪華, 爲木郎輩所檀護.’ ”

68)癸未使行과 混沌社의 관계에 대해서는 拙稿, 「癸未使行時의 筆談唱和와 大坂의 混沌社」(『한국문학논총』 제54집, 한국문화회, 2010)를 참조할 것.

69)多治比郁夫, 「平澤郁山と混沌詩社の成立前後」, 『大阪府立圖書館紀要』7, 1971. 참조.

의해 混沌詩社가 창립되어 世肅이 참가했다. 함께 한 사람으로는 葛子琴, 篠崎三島등이 있다.”고 하고 1765년조에서는 “蒹葭堂會는 佐々木魯庵의 제창에 따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대체로 混沌社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sup>70)</sup>

混沌社의 멤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1769년에 鳥山崧岳이 편찬한 『浪華名流花月吟』에 작품을 실은 12명(葛子琴, 曾根原魯卿, 西村古愚, 鳥山鳳池, 石水東陽, 田雪航, 田中鳴門, 小山養快, 岡田南山, 賴春水, 中村文昌, 鳥山崧岳)을 들기도 하고, 창립 당시의 詩會를 기록한 『混沌社吟稿』에 실린 甲會의 구성원인 片猷.佐々木魯庵.田中鳴門.篠崎三島.中正竹山.鳥山崧岳.平澤旭山.木孔恭.葛子琴.河子龍.合離 등에다 뒤늦게 참여한 賴春水.尾藤二洲.古賀精里 등을 합하여 混沌社의 구성원으로 보기도 한다.<sup>71)</sup> 多治比郁夫는 『混沌社吟稿』을 중심으로 해서 甲會에는 福原丹安.阪東道齋.田中鳴門.富有明.清玄道.篠崎三島.佐々木魯庵.福原承明.木村蒹葭堂.平澤旭山.葛子琴.岡公翼.吉田謙齋.岡田南山 등이, 乙會에는 早迪.橫山昇.本城和光.井震.宇猛.左房.木煥.川恭.田鵬.高思齋.東獻.小西正平.池球.碓三省.寺壽觀.林庸 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甲會의 吉田謙齋는 1766년 3월에, 乙會의 碓三省이 1766년 7월에 탈퇴한 대신 1766년초에 鳥山崧岳이 합류하고, 같은 해 3월에는 賴春수가, 5월에는 北山彰이 합류하였다고 하였다. 乙會는 모두 混沌社의 맹주인 片猷의 門人이었다고 한다.<sup>72)</sup> 그래서인지, 混沌社에 대한 논의는 주로 甲會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賴惟勤은 몇 차례에 걸쳐 시리즈 형식으로 混沌社의 交遊에 대해 고증을 하였는데<sup>73)</sup>, 그 「初篇」에서 混沌社의 회원을 열거하면서 萱野錢塘, 井阪松石, 賴春風, 杏坪 등도 混沌社 會員에 포함시켰다.

뒤늦게 混沌社에 합류한 賴春水는 混沌社의 운영방식은 물론 混沌社 멤버들의 일화와 성격, 가정문제 등까지 混沌社와 관련된 이런저런 기억들을 정리하여 『在津記事』와 『師友誌』를 펴냈다. 그런데 『在津記事』의 5번째조에 混沌社 멤버의 이름이 망라되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거론된 混沌社의 멤버는 鳥宗成世章, 田章子明, 合離麗王, 篠應道安道, 左鳳子岳, 清履玄道, 福尚脩承明, 富維章有明, 萱來章君譽, 木孔恭世肅, 岡元鳳公翼, 葛張子琴, 隱岐秀明子遠, 平九齡壽王, 西村直孟清, 河子龍伯潛, 岡田豹君章, 井坂廣正雲卿, 小山儀伯鳳 등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混沌社의 會員은 多治比郁夫가 작성한 리스트를 기준으로 삼아, 福原丹安. 阪東道齋. 田中鳴門. 富有明. 清玄道. 篠崎三島. 佐々木魯庵. 福原承明. 木村蒹葭堂. 平澤旭山. 葛子琴. 岡公翼. 岡田南山 등과 후에 곧 이어 참여한 鳥山崧岳, 賴春水, 北山彰, 尾藤二洲. 古賀精里, 北山皓 등의 甲會와 早迪.橫山昇.本城和光.井震.宇猛.左房.木煥.川恭.田鵬.高思齋.東獻.小西正平.池球.寺壽觀.林庸 등의 乙會 회원을 합한 것으로 보면 될 듯하다. 그런데 混沌社와 관련된 기존의 어떠한 연구물에도 竺常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竺常의 沒年이 1801년, 그러니까 混沌社가 결성된 지 36년이 지난 후이니 竺常이 混沌社에 간여했다면 당연히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竺常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竺常은 蒹葭堂會의 일원으로 볼 수는 있지만 混沌社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竺常이 慈雲庵에서 물러나 강호에 은거하고 있었다고 하나 여전히 大坂이 아닌 京都에 있었고, 相國寺 本

70)中村眞一郎의 전계서, 2000. p.717

71)『日本古典文學大辭典』(岩波書店, 1983)의 ‘混沌社’ 및 ‘浪華名流花月吟’조 참조.

72)多治比郁夫의 전계논문.

73)賴惟勤, 「寶歷明和以降 浪華混沌詩社交遊考證 初篇」, 『お茶の水女子大學人文科學紀要』15, お茶の水女子大學, 1962., 「寶歷明和以降 浪華混沌詩社交遊續篇-上」, 『お茶の水女子大學人文科學紀要』16, お茶の水女子大學, 1963., 「寶歷明和以降 浪華混沌詩社交遊續篇-中」, 『お茶の水女子大學人文科學紀要』17, お茶の水女子大學, 1964., 「寶歷明和以降 浪華混沌詩社交遊續篇-下」, 『お茶の水女子大學人文科學紀要』18, お茶の水女子大學, 1965.

山에서도 재차 歸山을 중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混沌社에 간여할 형편이 못되었던 것이다.

竺常등이 네명의 제술관 및 서기에게 詩札을 보낸 다음해에 相國寺 本山에서는 재차 大潮禪師 竺常에게 귀산을 중용하는데, 竺常이 相國寺 慈雲庵으로 돌아간 것은 1772년의 일이다. 竺常은 慈雲庵으로 돌아간 뒤에도 문학활동을 계속하면서 歸山 직후에 『世說鈔撮補』와 『文語解』 『學語編』등을 펴냈으며, 다음해에 『芳野遊草』와 『書芳野事』 『尺牘式』을 펴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774년에 『茶經詳說』과 『唐詩集註』를, 1776년에 『唐詩解頤』를 펴냈다. 1777년에 相國寺 주지가 되었는데, 이해에도 『小雲樓手簡初編』을 펴냈다.

竺常이 相國寺 주지가 된 다음해인 1778년, 竺常은 碩學으로 뽑혀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전담하는 朝鮮修文職에 임명된다. 그리고 1780년에 五山の 碩學이 막부에 대해 朝鮮修文職의 解免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五山(天龍寺·相國寺·建仁寺·東福寺·萬壽寺를 五山이라 하나, 萬壽寺는 유명무실해져 실제로는 萬壽寺를 제외한 四山임)의 碩學과 朝鮮修文職은 번갈아 以厔庵의 輪番僧이 되어 조선과의 외교실무를 전담했는데, 玄蘇가 그 시초이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相國寺의 碩學 및 朝鮮修文職을 맡고 있었던 竺常은 1781년에 마침내 對馬島 以厔庵의 輪番僧으로 부임하여 조선과의 외교 전면에 나서게 된다. 임기가 끝나 相國寺로 歸山하기에 앞서 『朝鮮年表』를 작성하여 以厔庵에 기증했다. 竺常은 『朝鮮年表』외에도 후일 『朝鮮小記』와 『議朝鮮使文』을 남기기도 하였다.

竺常이 임기를 마치고 相國寺로 귀향한 지 4년 뒤인 1787년에 일본 막부의 將軍襲職이 있었는데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해 습직 축하를 위한 통신사행을 조선에 청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렇게 해서 대두된 것이 聘使의 연기였는데, 竺常이 문장도 잘하고 조선의 사정에도 정통하다 하여 聘使延期の 문안을 기초하는 일을 맡겨야 한다는 쪽으로 五山 碩學의 의견이 모여진 상태였다. 1788년에 竺常이 작성한 聘使延期の 외교문서에 대해 막부의 儒官인 柴野栗山이 비판하였으나, 결국 竺常이 작성한 원안대로 조선에 전해졌다.

한일양국의 국내사정과 맞물려 막부의 將軍襲職 축하를 위한 통신사행은 연기되었으나, 일본 측으로서는 통신사행의 연기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른바 ‘聘禮의 簡易策’이 대두되었다. ‘聘禮의 簡易策’이란 다름이 아니라 통신사행이 江戶까지 가지 않고 對馬島에서 聘禮를 치르자는 ‘易地交聘論’이었다. 이 ‘易地交聘論’은 1789년에 中井積善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랫동안의 한일양국의 줄다리기를 거쳐 결국 1811년에 첫 번째 對馬島易地通信이자 조선후기의 마지막 통신사행인 辛未使行으로 실현된다. 신미사행에 앞서 竺常은 1791년과 1794년, 그리고 1796년, 1798년 등 4차례에 걸쳐 막부의 소환을 받아 易地交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大典禪師 竺常이 83세의 나이로 입적한 것이 1801년이니, 입적하기 3년전까지 80세의 나이로 한일양국의 교류에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다. 癸未使行의 大坂 체류시 객관에서 나눈 필담으로 시작된 大典禪師 竺常과 조선과의 인연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한일양국 교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 IV. 맺음말

『萍遇錄』은 1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조선후기의 통신사행 관련 기록 가운데, 한일양국을 통

들어 가장 방대하고 내용도 다양한 필담창화기록이다. 그리고 이 『萍遇錄』을 남긴 大典禪師 竺常은 일본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五山の 하나인 相國寺 주지를 거쳤음을 뿐 아니라, 한일양국의 외교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은 朝鮮修門職과 對馬島 以酌庵의 輪番僧을 역임하고, 계미사행 이후의 한일관계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 禪僧이요, 詩僧이다. 그럼에도 여지껏 한일 양국 문사간의 교류 및 한일관계사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大典禪師 竺常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萍遇錄』에 담겨 있는 여러 의미 있는 단초들을 총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고, 또 竺常의 문학에 조선문사들과의 교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한일 문사간의 문학적 교류라는 논의의 장에 『萍遇錄』과 大典禪師 竺常을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본 발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계미사행단은 물론 정약용이나 이덕무 등의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도 大坂의 蒹葭堂會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또 蒹葭堂會를 내용으로 한 그림과 題詩, 跋文 등이 전해져 더욱 더 蒹葭堂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본 발표에서는 남옥의 『일관기』나 원증거의 『승사록』, 성대중의 『일본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蒹葭堂會에 대한 논의를 『萍遇錄』과 또 『萍遇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牛渚唱和集』 및 『問佩集』 등 일본쪽의 필담창화기록으로 보정하고자 하였다. 『萍遇錄』을 쓴 竺常은 蒹葭堂會의 멤버이기도 한 때문이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蒹葭堂會와 관련된 그동안의 논의와 달리, 竺常과 片山北海가 蒹葭堂會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상외로 크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리고 龜井魯와 大潮禪師 및 大典禪師 竺常, 片山北海, 宇野明霞로 이어지는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소략하게나마 밝혀낼 수 있었다.

竺常등의 일본문사들이 계미사행단이 귀국한 지 2년 후에 ‘전례없이’ 詩札을 보내온 것에 대해 그 배경과 의미를 천착하는 과정에서 성대중의 종증조인 성완과 竺常의 師祖인 大虛禪師 顯靈이 제술관과 以酌庵의 輪番僧으로 교류를 한 지 80여년 뒤에 성대중과 竺常이 다시 필담을 나누고 교류를 하게 된 인연을 발견하게 된 것도 본 발표의 작은 성과 중의 하나이다.

『萍遇錄』을 통해 당시 조선측 인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 중에 하나인 那波師曾이나 木世肅은 출입이 통제되었는데, 竺常은 어떻게 門禁을 피해 객관에 출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 유도 알 수 있었고, <蒹葭堂雅集圖>와 題詩, 跋文, 序文 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입수될 수 있었는지도 소상하게 알 수 있었다. 이국땅에서도 명절에 떡을 빻어 먹었고, 인절미나 약과, 김치 등을 일본 문사에게 권해서 나누어 먹는 것과 같이 당시 한일 양국의 교류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소한 일까지도 알 수 있게 된 것 또한 『萍遇錄』에 집중해 살펴본 성과 중의 하나이다.

大典禪師 竺常은 그 당시에 조선과의 외교 실무를 맡았던 朝鮮修文職과 對馬島 以酌庵의 輪番僧을 역임하였고, 『朝鮮年表』, 『朝鮮小記』, 『議朝鮮使文』 등의 관련 서책을 남겼는데 이처럼 조선관련 직책을 두루 거치고, 여러 종의 조선관련 서책을 남긴 예는 흔치 않다. 竺常이 이처럼 한일간의 문화적, 문학적 교류는 물론 양국관계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남긴 필담집인 『萍遇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본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 <癸未使行團의 大坂滯留와 大典禪師 竺常>에 대한 토론문

신 익 철(한국학중앙연구원)

김성진 교수의 이번 발표는 1763년 계미사행 시 이루어진 한일 문학 교류의 구체적인 양상을 蒹葭堂會와의 만남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입니다. 특히 大典禪師 竺常의 필담 기록인 『萍遇錄』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를 당시 통신사의 제술관인 남옥과 서기 성대중, 원중거의 필담 기록과 대비해서 살펴봄으로써 계미사행단이 검가당회의 멤버들과 교류하게 되는 과정을 매우 소상히 해명하였습니다. 무릇 한일 양국 간 문학 교류의 실상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기록을 두루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필자의 과문 탓인지 지금까지 이처럼 양측의 자료를 포괄하여 접근하는 연구는 보기가 어려웠는데, 김성진 교수는 『萍遇錄』과 『牛渚唱和集』, 『問佩集』 등의 일본 측 자료를 세밀하게 추적하여 양국 간 문학 교류의 실상을 생생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竺常이 蒹葭堂會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진 인물이며, 최천중 살해사건으로 사행단이 大坂에 체류할 당시 객관에 출입할 수 있었던 그를 통해 주로 교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계미사행 이후의 竺常의 행적 또한 자세히 밝힘으로써 한일 문학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인물이라는 점 또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많은 공부와 계발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발표문을 통해 양측의 필담 기록에 근거해서 계미사행단이 검가당회의 실체에 접근하게 되는 과정과 <蒹葭堂雅集圖>를 입수하게 되는 경위 등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양측의 필담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서 치밀하게 밝히었기에 논지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 문외한인 처지에서 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두 가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의 책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발표문을 통해 계미사행단이 일본 측 문사, 특히 검가당회의 멤버들과 교류하게 되는 과정은 소상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문학 교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예컨대 서로 간에 수창한 시의 내용과 횡수나 그 밖의 문장을 주고받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江戶에서 돌아오는 길에 京都의 객관에서 한일 문사가 시문을 주고 받았으며, 이때 “大江資衡이 조선측 문사들과 필담 창화한 것을 묶어 편찬한 책이 『問佩集』인데, 여기에는 大江資衡이 조선측 문사들과 창화한 詩文 97首와 啓言 4篇이 실려 있다.”(7면)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줄 수 있는지요?

2. 『鷄壇嘯鳴』에 따르면 김인검은 北山彰에게 『明史』, 『三才圖會』, 『本草綱目』 등의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묻고, 복산창이 답하는 내용이 보입니다.(6면) 주지하다시피 18세기에 조선은 중국 서적을 주로 연행길에 홍로시의 서반(序班)을 통하거나 북경 유리창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浙江省을 중심으로 한 강남 지역과 長

岐 간의 무역선을 통해 직수입 하였기에 조선에 비해 최신의 중국 서적을 구입하기가 일견 용이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서적은 18세기 연행록 중에서도 종종 수입한 사실을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 있기에, 당시 조선 문사들에게 인기 있는 서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인겸은 아마도 연행사를 통해 이들 서적을 구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에, 일본에 온 김에 이들 서책을 구입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발표의 논지에서 벗어난 질문이지만 18세기 당시 일본의 중국 서적 구입 실태는 어느 정도였으며, 조선 측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계미사행의 김인겸 외에 여타 사행단에서도 중국 서적을 구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癸未(1763) 通信使行 관련 繪畫 研究

정 은 주(한국학중앙연구원)

- I. 서 론
- II. 계미통신사행과 일본의 문화적 배경
- III. 日本人이 그린 계미통신사행 관련 회화
- IV. 계미통신사행의 畫員 활동과 작품
- V. 결 론

## I. 서 론

18세기 중기 에도 사회는 幕藩體制의 제모순이 출현하기 직전으로, 제8대 將軍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684-1751]의 享保改革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sup>74)</sup> 1751년 그의 사후 幕府 관료와 다이묘에 대한 쇼군의 지도력 약화로 천황중심제가 점차 대두되기 시작하였다.<sup>75)</sup> 따라서 조선국왕과 막부 將軍 사이에 유지되던 교린 관계도 천황과 쇼군과의 모호한 관계로 인해 그 근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잠재해 있었다.<sup>76)</sup>

1761년 6월 제9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시게[德川家重, 1712-1761]의 서거로 大計參判使를 조선에 파견하였고, 1762년 1월 조선에서 쓰시마에 보낸 大弔譯官을 통해 信使講定案書를 순부하였다.<sup>77)</sup> 그해 5월 소우 요시나가[宗義暢, 1741-1778]가 쓰시마번의 家督을 계승하면서

74) 德川吉宗이 단행한 개혁으로 초기 막부는 초요닌 사회의 지나친 사치행위를 규제하고 무사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치품의 생산과 소비, 불필요한 토목공사, 유흥행위 등 도시사회의 번영을 희생으로 삼는 강경 일변도의 검약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도시하층민의 소요사태가 확산되면서 점차 막부의 정책은 소비 진작을 통한 도시 번영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박진한, 「享保寛政改革期 江戸幕府의 검약정책」, 『동방학지』131(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pp. 225-240.

75)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1758년 호우레키 사건[寶曆事件]과 1767-68년 메이와 사건[明和事件]이다. 寶曆事件은 1758년 桃園天皇(1741-1762) 시기 교토에서 다케우치 시키부[竹内式部], 후지이 우몬[藤井右門] 등이 朝勸回復을 내세워 家塾에게 『日本書紀』, 『保建大記』, 『靖獻遺言』 등을 진강하고, 公卿에게 천황을 받들고 막부를 타도해야 한다는 소위 尊王斥幕 사상을 선동한 사건이다. 한편 明和事件은 유학자 야마가타 다이니[山縣大式]가 막부체제를 陪臣專權으로 간주한 『柳子新論』을 집필함과 동시에 에도의 고마고메[駒込]에 서당을 개설하여 존왕척패 사상을 선동하여 反幕府 운동의 단서가 되었다. 仲尾 宏, 「寶曆度通信使とその時代」, 『大系 朝鮮通信使』(明石書店, 1994), pp. 98-99.

76) 조엄은 관백이 새로 즉위한 후 조선통신사를 청하는 것은 대개 남의 힘을 빌려 군중의 마음을 진압하려 함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征夷大將軍의 名號를 국왕이라고 일컫다가 吉宗에서부터는 日本大君으로 일컫는 점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 부득이하게 교린관계를 유지한다면 倭皇과 동등한 교제를 해야 하며 임금도 신하도 아닌 關白과 그 禮義를 동등하게 하는 것은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막번체제의 동요와 천황중심주의가 대두하던 당시 예민한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이는 일찍이 이익이 조선후기 일본과의 관계에서 조선국왕과 일본의 막부 장군인 관백이 대등한 예를 취하는 것이 교린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여, 만약 일본의 국내 정치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막부장군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교린관계도 위기가 닥칠 것이라 예견한 것과 맥이 닿아 있어 주목된다. 趙曦, 『海槎日記』4, 갑신년 2월 27일; 하우봉,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 研究』(一志社, 1989), pp. 95-96.

77) 당시 쓰시마번의 講定案은 조선통신사행에 대해 문필과 서화에 능한 사람과 예술인을 엄선하여 보내줄 것을 비롯하여, 헌상 때의 빈번한 도중 병폐를 이유로 정수 외에 추가로 보내 줄 것과 鷹廐를 숙지하는 2명을 동행시

비로소 일본에서 조선통신사 영접 준비가 본격화 되었다.

제11차 조선통신사는 1763년 도쿠가와 이에하루[徳川家治, 1737-1786]의 제10대 장군 關白 승습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며, 정사 趙曦,<sup>78)</sup> 부사 李仁培, 종사관 金相翊 이하 격군 228명을 비롯하여 세 사신 행차의 員役까지 총 4백 77명의 규모였다. 일행은 1763년 8월 3일 발행하여 10월 6일 부산에서 발선하였고, 1764년 1월 21일 오사카에 입항하였다. 또한 오사카에서 106명을 잔류시키고, 교토를 경유하여 2월 16일 에도에 입성하였다. 이후 3월 11일 회정하여 7월 8일 慶熙宮에서 복명하기까지 총 332일로 약 11개월이 소요되었다. 노정은 수로와 육로를 합하여 5,735리로 왕복 11,470리를 이동하였다.<sup>79)</sup>

계미통신사행은 에도까지 왕래한 마지막 사행으로, 당시 일본의 외교 의전에 대한 해이는 여러 가지 징후로 나타났다. 1763년 12월 3일 藍島에서 부사가 탄 배가 난파당하여 예단 봉물이 져거나 유실되었고, 1764년 2월 3일 佐渡川에서 행렬이 지날 때 조선국왕의 國書를 실은 용정 앞에 말을 타고 지나간 왜인이 있을 정도로 의전은 엄격하지 못하였다.<sup>80)</sup> 또한 2월 27일 傳命儀式에서 관백과의 배례 이후 徳川親藩과 御三卿의 향응은 불참하거나 약식으로 진행되었다.<sup>81)</sup> 당시 이러한 형식적인 교린관계의 불편한 진실이 표면화된 사건이 바로 4월 7일 오사카의 北御堂 津村別院에서 都訓導 崔天宗이 쓰시마의 傳語官인 스즈키 덴조[鈴木傳藏]에게 살해당한 참사였다.<sup>82)</sup>

그러나 당시 일본 내부 모순과 통신사의 영접에서 있었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계미통신사행에 대한 賓禮 관련 기록화와 일본 문인들과 시문수창이나 서화를 통한 문화적 교류의 결과물은 일본 현지에 다수가 남아 있다.

본문에서는 계미통신사행 당시 통신사절의 기록을 통해 일본의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고, 일본 내부에서 제작된 빈례 관련 기록화와 시문 수창과 관련한 통신사절의 초상화 그리고 통신사행에서 조선 화원이 남긴 현존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계미통신사행의 문화적 측면을 재조명하는 데 의의를 두려한다.

## II. 계미통신사행과 일본의 문화적 배경

오사카에서 최천중 살해사건 이후 최고조에 달한 일본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조엄은

---

킬 것, 현상마는 정밀하게 택하여 보낼 것, 마상제는 대군어람 때 말이 발병할 염려가 있고 또한 長州에서 1필의 말이 병사한 예가 있기 때문에 3필로 할 것, 행중 긴급 시를 대비하여 일본어와 물정에 밝은 통사를 보낼 것, 船行은 일본에서 알려준 대로 따를 것, 水陸行 중에 불을 금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仲尾 宏, 위 논문(明石書店, 1994), pp. 94-95.

78) 애초에는 정사 徐命膺, 부사 趙璘, 종사관 李得培를 삼사로 차정하였으나, 사행에 임박하여 교체되었다. 정사 조엄은 1756년에서 1757년까지 부산왜관을 관장하는 동래부사로 재임하였고, 1757년에는 대일외교의 지방 책임자격인 경상감사에 올라 1759년까지 재임하였다. 만 3년에 걸친 경력으로 조엄은 일본관을 구축하는 기반을 닦았다. 金義煥, 「趙曦이 본 18世紀 後半期の 日本社會와 朝日關係」, 『玄岩 申國柱博士華甲紀念 韓國學論叢』(동국대학교출판부, 1985), pp. 173-216.

79) 조엄, 『해사일기』5, 使行名單과 路程記.

80) 조엄, 『해사일기』2, 계미년 12월 3일; 『해사일기』4, 갑신년 2월 3일.

81) 關白과의 배례와 향응은 본래 徳川親藩의 오와리[尾張], 기이[紀伊], 미토[水戸] 御三家가 참여하였으나, 계미통신사의 국서전명 의식에는 尾張家は 나오지 않고 紀伊州太守 中納言源宗將과 水戸州太守 源宗翰 2명이 참여하였다. 조엄, 『해사일기』4, 갑신년 2월 27일.

82) 조엄, 『해사일기』4, 갑신년 2월 9일; 최천중의 죽음 외에도 당시 통신사행에서 삼방수역통인 金漢仲, 복선장 俞進源, 격군 李光河가 사망하였다.

6월 18일 左須奈浦에 도착하여 고구마의 종자를 얻어 구황 수단으로 삼고 곡식을 운반하는 폐단을 제거하려는 이용후생의 목적으로 그 재배저장법을 습득하여 돌아왔다.<sup>83)</sup> 이는 일본지도를 모사하게 하거나, 名護屋의 舟橋, 淀浦의 水車 원리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과 같은 실학적 접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엄은 18세기 일본에서 양명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이 범람하는 점에 주목하고, 주자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조선과는 달리 다양한 학문 풍토를 띠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16세기 중반 예수회 선교사가 일본에 西教를 전파한 이래 16세기 후반부터 탄압국면에 들어선 반면,<sup>84)</sup> 일본사회의 서학과 서양문물 수용은 18세기 후반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는 1763년 12월 24일 쓰시마에서 서교를 금지하는 榜目이 목격되었고, 利瑪竇가 지은 『理函』·『氣函』 등이 전래되어 당시 일본에 서학이 깊이 침투해 있었던 점에서 확인된다.<sup>85)</sup>

당시 徳川幕府의 쇄국정책으로 외국문물이 일본으로 들어가는 창구는 초량왜관과 長崎였다. 초량왜관으로부터 쓰시마를 통해 조선 문물이 간접적으로 일본으로 유입되었고, 나가사키를 통해서 많은 중국 문적이 직접 일본으로 들어가 18세기 후반기 일본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당시 長崎에 명나라 말기의 古器·書畫·서적·약재 등이 넘치고,<sup>86)</sup> 조엄이 오사카에서 명나라 사신 董越의 『朝鮮賦』를 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87)</sup>

에도 중기 중국 福建지방 출신 黃蘗僧들이 대거 渡日해왔으며, 명말청초 해상무역이 福建지방 상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sup>88)</sup> 이후 청조가 들어서면서 점차 강남 경제가 번성하였고, 18세기 도일한 중국인들 중에는 沈南蘋, 伊孚九, 費漢源, 費晴湖, 江稼圃 등 江蘇省과 浙江省 출신이 화가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일본 화단에 영향을 미쳤을 명청 회화 대부분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남화가 池大雅는 1720년 도일한 청대 정통과 화풍의 산수화가 伊孚九(1698-1747)의 화법을 배웠는데, 옛 법서 수백 첩을 모사해 소장한 것으로 유명한 간텐주[韓天壽, 1727-1795]가 두 사람의 작품을 임모하여 1803년 『伊孚九池大雅山水畫譜』로 출간하여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sup>89)</sup>

오사카의 유명한 장서가 기무라 켄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는 자신의 서재에 서적 3만 권을 비장하였는데, 대부분 남경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가사키에서 구매한 것이었다.<sup>90)</sup> 작품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가 소장한 작품 중에는 문징명과 같은 명대 오판과 당시 도일한 청대 화가들의 작품이 다수 포함되었다.<sup>91)</sup>

83) 조엄, 『해사일기』5, 갑신년 6월 18일.

84) 김남식, 「일본의 기독교 수용과정 연구」, 『신학지남』290, 2007, 269-313.

85) 조엄, 『해사일기』2, 계미년 12월 24일.

86)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63, 天涯知己書; 朴趾源, 『熱河日記』, 銅蘭涉筆.

87) 조엄, 『해사일기』3, 갑신년 1월 4일.

88) 黃蘗宗은 일본 3대 선종의 종파 중 하나로 중국 명말청초의 선승 隱元隆琦(1592-1673)가 1654년 福建省의 萬福寺에서 다수의 승려들을 이끌고 도일하여 새롭게 창립된 종단으로 이들 도래승의 귀화를 계기로 중국의 명청문화가 일본에 직접 전수된 것을 黃蘗文化라고 부른다. 人見少華, 「黃蘗宗と大雅」1-5, 『南畫研究』5-8號(中央公論美術出版, 1957) 박윤희, 「이케노타이가의 문인화에 대한 이해와 실제」, 『미술사학연구』255(한국미술사학회, 2007), p. 199 재인용.

89) 박윤희, 위 논문, pp. 212-213.

90) 元中舉, 『乘槎錄』권2.

91) 蒹葭堂이 실견한 서화 목록은 『蒹葭堂隨筆』과 소장한 서화 목록은 木村蒹葭堂, 『蒹葭堂書目』(大坂中之道圖書館所藏本)에 의거한 김영남, 「기무라켄카도(木村蒹葭堂, 1736-1802)의 繪畫 研究」, 『미술사학』21(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7), pp. 123, 125 <표 1>과 <표 2> 참조.

1764년 통신사 서기 성대중과 기무라 켄카도를 중심으로 한 오사카 문인들과의 교류 속에 남긴 작품 중 아집도, 전각, 문집 등 다수가 남아 있다. 그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蒹葭堂雅集圖>는 기무라 켄카도가 1764년 5월 성대중의 부탁으로 건본에 그리고 두루마리로 꾸며, 탄카이 지쿠조[淡海竺常, 1719-1801]의 발문과 가타야마 홋카이[片山北海], 호소아이 한사이[細合半齋] 등의 詠詩를 첨부하여 증정하였다.<sup>92)</sup> 작품은 명대 후기 오파의 아집도 구도와 유사하며, 기무라 켄카도의 문인 취향이 잘 반영되어 蒹葭堂의 아집도를 열람한 이덕무는 일본의 文雅를 높이 평가하였다.<sup>93)</sup>

또한 1764년 기무라 켄카도를 비롯하여 오사카의 후쿠하라 쇼메이[福原承明, 1735-1768], 岡山の 나카무라 카즈미[中村三實]와 전각가 사와다 도소[澤田東江, 1732-1796] 등 일본 문인들이 성대중을 비롯한 통신사절 15명의 인장을 전각하여 당시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상징적 자료로 남아 있다.<sup>94)</sup>

사와다 도소는 성대중에게 『寶晉齋帖』에서 倣한 嶧山碑搨과 葉有道碑搨을 증정하였는데, 청나라로 여행하였던 김정희를 통해 이를 기증받은 翁方綱이 「秦嶧山碑舊本」이라는 제시를 남기기도 하였다.<sup>95)</sup>

한편 사와다 도소가 동행한 韓天壽의 『醉晉齋書帖』을 남옥과 성대중에게 보이고 서첩의 제발을 청하자, 귀로에 오사카 吉原館에서 각각 발문을 써서 접반승 周宏 편에 전달하였는데 그 원본이 현존한다.<sup>96)</sup>

당시 일본 문사들의 시축 창화, 병풍과 필법 등은 독특한 개성이 있었음에도 우열을 가리지 않고 통신사 일행의 필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sup>97)</sup> 일본 문인들 사이에서 조선 서화는 중화문물을 접할 수 있는 唐繪로 간주되었는데, 남옥은 견문이 있는 일본인들의 경우 조선 사자관의 글씨를 印版體, 화원의 그림을 屏風體라 하여 사자관과 화원의 서화가 일본에서 평가절하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sup>98)</sup> 이는 일본 현지에서 요구되는 과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작한 서화가 작품성이 없고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고, 해서체 글씨와 장축에 그리는 몰개성적인 회화가 다수였음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寫字官뿐만 아니라, 일행 중 글씨 쓸 줄 아는 이는 간절한 요청에 견디기가 어려웠으며, 심지어는 배를 탄 뒤에도 글씨를 애걸하거나 조선인들의 필적을 간직하면 많은 복리가 있다고

92) 조엄, 『해사일기』5, 갑신년 6월 18일조; 李德懋, 『靑莊館全書』권32, 淸脾錄 1, 蒹葭堂.

93) 1763년 통신사행에 참여한 원중거, 성대중과 깊은 교분이 있었던 이덕무는 일본의 제도·기술·풍속·해의 통상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倭學, 西學도 이용후생에 도움이 된다면 배워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蜻蛉國志』 風俗篇, 器服篇에서 일본의 도로와 교량의 건설 방법과 현황, 선박의 제작기술, 통제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상술하였고, 『蜻蛉國志』권2 異國篇에서는 일본과 통상하는 和蘭에 주목하였다. 하우봉, 위의 책, pp. 139-189.

94) 기무라 켄카도는 당시 통신사절에게 20과의 인장을 전각해 주었으며, 후쿠하라 쇼우메이는 1월 22일에 기무라 켄카도와 통신사의 오사카 객관을 방문하여 성대중과 필담하였고, 이후 통신사 8명의 인장을 인각하여 주었다. 나카무라 카즈미는 通信使 4명의 인장을 전각하여 5월 25일 귀로에 牛窓에서 통신사를 방문하여 기증하였다.

95) 藤塚鄰 著, 『淸朝文化の東傳研究』(國書刊行會, 1975), p. 159.

96) 南玉, 『日觀記』권7, 갑신년, 3월 12일; 3월 17일. 韓天壽의 호는 醉晉, 伊勢松坂의 문인으로 백제의 餘璋王의 후예로 칭해졌으며, 당시 시서화 및 전각에 명성을 남겼다. 中川長四郎이라고도 불렸다. 『醉晉齋書帖』 원본은 성대중 필 「醉晉齋書帖錄跋」, 李白의 시 2首, 「醉晉」 2字, 南玉 筆 「書韓大年醉晉齋書帖錄後」, 「醉晉齋」 3字를 1 卷으로 하였는데, 거기에는 澤田東江이 인각한 土執이 날인되었다. 이원식, 『조선통신사』(민음사, 1991), pp. 252-259.

97) 일본 학자들과 필담창화를 담당한 인물은 제술관 南玉, 서기 成大中, 元重學, 金仁謙으로, 특히 元重學의 경우 3-4개월 동안 1천여 명의 일본 문인을 접촉하여 2천여 편의 창화에 응할 정도였다.

98) 남옥, 『일관기』권10, 서화.

간주하여 중간에서 소개하는 쓰시마 통역들이 뇌물까지 받는 상황에 이를 정도였다.<sup>99)</sup> 이렇듯 과도한 조선 서화 구청 열기는 일본 민간에서 客人信仰 및 남녀 결혼, 병을 치료하거나 순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벽사적 요구와 결부되어 災消福來의 목적이 컸다.<sup>100)</sup>

### III. 일본인이 그린 계미통신사행 관련 회화

#### 1. 賓禮를 위해 제작된 회화

계미통신사행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제작된 회화는 통신사행에 대한 일본의 賓禮 관련 회화, 그리고 통신사절의 행렬도 및 통신사절과 교류한 일본 문인의 문집 속에 포함된 통신사절의 초상화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통신사행에 대한 빈례 관련 작품으로는 통신사의 사행 노정과 접대 준비 관련 지도와 도면, 기록화와 쇼군의 회례품 중 조선국왕에게 보낸 금병풍 등을 들 수 있다.

계미통신사행의 노정을 그린 지도로는 <朝鮮人來朝道通繪圖>가 대표적 예이다. 부산에서 에도까지 통신사행이 지나는 일본 각 지역의 지명을 자세히 적고, 해로와 육로 노정을 붉은색으로 나타내어 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육지는 연한 황토로, 바다를 파란색으로 담채하였고, 오사카, 나고야, 에도 등에는 성을 그려 회화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사행 당시 조엄이 화원 김유성을 통해 모사하게 하려던 일본지도 역시 이러한 내용의 지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01)</sup> 통신사행의 서기 성대중은 당시 사행에서 일본도를 구득하여 왔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各國圖》의 ‘成大中 購來本’이라 밝힌 일본도가 당시 구득한 지도를 모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본은 1703년경 간행된 《改正大日本圓備圖》 또는 《改正大日本備圖》라 불리는 지도로, 서기 원증거는 『和國志』에 《改正大日本圓備圖》를 채색 필사하였고, 이들과 교분이 있었던 이덕무 『蜻蛉國志』에도 같은 화본이 실려 있어 두 작품의 상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sup>102)</sup> 통신사행에서 구득하거나 동행한 화원이 모사한 일본지도는 일본의 지리 정보 수집과 윤두서의 <日本輿圖>와 같이 일본의 역참 분포와 해안선의 형세, 도로 등 상세한 지리 정보를 담은 지도를 제작하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sup>103)</sup> 이는 <일본여도>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는 노정이 자세히 기록된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1764년 1월 14일 저녁 통신사 선박이 室津에 입항하였고, 이때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묘사한 작품이 <朝鮮通信使 室津湊御船備圖屏風>이다. 화면 우측 상단에 “酒井雅樂頭樣御代寶曆十四年甲申年韓使來聘 播西室津湊內御船備併御獻上御馬鷹海路行列圖”라고 쓴 카게야마 기쵸

99) 조엄, 『해사일기』 2, 갑신년 1월 11일.

100) 홍선표, 「에도시대의 조선화 열기-일본통신사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8(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pp. 141-145.

101) 1617년 통신사행에서 일본지도를 상고하며 일본을 통신사행을 다녀왔으며, 1625년 통신사행에서도 일본지도를 그려왔다. 李景稷, 『扶桑錄』, 정사년 10월 18일; 姜弘重, 『東槎錄』 을축년 3월 25일.

102) 오상학, 「조선시대의 일본지도와 일본인식」, 『대한지리학회지』38-1(대한지리학회, 2003), p. 43-44; 배우성, 「정조시대 동아시아 인식과 <해동삼국도>」,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돌베개, 1999), pp. 175-182.

103) 정약용은 <일본여도>에 대해 임진왜란 때 왜적의 진지에서 습득한 것을 윤두서가 베껴 그린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일본여도>의 모본을 1686년 간행된 <新撰大日本國大繪圖> 또는 1687년 간행된 『本朝圖鑑綱目』과 이를 증보하여 1691년 간행된 『日本山海山潮陸圖』라고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丁若鏞, 『茶山詩文集』 권22, 雜評, 李雅亭備倭論評; 오상학, 위 논문, pp. 39-41; 정두희,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휴머니스트, 2007), pp. 413-414.

[陰山儀長]의 목서가 있고, 좌측에 사행로의 일정을 기록하였다. 당시 통신사 접대를 담당하였던 藩主 사카이 타다즈미[酒井忠恭]는 1748년 통신사행의 기록을 미리 입수하여 무로즈에서 통신사 접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병풍 우측 하단에 통신사가 158년 동안 10차례 왕래하면서 일본과 우호로 결합되어 육해로의 諸官部署에서 통신사행을 대하는 빈례가 많았다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카게야마 기초는 통신사 접대를 마친 후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무로즈항에서 통신사를 맞이하는 일과 이동 행렬을 병풍으로 제작하여 藩主 사카이 타다미즈에게 헌상하고 부분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는데, 이 병풍이 바로 카게야마 기초의 家藏本으로 추정된다.

화면 속에 통신사 선박은 모두 6대로 정사선, 부사선, 종사관선을 상징하는 ‘正’, ‘副’, ‘從’이라 쓴 깃발을 휘날리며 중앙에 배치된 정사선 좌우로 각각 종사관과 부사의 선박이 위치하고, 삼사의 선박 주위로 수십 척의 선단이 정박하였다. 병풍에는 무로즈항 지형을 충실히 그리고 항구 주변의 객관에 상세한 명칭을 적었다. 특히 화면 상단에 산이 있는 고지대는 산형을 담채로 그리고 주요 건물과 소나무를 그려 회화적으로 묘사하였다.

<朝鮮通信使 兵庫津上陸宿割圖>는 1764년 1월 19일 尼崎藩 소속 攝津州의 兵庫津에 내항하였을 때 통신사의 숙소 배치 상황을 볼 수 있는 일종의 도면이다. 兵庫津는 육로와 해로의 교통 요충지로서 南浜의 浜本陣을 중심으로 주변 민가 50가구를 빌려 숙박시설로 충당하여 통신사의 접대를 준비하였다.<sup>104)</sup> 도면은 1764년 통신사 방문 때 거리의 풍경과 삼사 이하 통신사의 숙소 할당 정황을 붉은 글씨로 써넣었다. 도면 위의 O표시는 1764년 민가를 구분한 것이며, □표시는 점포들로 건어물과 漁具를 보관한 곳이라 기록하여 당시 효고즈 지역의 세분화된 도시기능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또한 배가 입항하면서부터 숙소까지 경로를 백색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도면은 당시 효고즈항에서 통신사행의 이동경로는 물론 삼사를 비롯한 상관과 하관의 관소 배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료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兵庫津入港圖>는 효고즈에 통신사선이 정박한 모습과 잔교를 건너 악대와 의장을 갖추고 숙소로 진입하는 통신사행렬의 모습을 간략한 선묘로 묘사하여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한편 통신사행의 노정에서 하천을 경유하는 길은 반드시 船橋를 제작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는데, 일본에서 선교는 중세부터 군사, 교역, 통신사와 쇼군의 이동이나 교량이 파손된 경우 임시로 설치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寶曆信使記錄』은 계미통신사행이 지나는 美濃路의 佐渡川과 起川, 東海道の 天龍川, 富士川, 酒匂川, 相模川 등 노정 곳곳에 설치된 船橋의 평면도를 자세히 묘사하였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起川의 선교 제도는 약 864m 길이로, 275척의 方舟를 일렬로 정렬하고 두꺼운 판자를 연결하여 평평하게 만든 다음 판자 양쪽을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 견고하게 하였다. 또 하천 아래로 닻줄을 고정시키고, 하천 양쪽에 큰 기둥을 세워 두 줄로 묶어 선교를 고정하였다.<sup>105)</sup> 起川 선교의 제작 일정을 살펴보면, 공사에 착수한 1763년 9월 27일부터 1764년 5월 14일 철거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는 대공사로 인력은 총 4,452명이 동원되었다.<sup>106)</sup>

104) 兵庫津는 바다를 면하지 않은 육로의 宿驛을 담당했던 岡上(港町~切戸町), 해안에 접하여 항만기능을 담당했던 北浜(東川崎町~島上町)과 南浜(船大工町~和田崎)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高久智廣, 「近世兵庫津における繪圖制作と都市空間の把握」 『兵庫津の綜合的研究』(大手前大學史學研究所, 2008).

105) 조엄, 『해사일기』3, 갑신년 2월 3일.

106) 一宮市觀光協會(<http://138ss.com/city-map/minoji/minoji-index.htm>) 船橋の歴史; 2010. 07. 26 검색 참조.

<표 1> 起川 船橋의 工事日程

연도	날짜	공사 진행 상황
寶曆1 3年 (176 3)	9월 27일	공사 착수
	10월 8일	集船 開始
	10월 15일	集船 完了
	12월 10일	물이 불어 계류 중 떠내려간 200여 척 선박 회수
	12월 14일	수복공사 완료
	12월 18일	船橋를 잇는 공사 착수
寶曆1 4年 (176 4)	1월 6일	기초 공사 완료
	1월 25 일	船橋 공사 완성(대선 50척, 소선 225척 약 864m)
	2월 3일	조선통신사 일행 통행(往路)
	2월 4일	70척 철거하여 상하 통로 만듦
	3월 31 일	조선통신사 일행 통행(復路)
	4월 1일	철거 작업 개시
	5월 14 일	철거 작업 완료

天龍川은 하천 중간에 沙洲가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배로 사이를 벌려 사주 양쪽에 닳과 말뚝에 받줄을 연결하여 고정하였다. 富士川은 폭은 넓지 않으나 바위가 많아 물살이 사나워 배 20척을 연결하여 쇠사슬로 단단히 묶고 파도가 측면에서 칠 것을 대비하여 대나무 울짙을 높게 엮어 다리 양쪽에 고정시켰다.<sup>107)</sup> 따라서 선교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원리지만, 하천의 지형적 특징에 따라 동원된 배의 규모나 수에서 차이를 보이며, 배를 고정시키는 방법도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寶曆信使記錄』에는 선교 구조 외에도 御馬 2필에 대한 안장, 등자 등 鞍具의 세부를 백묘로 그려 넣고, 에도 일정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하였다. 1764년 2월 16일 에도에 들어와 實相寺에 관소를 정하고, 27일 등성하여 관백에게 전명, 그리고 3월 1일 관백의 마상재 구경, 11일 통신사행의 회정까지 조엄의 『해사일기』 일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조엄 일행은 회정에 앞서 1764년 3월 7일 쇼군의 회답서와 별폭을 받았는데, 별폭의 물목에는 彩屏·色緞·畫床·金鞍 등이 포함되었다.<sup>108)</sup> 당시 조선국왕에 대한 회례 물목 중 채병은 1762년부터 1764년에 걸쳐 총 20쌍이 제작되었다.<sup>109)</sup> 채병은 대개 狩野派의 어용화사들

107) 남옥, 『일관기』권7, 갑신년 2월 11일.

108) 17-18세기 조선으로 유입된 일본의 금병풍은 산수, 화조, 고사인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貼金屏風の 형식이었다. 금병풍을 제외하고는 초상화가 간헐적으로 유입되었다. 통신사를 통해 조선국왕에게 헌상된 회례품 목록 중 일본의 금병풍이 정례화 되어 유입된 것은 1636년 통신사행부터이다. 홍선표, 「十七·十八世紀의 韓·日間 繪畫交涉」, 『고고미술』143·144(한국미술사학회, 1979), pp. 22-46.

이 담당하였는데, 재미통신사행의 회례 금병풍은 조센 유키노부[常川幸信, 1717-1770], 탄린 모리노시[探林守美, 1732-1777], 에이센 미치노부[榮川院典信, 1730-1790], 바이겐 도미노부[梅軒富信, ?-1774] 등 대개 쇼군의 후원을 받은 명문가 출신들로 지배계급의 미의식을 반영하는 장식적인 경향이 강한 작품을 남겼다. 일본 화사가 그린 채병은 미치노부의 예처럼 조선 화원 김유성에게 자신이 제작한 금병풍을 미리 보여 주어 사전 점검을 받기도 하였다.<sup>110)</sup>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당시 일본 막부에서 조선국왕에 보낸 회례품으로 보이는 <牧丹圖屏>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 그림은 장식 구름과 노을을 배경으로 홍백의 모란과 바위가 묘사되었다. 우측 하단의 낙관에는 묵서 ‘梅笑圖’와 [榮信]이라는 인장이 있어 바이쇼우 에이노부 [梅笑榮信, 1728-1807]의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111)</sup>

## 2. 통신사절의 行列圖와 人物畫

한편 재미통신사절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행렬도는 목판으로 제작된 坊刻本을 포함하여 다음 네 점이 전한다. 통신사행의 渡日 일정이 조선과 일본 양국 간에 합의가 되면 일본 각지에서는 통신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기존 통신사행의 행렬도를 표본 삼아 목판으로 한 면 또는 첩 형태로 해당 통신사행의 정보와 행렬 삽화를 주문 제작하여 유통하였다.<sup>112)</sup>

《朝鮮通信使登城行列附曲馬圖》는 상단에 통신사행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하단에 채색을 가미하여 해당 내용을 목판 삽화로 도해한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조선통신사와 쓰시마 종가 일행이 에도성에 들어가는 등성행렬, 馬上才, 朝鮮人來聘年譜가 수록되어 있다. 등성행렬은 삼사가 양관에 조복차림으로 남여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며, 마상재는 말 위에서 화살을 쏘는 馬上矢拾과 말을 타고 좌우로 말을 뛰어 넘는 左右七步 등이 묘사되었다. 이러한 마상재는 1636년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 1604-1651]가 처음 관람한 이래 에도에서 관백 앞에서 恒例로 펼쳐졌으며, 이를 직접 볼 수 없었던 일본 서민들에게까지 판화로 제작하여 보급되었다.

작품의 권미에는 朝鮮人來聘年譜를 비롯한 제작자, 발행시기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연보에 기록된 재미통신사행의 삼사 명단은 조선 측에서 출발 직전 삼사가 체차되었기 때문에 당초 삼사의 이름 위에 덧붙여 수정하였다. 작품의 발행 시기는 “寶曆十三 癸未歲五月吉旦”라고 하여 통신사가 조선에서 발행하기 전인 1763년 5월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목판본의 제작과 판매처를 기입하였는데, 에도 淺草 本願寺에서 제작되어 교토에서 판매된 삽화 목판본임을 알 수 있다.

뉴욕시립도서관 소장 《韓客興行圖》는 조선통신사행에 대한 문인화가 池大雅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개성적 작품으로 조선통신사행을 수목으로 묘사하였다. 화권의 내용은 의장을 든

109) 남옥, 『일관기』권8, 갑신년 3월 7일; 원중거, 『승사록』권2, 갑신년 3월 7일.

110) 武田恒夫, 『狩野派繪畫史』(吉川弘文館, 1995); 서운정, 「1764년 通信使의 繪畫活動과 그 交流」(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 64-72.

111) 『古畫備考』권39 「狩野譜」에는 에이노부는 처음 興信으로도 불리다가 후에 師信이라 하였고, 『古畫備考』권45 「宮殿筆者」 중 조선 병풍 필자 부분에 1764년 조선통신사 래빙 때 御屏風の 筆者로 梅笑師信을 과건하였으며, 자필 저서에도 1762년 조선어용의 <牧丹菊流水圖> 1점을 그렸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 작품으로 추정된다. 『朝鮮王朝의 繪畫と日本-宗達, 大雅, 若冲も學んだ隣國の美-』(読売新聞大阪本社, 2008), 도판 216 해설.

112) 여기에는 전문적인 막부의 직업화가나 대도시의 여기화가들 뿐만 아니라 통신사행렬이 지나가는 지역의 마차에서도 이러한 목판 삽화 제작에 참여하였다. 1711년 제작된 통신사행렬도 목판본에 대해서는 정은주, 「正徳元年(1711) 조선통신사행렬회권 연구」, 『미술사논단』23(한국미술연구소, 2006), pp. 227-229.

기마 인물들이 앞서고, 그 뒤로 국서를 봉안한 용정, 그리고 정사의 屋輜를 차례로 그렸다. 따라서 행렬의 상징적 소재만을 그리고 나머지는 생략하여 행렬의 전모를 그린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화권 말미에는 “無名 [霞樵] [王皇香案史]”라는 타이가의 낙관과 함께 “擬金畫史筆迹”이라는 관지가 있어 1763년 통신사 수행화원 김유성의 화의를 계승하여 이 작품에서 독자적인 화경을 그려내었음을 알 수 있다.<sup>113)</sup> 대부분 통신사행렬도가 섬세한 공필의 채색화로 통신사행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것과 달리 《韓客輿行圖》는 타이가의 指頭畫風으로 묘사하여 문인적 아취를 잘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타이가가 1763년 겨울 화원 김유성과 통신사행을 가까이서 접촉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114)</sup>

나고야 興正寺에 소장된 《韓使來聘圖》는 제11회 통신사의 관직과 이름을 기록한 『韓客一行座目官姓名』과 함께 소장되어 재미통신사행을 그린 행렬도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이 코우쇼우지에 소장된 것은 이곳 주지 諦忍과 尾張藩의 유학자 마즈다이라 쿤잔[松平君山, 1697-1783]이 친교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행렬도에는 조선통신사 130명과 일본인 100여명이 묘사되었다. 청도기를 앞세우고 의장이 늘어선 가운데 정사가 옥교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과 소동과 의장기가 뒤따른다. 이어서 악대가 고동과 나팔, 북 등을 연주한다. 이때 정사의 옥교는 용정 뒤에 오는 것이 옳으나 여기서는 순서상 착오가 있는 듯하다. 그 뒤로는 행렬이 고갯길을 지나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그려졌다. 고개를 경계로 쓰시마번 출신 관료가 앞선 가운데 국서를 실은 용정이 지나고 말을 탄 소동들과 호피를 깐 小輜를 대동하고 부사와 종사관이 옥교를 타고 이동하는 행렬이 이어진다. 또한 노정에서 물가를 이동하는 부분에 수파 표현이 인상적이다. 기존 통신사행렬도에서는 보이지 않는 험난한 고갯길이나 수파의 배경 화면이 등장하여 현장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통신사절의 하관들 중 용정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신발 매무새를 확인하는 인물이나 용정 바로 뒤에서 뒤쪽을 바라보며 담배 연기를 내뿜는 인물이 묘사되어 조선국왕의 국서를 담은 용정에 대한 엄숙한 태도는 찾을 수 없다. 또한 해변을 지나는 행렬 중에는 긴 곰방대로 담배를 피우거나 마부가 이끄는 말 위에서 잠을 자는 인물 등 기존 경직된 분위기의 행렬도보다 인물의 동세나 표정 등 세부 상황을 자연스럽게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나고야 崇覺寺 소장 《朝鮮通信使繪卷屏風仕立圖》는 통신사 행렬을 그린 6폭 병풍이 한 쌍을 이루는 총 12폭 병풍으로 조선통신사 104명과 일본인 216명이 등장한다. 1764년 통신사 행렬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림을 보존했던 나무상자에 붙여진 종이에 安政 6년과 7년이라 명기되어 있어 이는 실제 행렬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다른 소장처의 화본을 바탕으로 1859년과 1860년 3월 18일 이전 여러 명의 화사가 모사하고 가필 또는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sup>115)</sup>

화면의 구성은 행렬의 맨 앞에 위치하는 청도기와 형명기가 중간에 위치하고, 정사의 옥교 앞에 위치해야 할 용정이 역관의 가마 뒤에 위치하는 등 상황 과정에서 순서에 다소 혼선이 있었던 듯하다. 또한 옥교를 탄 삼사를 묘사할 때, 정사 조엄을 제외하고 부사의 옥교 문은

113) 타이가는 1748년 통신사행과 1764년 통신사행과 교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1748년 통신사행의 화사로는 이성린이 참여하였으므로 여기서 金畫史는 1764년 통신사행의 화원 김유성임을 알 수 있다.

114) 이케노 타이가와 조선통신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Burglind Jungmann, *Ike Taiga's Circle and Korean Embassies, Painters as Envoy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p. 121-166.

115) 이 작품은 1996년 崇覺寺에서 東海地方朝鮮通信使研究會의 貫井正之에 의해 재미통신사행을 묘사한 작품이라 공개된 바 있다. 貫井正之·毛井正勝·小出裕, 「江戸時代、朝鮮通信使の基礎的研究-特に東海地方(岐阜県・愛知県・静岡県)を中心にして」, 『青丘學術論集』18(東京: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2001), p. 117.

닫혀있고, 종사관은 열린 옥교 문 사이로 의복의 일부만 보여 얼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삼사 뒤에 배치된 빈 소고는 보통 호피를 깔았는데, 화면에서는 초록바탕의 화려한 문양의 비단으로 처리하였다. 인물의 얼굴에서 주름이나 수염 등에 차이를 두어 나이를 반영하였으며, 인물의 복식, 말의 색깔과 문양에서 다양한 변화를 피하여 화려한 장식미를 더한다. 특히 인물의 얼굴과 말의 근육에 명암을 주어 입체감을 살렸다.

다음으로는 일본문인과 통신사 관련 필담 또는 수창록에 묘사된 통신사질의 초상을 들 수 있다. 1764년 2월 3일과 3월 29일 나고야 관소 性高院에서 마즈다이라 쿤잔[松平君山, 이름 源雲, 1697-1783]과 그 자손 9명이 통신사 제술관 남옥과 서기 성대중, 원중거, 김인겸 등과 시문을 수창하였다.<sup>116)</sup> 이에 대해 《尾張名所圖繪》에 관련 작품이 전한다. “성고원의 서원에서 朝鮮人詩文贈答圖”라는 부제를 적은 그림으로 君山이 갑신년 봄 통신사가 유숙한 성고원에서 시문을 수창한 정황을 적었는데, 이때 남옥이三世가 한자리에서 시문을 엮는 것은 희대의 진귀한 일로 冊題를 “三世唱和”라 했던 내력을 기술하였다. 화면 내 쿤잔의 제발은 수창한 시를 편집한 『三世唱和集』에서 남옥의 서문을 인용한 것이다. 이 작품은 1811년 11월 쓰시마의 사기야 키자에몬[三木屋喜左衛門], 에도의 니시무라 겐로쿠[西村源六]가 公刊하였고, 판매자는 에도의 쓰루야 킨수케[鶴屋金助]였다. 특히 그림은 에도 후기 우키요에의 대가였던 기타가와 우타마로[喜多川歌麿, 1753-1809]의 화본으로 제작되어 주목된다.

澤田東江(1732-1796)는 유명한 서예가이자 전각가로 막부장군 회답서에 찍힌 인장을 전각한 인물로 1764년 3월 11일 시나가와[品川] 客館에서 제술관 남옥, 서기 성대중과 재회하여 2명의 인장을 새겨주었다. 그는 接伴僧 維天承瞻을 동행한 승려 周宏의 소개로 통신사와 만나 엮은 필담창화시를 모아 『傾蓋集』이라 이름 붙였다.<sup>117)</sup> 『傾蓋集』에는 제술관 남옥과 서기 성대중, 원중거, 김인겸 등 4명의 화상을 그리고 제찬까지 첨부하여 한층 아취가 있다. 그중 성대중의 화상찬은 다음과 같다.

書記 正使屬 前銀溪察訪 成大中 字士執, 號龍淵, 昌寧人, 壬子生 三十三齡.

서기 정사 소속으로 전 은계찰방이다. 성대중의 자는 사집, 호는 용연이며, 창녕인이다. 임자생(1732)으로 33세이다.

客是靑雲器      그대는 청운의 뜻을 펼칠 그릇,  
龍淵殊妙年      용연은 특히 꽃다운 나이로.  
中心毫素滿      마음 속 붓과 종이 가득하니  
詩卷此長傳      시권 이로써 길이 전하리.  
東郊平鱗題<sup>118)</sup>

성대중의 화상은 33세의 젊은 문인 모습으로 붓을 들고 시문을 짓는 진지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한편 1707년 丁亥生으로 당시 58세였던 서기 김인겸은 종사관 소속 서기로 앞서 성대중과 같이 전신좌상으로 묘사하였고, 풍만한 체격에 얼굴의 주름과 수염에서 연륜을 느끼게 한다.

116) 당시 시문수창에는 源雲[호 君山], 아들 源武, 손자 源彦을 비롯하여 八木光賢, 岡田宜生, 아우 惟周, 加藤文中, 藤茂, 千村鼎臣 등이 참여하였다. 남옥, 『일관기』권7, 갑신년 2월 3일; 『일관기』권8, 3월 29일; 4월 6일.

117) 이원식, 앞의 책, p. 257.

118) 澤田東江의 초년 이름은 平鱗, 호는 東郊, 源鱗이다.

일본국회도서관 소장 『東槎餘談』은 1764년 3월 7일 에도에서 만난 통신사절과 자칭 한나라 후손인 劉維翰의 필담으로 제술관 남옥, 서기 김인겸, 성대중, 원중거, 화원 김유성 등 통신사절 15인의 초상화가 寫眞 부분에 수록되었다.<sup>119)</sup> 제술관 남옥은 이미 시를 쓴 목적을 앞에 두고 감상하고 있으며, 서기 세 사람은 각각 儒巾, 복두, 사모 등 다른 착의를 하고 있다. 성대중은 막 두루마리 종이에 시상을 적어 넣을 것 같은 모습이고, 김인겸은 주름 많은 얼굴에 벼루를 앞에 두고 한손에 붓을 쥐고 있다. 劉維翰은 김인겸의 인상이 얼굴에 살이 찌고 눈이 둥글며 수염이 많아 순박한 학자의 풍모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傾蓋集』의 화상이 더 실제 인물에 가깝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유성은 유건에 도포를 착용하고 반가좌에 몸을 앞으로 숙여 산수화 그리기에 몰두한 모습이다. 서기와 화원의 역할에 맞는 도구를 삽입하여 초상을 그림으로써 당시 정황을 더욱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니야마 다이호[新山退甫, 1723-1775]의 『韓客人相筆話』는 1764년 교토에서 만난 조선통신사절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성은 조선인의 초상을 그리고, 중간에 관상 내용과 문답을 기록했으며, 마지막에는 조선인의 관상에 대한 통론을 통해 일본인 관상과의 차이를 적고 있다. 다이호가 이런 통신사의 초상을 『한객인상필화』에 남기게 된 계기는 아쿠타가와 히코아키[芥川丹丘, 1710-1785]의 서문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이호 일행은 통신사 행렬의 의관과 복장이 완전히 중국과 닮은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sup>120)</sup> 또한 조선인의 용모가 골격이 준수하며 피부가 깨끗하고 탄탄하여 일본인과는 차이가 있어 다이호와 그의 문하생들은 통신사의 관상과 일본인의 차이점을 분별하려는데 의미를 두었다.

『한객인상필화』 내의 조선인 초상은 조선인들의 관소에 다이호와 동행했던 그의 문인 아베마키 마토[精馬東]가 그린 인물상을 모각한 것이다. 초상은 삼사, 당상역관, 서기, 양의, 군관, 하관의 모습까지 다양한 부류를 묘사하였다. 인물의 복식은 군관과 하관을 제외하고 두루마기에 조대를 입었으며, 다만 관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안 8분면 초상인 군관 김상옥을 제외하고는 모두 좌안 6분면의 측면 흉상으로 그려졌다.

우선 정사와 부사, 종사관은 臥龍冠과 欄衫을 착용하였다. 조엄의 초상은 조선에서 제작된 오사모에 편복을 입은 초상과 비교할 때 눈썹을 과장되게 치켜 올렸으며, 수염을 매우 거칠게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머리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내민 흉상으로 일본인 앞에서 위엄 있고 당당했던 조엄의 성격을 반영하는 듯하다.

당상역관과 양의 이좌국의 관모는 유건이다.<sup>121)</sup> 서기 성대중의 초상은 복건에 심의를 착용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또한 다른 인물보다 비교적 짧은 수염을 통해 33세의 젊은 나이를 보여주는 듯하다. 이는 『傾蓋集』과 『東槎餘談』에서 성대중의 화상을 수염 없는 단아한 얼굴에 유건과 단령을 착용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흑립에 반소매의 쾌자를 착용한 전 강령현감 이해문은 매우 풍만한 체구에 54세의 나이에

119) 《동사여담》의 체제는 井孝德과 宮田明의 서문, 상권의 권두에 劉維翰이 통신사를 만나게 된 경위와 통신사를 대하는 일본인들의 관습, 그리고 직접 만난 통신사들의 외모와 특징을 실었다. 이어 간략하게 인물을 소개한 글과 함께 초상화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하권 끝까지는 모두 필담이며, 부록으로 통신사 일행과 창수한 시를 실었다. 정민, 「《동사여담》에 실린 이언진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휴머니스트, 2007), p. 319.

120) 新山退甫, 『韓客人相筆話』, 韓客神相編序.

121) 삼사의 복식과 구별하기 위해 삼사만 정자관과 학창의를 착용하고, 제술관 남옥 이하 중인층에는 幅巾과 도포를 착용하게 하였다. 남옥, 『일관기』권5, 계미년 5월 16일.

도 비교적 짧은 수염만 묘사하였다. 군관 김상옥은 전립 아래 모피를 두르고 동달이를 착용하였고 짙은 수염으로 더욱 강한 인상을 연출하였으며, 특히 이들이 등 뒤에 찬 활통이나 칼은 무관으로서 그들의 직책을 보여주는 소품이다. 한편 한 화면에 전신상으로 묘사한 下官 2명은 폭이 좁은 소매와 바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산담과 술병을 소품으로 그려 넣고 얼굴의 표정에서 가볍고 익살스런 이미지를 더욱 극대화하였다.

남옥은 일본의 그림이 중국 화보와 유사하나 창고한 맛이 적고, 산수초목·영모는 자못 꺾진 하지만, 인물은 전혀 닳게 그리지 못한다고 평한 바 있다.<sup>122)</sup> 이를 반영하듯 현존 문집에 수록된 통신사절의 초상화는 전반적으로 얼굴의 인상 자체를 공필로 꺾진하게 묘사하지 못하고 백묘법으로 인물의 체구와 복식에 차이를 두었다.

#### IV. 재미통신사행에서 畫員 활동

##### 1. 수행화원 金有聲

조엄은 조선 조정에서 통신사로 파견하는 원역 중 사자관·화원·別破陣·馬上才·典樂·理馬를 데려간 이유를 어떤 종류의 기예라도 일본에 지지 않게 하려함이라 밝혔다.<sup>123)</sup> 따라서 통신사행의 화원 역시 일본에 조선 문화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사절의 한 사람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통신사의 수행화원은 모두 화원 품직에서 최상 품계인 종6품 이상의 선화자를 차출하였다. 1763년 수행화원이었던 김유성의 경우 정3품의 서반에게 주던 折衝將軍으로 차출되었으며, 정사가 이끄는 一房에 소속되어 일본에 다녀왔다.<sup>124)</sup>

현재까지 김유성에 대한 개인 정보는 거의 알려진 바 없으나, 1764년 4월 니야마 다이호의 문인 유구치 다메미쓰[湯口爲光]를 만나 창화한 『한객인상필화』에서 그의 신상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sup>125)</sup>

김유성의 자는 중옥, 호는 서암, 나이 40세이다. 다메미쓰가 그에게 말하길, 골격이 풍만하고 미간이 청수하며, 귀의 색깔은 밝고 윤기가 있어 부귀하고 이름을 높일 상이다. 다만 나이에 어두운 기운이 있어 반드시 병환이 있을 것이다. 서암이 말하길, “과연 지금 병환이 있다.” 또한 “언제 부귀를 얻고 언제 아들을 낳겠는가?”물었다.

다메미쓰가 말하길, “44세와 45세 때 기색이 열리면 길해질 것이다. 만약 부귀를 얻지 못하면, 훌륭한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였다.<sup>126)</sup>

金有聲(1725-?)의 본관은 김해, 자는 仲玉, 호는 西巖이다. 사행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로

122) 남옥, 『일관기』권10, 총기, 서화.

123) 조엄, 『해사일기』1, 재미년 8월 3일.

124) 남옥, 『일관기』권1, 범례 좌목; 수행화원이 제8차에 해당하는 1719년 통신사행부터 一房에 소속되어 正使船에 승선하였다. 홍선표,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회화활동」, 『미술사논단』 (한국미술연구소, 1998), p. 187; 「조선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파견과 역할」, 『미술사학연구』205(한국미술사학회, 1995), p. 12.

125) 성은 湯口, 자는 寬之, 호는 止止齋였다. 新五郎이라 칭해지기도 하였으며, 山城 출신이었다.

126) 니야마 다이호[新山退甫, 1722~1775], 『韓客人相筆話』, 金有聲 字仲玉, 號西巖, 四十齡. 爲光相之曰, 骨格豊滿, 眉目清秀, 耳色明潤, 主富貴名譽, 但年壽相生暗氣必發病患. 西巖曰, 果今有病患, 又曰何年得富貴, 何年出子乎. 爲光曰, 四十四, 五之際 得一開色則吉也, 若不得富貴則或可生好男也.

몸이 건강하지 못하였고, 슬하에 아들이 없었던 모양이다. 『한객인상필화』의 김유성 초상은 다이호의 문인 중 에도 출신의 아베마키 마토[樁馬東]가 그린 것으로, 위에서 다메미쓰가 말한 것처럼 풍만한 몸에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김유성은 중3품까지 오른 화원임에도 사행 전후 조선에서 활동은 뚜렷하지 않다.<sup>127)</sup> 의궤 제작에 차출되거나 참여한 기록도 없으며, 화원가문을 형성한 내력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현존하는 그의 작품은 계미사행의 수행화원으로 활동했던 1763년과 1764년에 집중되어 있다.

정사가 관할하는 일방 소속이었던 김유성은 대개 조엄의 요구에 응하여 대외적인 繪事를 수행하였다. 1763년 11월 4일 쓰시마 西山寺에서 머물 때, 쓰시마 도주가 관례로 서화와 마상재를 보내주길 청하자 사자관, 마상재와 더불어 화원 김유성을 府中에 보내 시제에 응하도록 하였다.<sup>128)</sup> 12월 21일에는 藍島에서 왜선 수백 척이 돛을 달고 지나가는 낙조의 진경을 김유성에게 그리도록 하였으며,<sup>129)</sup> 1764년 1월 24일에는 오사카에서 일본 지도 改正本을 얻어 그리게 하였다.<sup>130)</sup>

그밖에 김유성은 일본에서 많은 문인, 화가와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사와 동행한 유학자 나와 로도[那波魯堂, 1727-1789]에 의하면, 각지에서 김유성의 그림을 구하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木村蒹葭堂는 1764년 3월 오사카에서 통신사 일행과의 전별연에서 《栖志帖》을 받았는데, 김유성의 그림과 성대중의 시가 함께 조화를 이룬 시화합벽첩으로, 『蒹葭堂書目』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이다.<sup>131)</sup>

1764년 2월 29일 에도에서 청나라 출신 화가 邊瑛(1749-1822경)이 김유성 일행을 방문하여 꽃 속에 까치가 노니는 채색화조화를 예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sup>132)</sup> 변영은 당시 나이 16세로 김유성과도 접촉하였으며, 김유성은 그를 위해 산수화를 그려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유성의 산수화를 목판으로 모각하여 간행한 《模刻金有聲山水版畫》내의 <산수도>에는 “甲申暮春朝鮮西岩爲日本邊瑛寫 [仲玉][金有聲印]”이라는 관지가 있다. 이처럼 김유성의 산수화가 판화집으로 간행되어 邊瑛을 비롯한 일본화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성은 1764년 2월 22일경 淺草 本願寺에서 大學頭 하야시 노부유키[林信言]와 圖書頭 하야시 노부요시[林信愛] 부자와 창화하였다. 『韓客唱和』에 의하면 노부유키는 1748년 이성린과 만나 그림을 받았으며, 1764년에도 김유성으로부터 회화 여러 폭을 받고 시와 扇墨으로 답례하였다. 노부유키는 산수화가로서 김유성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노부요시는 김유성의 인물화를 당나라 周防, 말 그림을 송나라 李公麟에 비유하였다.

127) 통신사 수행화원 김유성을 중심으로 다룬 논저는 다음과 같다. 山內長三, 「金有聲と僧敬雄」, 『韓國文化』 34(1982. 7); 郷司泰仁, 「寶曆度朝鮮通信使の畫員金有聲について」, 『靑丘學術論集』23(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2003); 吉田宏志, 「朝鮮通信使に隨行して來日した畫員, 金有聲について」, 『朝鮮通信使展; 江戸時代の善隣友好』(常葉美術館, 2004).

128) 조엄, 『해사일기』2, 계미년 11월 4일; 쓰시마 번주가 수행화원과 사자관을 청하여 시제를 행한 것은 병자사행부터였으며, 1655년 을미사행부터 쓰시마 府中에서 舊例의 명목으로 지속되었다. 홍선표, 앞의 논문(한국미술연구소, 1998), p. 188.

129) 조엄, 『해사일기』2, 계미년 12월 21일.

130) 조엄, 『해사일기』3, 갑신년 1월 24일.

131) 《栖志帖》은 도쿄대학의 坂倉聖哲 교수가 홍선표 교수에 문의함으로써 학계에 그 존재가 알려졌으며, 이 시화첩에 쓴 那波魯堂(1727-1789)의 발문을 통해 제술관 남옥, 서기관 원중거, 성대중, 김인겸과 시화를 수창하였으며, 서화는 사자관 홍성원, 이연우, 화원 김유성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김영남, 앞의 논문, pp. 127-128.

132) 남옥, 『일관기』권8, 갑신년 2월 29일; 邊瑛의 호는 玄兌이며, 東都(今 河南 洛陽)人이다. 일본 文化年間 각본인 《卞氏畫譜》4권과 《玄兌先生畫譜》2권이 전한다. 吳心毅 撰, 『歷代畫史彙傳補編』(1977, 香港; 博雅齋).

이노우에 시메이[井上四明, 1730-1819]와 창화는 『槎客萍水集』권3에 보이는데, 1764년 1월 14일 牛窓客館에서 만난 시메이는 김유성의 산수화를 당나라 吳道子에 비유하였다. 또한 京都客館인 本國寺와 大坂客館에서 유학자 오에 수게히라[大江資衡, 1729-1794]와의 필담은 『問佩集』에 수록되었는데, 이때 수게히라는 김유성을 중국 동진의 도석인물화가 顧愷之에 비유하였다.<sup>133)</sup>

따라서 김유성은 중국 역대 유명 화가들과 비견될 정도로 일본의 문인들에게 그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들과 창화할 정도로 시문의 교양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문인들이 김유성의 인물화를 고개지, 말 그림을 이공린에 비유하고 있어, 김유성이 일본에서 인물화뿐만 아니라 말 그림도 그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채색인물화를 그린 당나라 주방에 김유성의 인물화를, 백묘 인물화를 잘 그린 오도자에 김유성의 산수화를 비유하고 있는 점은 다소 이례적으로 일본인들의 중국화에 대한 이해가 화보를 위주로 이루어진 한계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 유전하는 김유성의 작품은 14점 정도가 알려져 있다.<sup>134)</sup> 김유성의 유작은 인물화·산수화·화조화로 구별되는데, 그중 도석인물화에서는 조선중기 절과화풍이, 화조도와 산수화에서는 심사정 類의 남종화풍이 엿보인다.<sup>135)</sup> 김유성을 비롯한 통신사 수행원들의 작품은 대부분 사행 노정에서 일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즉흥적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아 대작보다는 소품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시간과 정성을 쏟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채색화 보다는 수묵산수화와 감필화 형식의 도석인물화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일본인들이 선호하던 주제를 위주로 제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중 작품의 관지에 일본에서 수요를 감안하여 ‘朝鮮’, ‘朝鮮國’의 국호와 1764년 제작시기를 밝힌 ‘甲申’이라는 간지를 동시에 명기한 작품은 앞서 살펴본 산수판화와 《栖志帖》을 포함하여 총 5점 정도이다.

개인소장 <劉海戲蟾圖>는 “甲申暮春朝西巖寫”라 하여 다른 작품의 관지에서 ‘朝鮮國’을 밝히던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유해는 중국 도교의 팔선 중 한명으로, 돈을 물어다주는 세발 금두꺼비와 함께 등장하는 財神으로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화면에서 유해는 南海를 배경으로 세발 금두꺼비를 엮전 꾸러미로 희롱하고 있다. 더벅머리에 포의를 입고 왼팔을 뒤로 젖히고 오른발을 높이 올린 유해의 역동적 모습을 빠른 필선으로 묘사하여 마치 금강역사상을 연상시킨다.

최근 일본 순회전에서 소개된 순천대학교박물관 소장 <雲龍圖>는 화면 우측 상단에 “甲申暮春朝鮮國西岩寫[金有聲]”이라는 관지를 적었다. <운룡도>는 辟邪의 상징으로 자주 그려지던 소재로, 입에 여의주를 물고 구름 속을 유영하며 승천하는 용의 극적인 모습을 묘사하였다. 용의 일부를 구름으로 가려 생략하거나 하단의 수파 표현을 생략하여 운룡을 부각시킨 점은 남송대 陳容의 용 그림에 토대를 둔 심사정 <운룡등천>의 영향이 간취되지만, 화염을 뿜으며 승천하는 용의 동세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淸見寺 소장 《山水花鳥圖押繪帖屏風》은 본래 6점의 작품 중 <금강산도>, <화조도>, <매

133) 鄕司泰仁, 앞의 논문,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2003), pp. 36-39.

134) 일본 통신사행과 구무품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은 <표 2>에서 정리하였다.

135) 沈師正의 영향을 계승하여 조선후기 미법산수를 비롯하여 남종화풍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鄭歡派 진경산수화 풍을 일본 화단에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안휘준, 『韓日 繪畫關係 1500年』, 『조선통신사』(국립중앙박물관, 1986), pp. 139-141.

조도>, <낙산사도> 4점이 남아 병풍으로 꾸며졌다. 淸見寺에는 정사 조엄 이하 통신사 일행이 주지승과 시화를 수창한 유묵이 20여점 전하는데, 그중 주지 간레이 슈닌[關樞主忍]이 1764년 2월 11일 세이켄지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삼사에게 전달한 書狀에서 이 작품을 그리게 된 계기를 찾을 수 있다.

조선국 삼사에 삼가 사됩니다. 담와 홍공[洪啓禧]이 말씀하시길, “청견사는 우리나라 낙산사와 방불하다”고 하며 방역이 동떨어져 그 승경을 볼 수 없음을 오래도록 한탄하였습니다. 지금 다행히 통신사행을 맞으니 그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엿드려 청하오니 휘하의 화사로 하여금 그 승경을 그리도록 명하여 귀로에서 줄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림에서 옛말을 비취보고 영원히 山門의 진귀한 보배로 삼겠습니다. 또한 『鼇山唱和集』을 바쳐 이를 증명하오니 열람하시면 아실 것입니다. 별도로 礬紙[美濃紙] 6매를 부쳐 부디 바랄 따름입니다.<sup>136)</sup> 공손히 삼가 아됩니다.

甲申年 淸見寺住持 關樞主忍 書狀

주지 간레이 슈닌이 1748년 정사 홍계희가 청견사의 풍광과 가람의 웅대함을 조선의 낙산사와 유사하다고 상찬한 것을 떠올리며, 낙산사의 화본을 귀로에 그려줄 것을 간청하였던 것이다.<sup>137)</sup>

세이켄지 소장 유묵 중 1764년 3월 20일 회정에 통신사절과 주지의 「筆談記」에는 주지에게 사찰에 있는 남용익의 시문을 현판으로 새겨 걸 것을 제안하며 “金剛山圖, 當爲師略略指示”라고 하여 화원 김유성에게 금강산도를 그리도록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38)</sup>

제1폭 <금강산도>에는 “金剛山 皆骨, 一萬二千峰 未能盡畫 亦未能盡書, 甲申春 朝鮮國西巖寫 [金有聲]”이라는 낙관이 선명하다. 김유성은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을 비롯하여 보덕굴, 정양사 등 금강산의 주요 지표가 되는 지명을 해당 경물 위에 써넣어 지도적 요소를 가미하였다. 특히 이 그림에서는 겨울 계곡산을 수직으로 뻗어 내린 암봉과 미점준을 가미한 토산, 그리고 T자형 소나무 등 전형적인 정선의 진경산수화풍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금강산의 최고봉인 비로봉을 낮게 묘사하고, 혈망봉을 상대적으로 높게 묘사하여 실제 화본을 보고 그린 것인지는 의문이다.

정사 조엄은 三島에 머물면서 富士山을 산이 부대하고 중후하여 이름과 어울리며, 일본에서 제일가는 主鎮山이라 평가하면서도 과거 조선통신사의 詩章에서 후지산을 조선의 금강산에 자주 비유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흥미롭다.<sup>139)</sup>

제2폭 <화조도>의 화면 우측 상단에 “甲申春朝鮮國西巖寫 [金有聲]”이라 낙관하였다. 화면의 하단은 이끼 낀 괴석을 부벽준과 태점을 사용하여 거칠게 묘사하였고, 물골 담채로 묘사된 작은 꽃나무가 희미하다. 화면을 가로지르며 길게 뻗은 농묵의 나뭇가지 위에 막 비상하려는

136) 『鼇山唱和集』은 세이켄지에서 이전 통신사절과 수창한 시문집으로, 여기에 수록된 1748년 홍계희의 시문 중에 세이켄지와 낙산사를 비유한 내용이 언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지 간레이 슈닌이 작성한 『日誌』 중 寶曆 14년 갑신 2월 11일조에는 통신사 삼사에게 시를 적은 墨蹟 50장과 그림을 부탁하였는데, 이때 그림은 繪紙 8장을 사용하여 에도에 머무는 동안 그려주겠다고 전해 들었다고 기록하여 미농지 6장을 주었다는 서장의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137) 조엄, 『해사일기』4, 갑신년 2월 11일.

138) 통신사 일행은 1764년 2월 11일 처음 청견사에 방문하였다가 에도에 들른 후 3월 20일에 다시 청견사를 방문하여 남용익의 시에 차운하고, 김유성이 낙산사 화본을 그려주었다. 조엄, 『해사일기』4, 갑신년 2월 11일; 갑신년 3월 20일; 남옥, 『일관기』권8, 갑신년 3월 20일.

139) 조엄, 『해사일기』4, 갑신년 2월 12일.

새는 아래쪽을 응시하고 있다. 제3폭 <매조도>의 화면 좌측 상단에 “甲申春朝鮮國西巖寫 [金有聲]”이라 낙관하고 물골법과 비백으로 거칠게 뻗어 올라간 매화가지 위에 외롭게 앉은 새 한 마리의 아취를 잘 살렸다. 이들 화조화는 사생보다는 화보의 소재를 변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4폭 <낙산사도>는 “洛山寺, 甲申春朝鮮國西巖寫 [金有聲]”이란 낙관이 있다. 낙산사도는 T자형 소나무와 청록이 우거진 산을 미점준으로 묘사하였고, 침봉의 표현 등 정선과 관련한 화법이 산견된다. 세이켄지는 鰲山에 있는 절로 일본에서 유명하여 많은 통신사절이 이곳을 방문하였다. 이성린이가 그린 <청견사>에서도 진경은 큰 바다에 접하여 시계가 트이고 후경은 녹음이 우거진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낙산사와 유사한 풍광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세이켄지 소장 <금강산도>와 <낙산사도>는 김유성이 조선의 鄭歎派 진경산수화풍을 일본에 전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작품이다.

이상은 현존 작품 중 1764년 갑신년의 간지가 정확하게 있는 것으로 당시 사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그밖에 일본에 전하는 김유성의 작품으로 坤月軒, 兩足院 소장 작품과 개인소장 작품이 전한다. <표 2>에서 확인되듯 이들 작품의 관지에는 ‘甲申’이라는 간지가 없고, “小中華西巖”, “朝鮮(國)西岩寫”라 적혀 있거나 김유성의 인장만 있어 계미통신사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작품의 대부분은 사행 당시 그린 것이 아니라 사행 이후 일본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140)</sup> 그 이유는 화면 위에 일본 승려들의 찬문과 제시가 사행 후에 쓴 것이며, 대부분 견본에 그려진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개인소장 <산수도>는 제작년도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화면 좌측 하단에 “朝鮮西岩寫”라고 쓰여 있는 김유성의 작품이다. 화면에는 일본인 천태종 승려 敬雄(1713-1782)이 1779년 제시를 썼다.<sup>141)</sup>

鳥逼諸天聳 새는 흡사 신선처럼 높이 솟고  
江連三面波 강은 삼면의 파도에 맞닿았네.  
借問登臨去 올라가서 한번 물어볼까  
題詩何處多 제시는 어느 곳에 많은지.  
六十八翁 金龍杜多 백문방인[釋敬雄章], 주문방인[昭鳳] 68세 승려 김용

敬雄의 찬은 김유성이 도일한 지 15년 후로 김유성이 조선에 돌아간 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sup>142)</sup> 작품은 견본에 수묵담채로 묘사되었는데, 근경의 정자와 나무, 중경 강안의 사찰, 원경의 산으로 구성된 다소 정형산수의 평범한 인상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필법 상

140) 왜관에서 조선화의 求賢는 홍선표, 앞의 논문(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pp. 136-141.

141) 敬雄의 자는 昭鳳, 호는 金龍道人이다. 어려서 比叡山에 올라 천태종을 수학하고 에도 淺草의 金龍山 淺草寺에서 우거하여 평판이 높았다. 1748년경 일광산을 유람하였고, 39세인 1752년 下總 正安寺의 주지가 되었다. 그는 輪王寺宮公啓 法親王에게 각별한 충애를 받아 그의 간청으로 足立郡의 吉祥寺의 제25대 주지가 되었다. 敬雄은 통신사 南玉에게 시를 써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雨新庵詩集』 상권에 있다. 당시 相國寺 瞻長老의 추천으로 京都의 유학자 那波魯堂을 따라 통신사 일행을 수행하여 오사카와 에도 사이를 왕래하였다. 이후 1769년 그곳을 떠나 사망을 유람하다가 美濃安八의 善學院에서 조용히 제자를 양성하면서 70세를 일기로 여생을 마쳤다. 저서로는 『天台霞標』3권, 『金剛經助覽』, 『老子玄覽』 등의 저서와 『雨新庵詩集』, 『祇林詩材』, 『祇林聯芳』 등의 시집이 전한다.

142) 山内長三, 「金有聲と僧·敬雄」, 『韓國文化』34(1982. 7), pp. 33-34.

김유성 산수화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兩足院에 소장된 김유성의 작품은 모두 관지는 없고, 다만 화면에 주문방인으로 [峯朝秋], [金有聲印]을 찍어 비슷한 시기에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李賀騎馬圖>는 당나라 시인 李賀가 동자를 데리고 말을 타고 출유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경직되지 않고 간략한 담채와 담묵의 필치로 묘사하여 화면은 청정한 아취가 있다. 도상의 찬은 에도 중기 漢詩로 명성을 날린 천태종 승려 慈周(1734-1801)의 칠언시이다. 한편 <瀧山水圖>는 대기와 산수의 질감 표현에서 먹의 농담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경쾌한 필치로 묘사하였다. 화면 위에 찬은 相國寺 다이텐 겐초[大典顯常, 1719-1801]의 오언절구이다. 顯常은 池大雅와도 친교가 있었으며, 1781년 4월 幕府에서 對馬 嚴原의 以酏庵 輪番僧에 임명하여 1784년까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문서 작성을 담당할 인물이다.<sup>143)</sup>

壽老人은 장수를 관장하는 도교의 신선으로 일본에서 축수용 화제로 선호되었다. 兩足院 소장 <수노인도>(지분수묵담채)는 주문방인으로 [峯朝秋], [金有聲印]이 찍혀 있다. 수노인 외 에도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영지와 거북이를 그리고 경사면의 배경을 묘사한 점이 곤월헌 소장본과 차이를 보인다. 크고 대담한 농묵으로 묘사한 수노인의 의습선과 생동감 있는 먹의 농담으로 김유성의 기량을 잘 보여준다.

坤月軒 소장 <수노인도>(건본수묵)는 조선의 도석인물화풍을 잘 반영한 작품으로 낙관에서 “朝鮮西岩寫”라 쓰고 [金有聲印]이란 주문방인이 있다. 간결하면서도 빠른 농묵의 필선으로 작은 체구에 큰 머리를 한 전형적인 수노인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한편 坤月軒에 소장된 <蘭蝶圖>와 <墨竹圖>는 김유성의 사군자도로 주목된다. <묵죽도>는 “朝鮮國西岩寫 [金有聲]”의 낙관이 있으며, 화면은 청대 양주화파에서 많이 제작된 장축의 화면 구도에 길게 뻗어 오른 기운생동한 댓잎이 인상적이다. 특히 댓잎 끝부분을 위쪽으로 짧게 빼쳐 올린 점이 주목된다.

<난점도>는 “小中華西巖[有聲之印]”의 관지가 있고,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뻗은 석란이 시선을 확장시키고 묵난도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은 나비를 그린 점이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서 小中華는 조선을 가리키는 말로 일본에 대한 조선의 문화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개인소장 <花鳥圖> 역시 “小中華西巖 [有聲之印]”의 주문방인의 관지가 있어 <난점도>와 비슷한 시기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화사하게 핀 진분홍의 작약과 태호석이 어우러진 배경의 꽃가지에 앉은 한 쌍의 새는 화보풍을 연상시키는 소재로 전체적으로 화격이 높고 고아한 이미지를 보인다.

한편 大坂歴史博物館 소장 <月下高士圖>는 “朝鮮西巖[金仲玉印]”이라 하여 위의 작품들과 다른 인장을 사용하였다. 고사인물도의 일종으로 달밤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마주한 가운데 동자를 옆에 세우고 바위에 기대앉은 高士를 묘사하였다. 인물의 단아한 얼굴은 담묵의 선으로 처리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인물의 복식은 간결하면서도 빠른 농묵의 필치로 묘사한 점이 인상적이다.

위 작품들은 관지가 없어 재미통신사행 때 그린 작품이라 단정할 수 없으나, 화면에 선승들

143) 大典顯常은 일명 北禪竺常으로 日本 江戸中期 京都 禪林의 領袖였다. 俗姓은 今堀氏, 法名은 顯常, 字는 梅莊, 一名 淡海竺常이다. 道號는 大典, 別號는 蕉中, 東湖이며, 室號는 小雲栖, 北禪書院이다. 日本 臨濟宗 相國寺 第113世 住持로, <菴葭堂雅集圖>의 서문을 쓴 인물이기도 하다.

의 제시를 반영하거나 비교적 잘 그려진 작품들로 김유성의 대표작으로 손색이 없다. 또한 김유성의 도석인물화와 화조 및 사군자를 애호했던 일본인들의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품들이다.

<표 2> 일본 소장 김유성 작품 목록

작품명	재료	크기	소장처	관지	인장	
劉海戲蟾圖	지 본 수묵	30×44. 5cm	개인	甲申暮春朝 西巖寫	金有 聲印	
山水圖	모 각 관화	26.4×3 4.5cm	尼崎 市教 育委 員會	甲申暮春朝 鮮 西岩爲日本 邊瑛寫	仲玉, 金有 聲印	
雲龍圖	지 본 수묵	162.5× 55.0cm	순천 대학 교 박 물관	甲申暮春朝 鮮國 西岩寫	金有 聲	
《栖志帖》	견 본 채색	24.3×2 1.0cm	개인	1764년 성대중 제시 甲申暮春朝 鮮 西巖寫	金有 聲, 西巖	
《 山水 花鳥 圖押 繪帖 屏風 》	金 剛 山 圖	지 본 수묵	165.7× 69.9cm	清見 寺	金剛山皆骨, 一萬二千峰 未能盡畫 亦未能盡書, 甲申春 朝鮮國西巖寫	金有 聲
	花 鳥 圖	지 본 수묵	165.7× 69.9cm	清見 寺	甲申春朝鮮 國 西巖寫	金有 聲
	梅 鳥 圖	지 본 수묵	165.7× 69.9cm	清見 寺	甲申春朝鮮 國 西巖寫	金有 聲
	洛 山 寺 圖	지 본 수묵	165.7× 69.9cm	清見 寺	洛山寺, 甲申春朝鮮國 西巖寫	金有 聲
山水圖	견 본 수묵 담채	118.5× 49.3cm	개인	敬雄 제시(1799) 朝鮮西岩寫	金有 聲, 西巖	
李賀騎馬圖	지 본 담채	125.7× 54.7cm	兩足 院	慈周 제시	峯朝 秋, 金有聲 印	
滝山水圖	지 본 수묵	116.3× 51.5cm	兩足 院	大典顯常 제 시	峯朝 秋, 金有聲	

					印
壽老人圖	지 본 수 목 담채	110.8× 50.5cm	兩足 院	없음	峯朝 秋, 金有聲 印
壽老人圖	견 본 수목	85.5×2 7.0cm	坤月 軒	朝鮮西岩寫	金有 聲印
墨竹圖	지 본 수목	127.0× 27.0cm	坤月 軒	朝鮮西岩寫	金有 聲印
蘭蝶圖	지 본 수목	74.0×2 7.0cm	坤月 軒	小中華西巖	有聲 之印
花鳥圖	견 본 담채	111.8× 43.4cm	개인	小中華西巖	有聲 之印
月下高士圖	견 본 수목	103.0× 37.0cm	大坂 歷史 博物 館	朝鮮西巖	金仲 玉印

김유성이 통신사행에서 교유한 인물 중 한일 회화교류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예도 중기를 대표하는 남화가 池大雅(1723-1776)이다.<sup>144)</sup> 타이가는 16세부터 문인화의 이념과 화법을 일본 문인의 선구자였던 야나기사와 키엔[柳澤淇園]의 지두화에서 전수받았다.<sup>145)</sup> 1748년 26세의 타이가는 스승 키엔이 京都에서 大津까지 통신사 접대를 책임진 群山藩의 藩主 松平美濃守의 증신으로 교토 本國寺에서 조선통신사와 만났을 때 동행하였다.<sup>146)</sup> 또한 1763년 겨울 화원 김유성이 그림 그리는 장면을 친견할 수 있었다.<sup>147)</sup> 타이가는 귀로에 김유성을 다시 만나려 했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고 후지산의 화법을 묻고 서화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삼가 아뢰입니다. 저 無名[지대아의 이름]은 지난 겨울 다행히 선생님을 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충애를 입었으니 다행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다만 [그림에 대한] 高論을 듣지 못해 유감스러웠으나, 바로 곁에서 선생님 휘호 묘필을 보고 지극히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없는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신묘한 채색은 더욱이 제 눈을 트이게 한 듯 뜻밖에 여운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다시 그림 한 폭을 보고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행 회정에 추위와 더위에 옥체는 편안하시고 잘 가고 계시는지요. 저 無名은 모든 일이 분분하여 달려가 맞이하는 예를 차리지 못하고 하례하는 말로 짧은 서신을 올리니, 송구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머리 숙여 간절히 절합니다.

다시 아뢰건대, 일본 스루가슈[駿河州]에는 후지라는 이름의 산이 있습니다. 지역 풍속은 후지산의 그림을 구하기 좋아합니다. 옛 화가들이 [후지산을 그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색 구름

144) 타이가는 초년기부터 京都 宇治의 黃蘗山 萬福寺에서 黃蘗宗 승려들과 인연을 지속하였는데, 특히 중국문화의 생생한 보고인 만복사에서 중국화를 감상할 기회를 얻었다. 또한 기운 난카이[祇園南海, 1676-1751], 야나기사와 키엔[柳澤淇園, 1704-1758] 같은 초기 남화가로부터의 영향과 함께 長岐에서 잠깐 살면서 들어오는 선박에서 적재한 목판화보류를 통해 중국 남중화를 배워 화가의 업을 시작하였다. 중국화를 일본전통의 大和繪, 琳派와 새롭게 유입된 서양화의 표현법을 취하여 독자적인 화경을 이루었다. 분방한 필선, 명쾌한 색채감각, 원근감 있는 공간 표현 등 개성을 발휘하여 당시 문인화단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

145) 原念齊, 『先哲叢談』卷6, 祇園南海.

146) 홍선표, 앞의 논문(한국미술연구소, 1998), p. 194.

147) 구체적인 장소는 알 수 없으나, 1763년의 일정 상 筑前州 藍浦와 長門州 赤門關 사이 노정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으로 산의 용태를 그려 녹색으로 도포하고, 정상은 세 군데 흰색을 칠하여 사철 눈이 쌓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발목 운염하여 완전히 접은 부채살 같습니다. 가벼운 방편만 취하여 기교 삼는 이유로 따라하는 이는 실로 이 두 방식에 의거할 따름입니다. 만약 저 동원, 거연의 逸格 같다면, 적당한 무슨 준법을 사용한 건가요? 저희는 어느 곳에 붓을 댈지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 고견을 주시어 어리석은 의혹을 해소해 주신다면 이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엿드려 바라옵고 바라옵니다.

돌아가시는 길이 평온해져 해안까지 잘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선생님이 표연히 흥이 올라 小景을 그려 아사오카[淺岡]氏が 저에게 전달하게 해준다면 너무 감격하여 절하고 절할 것입니다. 지난번 객관이 번잡하여 寫字官에게 감히 구청할 수 없었는데, 두 분[사자관]의 목표를 얻은 친구가 측은히 여겨 나누어 주어 상자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야인으로 배우지 못하고 부끄러워 땀만 흐르니 글로 어찌 뜻을 다 표현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잘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머리 숙여 池無名은 절합니다. 서암 김 대선생 案下.<sup>148)</sup>

위 서신에서 池大雅는 1763년 겨울 김유성이 그림 그리는 것을 가까이서 친견하고 그에 대한 감동을 절절히 전달하고, 중국 남종화풍의 원류라 할 수 있는 오대 남당의 화가 동원과 거연의 화격으로 후지산을 표현한다면 어떤 준법을 사용할 것인지 매우 간절하게 질문하였다. 또한 소경이라도 그려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는 일본 남화가 타이가의 남종산수화법에 대한 탐구 자세와 새로운 화풍에 대한 창작 의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타이가 전후시기 또는 당대 일본 화가들이 그린 후지산은 永靑文庫 소장 傳 雪舟(1420-1506)의 <富士清見寺圖>와 與謝蕪村(1716-1784)의 <松林富嶽圖>, 月僊(1741-1809)의 <富嶽圖> 등에서 볼 수 있듯 산 중턱에 연무가 피어오르고 산 정상에는 사철 적설이 있어 후지산을 그릴 때 흰색으로 칠하거나 특별한 준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타이가는 전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경험한 자연관을 살려 일본 실경을 실감나게 묘사하여 주목받았다. 그는 26세를 시작으로 후지산을 적어도 3차례 이상 올라 30점 이상의 富士圖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49)</sup> 김유성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알 수 있듯 타이가는 당시 일본 화가들이 구름으로 산의 용태를 그리거나 운염법으로 표현하던 도식적 화법에서 벗어나 후지산을 그릴 때 동거과의 준법을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를 고민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김유성의 답신을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타이가의 후지산 그림에도 이러한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개인소장 지본담채본은 후지산을 묘사할 때 특별한 준법 없이 먹의 운용으로 부분적인 변화를 주었다면, 지본수묵본은 주로 설산 아래 군소 산 묘사에 미점을 적용하였는데, 마치 동원의 <한림중정도>의 산 능선에 부분적으로 사용한 미점준과 근경의 소나무는 한림을 연상시키는 구도이다. 한편 견본채색본은 거연의 <충암총수도>에서 보이는 흙덩이를 몽친 듯한 攀頭皴를 산자락에 적용시켜 후지산을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준법을 시도하

148) 謹啓. 僕無名客冬幸得拜謁先生, 殊辱雅愛, 喜幸何已. 只憾不親蒙高論, 然者至得傍觀先生揮毫之妙, 復何幸乎過之哉. 神彩尙如射眼, 意外暗覺餘響, 更眼片幅寔難得矣. 今也文旆廻輝, 長途寒暖, 貴體安泰, 萬福萬福, 僕無名塵事紛紛, 奔迎失禮, 賀言聊奉短楮, 多罪之至, 頓首再拜. 再啓. 弊邦駿河州有山名富士, 方俗喜乞其圖畫, 古畫家有二式, 其一則設色鉤出山容, 飽塗大綠, 最巔三朵單着白粉, 蓋容貌四時積雪也. 其一則潑墨暈起刷成, 宛似摺扇樣, 唯取輕便, 以爲工也, 故擧者悉據此二式而已. 若彼董巨之逸格, 則的當何等皴法施之乎. 僕輩不知下手, 幸得賜高論發開愚惑, 欣躍無涯, 伏冀伏冀, 更願星槎平穩, 海岸呈碧, 時先生飄然乘興一揮毫小景, 幸得懇誠, 淺岡公傳達於僕, 復更感拜多多, 想客館繁雜, 不敢強乞向寫字, 二公墨妙友生憐分贈, 篋裏頓生清輝矣. 野人不學, 慙愧汗面, 書何盡意, 先生請爲良察, 頓首頓首, 池無名拜. 西巖金大先生案下. 고바야시 유코, 「池大雅 산수표현의 추구」, 『미술사논단』4(한국미술연구소, 1996), p. 273; 辛基秀, 「瀬戸内の海上ペ-ジェントと江戸の通信使」, 『大系 朝鮮通信使』(明石書店, 1994), pp. 90-92 참조.

149) 고바야시 유코, 위의 논문, pp. 256-257.

였음을 알 수 있다.

## 2. 別畫員 卞璞의 활동

화원 金有聲과는 별도로 변박은 게이년 통신사행의 제3기선의 騎船將으로 참여하였다.<sup>150)</sup> 변박은 동래에 거주하던 인물로 게이통신사행이 있기 3년 전인 1760년 <부산진순절도>와 <동래부사순절도>를 모사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고,<sup>151)</sup> 시에도 능하여 정사 조엄에게 서화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1764년(영조 40) 1월 24일 사행이 오사카성에 머물 때, 三騎將 卞璞을 都訓導와 교대시켜 에도까지 수행하게 했던 것도 그가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이다. 통신사가 來日하면 일본 현지에서 필요한 그림을 모사하거나 일본인들에게 서화를 요구 받았는데, 수행화원 김유성과 그림 그리는 일을 나누어 분담시키기 위해 別畫員으로 대동한 것이다.

통신사행에서 변박의 활동은 주로 조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1763년(영조 39) 10월 10일 佐須浦에 정박할 때, 쓰시마 지도와 일본지도 印本을 模寫하였다. 1764년(영조 40) 1월 27일 오사카의 淀浦에서 유숙할 때, 조엄은 성 밖에서 물레[纜車]와 같은 모양의 水車 2대로 성 안으로 물을 보내는 것을 보고, 別破陣 許圭와 都訓導 卞璞을 시켜 그 제도와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림으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엄은 변박을 시켜 수륙의 각 站을 지날 때 명산대천 중에 좋은 풍경을 골라 그리게 하였는데, 그 초본이 미처 완성되지 못한 것이 많아 1764년(영조 40) 6월 8일 회정 중 壹岐島에서 자세히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변박이 그린 노정의 초고는 당시 통신사행의 전체 노정을 그린 李聖麟의 《槎路勝區圖》와 같은 형식의 화첩을 제작하기 위한 초고 작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사행에서 화원이 참여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는 막부 장군이 참관하는 자리에서 그림 그리는 일이었다. 사자관과 화원의 서화 試才 행사는 마상재가 있는 날 함께 이루어지며, 이때 노고로 받은 예단을 은자로 분배할 때, 변박도 寫字官 2명·畫員 김유성과 함께 각 5枚의 은자를 분급 받은 점에서 이날 시재에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변박이 그림을 그린 대가로 공식 화원인 김유성과 같은 량의 은자를 분급 받았다는 점은 그가 김유성과 동급의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소재한 변박의 현존 작품에는 <송하호도>와 세이켄지에서 쓴 「題淸見寺用前韻」이 남아 있다. 大阪市文化財協會 소장 <松下虎圖>는 일본에서 벽사용으로 선호하던 화제이다. 화면 왼쪽으로 치우친 소나무 가지가 건필로 거칠게 뺀어 절파적 요소도 부분적으로 간취되며, 수묵으로 가볍게 호랑이의 자태를 묘사한 유려한 묵선은 변박의 영모화 수준을 잘 보여준다

150) 그는 동래부에서 치안이나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武廳인 將官廳 千摠, 別軍官廳 軍器監官과 行首, 守堞廳 別將, 教鍊廳 등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통신사행에 기선장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동철, 「왜관도를 그린 변박의 대일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19(한일관계사학회, 2003), pp. 52-54.

151) 洪名漢의 동래부순절도 서문에는 동래부 옛 순절도가 있었는데, 마침내 동래에 거주하는 변박으로 하여금 繼摹하여 새로 장황하게 하였다고 하여 원래 있던 순절도를 변박이 새로 모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83년(정조 7)에 제작한 <倭館圖>는 「歲癸卯夏寫[述齋], [卞璞]」이라는 그의 관지가 있는 작품으로 진경의 사생이 매우 정교한 작품으로 주목된다. 그밖에 『古畫備考』의 조선서화전에 의하면, 林東觀의 題讚이 있는 그의 산수화가 유전된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변박의 화풍과 상관성이 제기되는 작품이 동래부사의 倭使接대 광경을 그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東萊府使接倭使圖屏》 2점이다. 두 작품 모두 화면에 1813년(순조 13) 동래읍성 서쪽 성 밖에 이진된 郷校가 선명하게 나타난 점에서 작품의 제작시기를 적어도 1813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어 그동안 정선으로 추정되던 작자문제는 재고의 여지를 남긴다. 『忠烈祠志』 권8, 「本府殉節圖序」(민학사, 1978), pp. 142-143; 신남민, 「東萊府使接倭使圖屏 研究」(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 44-49.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작품은 변박의 호 述齋와 [述齋]라는 관지만 있어 당시 계미통신 사행에서 그린 것이라 단언할 수 없으며, 일본인들의 求貨品의 일종으로 일본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유사한 사례로 현재 高松市 法然寺에 소장된 <柳下馬圖>는 뒷면에 “歲己亥初夏 東華述齋寫”라고 부기되어 1779년에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래에서 왜관을 통해 일본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52)</sup>

세이켄지는 1607년과 1624년 통신사의 관소로 사용되었으나, 후에는 도중 휴식처가 되었다. 따라서 통신사와 관련된 시고 편액과 통사사 일행의 시문을 집성한 『朝鮮國通信使詩文帖』 등 통신사와 관련한 문화재가 다수 소장되었다. 1764년 통신사절이 쓴 제시와 필담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주목되는 것이 변박의 시 「題淸見寺用前韻」이다.

地接三山界 땅은 삼산 경계에 접하였고,  
 天低萬里波 하늘은 만리 파도에 닿았네.  
 禪家元勝絕 절은 원래 경치 빼어나  
 槎客暫經過 사절이 잠시 지나니  
 詩意春花在 시의는 봄꽃에 있고  
 羈愁夕照多 나그네 근심은 석양에 포개지네.  
 徘徊還惜別 배회하다 돌아와 석별하니  
 惆悵更如何 슬픔을 다시 어찌하리.  
 歲甲申暮春 東華 述齋 卞璞 琢之 走稿, [述齋] [卞璞] [琢之]

이 작품의 낙관에는 “歲甲申暮春 東華 述齋 卞璞 琢之走稿”라고 적고, [述齋] [卞璞] [琢之]라는 주문방인을 차례로 찍어 변박의 자 琢之, 호 述齋가 명확하게 기록되었다. 특히 변박이 이 제시를 과거 통신사절의 청견사 운에 따라 급하게 지었다고 했던 점에서 그의 詩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술관 남옥의 『日觀記』 사행원의 座目에서 종사관 기선장 변박 옆에 술재라는 호를 부기하고, 그림과 시로 이름났다고 기술한 점에서도 확인된다.<sup>153)</sup>

### 3. 卞琢과 新山退甫의 『韓客人相筆話』

변박과 卞琢(1742-?)은 동래에 거주하던 밀양 변씨 집안의 인물로 두 사람 모두 그림에 재능이 있었으며, 각각 기선장으로 활동하였던 점에서 자칫 동일 인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선행논고에서는 변탁과 변박을 동일 인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sup>154)</sup> 이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조엄 『해사일기』와 남옥 『일관기』의 사행 좌목에서 두 인물을 별개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동래 將校 卞琢은 정사 조엄이 동래부사로 있을 때 신임했던 인물로, 그 사람됨이 매우 영리하여 격군으로 데려왔다고 밝히고 있다.<sup>155)</sup> 따라서 변탁은 조엄의 신임으로 사행에 참여

152) 김동철, 앞의 논문, pp. 58 <표 2> 변박의 작품 목록 참조; 18세기말이나 19세기 일본인들의 구무품으로써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동래에서 활동하는 화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洪善杓, 앞의 논문(한국미술사학회, 1979).

153) 남옥, 『일관기』권1, 범례 「좌목」.

154) 이원식, 『조선통신사』(민음사, 1991), p. 252. 이후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이원식 선생의 주장에 따라 변박과 변탁의 호와 자를 혼용하여 동일인물로 간주하고 있다. 김동철, 앞의 논문, p. 50; 서윤정, 앞의 논문, p. 28.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엄은 1763년 11월 사행 도중 사망한 제2복선장 俞進元을 대신하여 직책을 옮긴 제2기 선장 金澗河의 자리로 변탁을 代任하게 하였다. 만약 변박과 변탁이 동일인이라면, 이미 제3기 선장을 맡은 변박을 제2기 선장으로 올린 상황에서 당연히 제3기선장도 대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변박은 시종일관 제3기선장의 직책을 맡았으며, 통신사행원 좌목에서도 두 인물은 별개의 직책으로 언급되어 서로 다른 인물이 분명하다.

변탁은 1764년(영조 40) 통신사행 때 오사카 객관에서 觀相家인 니야마 다이호와 만났는데, 『韓客人相筆話』를 통해 그의 생년과 신변 정황을 추정할 수 있다.

1764년 3월 상순 내[니야마 다이호]가 오사카의 쿠조시마[九條島]를 유람할 때 배를 정박하고 한 객을 만나 필담하였다. 선장 변탁의 자는 성지, 호는 형재, 23세이다. 내가 말하길, ‘준아한 골격에 청수한 미목으로 초년운이 통달하였고, 또한 재예와 기교가 짝하였습니다. 양 눈썹 사이가 좁아 신기가 통하지 않고 혈색이 파리하게 막혔으니, 아마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나이가 들어 자식이 없고, 몸은 숙질을 달고 살겠습니다.’ 변탁이 말하길, ‘한번 지나는 길에 이와 같이 후의를 베푸니 감사하오. 내 본디 숙질이 있으니 이것 또한 운명이구려. 지금 부친은 살아계시고 모친은 돌아가셨소. 네 살 된 동생은 있으나, 나는 아직 자식이 없소. 혹 아들이 생기겠소?’ 하고 물었다. 내가 말하길, ‘설사 아이가 있더라도 기르기가 힘들 것입니다.’ 형제가 내게 읊하며 말하길, ‘훗날 다시 뵈 수 있다면 이보다 큰 행운이 없겠습니다.’” 하였다.<sup>156)</sup>

니야마 다이호의 『한객인상필화』에서는 “船將 卞琢 字成之, 號荊齋, 二十三齡”이라 적고 있어 1742년생이며, 자는 성지, 호는 형재임을 알 수 있다. 변탁은 재예와 기교를 갖추었으나, 지병이 있었으며 슬하에 아들이 없는 것을 걱정하였다. 이후 3월 하순 九條島 부두에서 니야마 다이호를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귀로까지 별탈이 없을지 묻고, 후에 그림을 그려 다메미쓰를 통해 니야마 다이호에게 보낼 것을 약속하였다.<sup>157)</sup> 여기서 자신의 그림을 니야마 다이호에게 보낼 것을 약속한 점에서 그가 그림을 잘 그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변탁의 작품 중에는 “朝鮮國荊齋[成之]”라는 관지가 뚜렷한 <목죽도>가 있다. 앞서 변박의 관지와 비교하였을 때, 짧게 끊어지는 듯한 필체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유덕장의 목죽도 영향이 간취되는 통죽과 세죽의 가지는 담묵으로 부드럽게 처리하고 댓잎은 빠른 농묵으로 처리하여 대조를 이룬다. 하단의 아래쪽에서 위로 조밀하게 뻗은 댓잎은 화면에서 안정감을 주며, 위쪽 가지에서 강한 필획으로 뻗어 내린 댓잎은 생동감을 준다. 변탁이 재예를 갖추었다고 했던 니야마 다이호의 말처럼 그의 화격을 대변하는 작품임에 틀림없다.

## V. 결 론

155) 조엄, 『해사일기』 2, 계미년 11월 1일; 三使一行錄.

156) 新山退甫, 『韓客人相筆話』, 甲申春三月上旬余遊九條嶋, 就舶中而相鑿韓客筆話, 船將卞璞 字成之, 號荊齋, 二十三齡, 退相之曰, 俊雅之骨格, 清秀之眉目, 主初運通達, 又爲才藝機巧之相, 但印堂窄狹, 神氣鬱鬱, 血色青滯, 恐早年剋父母, 歲欠子息, 身軀抱宿疾. 荊齋曰, 一時歷路若是之厚誼, 多謝多謝, 僕素有宿病, 此亦命耶, 今父存母沒, 而有四歲一弟, 僕尙無一子, 或有生男耶. 退曰, 縱有育兒亦難養, 荊齋揖吾曰, 後日若得更拜則, 幸莫大也.

157) 新山退甫, 『韓客人相筆話』, 荊齋曰, 僕雖不善寫, 後當畫呈于五日所新五郎公前, 爲此笑頷, 如何. 退曰, 誠爲厚誼, 多謝多謝, 永爲家珍.

본고에서는 재미통신사행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제작한 賓禮 관련 기록화와 당시 통신사절의 기록 및 현존 작품을 근거로 통신사행에서 화원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재미통신사행의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재미통신사행에 대한 빈례 관련 기록화와 일본 문인들과 시문수창이나 서화를 통한 문화적 교류의 결과물은 일본 현지에 다수가 남아 있다. 빈례 관련 기록화는 주로 사행노정을 그린 일본지도, 入港 行렬도, 숙소 도면, 船橋 등 통신사 영접과 관련하여 해당 노정을 관할하던 藩에서 제작한 것이 다수이다.

또한 통신사 행렬도를 묘사한 방각본과 필사본이 전하여 당시 통신사행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일본 남화가 池大雅가 김유성 화의를 따라 그린 지두화풍의 행렬도권은 일본에서 제작된 다른 행렬도권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예이며, 타이가가 김유성에게 남긴 서신과 함께 그들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 주목된다.

劉維翰 『東槎餘談』, 사와다 도소 『傾蓋集』, 니야마 다이호 『韓客人相筆話』 등 교류 문인들의 문집 내에 통신사절의 개인 초상화가 삽입되어 해당 인물의 신상 정보와 화상찬을 적어 인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화보풍에 의지한 산수, 초목, 영모화에 비해 각각의 문집에서 등장하는 동일 인물이 서로 다른 인상으로 묘사되어 인물은 전혀 꺾진하지 못하다고 했던 남옥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인상을 준다.

한편 통신사행에 동행한 畫員 金有聲과 別畫員 卞璞, 그리고 卞琢의 그림이 일본에 현존하여 이들의 화풍을 고찰할 수 있다. 일본에 현존하는 김유성의 작품은 재미통신사행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 작품이 총 5점 정도이며, 이들은 막부 장군을 비롯한 통신사 접대와 관련된 大名 및 고관들이 초대된 장소, 통신사의 거점이 되는 객관과 휴식처, 그리고 연로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나머지는 작품 대개가 사행 이후 접반승이 쓴 제시가 있고, 견본에 그려진 점을 감안할 때 구무품으로 일본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까지도 선행 연구에서 별화원 변박과 변탁을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통신사행의 좌목과 현존 작품에서 사용된 이들의 자와 호의 차이에서 별개 인물임을 명확히 하였다.

## <참고문헌>

### 1. 문헌

姜弘重, 『東槎錄』

南 玉, 『日觀記』

新山退甫, 『韓客人相筆話』

原念齊, 『先哲叢談』

元中學, 『乘槎錄』

李景稷, 『扶桑錄』

李德懋, 『靑莊館全書』

丁若鏞, 『茶山詩文集』

趙 曠, 『海槎日記』; 『(國譯)海行摠載』, 민족문화추진회, 1974.

## 2. 국문·영문 논저

- 고바야시 유코, 『池大雅 산수표현의 추구』, 『미술사논단』4, 한국미술연구소, 1996.
- 김경숙 역, 『승사록-조선 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 김동철, 「왜관도를 그린 변박의 대일교류 활동과 작품들」, 『한일관계사연구』 19, 한일관계사학회, 2003.
- 김보경 역, 『일관기-붓끝으로 부사산 바람을 가르다』, 소명출판, 2006.
- 김영남, 「기무라켄카도(木村兼葎堂, 1736-1802)의 繪畫 研究」, 『미술사학』21,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7.
- 김의환, 「趙嘏이 본 18世紀 後半期の 日本社會와 朝日關係」, 『玄岩 中國柱博士華甲紀念 韓國學論叢』, 동국대학교출판부, 1985.
- 박윤희, 「이케노타이가의 문인화에 대한 이해와 실제」, 『미술사학연구』255, 한국미술사학회, 2007.
- 박진한, 「享保-寬政改革期 江戸幕府의 검약정책」, 『동방학지』13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 배우성, 「정조시대 동아시아 인식과 <해동삼국도>」, 『정조시대의 사상과 문화』, 돌베개, 1999.
- 서윤정, 「1764년 通信使의 繪畫活動과 그 交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신남민, 「東萊府使接倭使圖屏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안휘준, 「韓日 繪畫關係 1500年」, 『조선통신사』, 국립중앙박물관, 1986.
- 오상학, 「조선시대의 일본지도와 일본인식」, 『대한지리학회지』38-1, 대한지리학회, 2003.
-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 정 민, 「《동사여담》에 실린 이연진의 필담 자료와 그 의미」,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 정은주, 「正徳元年(1711) 조선통신사행렬회권 연구」, 『미술사논단』23, 한국미술연구소, 2006.
-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靜岡市 共編, 『세이켄지 소장 조선통신사 유물도록』, 2006.
- 하우봉,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 研究』, 一志社, 1989.
- 홍선표, 「十七·十八世紀의 韓日間 繪畫交涉」, 『고고미술』143·144, 한국미술사학회, 1979.
- \_\_\_\_\_, 「조선 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과건과 역할」, 『미술사학연구』205, 한국미술사학회, 1995.
- \_\_\_\_\_, 「조선 후기 통신사 수행화원의 회화활동」, 『미술사논단』, 한국미술연구소, 1998.
- \_\_\_\_\_, 「에도시대의 조선화 열기-일본통신사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
- Burglind Jungmann, Ike Taiga's Circle and Korean Embassies, *Painters as Envoy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3. 일문 논저

- 郷司泰仁, 「寶曆度朝鮮通信使の畫員金有聲について」, 『青丘學術論集』23,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2003.
- 辛基秀, 「瀬戸内の海上ページェントと江戸の通信使」, 『大系 朝鮮通信使』, 明石書店, 1994.
- 高久智廣, 「近世兵庫津における繪圖制作と都市空間の把握」, 『兵庫津の綜合的研究』, 大手前大學史學研究所, 2008.
- 仲尾 宏, 「寶曆度通信使とその時代」, 『大系 朝鮮通信使』, 明石書店, 1994.
- 貫井正之·毛井正勝·小出裕, 「江戸時代、朝鮮通信使の基礎的研究-特に東海地方(岐阜県·愛知県·静岡県)を中心にして」, 『青丘學術論集』18,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2001.
- 藤塚 鄰, 『清朝文化の東傳研究』, 國書刊行會, 1975.
- 山内長三, 「金有聲と僧·敬雄」, 『韓國文化』34, 1982. 7.
- 吉田宏志, 「朝鮮通信使に隨行して來日した畫員, 金有聲について」, 『朝鮮通信使展: 江戸時代の善隣友好』, 常葉美術館, 2004.
- 『朝鮮王朝의 繪畫と日本-宗達, 大雅, 若冲も學んだ隣國の美-』, 読売新聞大阪本社, 2008.

## <癸未(1763) 通信使行 관련 繪畫 研究>에 대한 토론문

유 순 영(홍익대)

癸未通信使行은 당시 수행화원이었던 金有聲과 卞璞의 회화활동 및 일본의 대표적인 서화가인 이케노 타이가(池大雅)와 기무라 겐카도(木村蒹葭堂)와의 서화교류 등으로 미술사에서도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정은주 선생님께서는 재미통신사행과 관련한 회화의 전반적인 양상, 즉 일본인이 제작한 賓禮관련 회화, 통신사행렬도, 통신사절의 초상화와 수행화원인 김유성과 변박의 회화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시기 한일 양국의 화가들에 의해 제작된 회화작품과 시각문화 전반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통신사 관련 회화연구가 수행화원의 회화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한일양국을 아우른 시각은 이 분야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발표문을 근거로 네 가지 질의를 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인이 그린 나고야시 코우쇼우지(興正寺) 소장 《韓使來聘圖》는 제작시기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재미통신사행에 참여한 통신사의 관직과 이름을 기록한 『韓客一行座目』과 함께 남아있어 이시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지적한 바와 같이 고개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 파도치는 해안을 지나가는 모습, 자유로운 인물의 행동 묘사는 기존의 육로행렬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색적인 표현이다. 에도성에 입성하기 이전의 道中行列을 그린 것으로, 이시기 제작된 통신사를 소재로 한 회화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작품으로 생각된다. 이 작품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기에 그려진 《道中行列圖》와의 비교검토가 요구된다. 기존에 연구하신 정덕원년(1711) 《通信使行列圖卷》중 《도중행렬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행렬의 여정과 순서, 인물 및 기물 표현 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 재미통신사행의 수행화원인 김유성과 南畵의 대성자 이케노 타이가의 교류는 한일회화교류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일본에 유전하는 김유성의 작품과 교류의 내용을 잘 정리해주셨는데, 실제 김유성의 화풍이 이케노 타이가의 작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이케노 타이가의 <風雨起龍圖>(1746), <大佛閣圖>(1750년대), <兒島灣眞景圖>(1760년대)에 보이는 가로로 된 미점을 사용하여 산의 입체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김유성이 渡日시 제작했던 <낙산사도>, 坤月軒 소장 <산수도>와 상통하는 기법이며, 정선과 김유성을 비롯한 조선의 진경산수화와 비교되는 면모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궁금하다.

셋째, 卞璞은 재미통신사행시 제3기선의 騎船將으로 참여하여 김유성과 화사를 분담하며 別畫員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런데 조엄의 『해사일기』에 卞琢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두

사람을 동일인물로 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견해가 개진되기도 했다. 발표자는 일본에 소개한 변박의 작품과 남옥의 『일관기』의 사행원 좌목을 근거로 변박의 호는 述齋이고, 『韓客人相筆話』에 기록된 卞琢의 호는 荊齋로 두 사람을 다른 인물로 비정하였다. 또한 변박은 계속 제3기선장의 직책을 맡았고, 변탁은 제2기선장의 자리를 代任했으므로 다른 인물라고 하였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왜관도>에는 변박의 인장과 함께 변탁의 호를 밝힌 荊齋라는 인장이 함께 찍혀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재미통신사행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화가들이 제작한 회화작품의 규모와 내용, 한일서화가들의 교류는 그 이전의 통신사행에 비해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묻고자 한다. 일본인 화가가 그린 통신사 관련 회화의 범위와 수준은 이전 시기에 비해 어느 정도이며, 이시기 한일서화가들의 교류에 보이는 특징적인 양상이 무엇인지 지적해주시길 바란다.